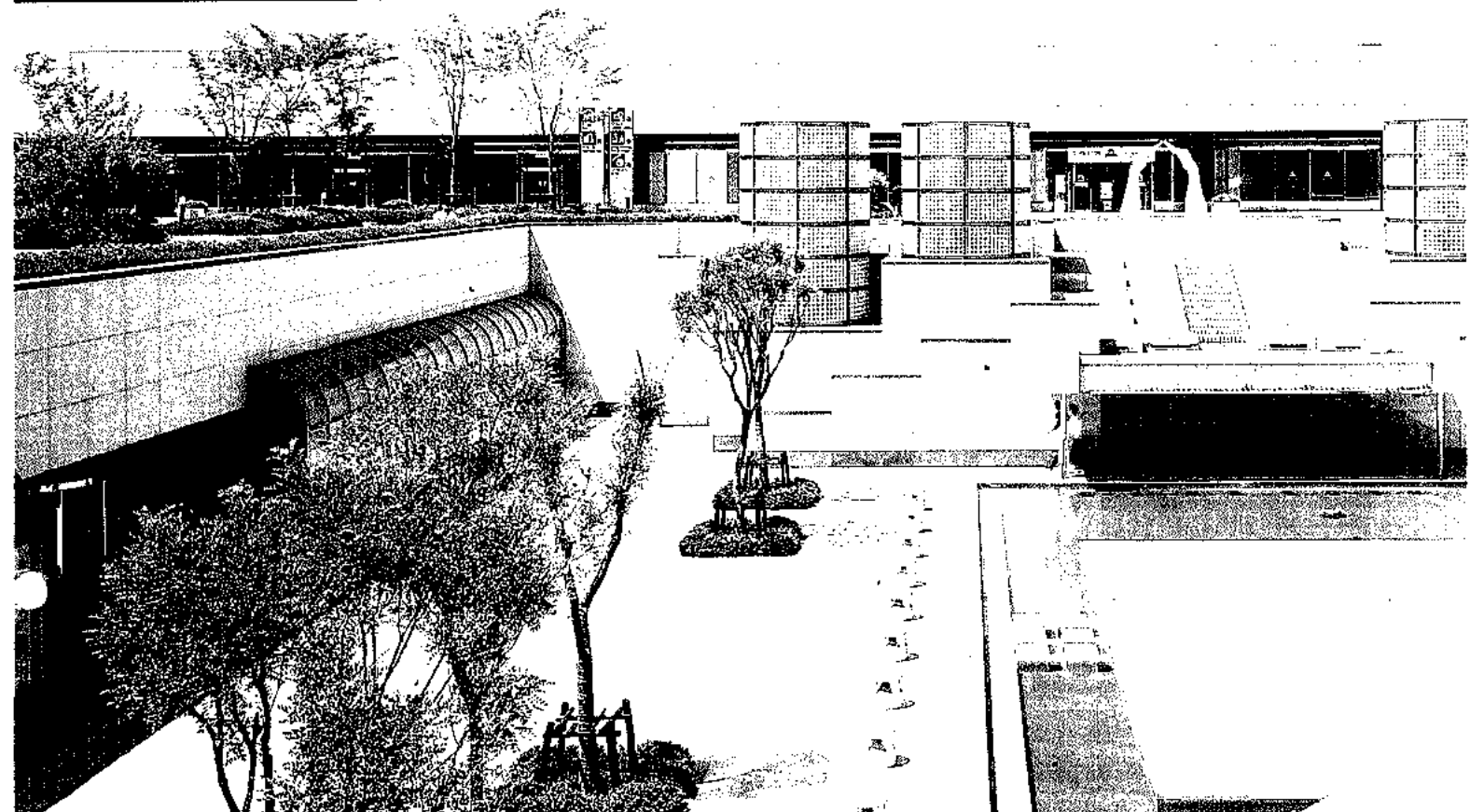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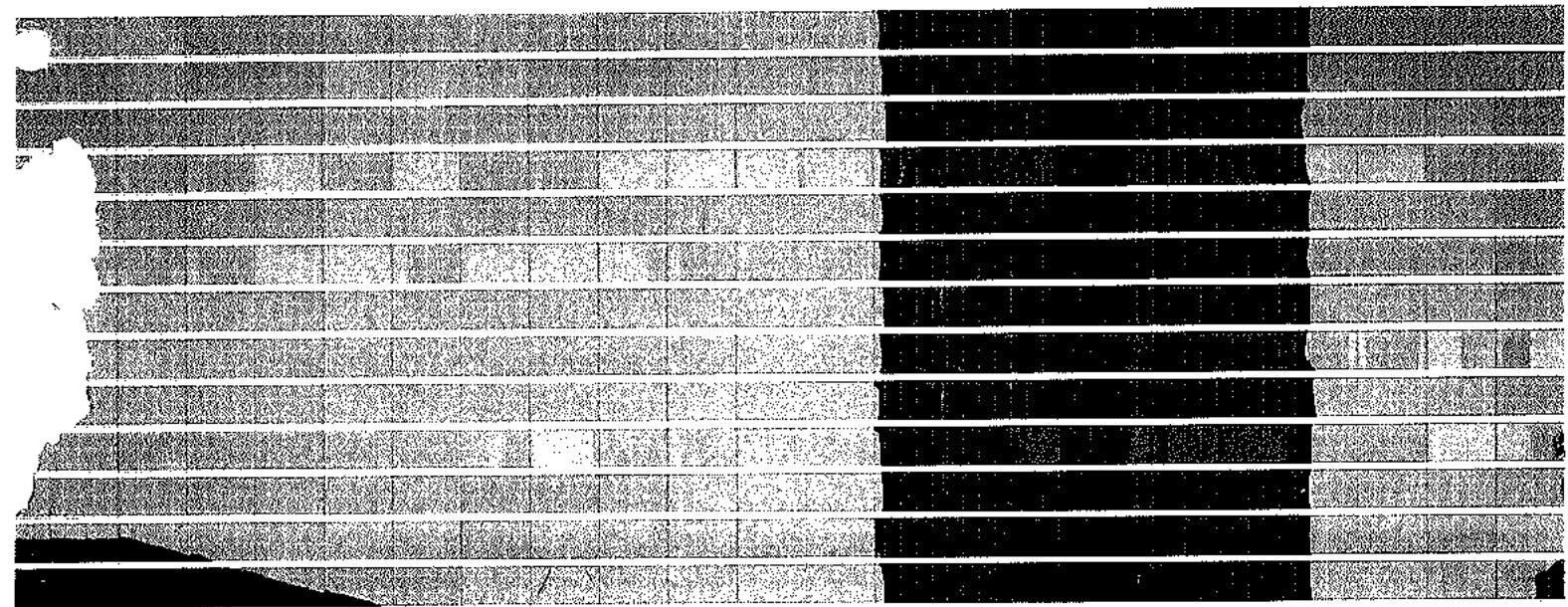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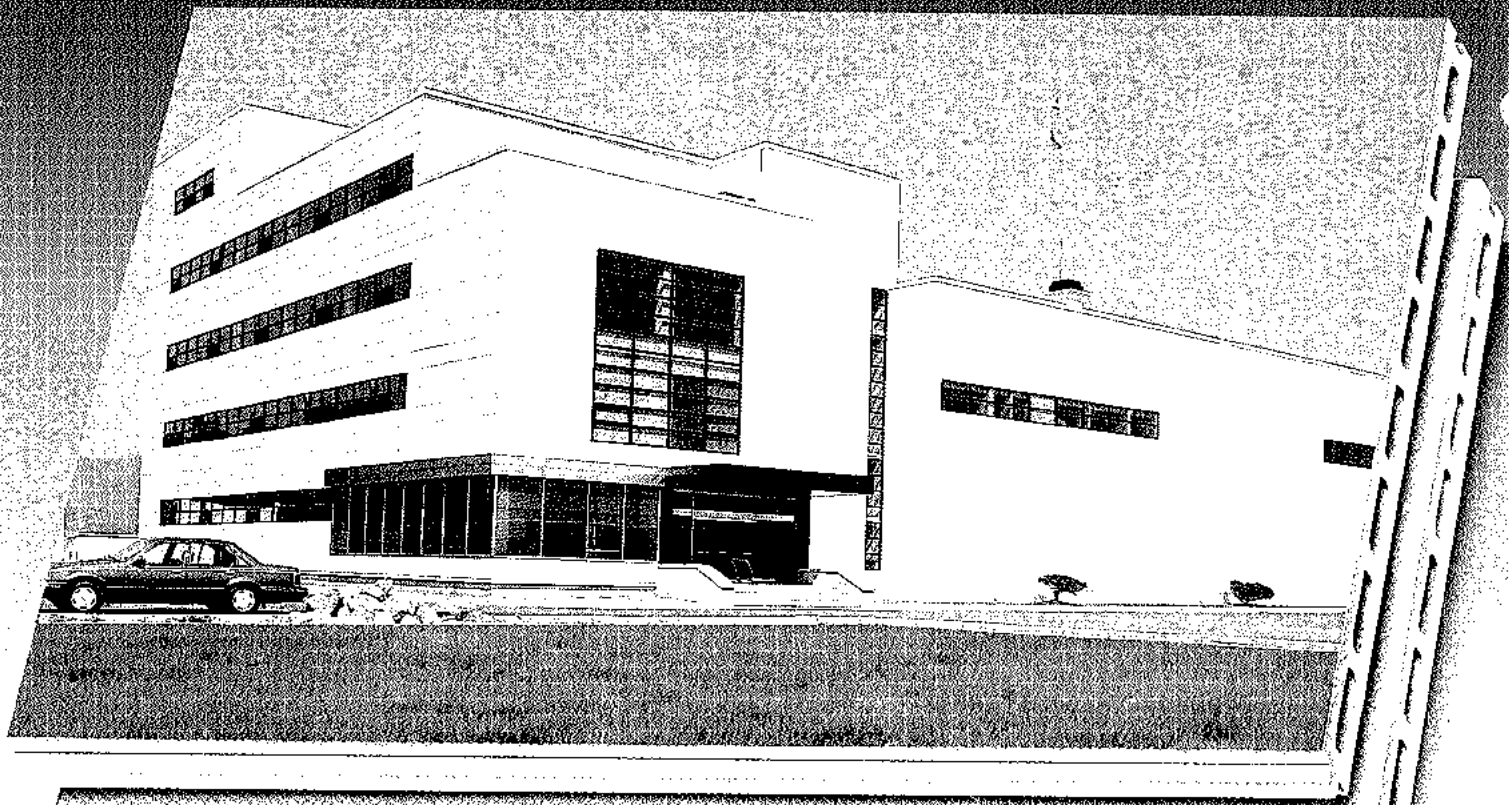


建築士

■ 등록 / 1967년 1월 28일 ■ 등록번호 / 제1호 (25)
■ 1985년 12월 31일 제 2호까지 등록 (41)급 인가 ■ 무면번호 / 137-070
■ 1989년 7월 13일 발행 ■ 통권 243호 ■ 발행 / 대한건축사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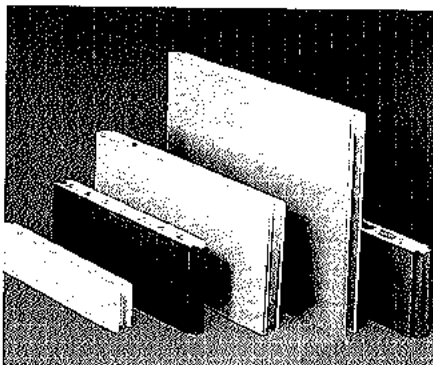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건일약품 GMP 공장 ● 설계·감리 / □ 正原 綜合建築士事務所

미려한 건축물을 계획하신다면 베이스판넬을 선택하십시오.



베이스판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²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 / 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의 압출제품

벽산 베이스

● 제품·시공문의상담 / 273-9211~9 (구내281) 베이스사업부

전문시공업체/고려엔지니어링 844-0942, 2728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243호
구입년월일	1989. 7. 26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회

제4회

신인·학생건축설계작품공모

본 협회에서는 우리나라 건축계의 새로운 풍토조성과 장래를 이끌어 나갈 후진양성을 위해 '86년 이래 매년 신인·학생건축설계 공모전을 개최하여 많은 역량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후진을 배출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도 본 행사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신인·학생여러분의 미래지향적이고 수준높은 작품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公募要綱

■ 공모주제

- 신인
 - 공동주택: 가급적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이하 내부가변성, 초고층·중복도형, H형등
 - 에너지 절약형과 대체형 단독주택: 연면적 150m²이하
- 학생
 - 신집살림을 위한 단독주택: 대지면적 165m²이하, 연면적 50m²~66m²이하

■ 응모자격

- 신인: 대학원 재학생,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과 졸업후 설
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 제외)
- 학생: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전공 재학생

■ 시상

- 신인: 금상(1) 150만원, 은상(1) 100만원, 동상(1) 50만원,
장려상(다수) 30만원, 가작(다수)
- 학생: 금상(1) 100만원, 은상(1) 70만원, 동상(1) 50만원,
장려상(다수) 30만원, 가작(다수)

■ 출품요령

- 패넌규격: 120cm×180cm (가로×세로, 규격엄수)
- 출품내용: 1 작품당 패넌 1개 이내 및 간략한 작품설명서
- 출품인원: 1 작품당 3인이내
- 응모신청 및 출품기간: 1989. 8. 28(월)~31(목) 18:00
- 출품장소: 본협회 본부 및 각 시·도지부 사무국
- 기타: 모형은 접수치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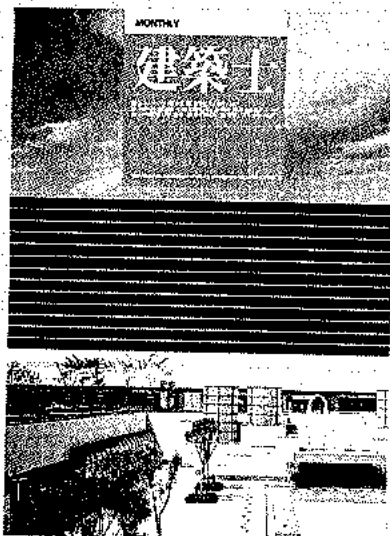
■ 심사발표: 1989. 10월 중

■ 심사위원: 건축계의 권위자로 위촉하며 그 명단은 수상작 발표와 함께 함.

■ 전시기간: 1989년 10월~12월

■ 전시장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등에서 '89 건축사 설계 작품순회전과 병행하여 전시

■ 문 의: 대한건축사협회 출판사업부
서울·서초구 서초동 1603-55
(전화: 581, 5711~4)



표지사진: 黃一仁作 한국공항터미널

發行人: 宋基德

編纂弘報委員會

委員長: 禹南龍

副委員長: 卞鎔, 徐千植

委員: 尹錫祐, 趙聖烈, 閔庚民, 董政根, 姜哲求, 姜聲益, 崔正一, 金周喆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1

電話: 代表 (02) 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02) 586-8823

텔레팩스: KIRAA 33550

登錄番號: 第라-1251(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D.C.: 69/72(054-2): 0612(519)

印刷人: 全允圭 (洗文精版社 712-2329)

Publisher: Song, Kee-Duk

Editorial Information Committee

Chairman: Woo, Nam-Yong

Vice Chairman: Byun, Yong / Suh, Chun-Sik

Member: Yun, Suk-Woo Choi, Jeong-Il

Cho, Sung-Yul Kim, Joo-Cheol

Min, Kyung-Min

Dong, Jeong-Keun

Kang, Chul-Koo

Kang, Sung-Ik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1

TEL: (02) 581-5711, 581-5712~4

FAX: (02) 586-8823

TLX: KIRAA 33550

Registered Number: R-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U.D.C.: 69172(054-2): 0612(519)

Printer: Jeon, Yun-Kyu

(Kwangmoon Printing Co.)

목 차

1989년 7월호 (통권 243호)

6 특稿 / 건축행정 의 과제와 발전 방향에 관한 대토론회

會員作品

- 11 동승동 아트센터..... 종합건축사사무소 間·三建築
- 14 홀리데이 이태원호텔..... 姜聲益
- 18 한국공항터미널..... 黃一仁
- 22 초원의 집..... 金相錫+韓瑱洙
- 24 풍수지리설에 의한 A씨주택..... 朴時翼

컬 럽

- 28 6·25 들 회상하며..... 崔昌奎, 金基斗

일하며 생각하며

- 33 사회통념..... 張基成

寄 稿

- 34 建築士에게 드리는 글..... 金性一

건축기행

- 36 망원경으로 본 중국(3)..... 朴舒弘

研 究

- 42 한국의 전통건축 [7] / 統一新羅의 建築..... 張慶浩
- 48 외국의 현대건축가 소개 [9] / 아돌포 나탈라니..... 成仁洙
- 62 자연채광의 설계수법 [1] / 자연채광의 설계개념..... 金正泰
- 70 韓國開化期의 外人館(3)..... 金泰永

이달의 詩

- 77 돌아오지 않는 다리..... 金光林

79 新入會員

80 5월분 도서신고 현황

82 資 料

87 協會消息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 1603 - 55 / 581 - 5715 - 8	
서대문분소 / 서대문구연희동 169 - 16 / 333 - 1873	
관악분소 / 관악구신림동 1422 - 17 / 888 - 6744	
도봉분소 / 도봉구수유동 191 - 13 / 903 - 3425	
영등포분소 / 영등포구당산 3 가 81 / 634 - 2143	
강동분소 / 강동구성내동 317 - 4 / 484 - 6840	
강서분소 / 강서구화곡동 1105 - 5 / 695 - 0787	
성동분소 / 성동구귀동 252 - 16 / 446 - 5244	
동대문분소 / 동대문구신설동 101 - 7 / 923 - 6213	
종로분소 / 종로구청진동 201 - 1 / 735 - 0905	
마포분소 / 마포구도파동 250 - 4 / 712 - 8844	
송파분소 / 송파구송파동 50 - 12 / 423 - 9158	
중구분소 / 중구무학동 11 - 2 / 252 - 6507	
용산분소 / 용산구원효로 1 가 129 - 22 / 712 - 7647	
서초분소 / 서초구서초 1 동 1623 - 1 / 586 - 7707	
은평분소 / 은평구용암동 103 - 12 / 356 - 7172	
동작분소 / 동작구사당동 147 - 79 / 589 - 6754	
강남분소 / 강남구논현동 241 - 6 / 545 - 0757	
노원분소 / 노원구공평동 617 - 6 / 976 - 1836	
양천분소 / 양천구신정동 1027 - 9 / 646 - 7172	
중랑분소 / 중랑구광우동 516 - 41 / 491 - 0925	
성북분소 / 성북구삼선3가 410 / 923 - 4401	
구로분소 / 구로구구로동 130 - 32 / 864 - 3988	
부산직할시지부 / 부산직할시중구동래동 1 가 1 (부산대앞편)	
(051) 23 - 6284 - 5	
대구직할시지부 / 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 3 가 1 - 8 / (053) 72 - 5141 - 2	
인천직할시지부 / 인천직할시남구간석 1 동 558 - 1 / (032) 424 - 0146, 5100 (한국종합빌딩 204호)	
광주직할시지부 / 광주직할시동구대안동 323 - 11 / (062) 224 - 7598	
대전직할시지부 / 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 437 - 1 / (042) 254 - 2441	
경기도지부 / 경기도수원시매산로 3 가 124 - 5 / (0331) 42 - 6490, 7072	
직할분소 / 경기도수원시매산로 3 가 1 - 8 / (0331) 42 - 6490, 7072	
안양분소 / 안양시안양동 719 - 9 / (0343) 2 - 2698, 2 - 0012	
부천분소 / 부천시원미동 74 - 6 / (032) 63 - 3144	
성남분소 / 성남시신원동 5512 / (0342) 2 - 5445	
외경부분소 / 외경부서외경부동 182 / (0351) 2 - 1083	
송탄분소 / 송탄시신장동 21 / (0333) 4 - 6153	
고양분소 / 고양시원당동 383호 16호 16호트 / (0344) 63 - 8902	
구리분소 / 구리시수택동 409 - 2 / (0346) 63 - 8112	
이천분소 / 이천시청원동 216 - 8 / (0336) 2 - 3396	
광명분소 / 광명시철산동 464 - 7 / 682 - 2875	
안산분소 / 안산시고잔동 531 - 5 / 82 - 2820	
강원도지부 / 강원도춘천시묵헌동 39 - 5 / (0361) 2 - 2442	
원주분소 / 원주시임산동 206 / (0371) 42 - 3257	
강릉분소 / 강릉시성내동 6 / (0391) 2 - 2262	
속초분소 / 속초시중앙동 468 - 66 / (0392) 2 - 5081	
삼척분소 / 삼척시남양동 55 - 43 / (0397) 2 - 3106	
영월분소 / 영월군영월읍영동 1 리 959 - 35 / (0372) 2 - 2659	
충청북도지부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 2 가 116 - 168 / (0431) 56 - 2752, 53 - 7342	
충주분소 / 충주시역전동 673 - 1 / (0441) 2 - 3082	
제천분소 / 제천시외림동 8 - 8 / (0443) 2 - 6253	
옥천분소 / 옥천보은읍삼거리 139 - 4 / (0433) 2461	
충청남도지부 / 충청남도대천시중구대흥동 437 - 1 / (042) 256 - 4088	
천안분소 / 천안시 분화동 160 - 14 / (0417) 2 - 4551	
경분소 / 홍성군홍성읍오관리 239 - 1 / (0451) 2 - 2853	
부여분소 / 부여군부여읍동문리 710 - 2 / (0463) 2 - 2217	
전라북도지부 / 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 635 - 5 (대학빌딩 508) (0652) 3 - 3881	
이리분소 / 이리시남강동 1 가 77 - 22 / (0653) 52 - 3304	
군산분소 / 군산시중안로 1 가 85 / (0654) 2 - 4060	
남원분소 / 남원시하정동 106 / (0671) 2 - 6902	
전라남도지부 / 전라남도사곡읍정동 783 - 23 (후신회관) (062) 364 - 7567, 33 - 9944	
목포분소 / 목포시매안동 1 / (0631) 43 - 3318	
순천분소 / 순천시정전동 51 - 11 / (0661) 3 - 2457	
여수분소 / 여수시관문동 441번지 / (0662) 64 - 7023	
경상북도지부 / 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 1 가 285번지 / (053) 425 - 4304	
포항분소 / 포항시북동 96 - 70 / (0562) 74 - 9713	
경북분소 / 경주시노동동 100 - 1 / (0561) 3 - 7743	
구미분소 / 구미시원평동 356 - 2 / (0546) 52 - 7903	
안동분소 / 안동시북문동 29 - 5 / (0571) 2 - 6635 - 6	
김천분소 / 김천시평화동 280 - 1 / (0547) 2 - 2541	
영주분소 / 영주시영주 4 동 470 - 17 / (0572) 2 - 4566	
경주분소 / 경주시정촌동 261 - 2 / (0581) 2 - 2706	
상주분소 / 상주시상정동 11 - 3 / (0582) 2 - 4306	
경상남도지부 / 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 3 가 3 / (0551) 46 - 4530 - 1	
울산분소 / 울산시남구신정동 585 - 6 / (0522) 74 - 8836	
진주분소 / 진주시본성동 7 - 20 / (0591) 2 - 6403, 42 - 3434 - 5	
충무분소 / 충주시서호동 177 - 101 / (0537) 2 - 2504, 2 - 7420	
김해분소 / 김해시부민동 25B - 17L / (0594) 2 - 3155	
밀양분소 / 밀양군밀양읍내일동 392 - 1 / (0527) 53 - 2110	
거창분소 / 거창군거창읍하동 483 - 9 / (0598) 2 - 3777	
양산분소 / 양산군양산읍다방리 500 - 3 / (0523) 4 - 2669	
거제분소 / 거제군 신현읍고현리 139 - 2 / (0558) 32 - 1086, 2 - 3372	
제주도지부 / 제주도제주시 2 도 1 동 1289 - 6 / (064) 22 - 3248, 52 - 3248	
서귀포분소 / 서귀포시서귀동 299 - 6 / (064) 62 - 2233, 32 - 7777	

CONTENTS

JULY 1989 Vol. 243

SYMPOSIUM / Finding the Way of Development
in Architecture Administration 6

WORKS

Art Center..... Group. 3	11
Iraewon Holiday Hotel..... Kang, Sung-Ik	14
Korea City Air Terminal..... Hwang, Il-In	18
Green House..... Kim, Sang-Suk & Han, Gin-Soo	22
A's Residence..... Park, Sea-Ik	24

ESSAY

Thinking of June 1950..... Choi, Chang-Kyu, Kim, Ki-Seong	28
The Message to Architects..... Chang, Kee-Seong	33
General Idea..... Kim, Seong-Il	34

ARCHITECTURAL TRAVELS

China Through Binoculars..... Park, Sub-Hong	36
--	----

REPORT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Unified Shilla Period... Chang, Kyung-Ho	42
Overseas Contemporary/Adolfo Natalini-Super Studio..... Seong, In-Soo	48
Design Concert to Daylighting..... Kim, Jeong-Tai	62
A Study on the Foreigners' Residence in Korea..... Kim, Tai-Young	70

POEM..... Kim, Kwang-Lim	77
--------------------------	----

NEWLY ADMITTED MEMBER 79

MATERIALS 80

KIRA NEWS 87

開 會 辭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건설부관계자 및 서울시 관계자,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관계
공무원 및 내빈 그리고 우리 회원 여러분!

오늘 본협회가 주최하는 건축행정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본협회가 우리나라 건축업무의 일선에서
창작활동에 전념하고있는 건축사들의 단체이자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건축관련 공익법인으로서
건축사와 건설업자 그리고 건축주인 국민들의 건축을 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행 각종 건축관계 법령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실천해 나가고자 협회의 부설기구로
건축법령연구소를 발족하게 되었으며, 그 기념행사의 일환으로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건축법령과 제도가 관주도의 행정위주로 조정 지원되어 왔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시대적 관료중심의 행정제도와 그 운영을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합리와 민주의 풍토속에 참다운 건축문화를
꽃피워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협회에서는 지난 3월 29일, 30일 양일간 전국의 회원과 건축관계 인사 3천5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전국건축사대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다짐을 채택함으로써 국민편익위주의 민주행정을 위한
건축관계법령제도의 개선에 앞장설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날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현대사회의 전반적인 구조 가운데서도 국민들이 추구하는 주거생활향상에 보조를 맞추어
그에 걸맞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건축관계법령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우리 건축사들의 한결같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주택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의 정책의지로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건축관계법령과 제도가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게 뒷받침 돼야만 국민의 편익은 물론 정부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대형건축물이 증가하고 다양화해가는 추세이고 보면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건축행정의 뒷받침이 또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정부조직상의 전문 건축 전담기구의 필요성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본협회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건축 3단체인 대한건축학회와 한국건축가협회가 공동명의로 건축청
신설을 수차례 걸쳐 정부에 건의한 바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조직개편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반영 입안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 협회에서는 이와같은 각종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각계각층에서 건축행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을 모시고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건축관계법령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축법령연구소
운영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연구소의 운영을 통하여 법과 제도는 이를 다스리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위해
있다는 순리에 따라 건축분야에 있어서의 만능적 행정규제와 통제를 지양하고 국민편익위주의 개발행정체제로 개척해
나감으로써 건축문화의 창조적 활동을 보장하고 인류복지사회 건설에 동참하여 국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하여 공사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기꺼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이
행사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부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6월 15일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宋基德



建設部長官 激勵辭

오늘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고 건설부가 후원하는 가운데 건축행정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를 비롯한 건축사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이 토론회 행사가 건축사협회 부설 건축법령연구소 발족에 따라 그 기념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동연구소의 설립을 계기로 건축법령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현실에 알맞게 개선 발전되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며,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건축사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건축사 여러분! 건축행정은 건설 건축행정분야 중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행정분야로서 특히 주민행정, 도시행정, 문화행정의 속성을 가지게 되는 국토관리에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사회 전반에 민주화, 지방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건축행정분야의 과제도 종래의 행정편의위주의 법령체도를 과감히 탈피하여 행정운영에 있어서 민주성과 합리성을 더욱 높이고 건축사라는 전문직업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국민편의위주의 민주행정의 방향으로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도 건축법 시행령 개정작업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에 건축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협조 있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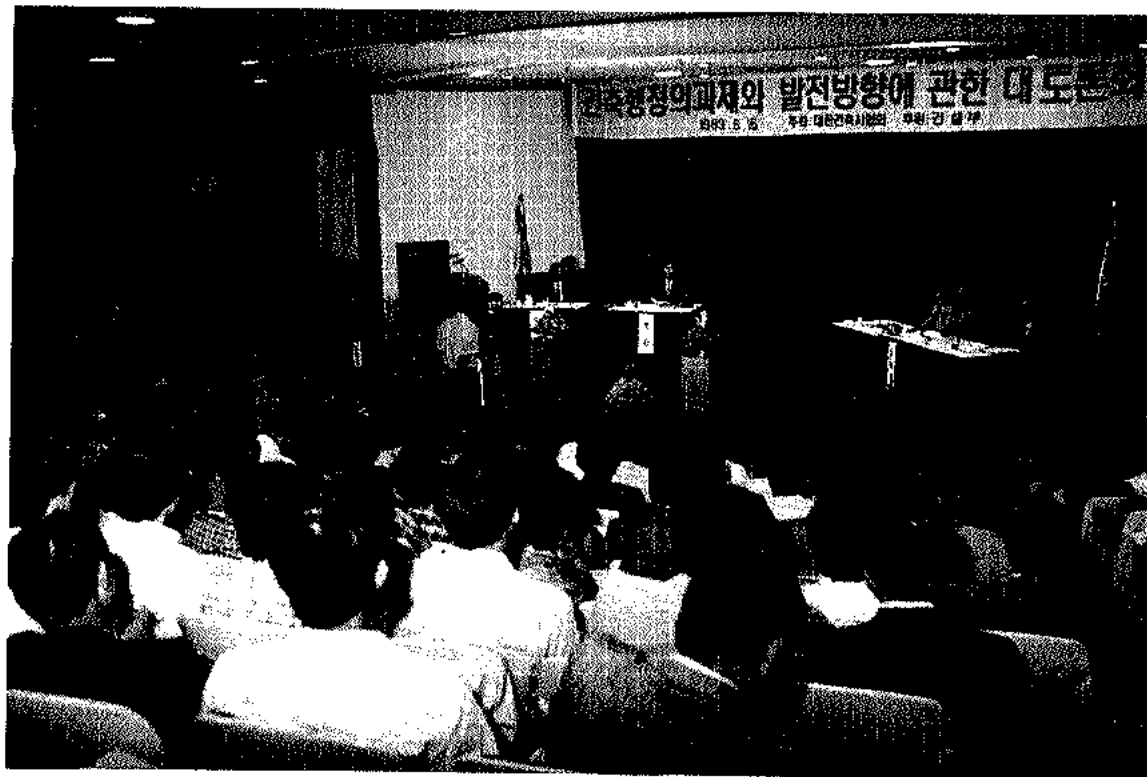
부디 오늘 이 토론회에서 건축계에서 해당분야 권위자인 여러분께서 한자리에 모이신 만큼 주요현안문제로 되어 있는 건축법 시행령개정문제, 기구보강문제, 주차장기준개선문제와 아울러 200만호주택건설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평소에 생각해 오셨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과 격의없는 대화를 부탁드립니다. 이 토론회의 결과는 앞으로 건축행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본 토론회와 연구소의 발족이 우리 건축계의 도약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격려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6월 15

건설부장관 박 昇



본 협회에서는 지난 6월 15일 본 협회 대강당에서 건축법령연구소 발족을 기념하여 「건축행정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회 송기덕회장과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건설부장관을 대리한 주택국장,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내빈과 학계, 업계, 관계공무원 및 관련인사가 입주의 여지없이 자리를 메운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표, 토론 각석의 질문 순으로 시종 진지한 가운데 연단과 객석이 혼연일체가되어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과제 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선방향

- 발표자/안영배(서울시립대 도시행정대학원 원장)
- 좌 장/한정섭(단국대 교수)
- 토론자/장명순(한양대 교수)
- 김동욱(건설부 도시시설계획과장)
- 안종관(서울시 교통기획과장)
- 오웅석(본 협회 전 회장)

도시인구의 과밀집중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교통문제는 점차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교통전문가는 물론 도시계획가와 건축사, 그리고 사회학자까지도 참여되어야 하며, 특히 교통문제와 연관이 큰 주차정책에 관해서는 건축사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차문제에 관해서 주차장의 증설이 도심 승용차의 과다한 도심진입을 유발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상당한 량의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이 자주나오는 것을 볼때 의아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도시미관을 위해 Open Space (녹지공간)가 필요했다면 적절한 Open Space를 확보하도록 법이나 기준을 개정했어야 했고, 또 용적율이 너무 높다고 하면 지역에 따라 조정을 개정했어야지

용적을 때문에 지상주차장 문제가 논의됨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차면수에 있어서 현행기준에 의하면 서울지역은 어디에서나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건물의 용도에 따른 조정이 전혀 없다.

도심과 도심외곽은 구별되어야 하며 도심지에서도 현 상황에서 주차시설이 어느정도 갖추어진 지역과 극히 부족한 지역을 선별해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도심지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심밖보다는 축소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앞으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도심의 주차공간이 현재는 부족하다 하여 현행처럼 과다하게 주차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다.

제2과제 현행 건축법령과 제도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발표자/이종열(본 협회 이사)
- 좌 장/최찬환(서울시립대 교수)
- 토론자/정광모(한국소비자연맹 회장)
- 김성일(부산시 건축과장)
- 이영희(본 협회 서울시지부 회장)
- 허종오(본 협회 서울시지부 회원)

건축행정 질서에 있어서 혼란의 근원은 법령의 확실성과 구체화되지 않은데 있겠지만 법률로서 정한 정부의 권한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그 법령을 집행함에 있어 적용 및 운용에 있어서 야기되는 혼란과 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각종 규제와 지침이 그 법령의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뒷받침 하지 못하는데 있다. 또한 전문성과 그 분야에 경험이 부족하면서도 독단적 임의 규제를 명령하거나 지시에 의하여 규제하고 국민을 통제하는데서 혼란이 더욱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선 건축행정 공무원들은 법령을 적용하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혼란때문에 무사안일주의로 집착하거나 국민에게 그법을 남용하고 합리화시킬 경우와 행정위주의 유권해석을 달리함으로써 국민에게 불편을 주게 되고, 나아가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위임한 권한으로는 조례와 규제(지침)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그 실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법령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국민의 생활 안정과 편의방향이 아니고 질서 유지를 <강제>의 방향으로 변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강제>된 질서는 필연코 저항과 혼란을 야기시키게 되고 국가와 사회는 점점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므로 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기본방향은 법령과 제도가 국민을 위한 법으로 다스리게 하며 적용과 운용에 있어서도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의식전환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법이 만인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공평무사하다는 의미이며, 형평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써 법은 국민 전체의 것이어야 하고 개인이나 특정인 또는 소수인을 위하여 이를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형평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다.

제3차제 건축법시행령의 개정방향

- 발표자/이필원(건설부 건축과장)
- 좌 장/이문보(동국대 교수)
- 토론자/최찬환(서울시립대 교수)
변영진(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이병담(현대산업개발(주) 전무이사)
정인환(주공주택연구소 연구개발실장)
권태정(본 협회 서울시지부 간사)
이정규(청년건축인협의회 회장)

건축법령의 주요개선과제의 하나로 22차 개정안을 중심으로 발표·토론되었고 설문조사(건설부, 건축사협회 공동설문조사, 청년건축인협의회 설문조사) 내용이 발표됐는데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을 소개한다.

가. 건축법사항

건축법의 복잡한 정도는 과반수 정도가(46.0~59.6%) 매우 복잡하거나 난해하여 이해가 곤란하다였다. 따라서 법령의 체계와 조문의 평이화가 시급하다.

건축허가절차의 복잡한 정도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하거나 까다롭다는 편이(66.8~90%)였고, 그 이유는

허가권자의 재량이나 내부지침에 우선 통제가 많다는 것과 건축심의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건축공무원의 법령이해정도는 건축사들 응답자의 반이 모르는 사항이 많으며 그 이유는 건축법령의 빈번한 개정과 비전문자의 배치 때문이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을 건축주의 준법정신 결여에 40% 이상이 지적하고 있으며, 그 방지방법은 건축법령의 합리적 개선, 대민홍보, 위반자 처벌기준 강화의 순으로 두고있다.

나. 건축사법 사항

건축사사무소 등록방법 즉, 단독 및 종합구분 등록제가 건축물 질적향상등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건축사가 41%나 되므로 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및 검사대행 업무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절차간소화 및 국민편의에 도움이 크게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건축사 행정처분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직업별에 따라 크게 달라서 건축사는 가혹하다는 응답이 53.7%였으나 공무원은 7.9%에 불과하고, 67.1%가 적절하거나 약한 편이라고 응답하여 현격한 차를 보이고 있다.

다. 건축행정 일반

건축행정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순위를 건축사는 법령유지를 위한 법령교육강화, 부조리제거, 대민홍보, 전문인력증원, 행정조직보강인 반면 공무원들은 그 순위가 거꾸로로 시각차가



토론회에 참석한 최원익 의원과 일반참가자들의 열기는 매우 높았다. 카메라, 녹음기 등 장비까지 동원. 토론회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도 많았다

현저하게 달랐다. 행정내부의 실정에 밝은 공무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제4과제 건축행정 전담기구의 보강과 운영방향

- 발표자/박돈서(아주대 교수)
- 좌 장/여홍구(한양대 교수)
- 토론자/이필원(건설부 건축과장)
김영창(대구시 건축과장)
이종민(서울시 한국주택사업협회 사무국장)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건축 투자는 GNP의 약 9%를 차지하며 해마다 더욱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기술의 발전과 국제화도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복잡하여 도시·주택·산업·과학기술·재정금융·사회·문화 등 실로 다양한 분야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라고는 건설부 주택국 산하의 1개과(건축과)뿐이니, 이는 건설부가 발족된 1960년대의 약 1백배에 달하는 건축경제규모로 팽창한 오늘날 너무나도 빈약한 기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부서를 보더라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그 방대한 건축업무를 건설관리국 밑의 1개과(건축지도과)가 담당하고 있으며, 더욱 불합리한 것은 각 시·도에는 거의 주택과만 있을 뿐 건축업무를 주택행정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며, 아울러 하루가 새롭게 발전하는 건축자재·건축공법등 기술혁신의 국제적 경쟁의 와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전담할 연구기관 설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볼 때 건설부내의 주택국 하나로 이 문제를 다루기는 너무나 역부족이므로 주택부, 아니면 최소한 주택청이라도 신설하여 장단기적인 종합정책의 수립과 타 연관부서와의 협조 조정 정책의 시행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5과제 200만호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발표자/장동찬(본 협회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 좌 장/김희춘(서울대 명예교수)
- 토론자/조우현(건설부 주택정책과장)
이윤택(서울시 주택기획 과장)
윤진우(본 협회 경기도지부 회원)

경제성장과 건축물의 외형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1988년의 주택보급율은 1975년의 74.4%에 비해 5%가 감소한 69.4%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보급율은 92년까지 2백만호를 건설하여도 72.7%밖에 증가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현재 전국에는 4백만의 무주택가구가 있고 이중 2백50만은 단칸방에, 그중 1백만은 생활 보호대상 가구이다.

이들 대상이아 말로 현재의 소득수준으로 보아 자력으로서는 도저히 주거문제 해결이 불가능하여 정부가 국민복지 차원에서 배려해야 할 대상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2백만호 주택건설사업은 집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비롯한 택지, 자금, 인력, 사업시행 절차에 따른 규제와, 절차의 복잡성등의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신규주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불량주택 밀집지역(일명 달동네)에도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립주택 밑에 상가허용 △전용주거지역에 고급빌라등 주거용 건물 확대 △아파트의 근공간 폭과 높이제한 완화 △시장지역에 복합건물 활용 △근린생활시설의 규모중 5백㎡, 1천㎡등 소규모로만 제한하던 것을 지역개발에 따라 확대조정 △주택불량 밀집지역에 대한 소방도로등 기본시설 이외의 건물규제 대폭완화, 개발촉진 도모 △녹지지역의 건폐율 완화 △지역·지구 지정 재검토, 일반녹지지역을 일부주거지역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2백만호 주택건설 계획은 어느 한 부처에서 밀고 나가기에는 너무 관련부처가 많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협조가 이루어져 국민적 공감대를 수용하는데서 출발,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당위성을 바탕으로 적어도 10년 또는 1백년후에도 후회되지 않는 주택건설이 되길 바란다.

동승동 아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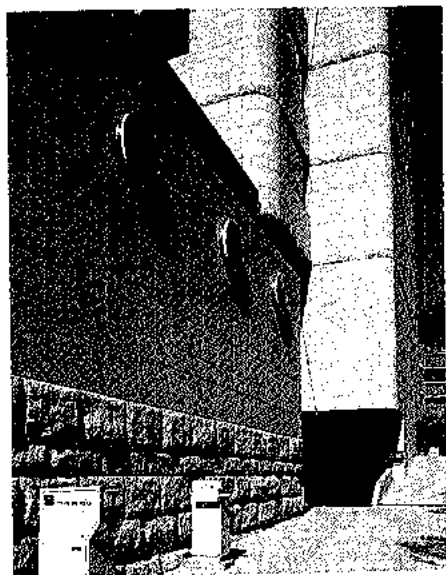
Art Center

종합건축사사무소 間・三建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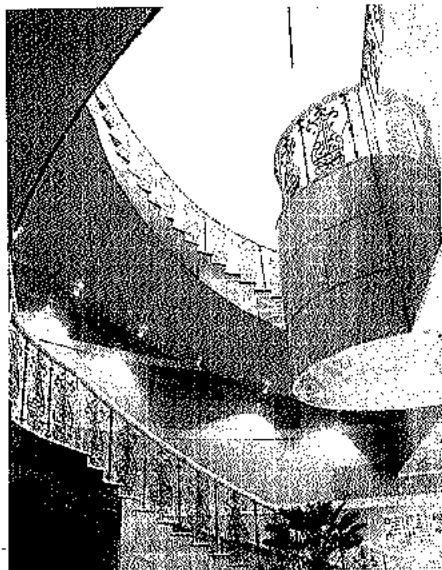
Designed by Grou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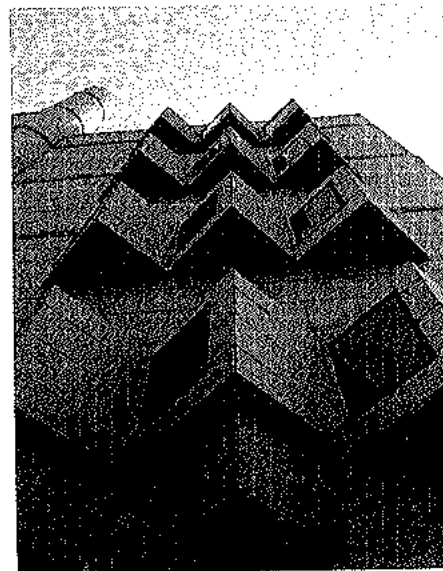
정면 (주출입구 부분)



측면외벽상세



메인로비주계단



외부창 상세

대지위치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5
 지역·지구 / 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 2,344.92m²
 건축면적 / 911.14m²
 연면적 / 8,443.92m²
 건폐율 / 38.86%

용적율 / 163.75%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 2층, 지상 6층
 주요외장 / 외벽 - 화강석버너마감
 화강석정다듬
 24mm복층유리

외부바닥 - 화강석물갈기
 스톤타일문양깔기
 주차대수 / 육내 27대, 육외 13대

설계소요

‘문화의 거리’라는 동숭동에 또 하나의 문화·예술공간이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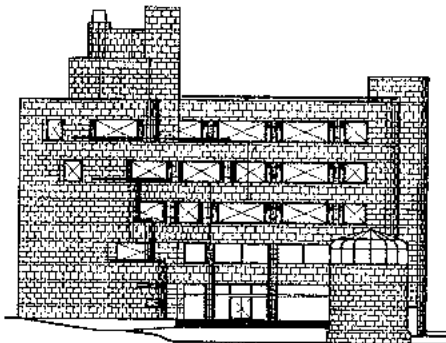
종로구 동숭동 1-5번지에 위치한 동숭아트센터는 강한 장소성의 개념적 부담을 안고 비교적 큰 매스로 앉혀져 있으며, 기능적으로는 대극장, 연극전용 소극장, 회의실, 일반 사무실 등을 갖춘 복합 문화시설이었다.

외관상으로는 계획부지가 대학로에 접근한 주택가여서 이에 어우러지도록 계단형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주변의 현황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갑작스런 충격을 줄이기 위한 의미를 지닌다는게 설계자측의 설명이다. 또한 횡으로 강조되면서 거칠게 다듬어 놓은 화강석 줄눈 역시 주변의 여건과 잘 조화된 입면구성의 한 수법으로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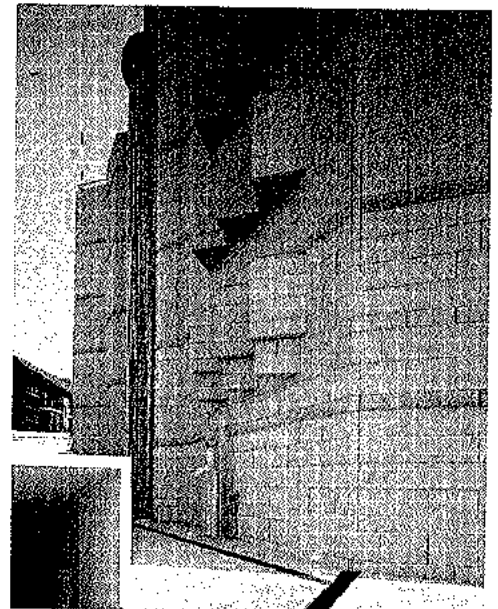
민간의 힘으로 이처럼 큰 규모의 문화시설이 세워짐에 따라 앞으로 이를 배경으로 한 많은 문화활동이 기대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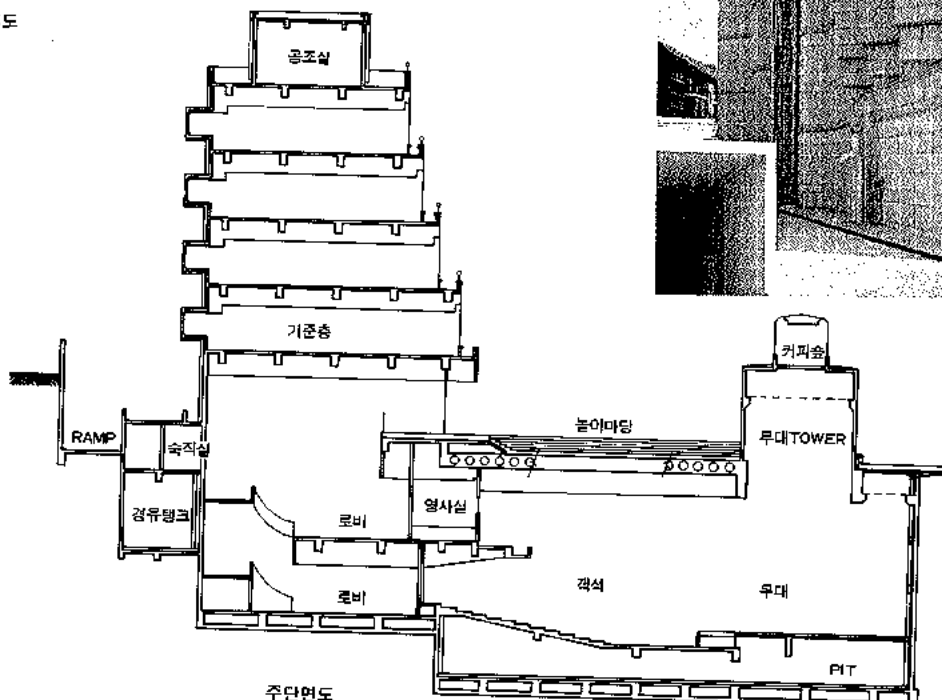
극장내부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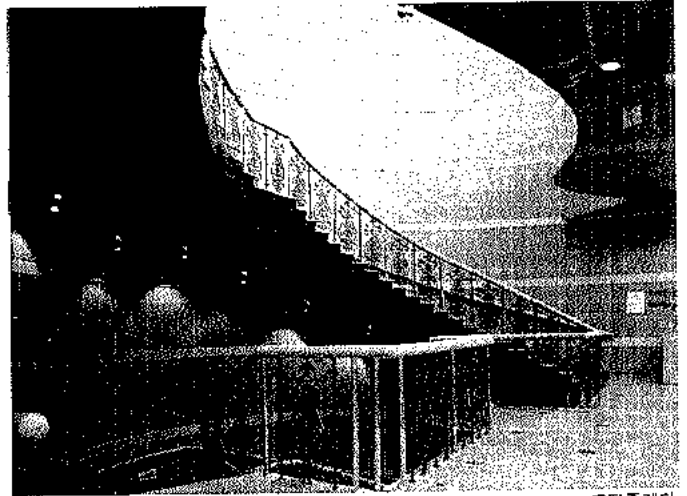
배면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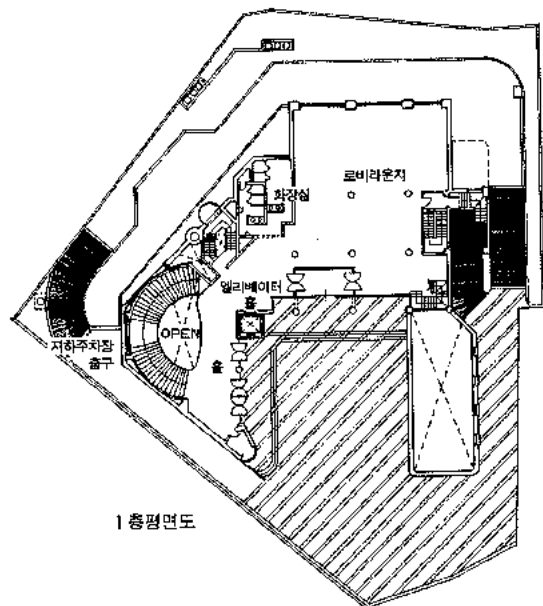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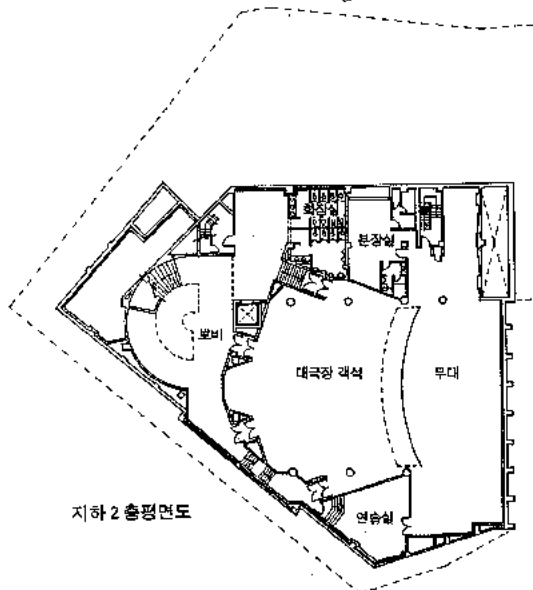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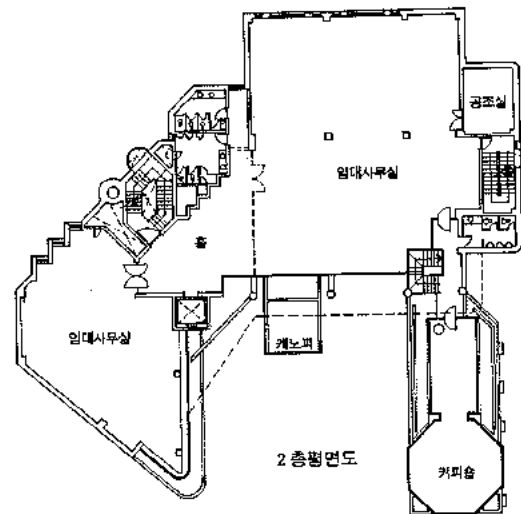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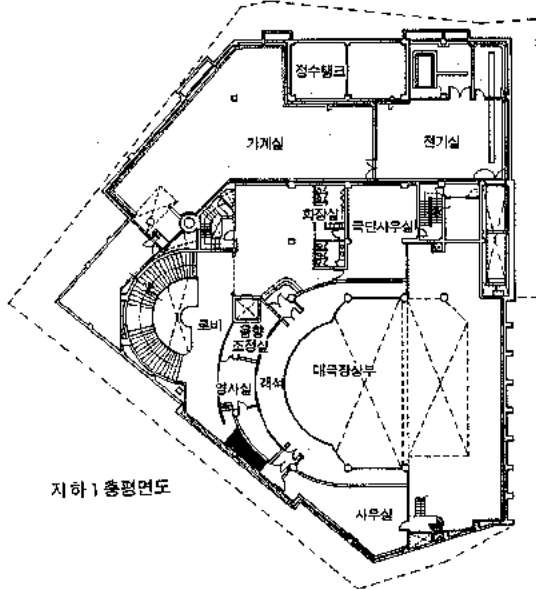
주단면도



레스토랑



극장주계단



홀리데이 이태원 호텔

Itaewon Holiday Hotel

姜聲益 / 한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ang-Sung 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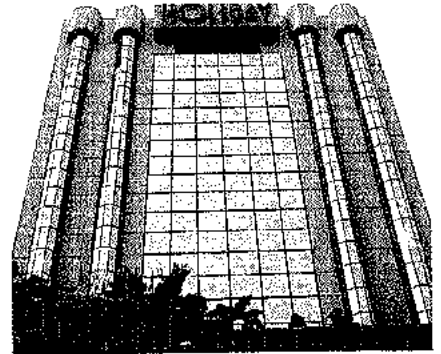


◆
 대지면적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지규모 / 1,488.00m²
 건축면적 / 717.00m²
 연면적 / 10,637.00m²
 건폐율 / 48.2%
 용적율 / 4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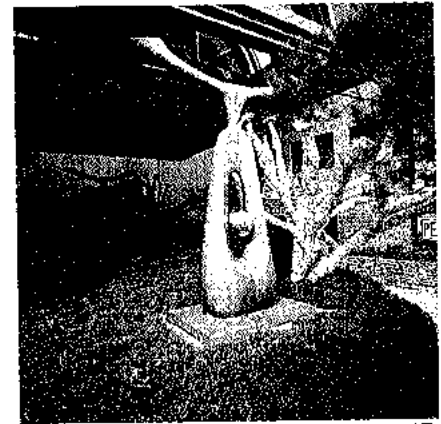
규모 / 지하4층, 지상11층
 외부마감 / 대리석 및 파스텔타일 부착마감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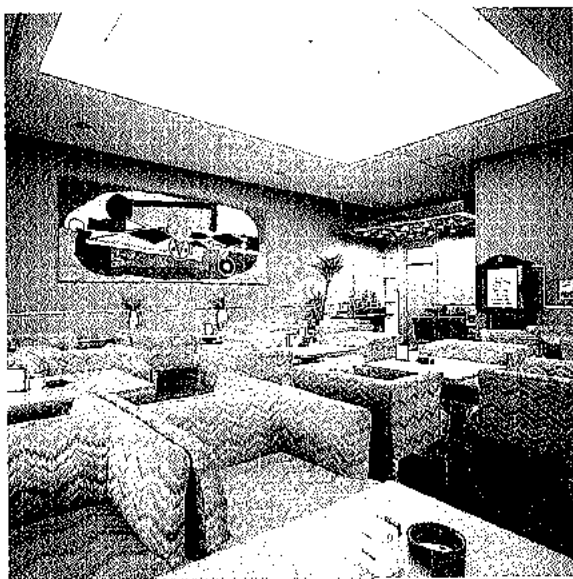
좌측에서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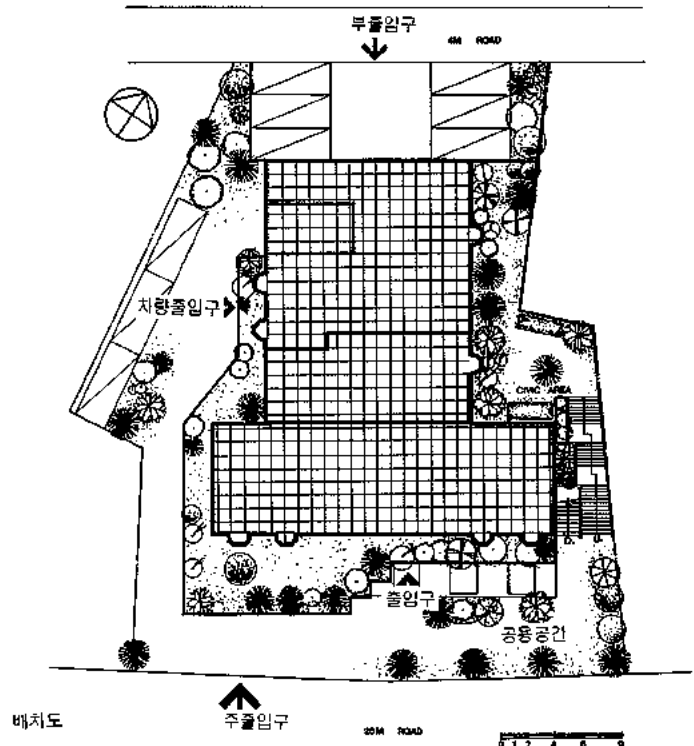
전면상세



조형물



라운지



배치도

주출입구

25M ROAD

0 1 2 3 4 5 6 7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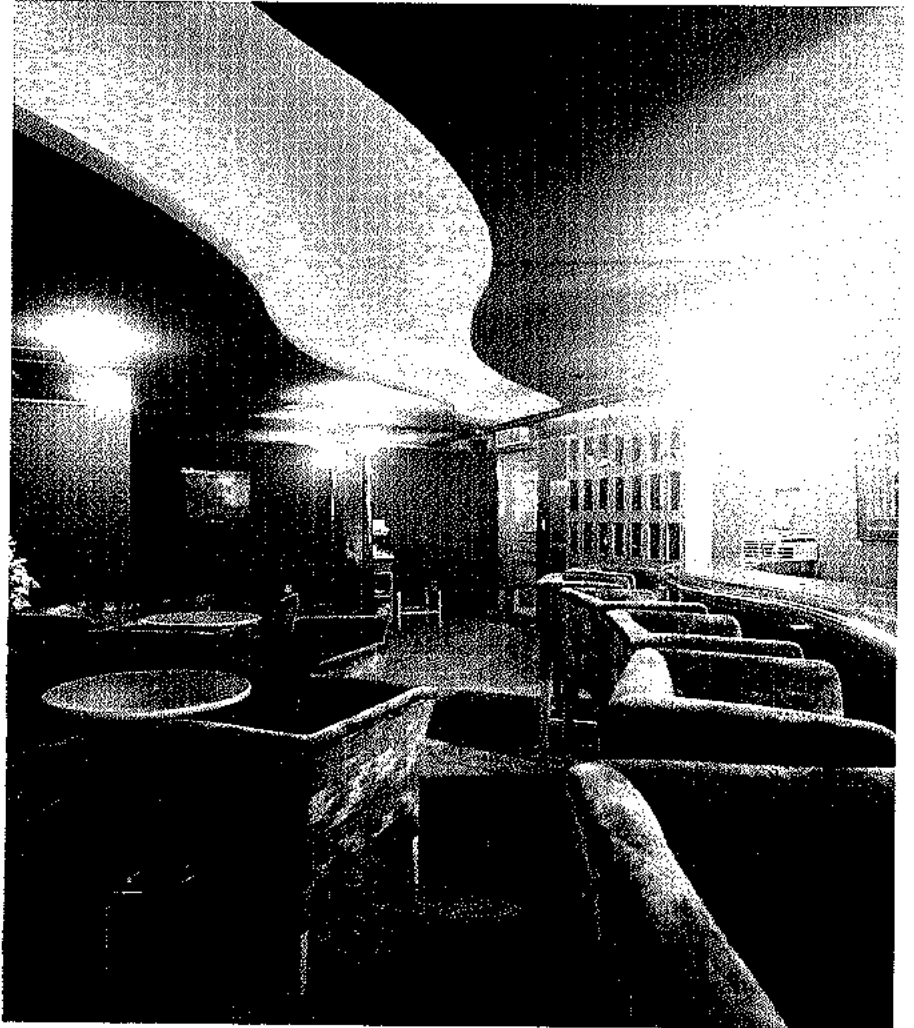
설계소요

용산구의 이태원 간선도로를 접하고 있는 본 건물의 대지는 협소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아기가기 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거리의 분위기를 이끌며 새로운 Land Mark의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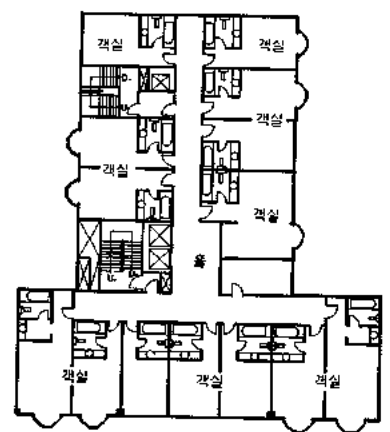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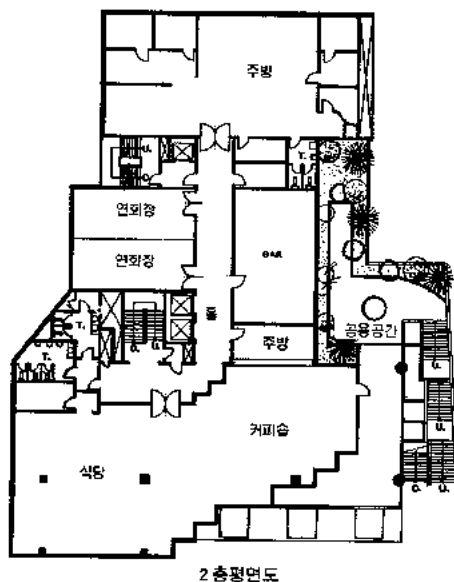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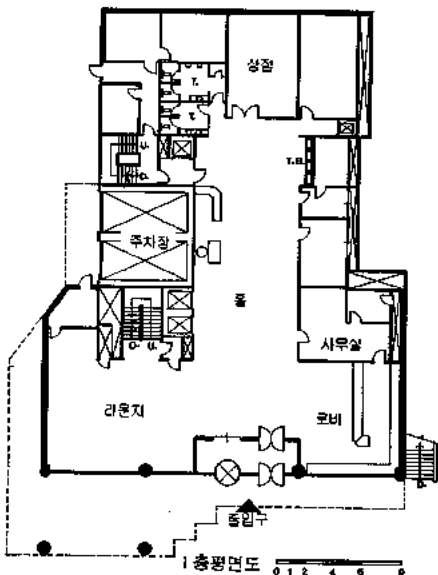
본 건물의 기준층은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배치시켜 주차동선과 보행자 동선의 상층을 고려하였고 도로에 접한면이 협소하여 전면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저층부의 피로디 및 캐노피를 최대한 이용하였고 옥내로의 주차진입을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도를 계획하였 또한, 전면도로와 후면 도로의 고저차가 12m 차이를 고려하여 후면도로로부터의 대지 내로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 했고 전면1층에서 외부 계단을 이용해 2층 부위로 올라 오면 일반 이용객 및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을 두어 휴식과 건물내로 출입하여 건물 부대시설 이용에 편의도모를 하고자 했으며 이태원의 떠들석과 복잡성과는 달리 협소한 공간이나마 조용하고 푸르름이 항상 살아 있는 녹지 공간으로 만들어 보았다.

또한, 건물의 입면 계획은 친밀감과 부드러움으로 음, 양에 의한 돌출계획을 구성하여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두어 설계 작업에 임하였다.

특히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강한 이미지 부여를 위해 고층부의 돌출 커튼월과 평활한 커튼월로 외벽을 계획하였으며, 반면에 저층부는 심플한 창호와 간색류의 대리석으로 치장하여 산뜻하면서 모던한 외장을 갖추어 고층부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지상 2층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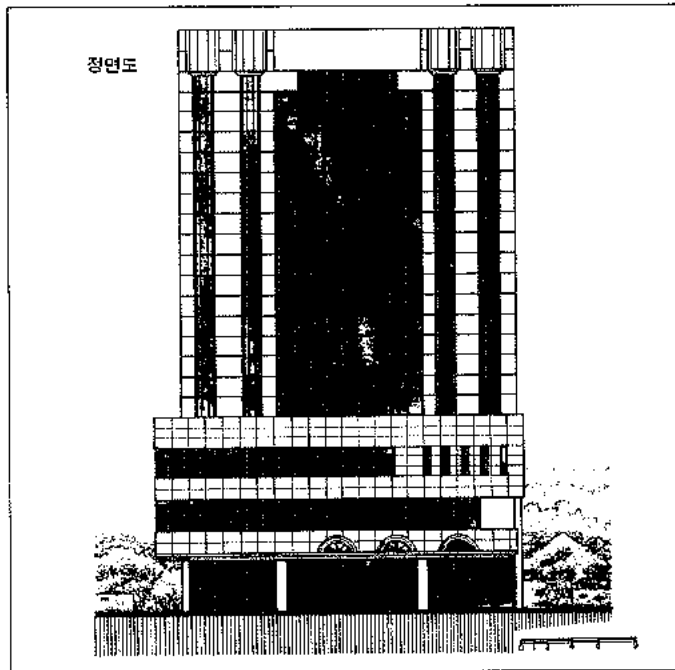
5층~11층 평면도



커피숍



문비



로얄스위트 룸 식당

한국 공항 터미널

Korea City Air Terminal

黄一仁 / 일건축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Hwang, Il-In



전경

설계소요

「종합 무역센터」는 올림픽 개최를 가능케한 경제부문에 있어서 한국의 성취와 능력을 세계에 소개하고 주요 무역으로 부상한 한국제 2의 경제 도약을 이루는 터전을 마련한다는 목표하에 무역협회가 추진한 프로젝트이다. 여기에는 전시 상담에서 계약체결 까지 모든 업무가 한자리에서 수행되도록 전시장과 사무실 외에도 부대적으로 호텔, 쇼핑센터, 공항터미널 등이 갖추어져 있고 올림픽을 무역센터 건립의 계기로 삼고 있다.

무역 센터의 마스터 플랜은 국제 지명 현상 설계 국내지명사무소(정립건축, 원도시건축, 박훈명건축, 임이건축, 일건축), 국외(日建設=N.S.)를 통하여 당선된 일본의 니젠세케이(日建設=N.S.)의 안으로써 이중 무역회관 사무동과 종합전시장은 무역협회가 발주하여 N.S. 팀과 국내 설계팀이 협동하여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민자 유치부

본인 호텔·쇼핑센터·공항터미널 등은 각각 별도의 조직으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공항터미널은 김포공항의 청원 이전을 전제로 하여, 탑승객의 탑승수속이나 출입국 및 세관절차 뿐만 아니라 환승·영, 기념품 판매 등 공항 기능을 도시에 덂으로써 서울과 공항이 너무 멀리 떨어지므로써 생기는 각종 이용상의 불편을 보충할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초기의 요구는 기본적인 도시공항 터미널 기능에 국한되어 있었고 일본 N.S.팀에 의하여 지상 4층 지하 2층의 연면적 1만여평에 이르는 기본설계가 제작되었다.

그후 건축주가 교체되면서 도시공항 터미널 기능외에 사무실 기능이 크게 확대되고 건물 규모도 총 2만여평으로 늘어 남으로써 새로운 설계가 요구되었다.

공항터미널 설계의 주요 테마는 그동안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대지와 건축의 일체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터미널은 기능상 체크-인을 위한 로비 부분과 버스 탑승 및 도착 로비 부분이 두개의 주 공간이 되고 이에 상하로 연결되는 약간의부수 시설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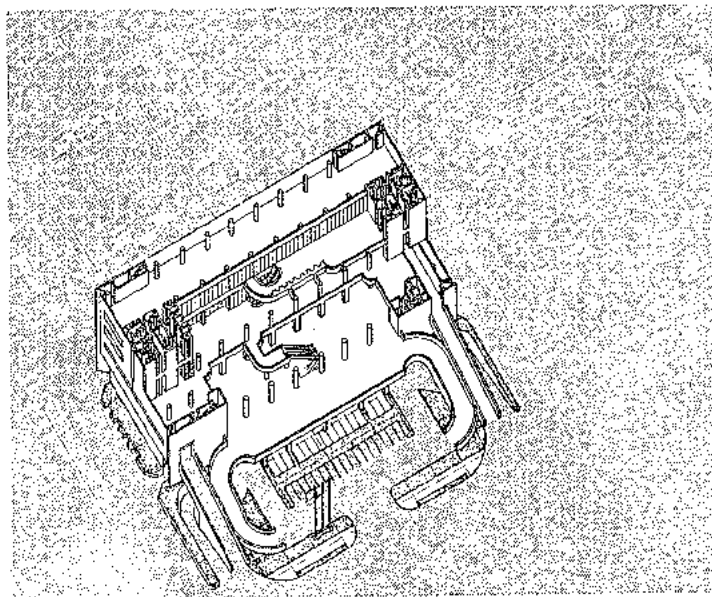
우리는 다중의 집합 왕래가 이루어지는 이 2개의 로비를 두개층의 인공 대지로 만들고 이들을 각각 전체 대지와 잘 연결하여 일종의 광장이 되도록 하였다. 이 광장을 대지로 하여 그 위에 겹쳐 지어진 사무실 부분은 내부에 6개층을 관통한 아트리움을 만들어 자연의 빛이 여러 단으로 이어지는 광장으로 직접 쏟아지게 하고 아트리움을 둘러싸는 사무실의 벽을 외벽처럼 마감 함으로써 외부와 연결된 광장의 이미지를 더욱 확실히 하려하였다. 광장부분과 상층부분을 돌과 금속이라는 두가지 재료로 나누어지나 전체적으로 마감재는 주위 건물과 유사한 재질과 색조를 택하여 무역 센터단지 전체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랐다.

◆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대지면적 / 13,000㎡
건축면적 / 16,118㎡
연면적 / 65,537㎡
규모 / 지하 4층, 지상 7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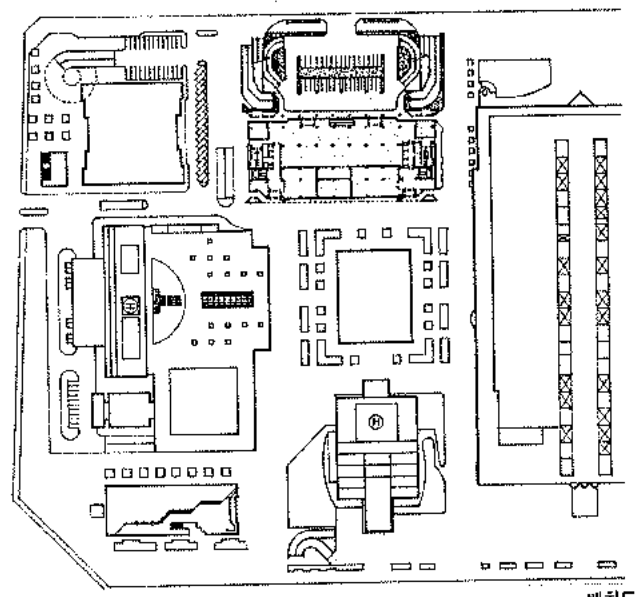
외부마감 / 알루미늄커튼월, 28mm
복층 반사 강화유리
내부마감 / 바닥-화강석
벽-복합 알루미늄 판
지역·지구 / 상업지구, 제1종미관지구,
도시계획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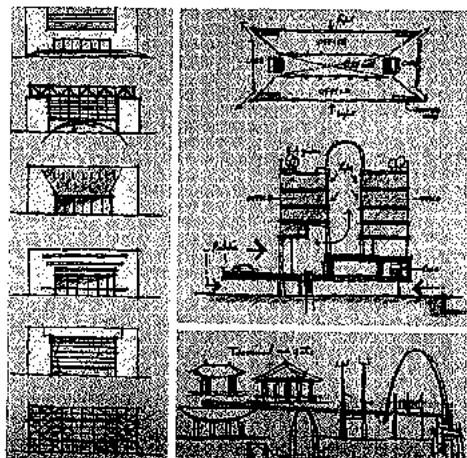
중앙광장에서 본 동측전경



평면 오블리크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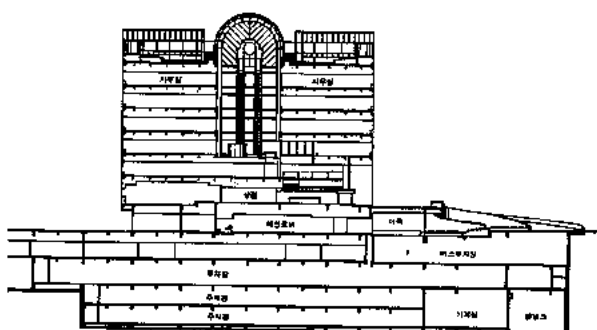
이미지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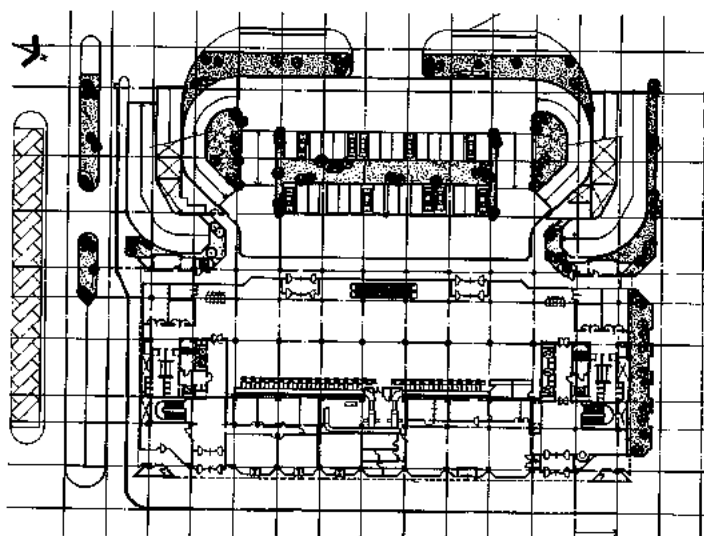
내부투시도



아트 리움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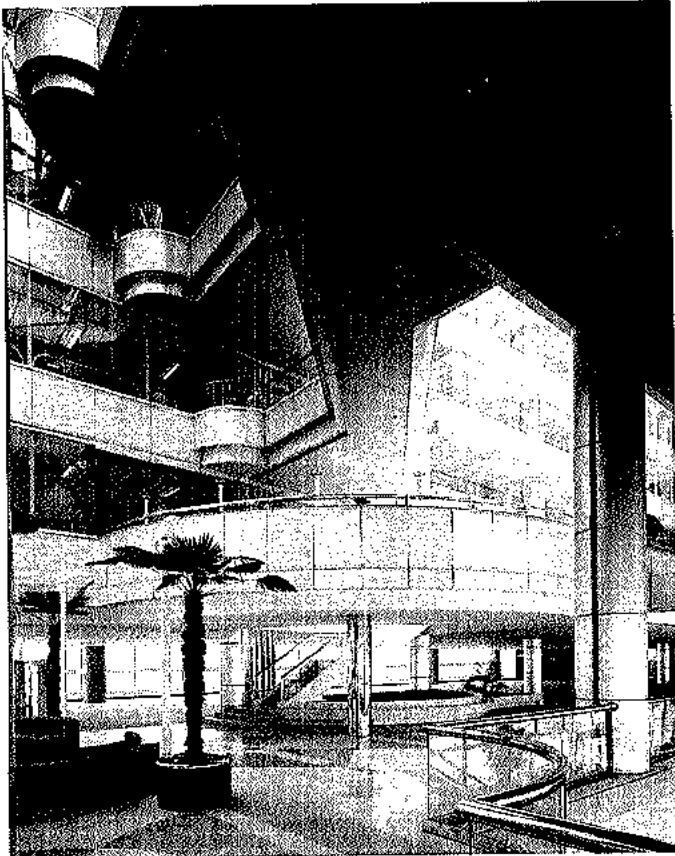
배치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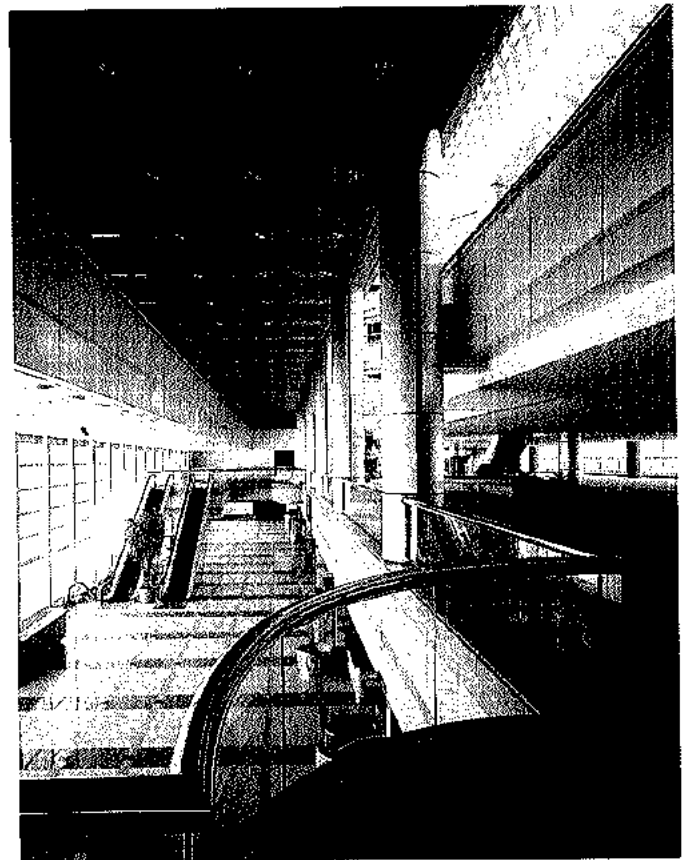
2, 3층 계단 및 아트리움



아트리움내 휴식공간



사무공간을 잇는 사각브릿지



2층에서 본 1층로비

초원의 집

Green House

金相錫+韓瑱洙 / 종합건축사사무소 공간

Designed by Kim, Sang-Suk & Han, Gin-Soo

설계소묘

광충간 도로변 진흥원 뱃나무의 울창한 수림대와 농성동 광장에 접한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좋은 입지여건이 있으며 박스 개념의 형태를 탈피 지붕이 있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진물을 도로에서 후퇴시켜, 어푸로우치의 용이와 대지에 의한 축을 결정 형태의 변화와 사면에 전면성을 주었으며 동선의 분리와 쉼큰가든을 두어 시각적 효과와 개방감을 주었고 빛에 의한 실루엣의 변화를 고려 현관 및 원형 계단에 톱나이트를 두어 내부공간의 변화와 지하실까지 빛을 유도하였다.

어린이 놀이공간 및 옥상조경을 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노약자 및 신체장애자를 고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고 휴먼스케일인 적벽돌, 나무, 형광을 사용, 자연의 질감과 주위환경과의 조화를 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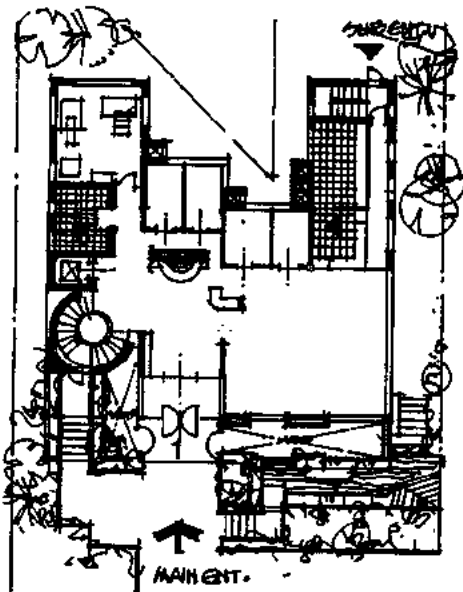
진흥원 수림대와 스카이라인의 원화를 기하고 고유 양식과 창의성을 살린 건축물로서 지역주민이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 환경미화에도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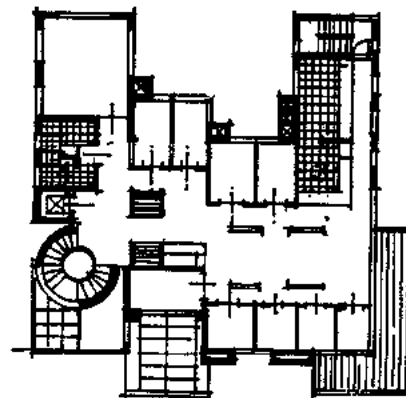
주출입구



배면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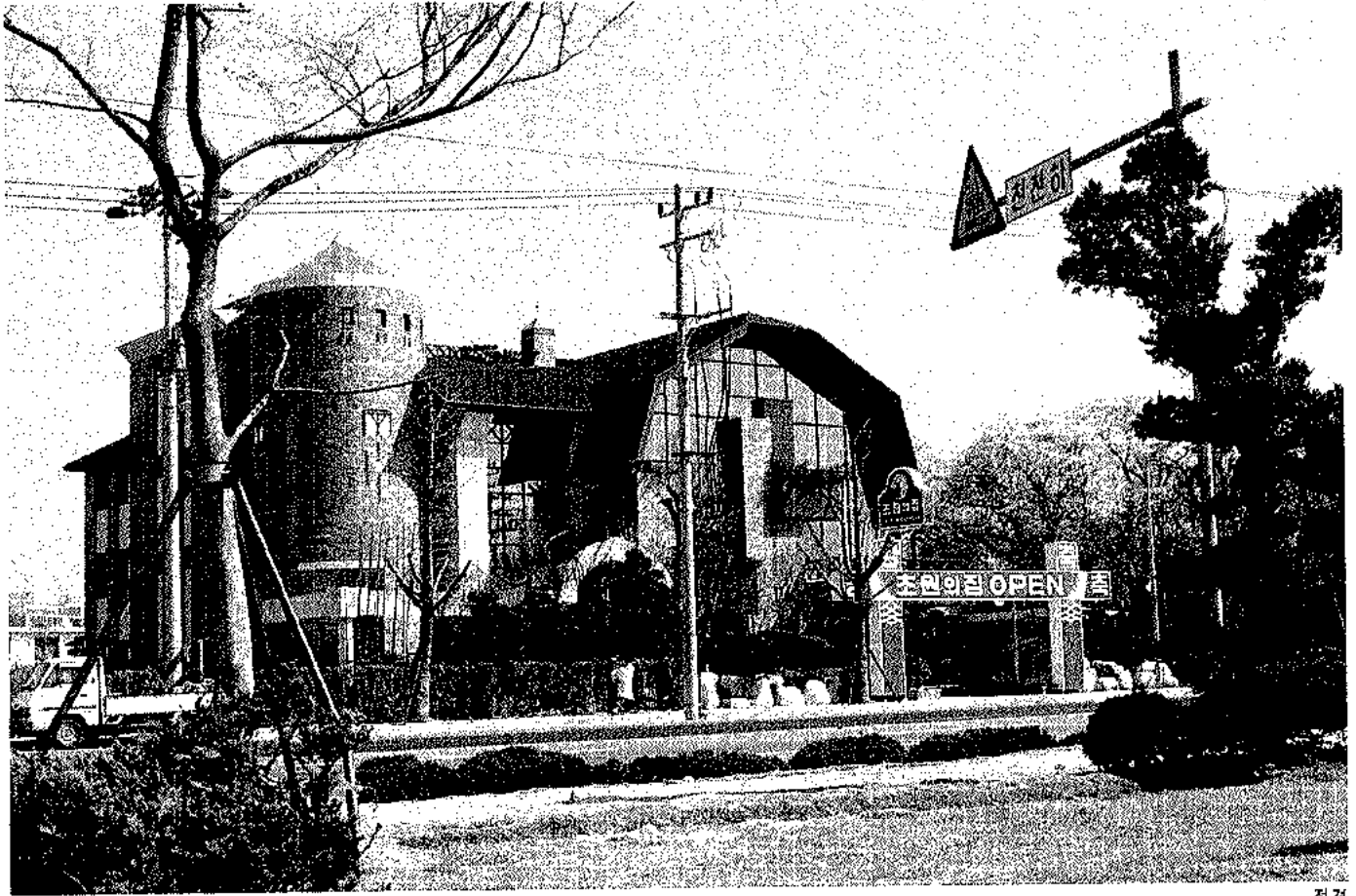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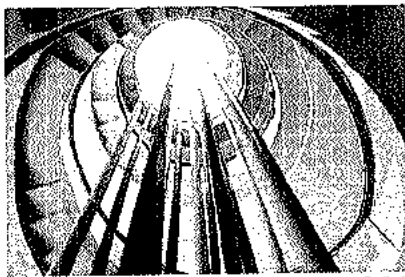
2층평면도

◆
대지위치 / 광주시 서구 농성동
대지면적 / 1,045m²
건축면적 / 537m²
연면적 / 1,892m²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용도 / 커피숍 (지하층)

대중음식점 (1-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설비 / 냉·난방·환기설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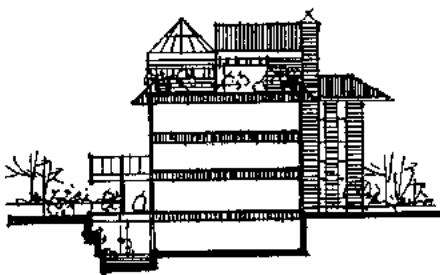
원형주계단



지하커피숍입구



선큰기둥



주단면도



지하커피숍

풍수지리설에 의한 A씨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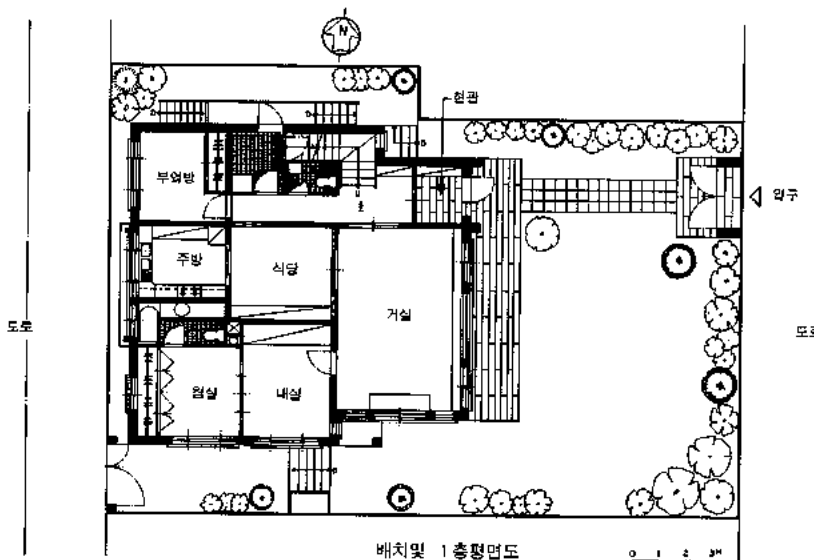
A's Residence

朴時翼 / 일신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Park, Sea-ik



정면전경



2층가쪽실

◆
대지위치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대지면적 / 372.5㎡
건축면적 / 138.12㎡
연면적 / 327.81㎡
건폐율 / 37.07m%
용적율 / 65.38%

외부마감 / 외벽-적벽돌 치장쌓기
지붕-천연 스키이트 잇기



외부상세

설계소요

풍수지리설은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 공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론이다.

이러한 풍수지리설의 이론으로 볼 때 주거 공간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역동적(力動的)인 힘 즉 주택의 氣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공간의 구성요소(지세, 배치 상태, 공간의 형태 그리고 方位 등)는 모두 개인의 인격형성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즉 개인의 건강 그리고 생활상의 발전이나 불행 등의 원인 중에는 인간의 주거공간에서 받은 氣의 영향을 상당한 비중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풍수지리설의 개념에 입각하여 행복한 가정 즉 건강한 발전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건물등의 하나가 바로 이 서교동 주택이다.

〈배치계획〉

주어진 대지의 조건이 동서로 길고 주된 도로가 대지의 동쪽에 있는 만큼 건물과 정원

그리고 대문 등의 위치는 모두 西四宅 방위로 배치하였다.

즉 정원의 중심에서 보아 건물은 서쪽에 위치하여 東向으로, 그리고 대문은 東北쪽에 배치하였다. 따라서 건물과 대문의 배치관계는 五行上으로 土生金(대문土, 건물:金)의相生이며 음양상으로는 少女와 少男(대문:少男, 건물:少女)의 음양배합이 잘 맞고 있다.

이러한 배치관계는 양택론의 주역 방위해석으로는 건물 澤(☵)과 대문 山(☶) 즉 澤山咸(咸)으로 「延年得位星殿之宅」이 된다. 이러한 배치에서 예견되는 吉凶관계의 해석은 「부부금실이 좋으며 자녀들의 학업이 발전하고, 내외에 生氣가 돌아 재산이 늘어나며 백세의 수를 누리게 되는」 西四宅 중에서도 가장 吉한 배치이다.

〈형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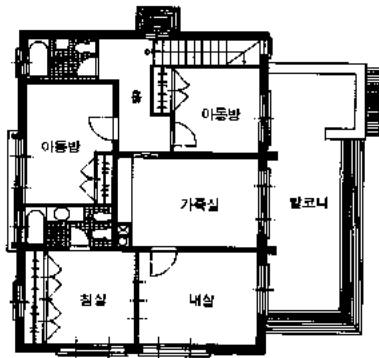
건물의 형태는 우선 평면에 있어서 건물의 깊이를 깊게하며 전면의 길이와 측면 길이의 비례가 1:1 즉 정사각형의 형태에 가깝게 하였다. 이러한 정방형의 형태가 장방형의 형태

보다는 왕성한 生氣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평면의 구획은 전면 3칸 측면 3칸 즉 3×3=9의 田字形으로서 중심공간을 형성하였으며 이곳에 식당을 배치하였다. 각 방의 형태와 정원도 모두 정방형에 가깝게 구획하여 원만한 기운을 기도하였다.

건물의 외부형태는 중심부분을 높게 처리하여 안정과 생기를 추구하였다. 특히 2층의 중심에 있는 서재의 천정을 높게 하여 건물 내외의 중심성을 강하게 하여 전체적으로 왕성한 生氣를 발생토록 하였다.



원경



2층평면도



1층거실



2층복도



배면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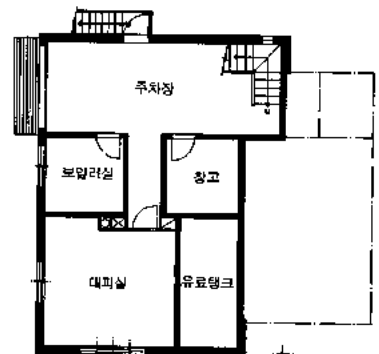
현관출입구



2층연결계단



1층식당



지하층평면도

建築士設計作品 巡廻展

作品公募

본 협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발전과 회원의 작품향상을 도모하고 일반인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건설부 후원아래 매년 건축사설계작품순회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본 전시회가 우리나라의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조형창작예술인의 긍지를 높이는 전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의 수준높은 작품의 응모를 기대합니다.

■ 출품작품

1986년부터 1989년 7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된 작품중 본협회가 주최한 전시회에 출품하지 아니한 작품.

■ 패널제작 방법

1. 패널크기 / 90cm×90cm (가로×세로)
2. 제작요령 / •패널에 개첨된 내용이 순회 운송중 파손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유리, 스티로폴 등 충격에 약한 재료 사용금지).
- 벽면에 간편하게 걸수 있도록 패널후면에 견고한 고리를 부착할 것.
- 가벼운 목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할 것.
3. 패널수량 / 1작품당 3개 이내
4. 공통사항

우측 상단에 출품자 사진(명함판)을 부착하고 건축사 사무소명을 기재할 것 (단, 작품명, 사무소명, 출품자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 출품마감

1. 종합작품집 제작에 필요한 자료
패널에 개첨된 내용과 동일한 별도의 흑백사진·설계개요 인물사진을 8월 30일까지 제출 (작품명, 사무소명·출품자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2. 패널은 9월 5일까지 제출

■ 시상내용

- 대상 (1) 건설부장관상
최우수상 (1) 협회장상
우수상 (2) 협회장상
장려상 (6) 협회장상

■ 기타 유의사항

1.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만이 시상대상이 됨.
2. 제출처 및 문의처 / 본협회 출판사업부.

(전화 : 581-5711~4)

大韓建築士協會

두발은 백발로 변해가고 대자연의
계절은 어김없이 여름이 오면
장마가 온다.
그때마다 잊지 못할 6.25의 회상이다.
아니 회상이 아니고 어떻게 될 것이냐가
더욱 관심을 끈다. 어린이 노래중에
“고향에도 지금쯤 뽕국새 울겠지”
라는 천진한 노래를 들으면 왜 눈시울이
젖어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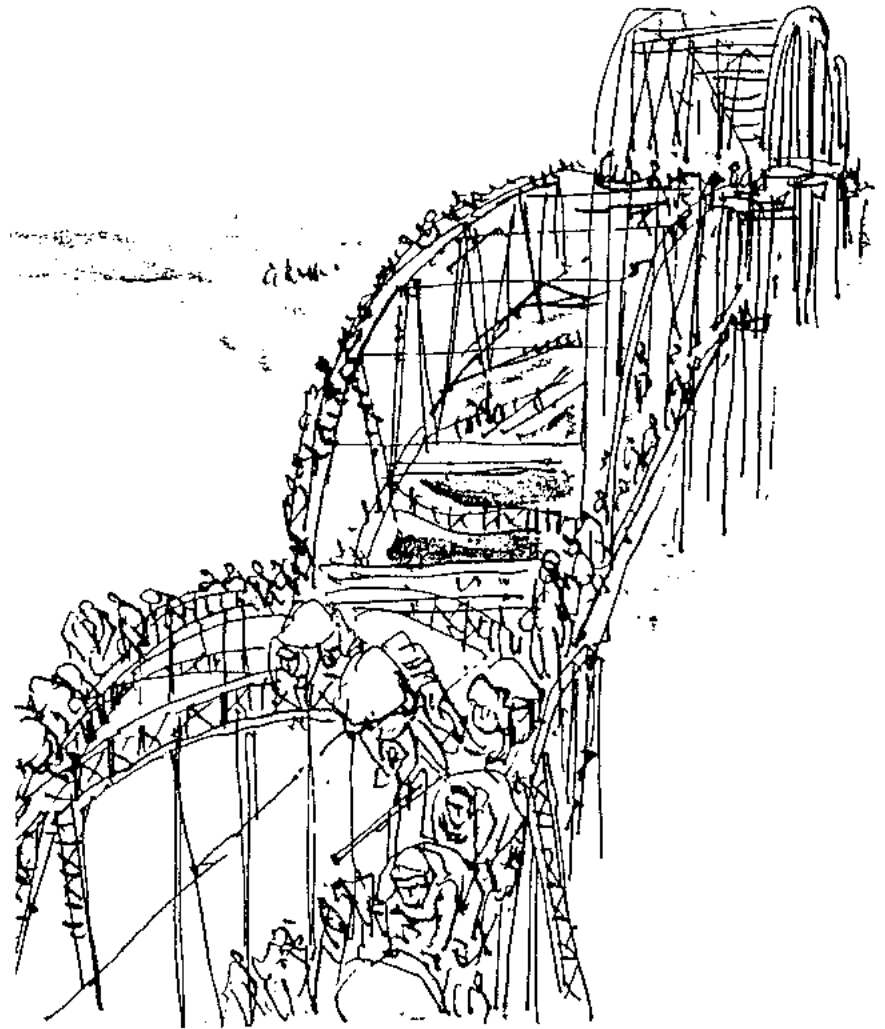
1950년 6월 15일 일요일이었다. 태백과
일영에 영주서 철암까지 산업철도를
건설하는 봉화현장에 나는 있었다. 평시에도
늘 그들의 유격대(우린 그들을 산손님이라고
불렀다)는 인근부락에 방화와 약탈을
해가곤 했고 안동에 본부를 둔 철도경찰대는
철도 건설현상의 요소 요소에 포진되어서 이
산손님들을 막고 있었다. 필자가 있던
봉화현장에도 4.5공구에 1개분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래서 공사는 잘 진행 되어가고
있었다. 가끔 교통부에서 고위층이
현상시찰을 오곤했다. 초여름이라 산중에는
신록이 한창이고 면사무소에 있는
봉화까지는 3km 정도밖에 되지않아 그곳의
경찰서에서 가끔 정보를 알려주면
현장직원들은 서류등을 꾸러가지고 그
조그만한 거리의 여관으로 3km를 걸어
내려가 하루밤을 자고 아침에 다시 현장으로
올라오는 일을 몇번이고 거듭했다. 우린
이런 일이 있을때마다 “민족의 격동”이라고
불렀고 쓴 웃음을 지었다. 서울 본사에서
자금이 좀 늦게와도 노동자들은
현장사무소에 끌려와서 따지곤했는데
그중에도 수상한 자가
2,3명있었다. (이제와서 생각하니 그 자들이
산손님들과 관계가 되어있든지 현장에
위장침투되어 정보를 전해주는 자들이었을
것만 같았다.) 이런 불안한 상황하에서

매일매일의 작업은 지속되었고
우리공구(6공구)의 마지막 江田쪽 現場은
하룻밤 그들이 와서 작업화와 쌀을, 그리고
약자의 곡괭이나 삽같은 연장을 강탈해가고
노동자들은 모두 굶어 얹혀 놓곤 자기의
신분과 계급, 직책까지 소개하고 같이
산으로 가자니 곧 인민군이 남한을
해방시킨다느니 따위 연극을 하고는 밥을
해오라고 하고 술을 가져오라, 의약품을
달라하면서 안하무인격으로 위협해 놓고는
또온다고 큰소리하곤 산으로 들어간 일도
가끔 있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현장을
잠복해서 감시하는 자도 있었다. 한때
정신이상이인지 모두가 작업하는데 한 친구가
술에 만취해서 느닷없이 큰소리로
인민공화국 만세라고 떠들었다. 한두번이
아니었다. 부득이 지서에 이런
정신이상노동자가 있으니 집으로
보내야겠다고 했더니 그들중 관찰해보아야
하겠다고 네려갔다. 그후 그의 소식을
전혀모른다. 한때는 굴뚝을 파는 여인이 가
현장에 다니며 식당에 굴뚝을 팔고 다녔는데
어느 식당에서 굴뚝 값을 늦게 주었더니
불만을 품고 지서에 가서 6공구 제4현장에
빨갱이가 있다느니 연제인가 산손님들이
왔을때도 자진해서 쌀을 주었다느니 따위의
말을 해 제4현장 전원 약40명이 지서에
불러가서 봉화경찰서에 약 1주일정도 조사와
취조를 받았고 전부 무혐의로 풀려나와 그
굴뚝장사 여인의 거짓말임이 들어났다.
그런데 전원을 석방시키니 데려가라고
연락이 와서 트럭을 가지고 봉화를 경찰서에
갔다니 시내여관방을 얻어서 그곳에 전원을
수용해 놓고 있었다. 그 여관에 달려갔더니
4,5십명의 노동자들은 끔찍하고 신음을 하고
있거나 일어설 힘도 없이 누워서 울고
있었다. 현장소장과 필자가 데릴러
왔다고하니 모두가 반가워서 서로 울음을
터트렸다. 그 노동자들을 옷을 벗기고 몸을
살펴보니 목불인견이었다. 매 맞은 자국이나
손가락에 전기고문한 자국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한 것을 알았다. 곧 밥을 지어
먹이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불렀다.
응급치료를 하고 의사가 알려주는 약들을
사가지고 전원을 현장으로 데리고 왔다.
현장사무실은 마치 야전병원같은
상황이었고 각 현장마다 연락을 해서
사무직원들을 소집해 우리끼리 물을

끓이고 약을 발라주고 주사를 놓아주고
붕대를 감아주고 해서 일단정신을 차리게
한다음 4현장 식당으로 돌려보냈고, 그곳의
사실을 본사에다 연락하기 위해 먼저 전화를
하고 현장소장과 나는 봉화경찰서
보안주임을 찾아갔다. 노동자가 모두
무혐의로 석방은 되었으나 한사람이
모자란다. 이 사람을 내달라고 했다.
보안주임은 봉화지서에서 넘겨올때
전원이 다 석방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서에서 하룻밤 사이에 같은 고문을 하다가
1명이 죽어서 뒷산에 이상했다는
마을사람들의 말을 들었다. 나는 카메라를
가지고 그곳을 갔다. 사진을 찍으려 했더니
순경 1명이 와서 사진을 찍지말라고 한다.
나는 화가 나서 그러면 지서에서 우리
노동자를 데려갔는데 한사람이 부족하니 그
사람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아무말도 못하고
있었다. 나는 간략하게 이상한 가마니가
덮혀진 그 무덤을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현장소장과 동행, 서울 본사에 와서 사장이하
전 중역들 앞에서 이 사건의 전부를 그대로
보고했다. 사장도 화가나 다음날 아침6시에
나를 데리고 용산에 있는 철도경찰대장실을
찾아갔다. 대장도 잠옷바람으로 응접실에
나와서 흥분한 사장의 이야기와 나의
현장에서의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는 곧
안동철도경찰관을 위시해서 봉화경찰서가
저지른 일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그후 아무런 해명도 연락도 없이 오늘까지
지나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나만이
알고 있을 뿐이다. 6.25회상에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나는 이제와서
그 사건을 전모를 밝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또 밝힐 수도 없다) 41년이 지났으니 사장도
당시 현장소장도 봉화경찰서장도 모두다, 또
이사건에 관계되었던 관이나 반이나
당시연령으로 보아서 다 저세상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가장 나이 어린
편이었던 내가 현장의 사무주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근자에 와서 6.25를 겪어보지 못했고 그때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젊은층에서
6.25는 남침이다, 북침이다 라고
왈가왈부한다고들 한다. 참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히는 일이다. 나는 당시를 회고해
본다. 상기한 사건이 우리 현장에서
일어났고 이웃 현장인 4공구나 5공구에서나

7공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 현지에서도 듣고 있었고 매일매일이 악몽의 연속이었고 해서 공사를 빨리하고 서울로 철수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각 현장마다 노력을 해서 일을 빨리하고 서울로 가야한다고 언제 빨갱이들이 늘어닥칠지 모른다 라고 현장대표들에게는 말했고 그들도 몇번씩 당해 보았더니 예감했던 것이다. 1950년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다. 날씨는 쾌청했다. 상기 사건도 얼마전에 있었고 현장사무소 앞마당에는 새끼로 그물같이 만들어서 매여놓고

1,2,3,4현장에서 1개팀씩과 현장사무실에서 1개팀을 모두 5개팀이 모여서 배구시합을 시켰다. 물론 승부가 문제는 아니고 출전 전팀에 작업화와 수건을 상품으로 주고 약간의 음식과 술을 준비해서 하루를 즐기고 사기를 올리려고 했던 일인데 많은 노무자들이 자기네 현장팀을 응원하느라고 야단치고 즐거워했다. 온 종일 이 배구시합은 지속되었는데 나는 피곤해서 내 방에 들어와서 좀 누워 있노라니 라디오에서 긴급 뉴스라고 하면서 오늘새벽 38선 전역에 걸쳐 북괴군이 남침을 했다하면서 전군은 즉각 자기부대로 돌아가라고 하는 아나운서의 된 목소리다. 이날이 일요일이니 각 군인들은 휴무를 또는 외출한 군인이 많을 것이므로 부대로 돌아가라는 것과 국민은 침착하게 행동하고 라디오를 주의깊게 듣고 지시대로 행동하라는 군부의 방송도 나온다. 앞이 캄캄했다. 이 태백산중의 공사장에서 오늘 저녁이라도 산소님들이 안내려오리라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나는 아무 일도 없는듯이 떠들석한 배구시합장에 나가서 현장소장과 각 현장 대표 4명을 방으로 데리고 와서 긴급회의를 했다. 각개 행동지침과 각 현장은 그 현장대표가 모든 행동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현장사무실에서는 교통부 현지사무소와 수시로 연락을 하고 행동을 취한다라고 하고는 태연하게 배구시합에 나가서 너무 피로하니 끝내자고 하고 각 팀에 작업화를 상품으로 나누어주고 각 현장대표들은 자기네 현장노무자들을 이끌고 각기의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날밤부터 장대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교통부 사무실에선



노무자 증명서를 만들어서 사무직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6월 27일 증명서 만든 사원들은 민지 출발시키고, 나와 4명이 빗속을 떠나서 영천쪽으로 걸어나왔다. 영천에 가야 기차도 있고 소식도 상세히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큰 길로 갈 수도 없고 사이길로 해서 빗속을 온 종일 걸어서 영천역에 나오니 기차가 없다고하며 서울로 갈길도 없다. 오직 난양까지는 기차가 간다는 것이다. 난양에서는 벌써 포성이 들리고 모든 소식이 끝났다는 것이다. 우리 일행 4명은 화물차칸에 올라타고 당진까지왔다. 기차는 더 못간다고 하며 다시 안동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서울로

가는 길은 험했고 결사적이었다. 물론 걸어서 서울로 가는 것이다. 꾸러가지고 온 담으로 보리쌀을 바꾸어서 길가 농가에서 주먹밥을 만들어 가지고 가면서 서울로 서울로 걸었다.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80리를 걷고 쉬고, 벌써 휴교가 된 시골학교에서 자고 걷고 이런식으로 15일이나 걸어서 서울 광나루까지 왔고 도중에서 인민군(새파랑개 어린 병사이고 난쟁이춤으로 따발총을 보았다)을 만났고 검문을 당했다. 그때마다 철도공사장의 노무자라는 증명서(교통부 현지사무소가 발행해 준)가 효력을 보아 몇번인가 까다로운 질문을 받으며 친신만고 끝에 돈암동회사 사택에 도착했을때 한밤중이고

바는 역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부친이나 동생들은 갈 곳도 없고 나도 안오니 당연히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느닷없이 한밤중에 4명의 모를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 몹시 놀란 모양이다. 다음날 회사에 나가보니 잠겨있었다. 해화동사강실에 갔더니 회사하청만 하던 한사람이 회사를 인수했다고하면서 위원장이라고 사장집에 같이 있었다. 사장도 각자가 자유로이 분배해서 행동할 수 밖에 없다는 소문도 있고 피난민의 행렬은 이어져서 남으로 남으로 마포 나루를 건너서 내 이동을 한다. 한강철교는 폭발되었다고 한다. 이때의 서울의 상황이나 광경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길 없다. 아침먹고 38선남고 점심먹고 평양에 들어가서 저녁먹고 압록강에 간다고 호언장담하는 국군은 어니서 어떤 전투를 하고 있는지도 알 길이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우리국군이 잘싸울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김석원부대가 해주를 점령했다느니하는 소식도 들린다. 그런데 북쪽에서 내려오는 피난민들은 포성과 탱크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더라고 한다. 나도 어린동생들과 부친과 마포를 건너서 영등포의 어느 빈집에서 하루를 자고 역에 나가서 피난민차(화물차 지붕에까지 가득히 타고가는)가 떠나는 것을 살피고 가족들을 데리고 피난민차 지붕에 탔다. 그 다음 부산역에 도착할때까지의 불안과 초조와 허기의 싸움은 이루말할 수 없다. 하여간

기적적으로 부산역에 내려왔으나 갈 곳이 없다. 부산은 각지에서 온 피난민으로 대만원이고 대혼란이었다. 다행히도 길가에서 철도공사 이웃공구에 있던 친구가 부산사람이어서 그집에다 짐과 동생들은 임시 맡기고 잠자리를 얻으려고 그와 들어서 다녔다. 운 좋게도 헛간을 쓰라고 하는 곳이 있어 그리로 모두 옮겼고 여기서 부산 피난살이가 시작되었다. 김해 공병학교에가서 과거 군에 있던 친구인 보급장교를 만나 공병대 주보를 하게되어 그친구의 도움으로 김해로가서 농가를 빌려서 피난생활이 김해에 정착되었다. 나도 모르겠다. 수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용케도 기적처럼 살아남아 오늘에 이르렀으니 인생이란 무엇인가? 6.25는 왜 일어났을까? 그 후 우리 어떻게 오늘까지 살아왔고, Olympic까지 치루었을까? 4.19, 5.16, 그동안 국내외로 우리민족이 겪어온 고난과 시련의 길은 너무도 험난했다. 나는 특히 말하고 싶다. 6.25후의 세대들에게 말이다. 그대들은 모른다. 직접 6.25를 겪어 본 세대가 아직도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무슨소리, 무슨망상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가 말이다. 이산가족 일천만이 왜 생겨났을까? 휴전선의 긴장과 그 수많은 사건들을, 귀순용사들을 보지않았는가. TV에서 평양이나 "이북의 창"이란프로를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 나는 고향이 이북이다. 소위 실향민이다.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다.

요즈음 國是가 반공이나, 통일이냐 하는 논쟁도 나오곤 하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란 어린아이들의 노래를 들으면 나는 속으로 너희들이 통일이 무엇인지 아느냐는 생각이 든다. 나와같은 세대가 가면 통일의 실감은 점점 감소될 것이다. 나의 자식에게 아버지 고향이 되겠지만 나에겐 내가 자라고 뛰놀고 자란 내 고향인 것이다. 통일의 절실감은 나같은 세대에는 실감나는 일이지만 6.25이후 세대들에겐 실감이 날라가 있을 것이다. 언젠인가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대들은 아산의 울부짖음과 혈육의 이산의 아픔을 보았을 것이고 느꼈을 것이다. 왜 일천만의 이산가족이 생겼는가? 6.25는 왜 터졌을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우리 국민들에게 있을 것인가? 6.25를 저지른 자는 누구일까? 우리 국민들일까? 도대체 38선은 그어놓은 것은 누구일까? 우리가 그어놓은 것일까? 38선이 없었던들 6.25는 없었던 것이 아닐까? 6.25 40돌을 맞으면서 저 북녘의 하늘을 바라보며 학생때 떠나온 내 고향, 50몇년간 떠나온 내 고향에도 지금쯤 신록이 우거져 있을까. 달반이면 풀피리 불던 그 원두막은, 마을 입구의 정자나무는 그냥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가고 많은 어린이들이 태어났겠지. 중학생때 떠난 내가 70이 되었으니 유행가사에 타향도 정이 돌면 제고향이 된다더니 여기가 내 고향이란 말인가? 아니다 내 고향은 함경도 두메산골 농촌이다. 6.25 40돌을 맞으면서 살아서 고향에 가 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6.25는 누가 저질렀으며 왜 저질렀느냐, 요즈음 젊은 층은 6.25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몹시도 궁금하다. 요즈음 국제정세는 묘하게 움직이고 있다.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단언 못한다.

6.25는 복집이다. 낚침이다 하기 이전에 차분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두말은 백발로 변해가고 대자연의 계절은 어김없이 여름이 오고 장마가 오곤한다. 그때마다 잊지 못할 6.25의 회상이다. 아니 회상이 아니고 어떻게 될것이냐가 더욱 관심을 끈다. 어린이 노래에 "고향에도 지금쯤 뽕꽃새 울겠지"라는 천진한 노래를 들으면 왜 눈시울이 젖어올까?



金基斗 / 건축사사무소 大英建築

전쟁의 패하속에서 이처럼 일구워온
이나라가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회도덕과 윤리는 파괴되어 온갖
흉악법과 경제사범들이 날뛰고
학생들은 분별없이 경거망동을 일삼고
있다.

우리의 앞날을 이끌어갈 우리의 이성과
국가관을 되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6.25가 무엇이라고 외국인에게
묻는다면 그저 유일 이십오일이라고만
대답할 뿐 韓國戰爭의 勃發日이라고는
상기하지 못할 것이다.

1950년부터 53년까지의 한국전쟁은
西方世界와 共產主義間에 겪었던 전쟁중
가장 중요하고 치열했던 전쟁이었다.
5대륙에 퍼져 있는 16개 국가의 군대가
美國과 UN 깃발 아래, 北韓과 中共軍을
상대로 싸운 것이 6.25전쟁이다. 따라서
6.25전쟁은 韓國民族에게 同族相殘과
파괴와 황폐의 비극을 낳았고 수백만명의
殺傷과 천만명에 가까운 離散家族의 슬픔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한국은 풍부한 문화와 천년이상의
統一性과 民族的 主體性을 갖고 있는
단일민족 국가로 일제 36년간의 혹독한
식민지 통치에서 어렵게 벗어나 祖國光復을
맞이 하였으나 한국인의 의사와는 달리
38선으로 분단되어 외세에 의해 독립을 거부
당하였고 급기야는 6.25라는 비극적인
전쟁을 유발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6.25전쟁에서 가장 큰 민족적
고통을 겪었다. 3년동안의 전쟁으로
韓民族은 집을 잃고 이리 밀리고 저리
떠돌며 결식을 하였고 자식을 강물에
던져야 하는 피눈물도 삼켰으며, 노숙하다
많은 인명이 상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찰과 그 가족들은 한줄에 묶여 집단
사살당하기도 하였다. 어찌 그 참상을
필설로 가늠할 수 있을까!

연합군인 미군도 3만5천여명이라는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고 한국인은 3백만명 이상이
죽어나가 모든 가정에 불행의 안개 주었다.

결국 한국전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시대의 결정적인 비극중의 하나이다.

이와같이 국제적으로 지워버릴 수 없었던
전쟁의 傷痕에서 우리 민족이 타고난
근면성과 성실성은 제2회 서울올림픽을
치른 오늘의 한국을 건설하는 韓民族의
底力으로 세계인은 뜨거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6.25를 전후하여 국민소득을 計上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 오늘날 3천불이라는
고소득시대로 발전하였으니 실로
今昔之感의 萬感이 앞선다.

입을 것이라고는 미국 구호물자 넘마웃이
거리의 패션을 이루었고 검정물 들인 미군
사지쓰봉(바지)이 귀한 외출복이었다.

식량은 어떠했나 일본사람들이 기름짜서
군수물자로 쓰고 남은 콩찌꺼기 대두박을
물에 불려 삶아 먹었으며 밀겨떡, 모리개떡,
수수죽 심지어는 산에 올라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절구에 쪼개 보리겨를 섞어 찌
먹었다. 그뿐이라, 도토리를 주어나가 볶을
썰어 먹었고 시장과 거리에는 미군부대

밥찌꺼기(잔빵)속에서 추려낸 염소고기 뼈는
그당시 영양식으로 많이 먹었다. 이것을
일명 "꿀꿀이죽"이라 하고 시장에서 큰
가마솥에 끓여 팔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기성세대들은 그 어려운 과정을 몸소 겪었고
체험하면서 조국건설에 滅私奉公의 강인한
정신력과 자세로 오늘의 한국건설에 신명을
바쳐왔다. 이것이 기성세대의 國家觀이요
봉사정신이다.

東西古今을 통하여 기성세대가
젊은세대를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은 때가
없었고,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不信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세대간의 차이와
사회적 갈등은 있었지만 그런 세대 차이가
오히려 사회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요즈음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할것
없이 수요일만 되어도 주말여행계획을
소리높이 외치고 있다. 주말일기에서 부터
山行, 돌행, 낚시터까지 일일이 방송하며
시면들을 밖으로 내쫓기에 서로 함의라도
한듯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산도 들도 사람으로 메어지고 낚시터도
물고기의 씨가 마르도록 어디 한곳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볼 수 없다.

물고기가 자라서 등실등실 떠다니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물고기 잡기를 독려하고

6·25를 회상하며

월척봉에 누운 것을 신문에, 잡지에
대서특필하여 고기잡기경진대회라도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國家觀을 재정립하고 민족의식을
외살려 늘기보다는 일하는데 힘을 앞 세워야
하겠다.

요즈음 젊은이중 소위 말하는 K.S.코스로
高學力을 가졌고 일류회사의 중역이라
치더라도 이것이 성공한 人生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修身齊家라고 人生事 모든 것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아침 일찍 들을 쏙고 앞길을 쏙며, 물을
뿌리고 이웃과 아침인사를 나누는 젊은이의
모습은 참 한국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와같은 젊은이를 대한지 50년은 실히된 듯
싶다.

학생은 교문밖을 나설려고 몸부림치고
자리에 앉은 총장마다 끌어 내리기에 여념이
없고, 직장인은 직장인들대로 월급부정
일터투정으로 애써 마련한 터전을 마치기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뿐인가, 지하철은 시민의 수족을 함부로
묶어 놓았고 교사들마저 농성, 시위가
있더니 의사들까지 의료보험수가
인상문제로 집단휴진을 결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贊反을
가리기 이전에 우리 사회의 뿌리가 얼마만큼
흔들리고, 붕살을 앓고 있나를 보여주는
좋은 징표인 것이다. 은행원마저
집단실력행사를 결의함으로써 이제
우리사회의 거의 모든 부류의 계층,
단체들이 한번 이상은 제 주장 제 목소리를

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6.25와 더불어 불과 수십년전만
해도 보릿고개를 걱정해야하는 가난한 삶을
살아왔다. 자원이 없어서 어쩔수 없는
나라라고 한탄하기도 했고 석유가 쏙아지는
중동의 나라들을 부러워도 했다. 많은
젊은이들이 중동에 가서 일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일구어 온 우리나라가 고임금과
소비의 과잉으로 天井不知로 뛰어 오르는
물가 불안심리가 만연되어 있고 민심은
각박해지고 거칠어져 일부 시민들은 탈법,
위법을 죄의 식없이 자행하고 있다.

너도나도 나만 잘살아야겠다는
利己體質化된 속에서 민심은 흥흥해지고
사회도덕과 윤리는 파괴되어 국민학교
어린이마저 수단을 꺾어야 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젊은세대들은
그들의 냉철한 知性과 意欲과 氣魄으로
조국의 방향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고
스스로가 각성해야 하겠다.

학사행정을 마비시키는 수업거부가
자기학교를 위하여 무엇을 얻었으며 회사가
문을 닫도록까지 사태를 악화시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하는 것이 참다운
노동운동인 것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해와서 멈출 수는 없는 것이다.
지도층이나 학생, 노동자들 모두가 한결음
물러서서 무엇이 진정 이나라를 위하고
내가죽을 위한 것인지 깨닫는 공격적
사고로의 전환이 난국을 풀 수 있는
지혜이다.

물질은 사용자의 것이요 소유에는 한계가
있으며 영원한 내것은 없다.

돈과 명예, 돈과 벼슬, 금력과 권력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다.
사람이 있고나서 벼슬도 있고 돈도 있어야
사람이 돈과 벼슬을 움직이고 지배해야
하나, 반대로 돈과 벼슬이, 명예와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價値로 전도되고 있다.

새시대의 새로운 가치는 돈이 없고 벼슬이
없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 그런 정신이요 이것이 새시대의 가장
 으뜸되는 정신이라고 생각된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라의 장래는
희망이 있고 우리들의 자녀는 더욱 복되게
살 것이며 이나라의 장래는 젊은 세대의
책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회 통념”

張基成 / 서울환경건축사사무소

「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못하다」

물 사람들의 역할은 다양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역할이,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정도에서 사회적통념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비슷한 과정을 반복할수록 그로 인한 상승작용을 유발시켜 점점 그 기대치는 떨어져 간다는 사실에 매우 유념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

일정한 보수를 주고 자기가 목적하는 곳까지 편하게 갈수 있는것이 택시의 본래의 사명일텐데 불편하고 예측 못할 불안을 함께 감수하면서, 타고 내린다는 사실자체에 부담을 느껴야하고, 반차는 무조건 승객을 태우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나치는 빈차를 바라보는 허망한 느낌을 자주 겪게 된다.

운전자가 마음대로 승객을 골라 태우는 현실은 우리가 알고있는 사실은 수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므로 편안한 마음이 될리 없다. 이런 운전사는, 자기의 지금의 이 직업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중에서 일정하게 정해진 쿼터때문에 선택될 수 밖에 없었던 몇 사람중의 하나로서 삶의 공인된 운행실서중의 일부라는 사실을 망각했거나, 혹은 그 사실을 적당히 이용하여 제 잇속을 차리는 사람인데, 그러한 행위의 집합이 바로 자기가 속한 테두리집단의 사회적 통념으로 작용한다는 사실과, 그 자리에 다른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과 그랬을때의 윤리, 도덕적으로 훨씬 고상한 통념으로 인식 될 수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으면서 동시에 발전을 간접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가깝게 건축시공 현장은 어떤가? 치열한 경쟁속에서 전반적인 현장을 자기시각 이상으로 볼 수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남은 못하게 해놓고, 정작 제 할 일은 갖가지 명분으로 유기해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쓰기로 한 재료를 안쓰고, 지키기로 한 기일을 안 지키고, 만들기로 한 디테일을 안 만들고, 그래도 우리는 안타깝지만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통념으로 이들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해를 통해 발전을 기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또 다른 수준저하만 예상되고 있으나, 그 예상이 제발 어떤 계기로 빛나기면서 상황이 호전되기만을 기원 할 뿐이다.

우리 건축사들은 어떤 인식일까? 설계의 중요성을 재론할 필요도 없고,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결해야 하는 자리에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섰더라면 더 나은 건물과 도시가 생겼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행위와 작품을 통해 포괄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본 일은 없을까? 내가 아니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즉 남겨진 마음의 힘이 있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크라이언트들은 우리가 횡포를 일삼는 어떤 직업인으로 보지는 않을까. 관청의 실무자들은 왜 갈수록 건축사의 업적을 가볍게 다루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대한 사회적통념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어떻게 알며, 어디로 부터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통념이란 따지고 보면 건축사의 모럴로서 언급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도덕성이란 것이 개인적으로 볼때는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사회적 현실과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인의 품성과 성장환경, 교육환경에서도 유래되고 있기 때문에 천태만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모습은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거울에 비추어 지므로써 비로소 간접과를 형성하고, 이 간접과들이 만들어 내는 영상이 통념으로 일컬어지는 것이다.

주관적인 모습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간접과가 만드는 영상도 변화는 되고 있을것이나, 각 素子들의 변화속도는 차이가 있어 그들이 공명하여 일어나야 하므로 종합적으로 영상의 변화는 그 속도가 훨씬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므로, 바라다하여 조금하게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고, 도덕성을 고양한다는 전체적 흐름의 균질성에 있는 것이기에, 우리의 장래를 보다 희망적으로 기약하려면, 모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일에 대한 경쟁적 심리는 같은 영상속의 동료를 “남”으로 몰아세우고 자기를 낮추지 못하여 공적을 시기하면 협력의 관계를 파괴할 것이며, 자만심에 쌓인 사각이 다른 건축가들의 각고와 인내를 쉽게 다루려 할 것이다. 간단히 자기를 지켜려고만 하면 우리의 장래의 영상은 어느덧 우리를 어쩔 수 없도록 할 것이고, 지움 수도 없고 돌아갈 수는 더더욱 어려운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바로 지금, 우리의 의식세계를 열고 나아가, 미래의 영상을 잠시라도 그려 보면서 밝고 건강하게 일하는 모습들로 살아야겠다.

建築士에게 드리는 글

金性一

釜山直割市 建築課長

佛家에서 말하기를 지나다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였는데 建築士 여러분들과 저희들과는 전궁이 같고 또한 같은 제통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한세기의 한국 건축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은 前生의 因緣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一居一動, 感情, 思考, 심지어는 哲學까지도 잘 살펴볼 수 있었답니다.

이와같이 건축사 여러분의 가까운 곳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전하고자 둔한 펜을 들었으니 설혹 못마땅한 내용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得寵復望蜀이란 말이 있듯이 인간의 욕심은 한정이 없어 자기 직업에 대한 불만, 불이해등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을 가장 잘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建築士께서 잘 모르고 있는 점을 몇가지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로 건축사 여러분의 직업 또한 수만가지나 되나 봅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부러워하는 인기있는 직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결혼기에 신부감들이 그런 사람같은 직업이면 결혼하지! 하는 인기도로서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요사히 세간에서는 Key셋을가져야 결혼할 수 있다는 직업... 의사, 판, 검사 이라지요? 그러면 건축사 여러분의 직업은 어떻습니까?

내일 같이 한정된 Space에서 병자들과 씨름을 하는 의사의 직업(물론 사람의 병을 고친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의 살살못을 밝히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판, 검사들의 직업에 비교해 建築士 여러분의 직업은 어쩌면 더 멋있고 보람있는 안정된 직업이 아닌가 생각되며 또한 일반사회인들이 아주 부러워하는 직업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설계한 圖書가 웅장한 건물로 변하여 영원히 이 지구상에 놓이게 될때 여러분 가슴에 와 닿는 흐뭇한 그 심정은 建築士가 아니고는 모르는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建築士는 한국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성어린 창의력이 마음과 눈속에서 자랄때 미래의 한국이 태어나고 그대들의 작품은 영원히 이 땅위에 남는다는 것은 명심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창의의 線 하나 하나가 묶여서 설계가 되고 이 設計圖書가 바로 도시의 주체인 건물로 형성화되어 이 건물 하나 하나가 어울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이 도시들이 모여 곧 한국을 창조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창조된 건물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창조한 韓國, 이 한국의 작품 하나 하나가 민 훗날 우리들의 자손에게는 영원히 살아갈 空間文化라는 사실을 하루라고 잊어서는 안됩니다.

간혹 여러분이 하신 설계도서 속에서 또는 건축공사장에서 우리들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건축법에만 맞추려고 급급한 것(물론 建築主의 요청에 의해 하였겠지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법에 맞추는 것은 法治國家에서 당연한 일이겠지만 법에만 맞추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본래 법의 限界線은 최약으로 가는 길을 방지하는 길이기 때문이며 후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너무 법만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안목이 어두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 창조를 할수 없으니 좀 여유를 가지고 文化創造에 전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셋째로, 건축사는 바로 市長입니다.

여러분은 建築士 이전에 公人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건축허가나 준공은 공무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建築士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설계한 대부분의 도서는 거의 수정없이 허가가 될뿐 아니라 監理와 준공검사에 이르기 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음을 다음의 통계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부산직할시의 통계에 의하면 88년도 건축허가 건수 12,228동중 창구 즉결 업무가 8,781건으로 전체의 71%에 해당하고 있음을 보아도 바로 여러분들이 허가하고 감독하고 준공검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군수)가 허가하는 것인지 명백하게 알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建築士 여러분이 바로 시장(군수)이라는 것을 아시고 설계도서

작성에서 허가, 감리, 준공점사까지 시장(군수)의 차원에서 일해 주셔야 하셨습니다. 건축허가의 목적은 공공복리 증진에 있는 것으로서 도시 전체가 균형있고快適한 都市建設을 위함이니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건축사 이전에 綜合行政家인 시장의 차원에서 도시전체를 균형(도로, 소방, 수도)과 기능을 고려하여 한 동의 건물설계에 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그루의 나무도 중요하지만 숲을 보는 차원에서 일에 임하여 달라는 당부입니다.

앞에서는 建築士 여러분들의 現在の 위치를 말씀 드렸습니다.

그와같이 인기있는 建築士로서의 자기관리, 미래의 韓國 創造者로서의 긍지, 종합행정가의 직업대행자로서의 公人的 職業人으로 영구불변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단한 자기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 분야도 마찬가지로 건축은 變化와 前進를 요구하는 학문입니다.

급변하는 生活良識, 意識, 要求性에 대처 할수 있는 공간을 창조, 보다 아름답고 보다 쓸모있고 보다 사용하기에 편리한 기능과 조화가 함께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도서는 허가를 위한 도서가 아니고 미래를 함께 시공하는 도서로서의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도 꾸준히 研鑽하는 건축사가 됩시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현대 건축의 흐름과 미래지향적인 건축을 위하여 많은 전문서적과 자주 접하고 많이 생각하여 多多益善이란 말이 있듯이 풍부한 실력을 쌓아 실력시대에 부응하는 專門知識人이 됩시다.

그 다음으로 건축설계를 하실때는 건축주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직업이 建築士이므로 매일 설계하고 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사로 생각되겠지만 建築主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평생을 두고 모은 돈으로 집 짓기를 계획하고 몇번이고 가족회의를 갖고 드디어 집결된 꿈을 가지고 설계에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자칫 우리

공무원이나 건축사여러분께서는 소홀하기가 쉬우나 그분들의 마음을 조그만큰이나 헤아린다면 아니 그분들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그분들의 꿈을 깨지않고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공간을 안겨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의 행복만을 충족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주를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都市 전체의 아름다움과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한 생활공간으로서의 건물을 짓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 建築士의 공지와 職業哲學으로 더 강화해야겠습니다. 건축사의 생명은 독특한 개성과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각각 취미, 개성, 직업이 다르듯이 그들이 갖고자 하는 집들도 다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설계하는 여러분의 작품도 다들 다를 것입니다.

이 작품들은 여러분들의 오늘의 생명이기도 하고 먼 훗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바로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가 김종업 선생님은 가셨지만 그의 잔념과 공지와 철학으로 만든 작품들은 영원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가 88올림픽 대회장의 출입문으로 4천만의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세계 지구촌의 사람들까지도 대회장의 출입문을 보고 감탄과 부러움을 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작품들도 이세상 구석 구석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먼 훗날 우리 자손에게 저기 저 건물이 내가 설계한 작품이라고 떳떳히 말할 수 있는 훌륭한 건물이 창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사 여러분은 가장 개성이 있고 철학이 있는 記念碑의 건물창조만이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살아 남는 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建築士는 共同體 意識을 가진 한 가족입니다.

건축사란 직업은 돈이 있다고 누구나 하는 직업이 아니고 전문분야의 학교를 거쳐 소정의 업무를 수련한후 국가에서 치루는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될 수 있는 직업인입니다. 그러므로 건축사는 전문지식인이고, 예술가요, 공인의 인격자

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소속돼 있는 大韓建築士協會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建築士協會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를 함께 수행하는 모임입니다. 모임의 집단에는 룰에 따른 역할이 주어집니다.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회원 하나 하나의 몸은 나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모두의 것입니다. 즉 한국을 만드는 한국의몸, 사회를 이끌어가는 선도적 역할자로서의 몸, 협회의 일원으로서의 몸,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몸입니다.

이와같은 역할자로서의 몸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그것은 방관자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 공동체 의식을 갖고 미래를 창조하는 藝術人으로서의 役割分擔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공과 私가 분명한 公人的 인격체인 직업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서없이 건축사 여러분께 지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항상 여러분의 옆에서 여러분의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과 마음의 흐름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를 알고 좀더 나은 내일을 발전적으로 창조하자는 마음에서 한 말들이오니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술의 밥도 입으로 옮기는 행동이 있을때 비로소 배 부르다는 평범한 진리에 의거 우리 다같이 21世紀의 한국발전을 위하여 용기있는 걸음으로 행동으로 옮겨 갑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것을 원하고 이 소유욕이 충족될때 비로소 창의력이 나오고 참된 노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건축사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설계하고 있는 일들은 他人의 것이 아니고 바로 내 것이다 하는 主人意識을 가질때 새로운 創意力에 의한 훌륭한 藝術作品들이 형성되리라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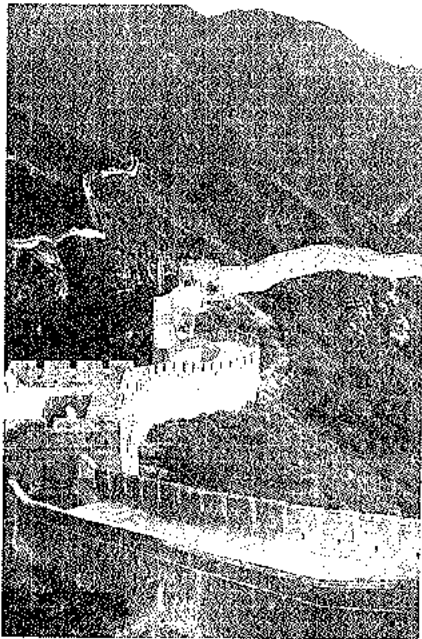
끝으로 建築士 여러분의 행운과 記念碑의 작품들이 부궁하기를 빕니다.

망원경으로 본 중국

China Through Binoculars— Architectural Pilgrim in China Continent

朴舒弘 / (주) 회산종합건축사사무소

by Park, Suh-Hong



—흔들리는 장성(萬里長城)—

—不到長城 非好漢,

장성에 오르지 못하면 사나이가 아니이라—

북경시 외곽을 박 벗어나 나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대형 입간판의 글귀마냥 만리장성의 위세는 먼저 그 진입부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또한

신주제일(神州第一)이라고 칭송되던 장성의 위엄은 마치 승천 직전의 검은

용(黑龍)마냥 팔달령 일대를 휘돌아 치면서 아득히 보이는 운해 속으로 꼬리를 감추고 있었다. 가히 “하늘아래 최초의 성벽”이라는

표현이 실감나는 순간이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위세는 거기서만 그치는게

아니었으니 몽게구름이 내려앉듯 거대한

웅자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의 아득한

지평선을 대하고는 오직 몽롱한 시선을 주고

있어야 할 뿐 그 어떤 표정도 떠올릴 수가

없었다. 저니마가 장성이북에 위치 한다는

낭산이던가?

장성에 오른날은 무척 추웠다. 그래서

그런지 평일에도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관광객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파바루타의 아리아도 발걸음을

가볍게 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녀하여 정월의

진조한 바람은 황사를 동반하고 무심한

모습의 장성을 두들기고 있었고, 역사는 그

황사를 흠뻑맞으며 성벽위에 버려져 있었다.

당초 춘추 전국시기의 각국 세후들의 방어용

성을 진(秦)이 통일후 30만 이상의 인력을

동원하여 하나의 거대한 장벽으로

이어지도록 만든 성벽이 오늘날 우리가 보통

만리장성이라고 부르는 장성의 출발이다.

동쪽의 요동에서부터 서쪽의 감숙성

가곡관(嘉峪关)에 이르면 그 총길이가 약

5,600km에 달하기 때문에 만리장성이라고도

부른다. 진이후 역대 왕조에서 모두 장성의

보수 및 신축 공사에 국력을 기울였는데 그중

유명한 것이 금(金)장성¹과 명(明)장성

이다. 그중 명은 건국후 약 20 동안 축성을

하였는데 명장성중 원형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곳이 북경 외곽의 팔달령에 위치한

장성으로서 동서 2개의 문을 갖고 있는

팔달령장성이다. 장성의 구성은 하부의

장대석 위에 대형전돌을 쌓아 만든 구조로
속에는 진흙과 돌을 섞어 축조했다.

평균높이는 7.8m, 폭 6.5m 상부폭은

5.8m로서 10인이 횡으로 서서 움직일 수

있는 넓이다. 성벽은 일반적 기둥(望口,

射口, 등)외에 별도의 봉화대와 4각형의

성대(城台, 牆台, 敵台, 戰台의 3종류가

있다)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루한 시각에

변화를 줄뿐만 아니라 실제로 있어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보인다. 그 장성의 성벽 위에서 북쪽을

마라보며 말발굽소리 들리는 듯한 감회에

젖는 것은 기마민족의 후예들만이 느낄수

있는 애상일까. 과거 이들 중원 민족의

선조들이 외적의 침입을 막기위해 과와

맘으로 이룩한 이 위대한 방어용 시설물이,

혁명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집권 정치가들에

의해 봉건군주가 인민들을 착취,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역사를 벌였다고 축성 사실

자체를 왜곡 매도 하는 주대상이 되어왔던

것이었으나, 밀려드는 관광객과 함께 오늘날

중국 제일의 명소를 자랑하면서 달려를

벌어들이는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이 무슨 알곳은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게다가 토끼털을 들고

따라다니다가 차에까지 쫓아와서 흥정을

벌리는 이곳 상인들의 얼굴에서 탄력을 지닌

상업민족의 참모습을 볼수 있음이니 이 또한

모순부성이의 역사의 논리가 아닐런지.

하가야 상식적인 정도를 뛰어넘는 변화의

실체를 이 대륙이 갖고있는

진정한 얼굴이라고 보기에겐 부언가

석연찮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리 변화라는 것이 고통을 수반하게

한다지만 그 고통의 시간 또한 계량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내포하는 의의가 반감되는 것이니 차원이

다른 문화적 환경에 있어서야 말할 나위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혁명후의 중국 대륙에 있어

문화예술의 영역은 철저히 소외되고

배격당한 분야였다. 문화적 환경에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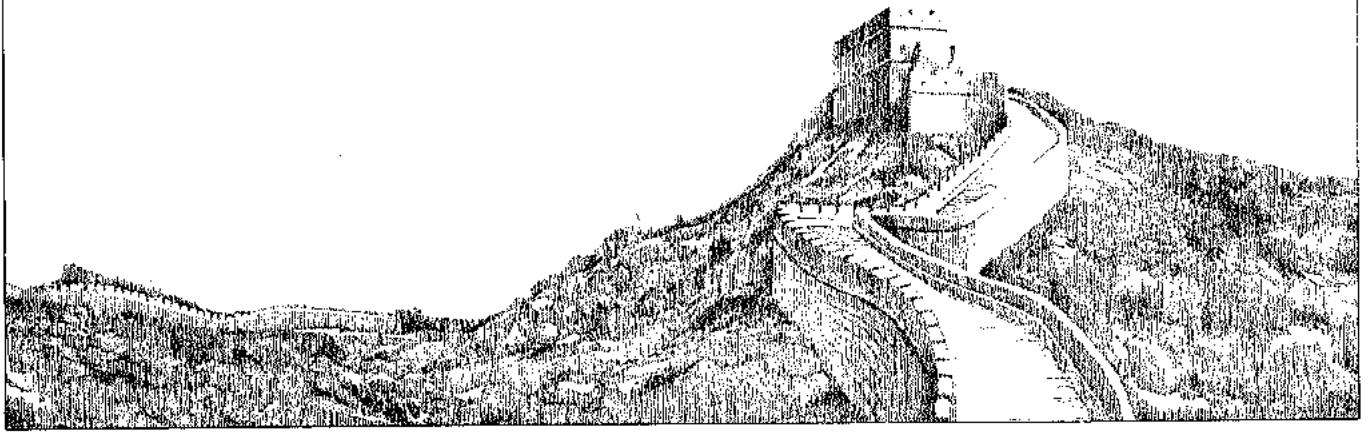
서구의 그것이나 미학적 기준과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예술작품에 있어서도 작품의

—망원경으로 본 중국—

1. 두얼굴의 중국
2. 스허위엔의 비극
3. 흔들리는 장성(完)



중심사상으로 개인적이거나 개인숭배의 요소가 배제되었으므로 각종 예술행위가 발전되기에 적당한 문화유산을 풍부히 지닌 나라이면서도 정체 되거나 오히려 퇴보되는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볼수 있다.

공연예술에 속하는 영화, 오페라, 연극, 무용, 음악 등의 분야에서 시각예술이나 공간예술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전통의 요소를 유지하면서 그위에 새로운 내용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 및 논리는 80년대의 <중국 모더니즘의 실험정신>이라는 변화 앞에서는 고통을 수반한 인내를 강요당할 수 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 「세계는 중국 예술의 미래를 주목하고 있다」고 외치고 나온 1985년 이후의 새로운 바람은 비록 일부 소수에 의한 그룹운동의 범주에 불과하지만 그들 중국 대중들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나타내기에는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화성의 개념이 없는 5음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중국 음악에 추상음악의 도입이라든지 도덕적인 교조성만 강조하였던 과거의 영화에서 탈피한, 영상적 표현을 강조한 작품에서나 최근의 색소표현에까지 이르는 영화의 상영에서나, 그들 과거의 사회주의 문화예술론의 주장은 퇴색되어 가는 느낌이다. 그건 또한 혁명후의 이들의 문화적 전통이라는 것이 스탈린이 주장한 바 있었던 「내용은 무산계급 적이어야 하고 형식은 민족적이어야 한다」는 논리에 맹종해 온 것을 상기한다면은 알른 수공이 가지 않는 것이니, 마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대극권의 원(円)적인 운동과 어설픈게 보이는 경극에서의 선(線)적인 율동과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 만큼이나 난해한 일일지도 모른다.

누드 전시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간 북경의 중국미술관은 전혀 새로운 의미의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기대했던 전시회는 며칠전에 끝나고 현대 중국화의 충격적인 그림이 전통수법의 중국화와 같이 층을 달리해 전시돼 있었다. 또한 만화의 대중성을 뛰어넘는 경지의 작품에서 한참을 기웃거리다 돌은 열방의 전시실에선 숨이 멎는 듯한 긴장을 느껴야 했으니 노동운동들

주제로한 사실적 표현의 남녀 나체가 군무를 이루며 벽 하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바로 옆에 이어있는 추상계열의 소품들. 황색과 적색기조에서 청색과 회색으로의 변화만큼 신선한 충격을 그림 내용이 전달하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던가> 생의 기쁨과 희열이 보이고, 자기 암시를 나타내는 듯한 추상 표현이 있는가 하면, 사물의 본질을 파악 그것을 점이나 선으로 표출해 놓은 듯한 작품도 있었다.

「이제 한집에 얼마요?」

약 10호 정도나 될까. 액자는 형편없이 크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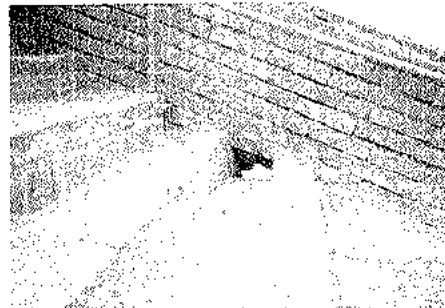
「5천원(우리 돈으로 약 1백만원)」

아래 위로 쳐다보는 눈초리가 곱지를 앓다. 일본사람으로 보고 있나?

「아, 우리 한국에서 왔는데 좀 조정이 안되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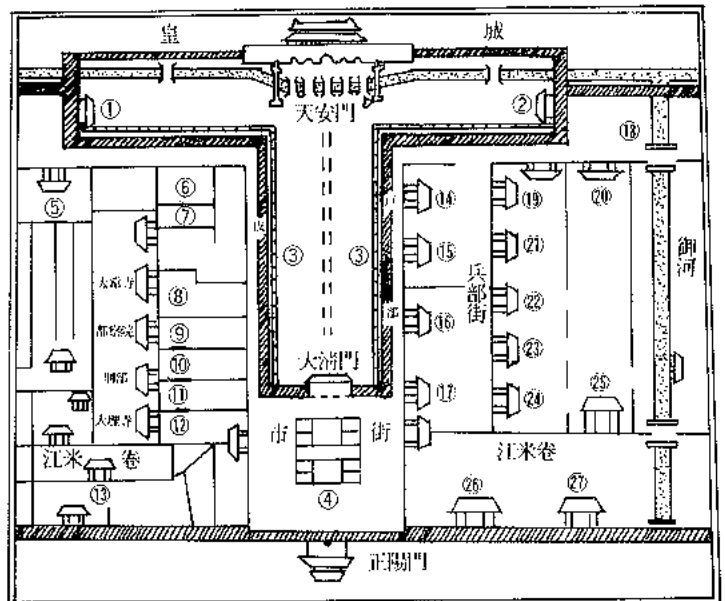
「아, 그러면 내일 오십시오, 이 작가는 내일 당번입니다.」

長城. Carloh Basin 상세. 사구와 같이 아래로 경사져 있고 입방벽들은 선각되어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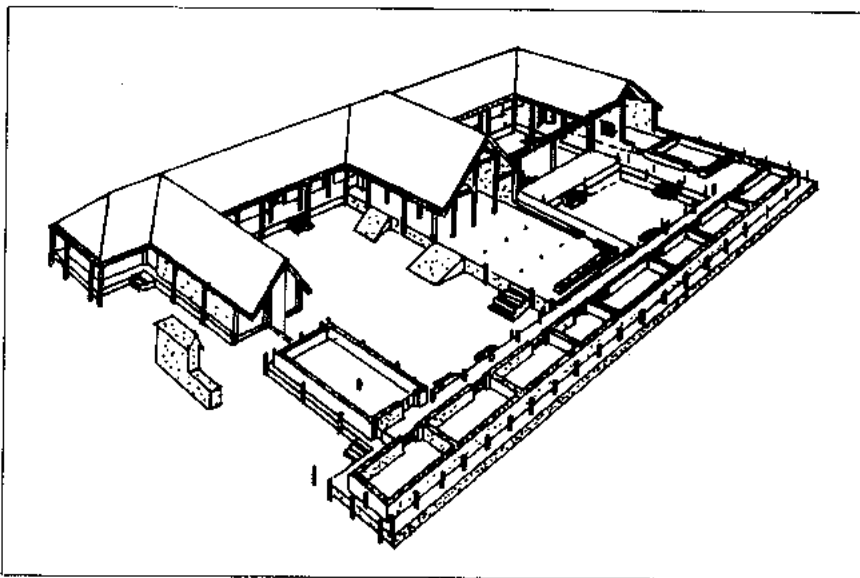


▲ 長城. 아래로 경사진 사구(射口)상세. 벽돌 크기는 380×105로서 일반 성벽(240×57)의 것보다 크다. 제작자의 이름이 새겨진 벽돌이 보인다.

- ① 長安右門
- ② 長安左門
- ③ 千步廊
- ④ 儀衛街
- ⑤ 通政司
- ⑥ 登聞鼓
- ⑦ 右府胡同
- ⑧ 中府胡同
- ⑨ 左府胡同
- ⑩ 制誥廳
- ⑪ 右府胡同
- ⑫ 前府胡同
- ⑬ 京畿道
- ⑭ 宗人府
- ⑮ 吏部府
- ⑯ 戶部府
- ⑰ 禮部府
- ⑱ 御史府
- ⑲ 兵部府
- ⑳ 翰林院
- ㉑ 工部府
- ㉒ 鴻臚寺
- ㉓ 欽天監
- ㉔ 太醫院
- ㉕ 會同館
- ㉖ 懷賢堂
- ㉗ 庶常館



▲ 明代天安門圖(清代 天安門圖)



▲ 주 궁전 복원도(西周 宮殿)

알고보니 한 전시실에 2명 이상의 작가로 전시가 돼 있는데 직접 작가가 지키면서 안내도 하고 판매도 해야 하므로 교대로 근무한다는 것이다. 노처녀 노총각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서 장려된 사교댄스가 보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한 디스코클럽으로 확산되면서 대중위락을 위한 문화공간의 선두주자로 떠오르는 것은 일견 극히 자연스런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록 성개방 정책이 사회의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권의 배려라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섹스의 개방을 묵인하기에 이른 사실은 높게 평가할만 하다.

자정을 조금 남기고 있는 시간. 호텔 옆에 붙어있는 아담한 디스코장이다. 입구의 분위기는 구룡싸이드의 그것과 별로 틀리지 않는 낯익은 모습을 하고있다. 어두운 조명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 얼굴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 감미로운 부르스 선율에 플로어위의 호느적거리는 동작들은 점점 완만해 지고 있다. 25평 정도의 그리 크지 않은 홀에 테이블은 10개. 바닥엔 카펫, 벽엔 인조가죽을 씌운 길다란 판넬과 작은 목재가 배열되어서 희미한 간접조명을 받고 있다. 벽과 천장 모두 회색 바탕에 오렌지 라인을 액센트로한 실내의 분위기는 그지없이 푸근함을 느끼게 해준다. 흠이라면 딱딱하게 느껴지는 의자 정도일까. 확한 녹색조명을 뒤로하고 일어나 나오는데 흐르는 소리는 -My darling kiss me good b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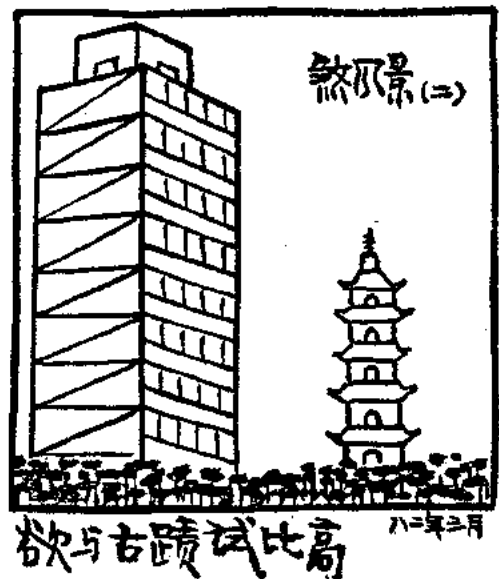
1988년 6월, 창간호로 나온 "환경예술"은 건축과 환경의 문제를 다룬 최초의 잡지로서 주목할만 하다. -환경예술론, 새로운 회방, 중국의 환경 예술, 환경의 개성과 예술가의 개성-등 굵직하게 나열된 제목에 비해 형편없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간혹가다 표현되는 1950년 이후의 것에 대한 돌이켜 보면 비판적 시각은 사뭇 날카롭기조차 하다.

혁명후 최근(정확히는 1978년)까지 근 30여년간 중국 건축은 「사회주의 건축」의

독특한 과정을 거쳐 왔다고 볼 수 있다. 1953년의 제1차 5개년 계획이 발표된후 건축계에 내려진 방침은 "경제적이며 가급적 미관에 주의 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이 시기가 갖을 수 밖에 없었던 성격상 절대적 소련 편향의 맹목적 자세로 인하여 스탈린이 언급하였던 소련 사회주의 건축의 「민족 형식」에 대한 논의가 이론적 배경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스탈린의 「민족 형식」이론에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를 이룬 것이 1940년에 모택동이 쓴 〈신민주주의〉에서의 중국문화의 방향설정을 해놓은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 내용」이다.

그후 이 이론을 짚싸게 건축에 도입하여 「우리는 현대건축물 위에 질서 정연한 고전 전통양식의 형태를 첨가할 수 있다. 또한 당연히 대형 유리기와와 큰 지붕을 씌우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외치면서 나온 사람이 중국건축계의 최고 지도자이면서 영조학사의 건축사로 있었던 양사성(梁思成) 선생이었다. 그의 이론 및 주장은 1953~54년 사이에 절정을 이룬 중국 고전복고주의 및 고전절충식 양식이 개화되는 계기를 이루었으며, 1951년 중앙민족학원²⁾과 1949년 착수되어 1958년 준공된 인민영웅기념비³⁾를 시작으로한 중국 사회주의 건축의 효시를 이루는 배경을 구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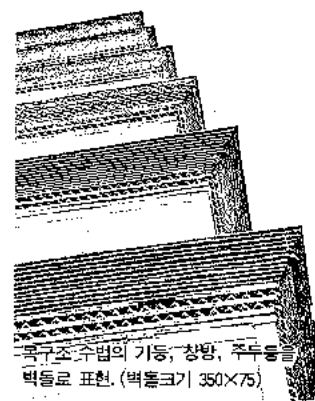
인민영웅기념비는 제1기 인민정치협상회의 의결로 건조된 것으로 "새로운 중국 성립후의 제일의 기념성 건축물"이라는 자평과 함께 고전절충양식의 원형으로 군림하게 된다. 원래 석비는 중국 전통건축에 있어서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숭상서원비⁴⁾와 효경비⁵⁾의 요소가 자연스럽게 도입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비의 구성은 전통양식의 모습(碑身, 蓋石, 臺座)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으며 화강암으로 건조되어 있다. 비신 정면에는 모택동 친필의 〈人民英雄永垂不朽〉의 여덟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당시의 정치 사회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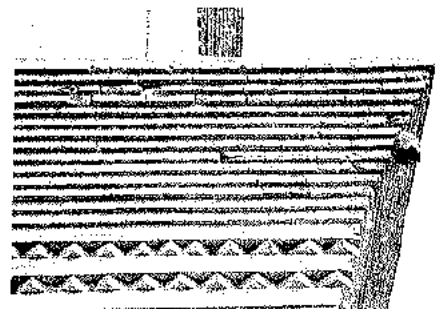
▲ 개발정책에 대한 풍자(華君武 畫)

그후의 1952년의 중공 국방부 대루, 1953년의 중경 인민대회당, 1954년의 북경호텔, 1955년의 북경 사범대학, 북경대학, 청화대학 등 무수히 많은,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동일한 논리와 윤리성을 강요받으면서 세워지기 시작하여 1977년 9월 모택동기념당⁶⁾이 준공되기 직전까지 같은 모습의 변화없는 형태논리를 갖게 되면서 1978년 10월의 〈건축의 현대화〉⁷⁾논의를 맞게 되는 기반을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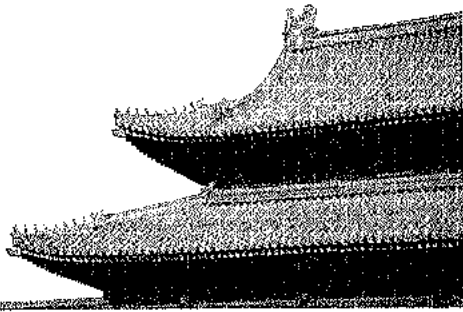
여하튼 후일의 평자들이 어떠한 후평을 내리든지간에 이사람들이 30년동안 연습한 중국식 절충주의야 말로 근대 중국의 이미지를 대표하고 있음은 물론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의 깊이로 보더라도 최소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역사가 항상 강자의 편에 서 있었다 하더라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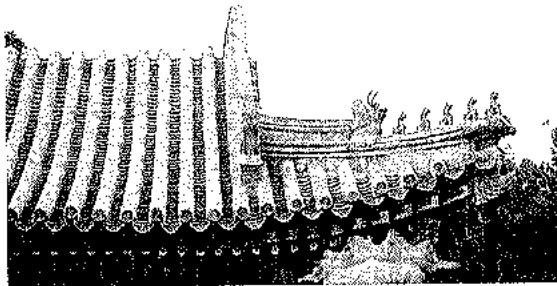
북조조 수립의 기념, 상방, 주두 등을 벽돌로 표현. (벽돌크기 35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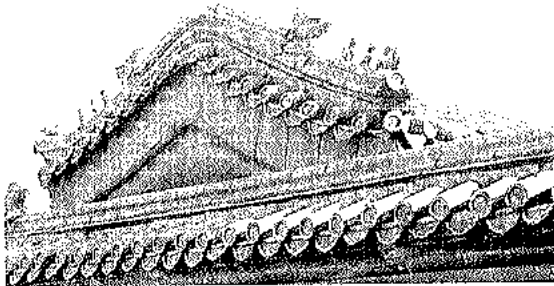
▲ 대안탑. 상세2. 벽돌 내쌓기의 정교한 수법이 잘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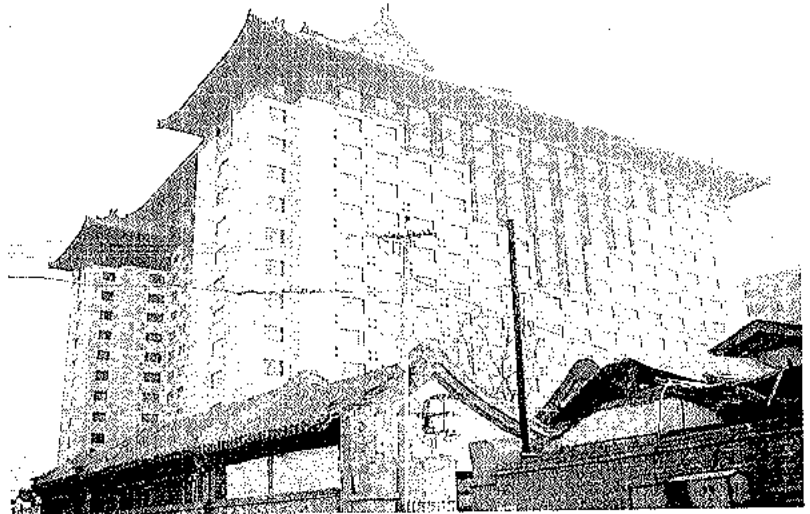
▲ 우디엔(烏迪恩)양식의 중층 지붕 형태, 태화전, 고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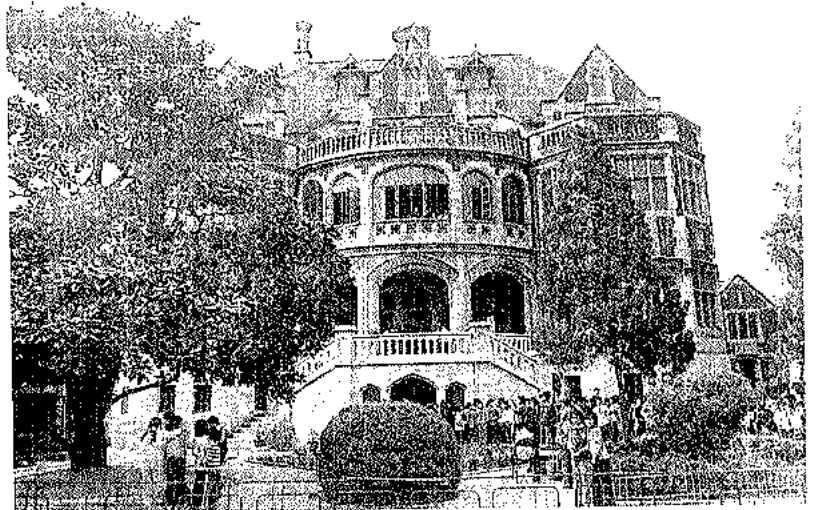
▲ 시에산(歌山)양식의 쥐엔펑(樓閣)지붕형태, 청(淸)대, 북해.



▲ 잉산(硬山)양식의 쥐엔펑 지붕형태, 청대, 고궁.



▲ 신록중인 호텔. 주변 기존 주택과의 조화에서 두드러진다. (북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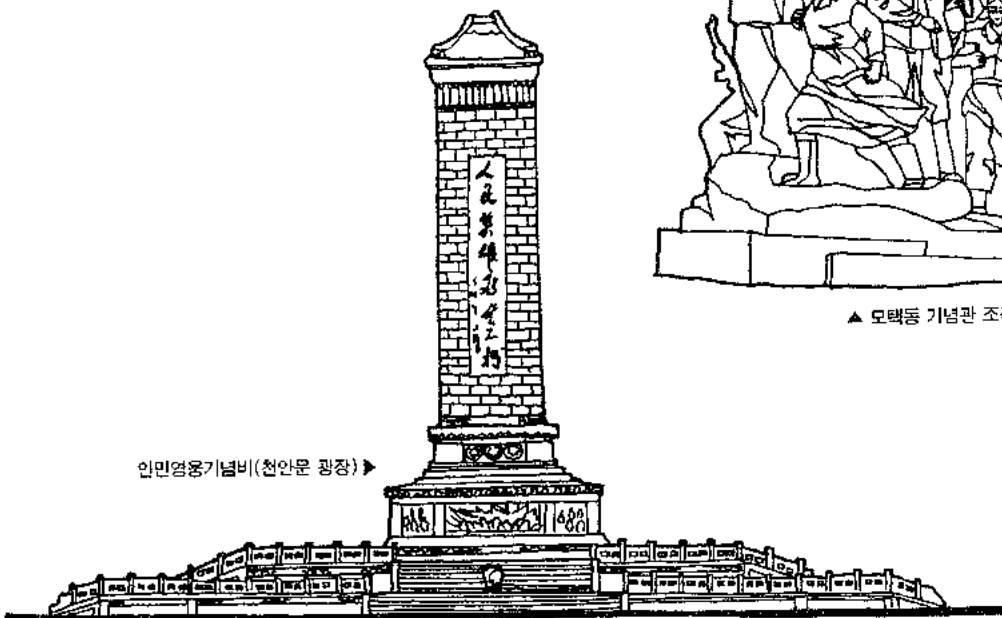


▲ 상해 조계지의 근대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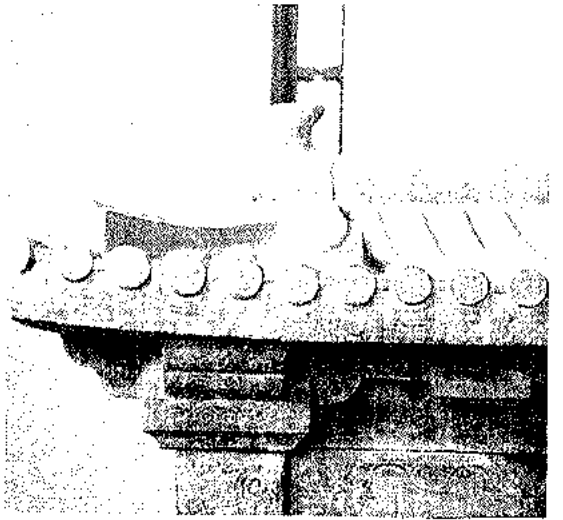
▲ 모택동 기념관 조각(천안문 광장)

인민영웅기념비(천안문 광장) ▶





▲ 진시황 병마용(秦始皇兵馬俑)박물관. 1980. 12 출토된 동거마(四正銅車馬) 3462개의 부속품으로 조립됨.



▲ 가형석관 부분상세. 주두, 침차 및 기와 올마루 등의 형태가 분명히 보인다.

일정도 거의 끝날 즈음.

저녁 식사후 호텔 로비에 박경립 선생과 함께 잠시 쉬고 있는데 귀에 익은 멜로디가 피아노곡으로 울려 퍼진다. 조용필의 〈친구여〉.

어리둥절해서 한참 들고 있노라니까 박수소리와 함께 몇분이 들어오셔서 합석이 이루어졌다. 경정차림의 안기태선생을 필두로 양재국, 민경진, 이강범 세분 선생의 느긋한 모습이었다.

「어떻게 알고 저곡을 연주하지?」

「누구가서 한번 물어보지 그래」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피아니스트의 특별히 우리 일행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연주했을 뿐이라는 설명에도 별로 섭섭한 마음이 아니드는 것은 분위기 탓인지도.

「전통이란 확실히 무서운 거구먼」

「.....?」

「아 저 소리 좀 들어봐, 우리가 들던 것과는 많이 틀리잖아? 너무 평면적 이랄까, 약간 딱딱한 감이 나는구먼 그래」
「확실히 그런 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의 전파현상으로 보더라도 이 대륙 자체는 공동화의 현상으로 남겨진 여러 사례들을 볼 수 있지만 정신 문화의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들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또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런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되는군요. 무엇보다 전통이란 재평가의 대상이지 고수의 대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이 사람들의 몸속에 배어있는게 아닐까요?」

「그렇게도 생각 되는군요. 건축문화의 일반성이라는 관점에서도 공간적 접촉에 의해 이루어진 전파 현상에 있어서 내용이나 진실된 의미 보다는 외형이나 형식의 요소가 더욱 수월했었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 한번 전래된 것을 정통이라하여 비판력을 둔화시키기 까지 하였던 우리의 지난 역사가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대륙의 장구한 역사에 대한 과거와 현대의 인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도 또한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교조성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도 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의 궤적을 추적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도 건축에 대한 조자양의 개혁론⁸⁾중의 「설계는 전체 공사의 영후이다. 설계작업을 개혁하여 적극적으로 선진의 과학기술적 성과를 채용하고 불합리한 설계 규범을 고치고 새로운 표준과 정액을 제정해야 한다. 경제적 효율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설계인원의 적극성, 창조성을 고취시켜야 하며, 다양화와 표준화 관계를 잘 처리하고, 건축조형의 천변 일률적인 상황을 바꿔야 한다. 중대한 공헌을 한 설계인에게는 별도로 장려해야 하며, 심의순서를 간단히 하고 심의권한을 아래로 내려 보내야만 한다」는 귀절을 돌이켜 보면서 융성창명(隆盛昌明)한 중국의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는 마음,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믿는다.

명절을 맞는 대륙의 내용을 채 눈여겨 보기도 전에 아쉬움 난는 중국에서의 마지막 새벽은 안개에 휩싸인채 깨어나고 있었다.

새벽 미명 아래의 자금성이 신비로운 자색 광휘에 휘감겨 있을 이 시각, 웅위로운 장성 또한 웅장하고 거만스럽게 버티어 서 있겠지. 대륙은 들리는가.

서호가에 울려퍼지는 소동파의 탄식을.

대륙은 느끼는가.

천단강 굽어보는 무송의 냇이 발하는 흐느낌을.

대륙은 보이는가.

천안문 광장 굽어보는 인민영웅기념비에 담긴 양사성선생의 고뇌어린 눈동자를.

—글을 끝내며—

대륙에 머물며, 長城과 四合院을 보면서, 또 그들 대중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며 머리속에서 늘 맴돌던 생각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의문이었다.

「중국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인가?」

「한국 건축의 정통성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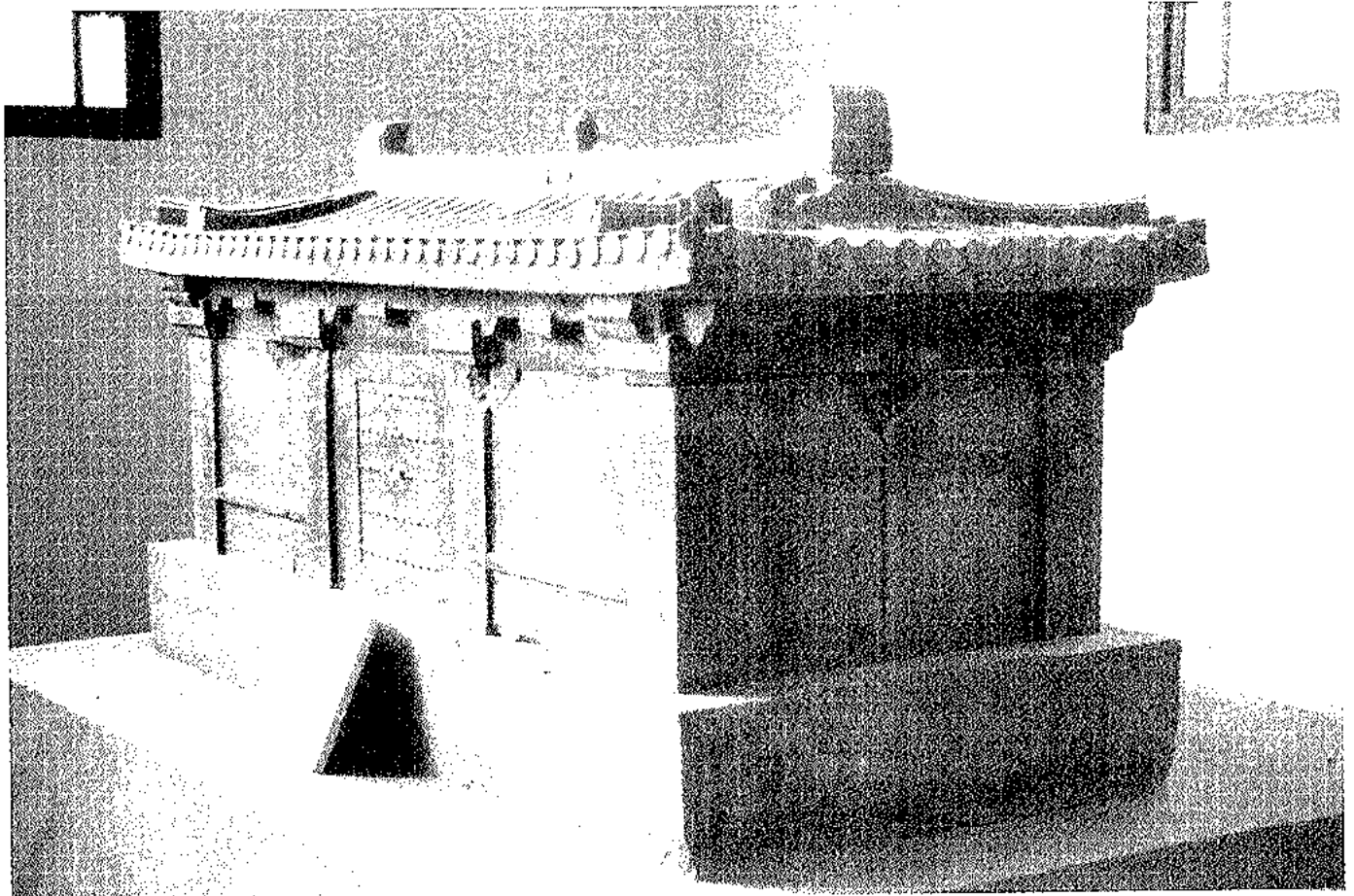
하기야 이런 의문이나 명제라는 것이 단시간내에, 그것도 짧은 기간의 여행만으로

그 해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회를 계기로 문제의 본질에 가까이 가기위한 한두가지의 가설을 세우는 데는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란 생각이 든다.

역사적으로 볼때 우리는 사대주의 및 모화사상의 편견과 논쟁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였으며 대륙으로서의 중국을 모시는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던가. 거기에 더하여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도, 민족적 문화적 열등감을 부각시키고자 만들어진 식민사관의 눈먼 추종자들과 우리문화를 중국의 이류(亞流) 정도로 취급하려는 일부 학자들의 근시안적이고 병적인 편견에 의해 우리의 자주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주류를 형성해온 것으로 볼때, 형태를 앞서우면서도 완념적이며 규범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건축문화의 경우애야 더 말할 여지조차 없는게 아니겠는가. 더욱 다음에 올 세기를 준비해야만 하는 오늘날, Post Modernism이나 High Tech의 미명하에 난무하는 난백상이 산업사회 이후의 새로운 가치와 질서의 창조라는 명제에 부딪쳐서는 그것을 전통의 기반에서 찾을 수 밖에 없는 경험적 논리를 추구함이 올바른 방향설정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결국 세계속에서의 우리의 Identity를 세움에 있어서도 동북 아시아에서의 우리건축의 위상정립 및 정통성 확보가 선행요건으로 간주된다고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Local Source와 대륙이 갖고 있었던 Original Source에 대한 구분이 작은 것과 큰 것에 대한 구분은 물론 낡은 것과 새 것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주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진실된 것과 거짓된 것의 구별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다고 믿으며, 또한 그런 분별이야말로 지난 시간의 중국과 현재의 중국의 그것에서 찾아볼이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생각된다.

우리건축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규명하는 행위가 한·중 좁든 나아가서 韓中日 3국의 건축이 비교되는 시각으로 평가될 때 우리에게 바람직한 소기의 성과가 나올 것을 확신하며, 이 분야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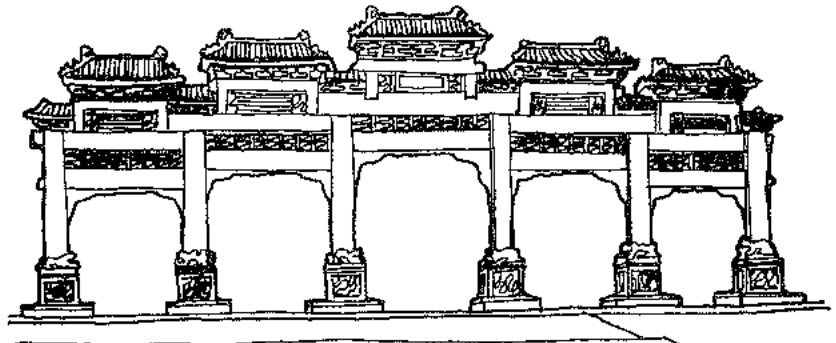


▲ 수(隋) AD 608. 가형석관(李小孫 石棺). 1957. 서안교외 출토. 문, 창, 지룡(獸山, 시에산)등의 수법 및 비례가 완전에 가깝게 표현되고 있다.

의해 좋은 결과가 맺어지길 고대한다.

당초 『우리것에 대한 궁금증』과 『실제 과정에서 만나는 보티브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단편적인 중국공부가 이번기회를 계기로 우리 건축의 Origin을 중국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깨어나게 하는 동기가 되었음을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Historian의 시각이 아닌 Architect의 입장이기를 전지 해온 오늘의 자제가 긍정적으로 분별되기를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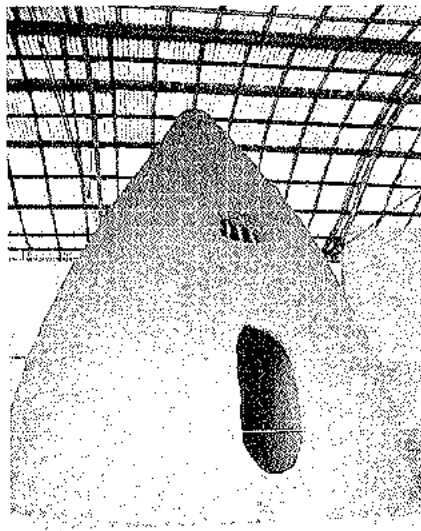
끝



□註□

- 1) 여진이 송을 밀어내고 금을 세운후 축성 칭기스칸 장성이라고도 함.
- 2) 張開濟 설계, (북경)
- 3) 梁思成 설계, 天安門 광장의 人民英雄紀念碑, 營造學社建築師
- 4) 河南, 登封 唐代「嵩陽書院碑」
- 5) 西安, 唐代的「孝經碑」
- 6) 연건평 2만8천㎡, 중앙에 모택동 유해 안치, 일반인들이 참관토록 놓여 있음. 별실로는 모택동 기념실, 주은래 기념실, 유소기 기념실 주덕 기념실, 등으로 구성.
- 7) 중국 건축학회 건축설계 위원회의 좌담회(10월 22일)
- 8) 건축업에 있어 우선 진행해야할 계획 -중국건축연감-

▲ 명13능 피어황(明十三陵 石牌坊)



▲ 양소문화, 반파유지 복원도 (仰韶 半坡)

◀ 섬서(陝西) 빅물관. 석기시대 주거(수혈) 모형. 상부 천장의 형태가 눈길을 끈다.

統一新羅의 建築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Unified Shillia Period

張慶浩 / 문화재연구소장

by Chang, Kuyng-Ho

3. 統一新羅時代의 塔婆建築

탑이란 원래 고대 인도語인 투바(thuba), 투파(thupa), 스투파(stupa)의 音譯된 말이며 중국에서는 高顯·廟·塚·方墳이란 말로 번역되기도 한다. 인도의 스투파는 불교가 생기기 전 브라만교의 묘제로 세워졌다.

인도의 탑과는 원래 覆鉢形으로 基壇과 覆鉢, 그리고 相輪(平頭=二露盤, 傘竿, 傘蓋)으로 되었고 그 주위에는 난간을 두르고 사방에 출입문을 두었는데 門眉石이나 기둥에는 여러 모양의 浮彫를 하여 장식하고 경우에 따라 높은 석주를 따로 세워 기록과 조각을 첨하기도 하였다. 이때 탑의 평면은 원형으로 되어 몇 겹으로 간막이를 한 것이며 구조는 벽돌이나 土石組構式으로 주발을 얹은 '도움' 형태를 한다. 불탑은 佛舍利를 봉안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인데 이것은 인도에서 간다라 지방을 거쳐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의 목조 樓閣 건물에 응용되었기 때문에 목탑의 형식으로 발전되며 우리나라의 일본 등지에 영향을 주어 세워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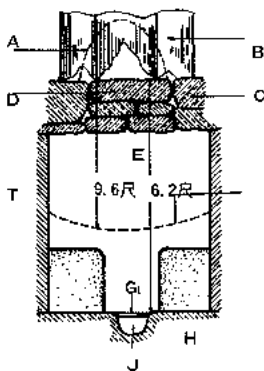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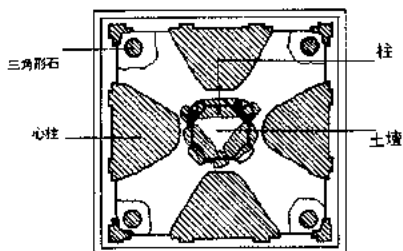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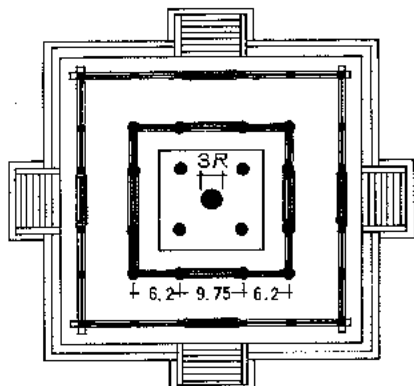
우리나라 목탑형식은 삼국시대에 성행하여 통일신라와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가 간간히 조성되었지만 통일신라 시대에는 유구나 기록으로 보아 사천왕사와 망덕사 이외에 세워진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석탑과 塼塔으로 재료를 바꾸어 세워지기 시작하여 결국 통일신라의 전형적 석탑양식을 이루며 발전한다. 우리나라 석탑의 시원적인 형식은 이미 앞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라북도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라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목조탑을 모방하여 독립된 초석과 돌기둥, 그리고 창방들 등을 개제로 결구하여 건립하였으므로 마치 木架構를 연상시키는 구조이다. 더우기 제1층 옥신부의 4면에는 출입을 위한 식문과 탑 중심부에 心柱 등을 표현한 것은 이 탑이 佛殿의 기능을 갖기도 한 초기적인 형식임을 보인다. 이렇게 탑 사방에 출입문을 두어 출입이 가능토록 한 것은 신라의 분황사 모전 석탑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원래의 의도에서 약간 퇴화된

佛龕의 의미로 변화되었다.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은 크게 나누어서 전형적인 석탑과 특수형의 이형적인 석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형적인 석탑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3층이나 5층석탑으로 구성부분은 기단부와 탑신부 그리고 상륜부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을 형식별로 분류하여 약술한다.

1) 新羅 典型石塔

신라의 전형석탑이 발생하는 과정이나 시기 등을 연구하는 것은 용이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백제에서 미륵사의 석탑이 발생하는 시기에 신라에서도 모전석탑이든 전탑이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석탑이 조영되었으리라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즉 전형석탑이 백제 석탑의 영향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신라에서 조영되어있던 模塼塔이나 塼塔의 영향을 받아 발전되었다는 가정도 상당히 합리성을 띠고 있다. 그 예로서 高仙寺址 三層石塔에서 義城塔里五層石塔까지 일련의 연결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고선사지 3층석탑에서는 1층 탑신에서 모서리 기둥과 面石을 벽석으로 짜고 면석에 門扉를 표현하여 백제탑에서 볼 수 있는 목탑의 영향을 보이나 5단의 옥개 받침석이 별도로 4매, 그리고 옥개 낙수면석이 4매, 총 8매석으로 옥개석이 조립되어 있어 모전탑의 형식을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의성 탑리 5층석탑에서는 고선사지의 석탑과 같이 여러매로 형성된 석재로 조립·구성된 것과 분비를 표현한 것 등이 비슷하나 특히 상이한 점은 옥개석 위 낙수면을 계단형으로 段을 형성한 것은 신라의 모전석탑을 따른 것이 확실하다. 어쨌든 신라의 전형 석탑은 통일신라 직후부터 그 형식을 나타내는데 제일 먼저 感恩寺址 東·西三層石塔을 들 수 있다. 이 탑은 신라 文武王이 시작하여 그 아들 神文王이 682년에 낙성을 보게 된 감은사의 창건년대와 같은 것으로서 혹자는 백제와 신라 두 나라의 석탑양식이 하나로 점약된 형식¹⁾이라고 설명하는 이도 있어 통일신라 석탑의 초기적 형식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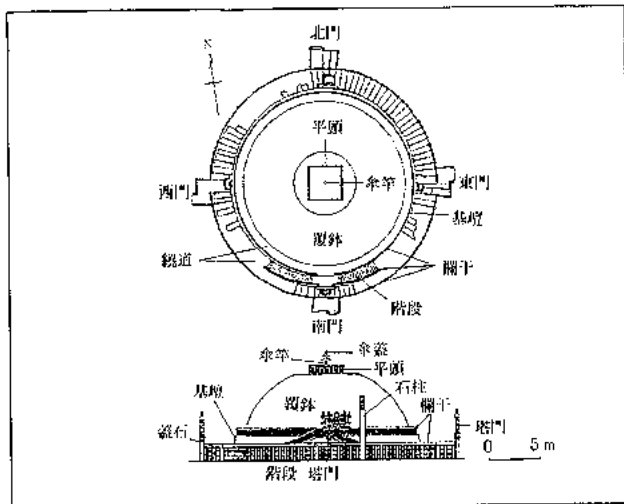
동·서의 양탑은 서로 같은 규격과 같은 형식을 한 거대한 석탑으로 上下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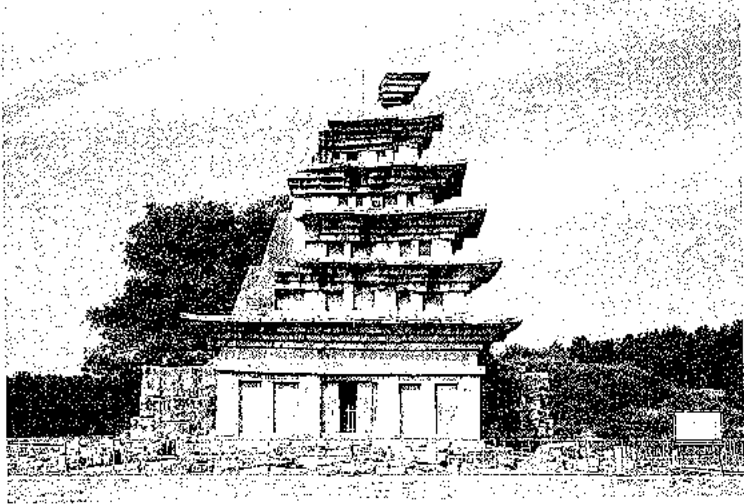
- | | |
|--------------|--------------|
| A : 心柱 | F : 점선 밑은 매물 |
| B : 柱礎 | G : 작은 掘立柱穴 |
| C : 三角形石 | H : 大石 |
| D : 다른 一辺의 돌 | I : 銅板 |
| E : 초기의 空洞 | J : 金刹裝置 |

法隆寺五層塔 下空洞断面推定圖

(日本の建築と藝術에서 전재)



▲印度산체 제1탑 평면·입면도 (印度南海の仏敎美術에서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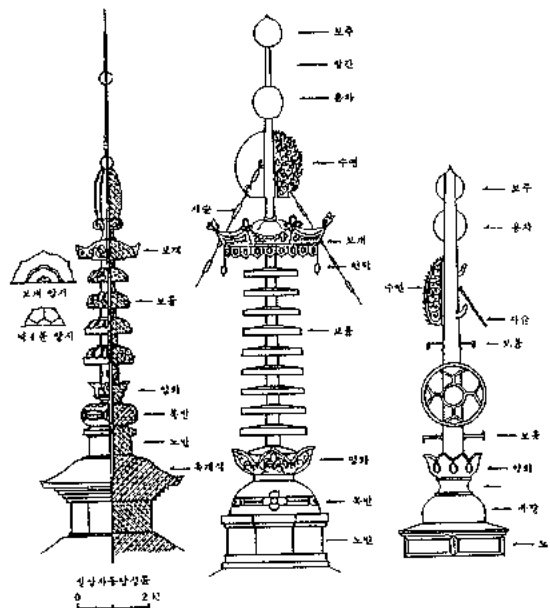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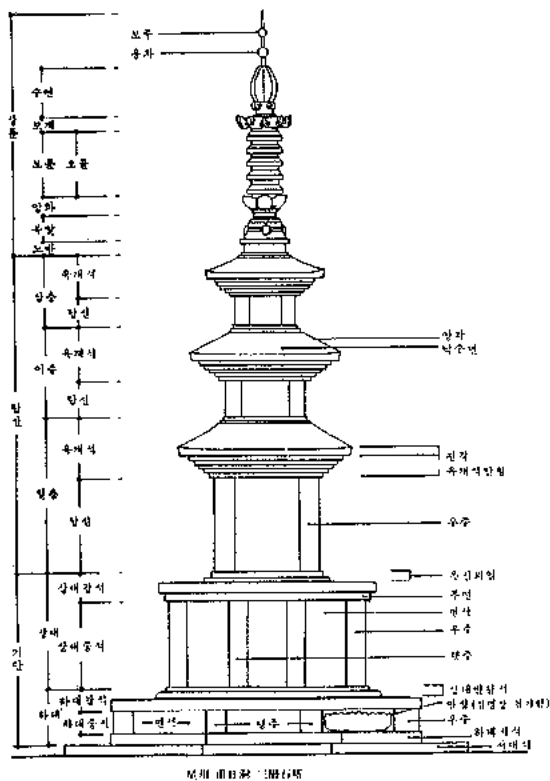


▲彌勒寺址 西塔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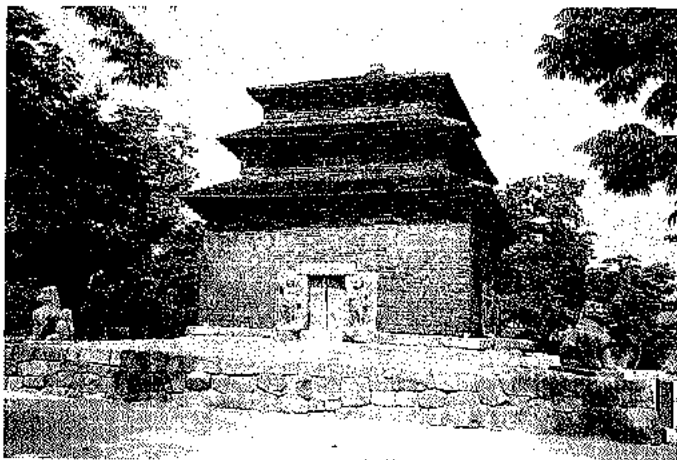
基壇을 두고 기단에는 撐柱와 갓기둥을 부각시켰는데 하층에 3개, 상층에 2개를 두어 고전사자의 것과 같다. 또 하층기단 밖으로는 긴 돌을 깔아 塔區를 형성하는데 이것은 백제의 건물에서 2층기단을 형성한 영향이 미쳤다고 믿어진다. 基壇甲石이나 밑의 옥개석에는 전이 뚜렷한 2단의 탑신과 입단을 두었고 1층의 身은 갓기둥과 면석을 따로 맞추었고 2층은 각 면이 한매의 석재로 3층은 탑신 전체가 1매석으로 조립되었고 옥개선은 각 층 4매의 석재를 조립한 것이다. 또 옥개석 밑에는 5단의 받침단을 두고 있어 고전사지 석탑과 비교하면 옥개석 구성매수가 8개에서 4개로 줄고 옥개 낙수면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었다는 점과 탑신에 門扉를 부각했다는 것 이외에 별로 다를 바가 없다. 1959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하였을 때 석탑을 해체수리하였는데 해체시 제3층 탑신부에 마련된 舍利孔에서 귀중한 사리장치가 발견되어 현재 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탑에는 사리와 기타 佛敎의 莊嚴具를 봉안·보존한다.

羅原里 5層石塔은 여기서 차츰 구성법이 간략화되어 석재의 조립도 탑신은 2층 이상부터 옥개석은 3층 이상부터 1매석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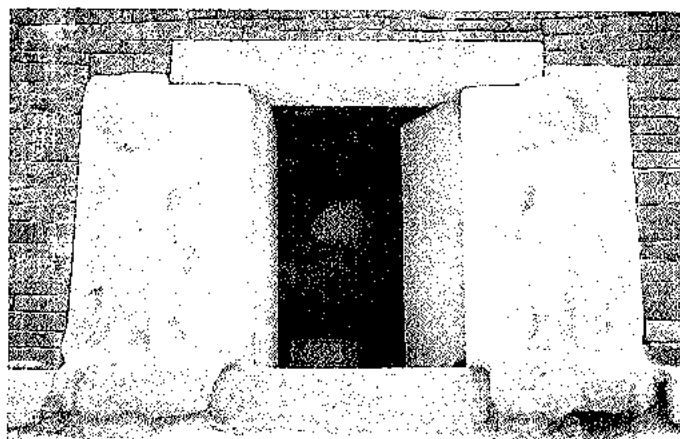
또 불국사의 3층석탑 (釋迦塔)은 하층기단에서 撐柱數가 한개 줄고 탑신과 옥개석이 각 층에서 1매석으로 간소화되며 상층기단이 작아져 형태도 高峻한美를 보인다. 이렇게 하여 우리나라 석탑은 초기에는 목조건축의 영향과 모전탑의 영향으로 많은 部材를 조립하여 구성한 석탑에서부터 차츰 조립부재수를 줄여 시공을 간소화시키는 경향과 이에 따라 구조적으로 안정된 형태에서 고준한 형태로 변해 간다. 그러므로 석탑은 결국 紀念物的인 조형의 상징으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 실제로서 實相寺 동·서 3층석탑에서는 상하층의 기단에 탱주가 한 개씩으로 줄고 옥개 받침단도 4단으로 줄며 처마가 알뜰하고 선이 예리하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相輪部인데 우리나라 석탑으로서 상륜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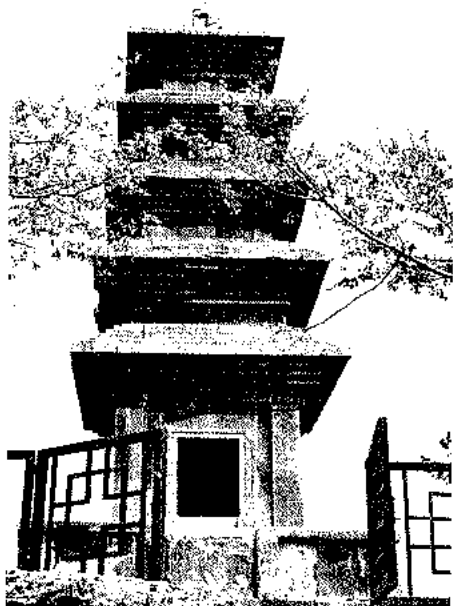
▲石塔의 세부명칭 (上)과 相輪 各부의 명칭 (下)



▲芬皇寺橫塔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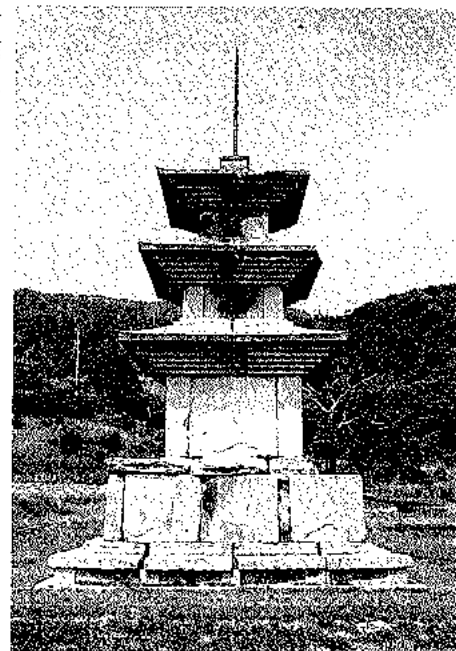
▲芬皇寺 橫塔石塔 佛龕



▲義城塔里 五層石塔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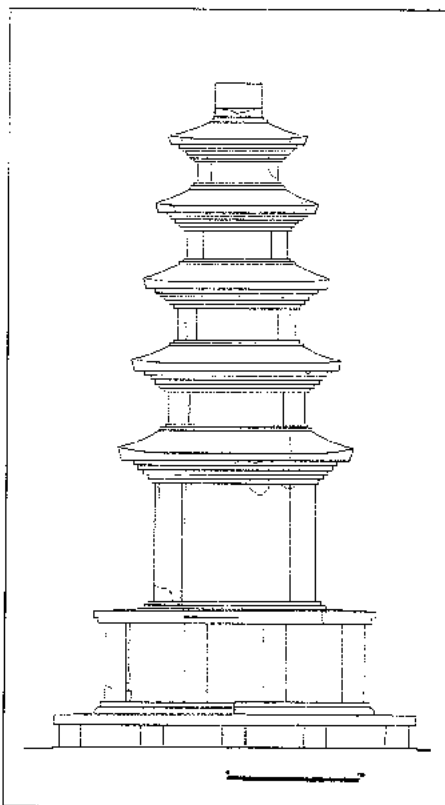
▲羅原里 五層石塔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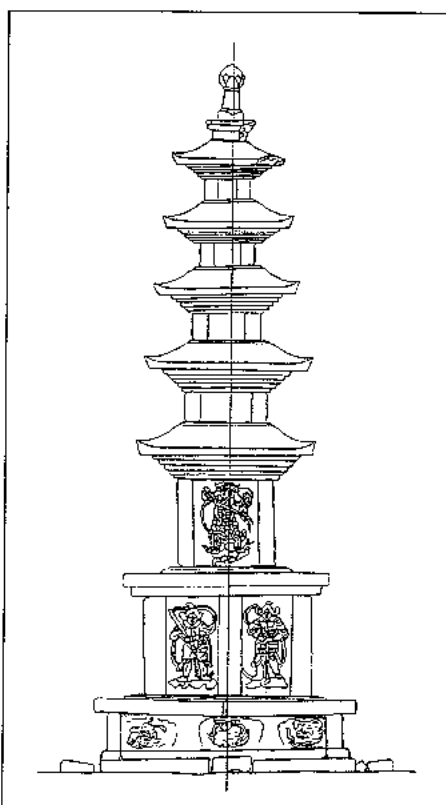
▲感恩寺址 東塔전경



▲義城塔里 五層石塔隅柱 및 龕室門扉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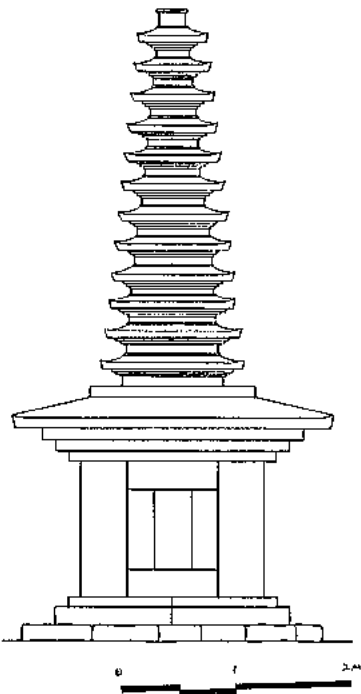


▲羅原里 五層石塔 北側立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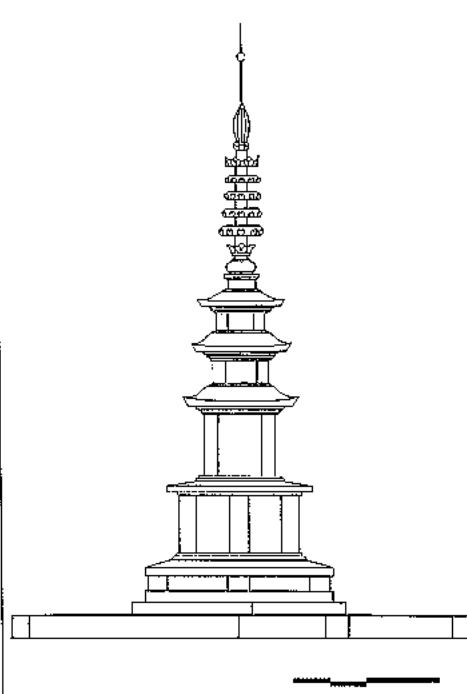


▲華嚴寺 西五層石塔 東側立面圖
(華嚴寺 실측조사보고서에서 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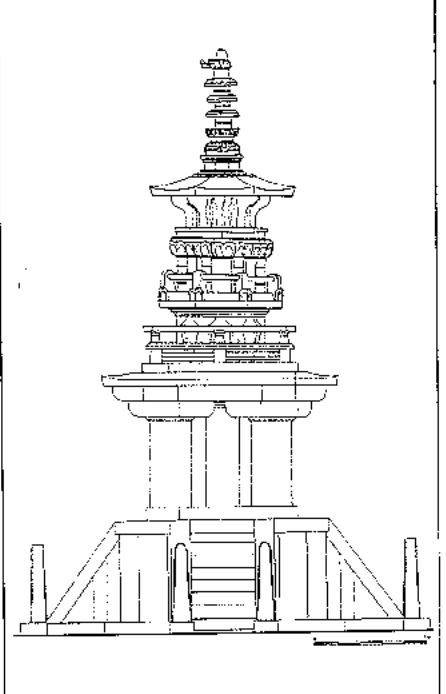
定慧寺址 十三層石塔 正面圖



實相寺 東三層石塔 正面圖



佛國寺 多寶塔 東側立面圖 (한국의 고건축 7에서 전재)



가장 잘 남아 있는 예가 바로 이 탑이다. 감은사지 석탑에서는 청동제 刹柱만 남아 있어 금속제의 상륜을 연상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석제의 露盤과 仰花, 寶輪, 寶蓋 그리고 금속제의 寶柱와 刹柱 등이 잘 남아있어 통일신라시대의 석탑 상륜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그런데 상륜은 보통 5·7·9輪을 함이 보통인데 여기서는 寶輪을 함하여 5륜을 이루었다는 것은 특이한 것이다. 통일신라 말기가 되면 상하층의 격식을 갖추었던 기단이 단층으로 또는 탱주없이 면석으로만 되는 등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들은 신라말에서 고려초까지도 계속된다. 이러한 예는 문경 내화리 3층석탑, 화엄사 東5층석탑 등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2중기단의 변형 형식으로는 기단형식으로 그치지 않고 梵魚寺 3층석탑이나 慶州 慈藏寺址 三層石塔과 같이 기단에 탱주를 생략시키고 眼象을 음각한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전남 광양의 重興山城 三層石塔이나 慶州 南山里 西三層石塔, 陳田寺址 3층석탑 華嚴寺 西5층석탑과 같이 전형적인 석탑구성에다 기단및 佛像·天人像·八部神衆像·12支神像·菩薩像·仁王像 등을 浮彫하여 장식화하는 것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통일신라 말기인 9세기를 넘는 것들이다.

2) 特異形 석탑

먼저 특이형 석탑의 정의와 범위를 정하지 않고는 이것을 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석탑은 첫째 사용되는 재료가 특이한 것, 둘째 그 형태가 전형적인 신라 석탑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또 여기서는 그 범위를 석탑은 물론 塼塔까지 포함하여 논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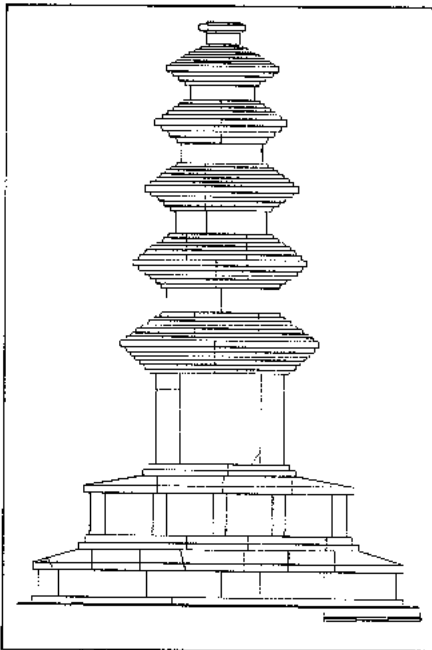
1. 사용되는 재료가 특이한 것으로는 일반적으로 전형석탑에 사용되는 화강석재가 아닌 점판암제 이거나 혹은 구어 만든 塼石으로 쌓은 탑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벽돌과 같이 작은 규격재를 조적식으로 쌓아 탑을 이룬 것이 그 특징이다. 먼저 模塼石塔은 삼국시대 新羅 芬皇寺塔을 그 始原型으로 추정하고 慶北英陽 5층모전석탑과 提川 長樂里 7층모전석탑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사용된 재료만 다를 뿐아니라 그 형태에 있어서도 전탑형의 組積式 구조를 이루어 화강석으로 구성된 전형석탑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영양의 모전석탑은 단층기단 위에 2단의 탑신 받침을 마련하고 그 위에 조적식으로 수성암 계통의 석재편을 쌓아 건립하였다. 석재의 크기는 표면으로 나타나는 면의 재료가 높이 7-9cm 길이 30-50cm 정도의 판석을 잘 나듬어 면바르게 맞추어 쌓았다. 1層 옥신 남면 중앙에는 門扉를 두고 龕室을 꾸며 불상을 봉안하였던 것 같다. 또 각층의 옥개부분은 차차 내어쌓기하여 처마를 이루고 지붕면에서는 반대로 들어쌓기로 하여 낙수면을 이루었다.

특히 여기서는 기와를 얹었던 흔적이 있고 지붕경사 윗쪽 마루터기가 탑신에 약간 물려 들어가도록 각층의 탑신면이 안쪽으로 패여있다. 1989년 현재 국가에서 해체수리 중에 있으나 제2층 탑신부까지 사리장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옥개 낙수면에 기와를 얹은 식은 분황사 모전석탑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대부분의 전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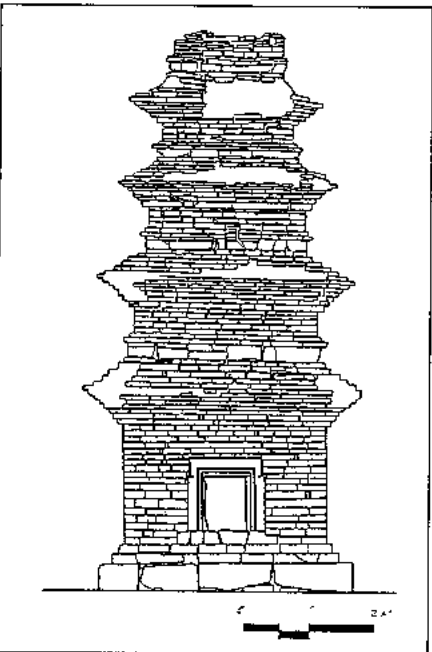
볼 수 있어 그 실례로는 安東 新世洞 7층전탑과 같은 시내 東部洞과 造塔洞 5층 전탑에서 볼 수 있어 초기 전탑의 옥개 낙수면에는 기와를 얹어 탑재를 보호하였던 것이 확실시된다. 이러한 전탑에다 기와지붕을 이루는 형식은 이미 중국 北魏代(4C-6C)에 이루어져 그 유구가 남아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唐代的 陝西省 慈恩寺大雁塔은 7층의 전탑으로 각층마다 4면에 문이 뚫려 있고 상층까지 오를 수 있게 되어있다. 이런 형식의 전탑이 善山 竹枝洞 5층석탑이나 慶州 南山里 東三層石塔 그리고 西岳里 3층석탑 등의 형식으로 변하여 기와의 잇기가 생략되고 통일신라 전형석탑에 가까운 형태로 변해간다.

2. 다음으로 석탑의 꾸밈에 있어 전형적이 아닌 특수한 형태의 부재를 사용하여 외형적으로 특이하게 된 석탑을 지적할 수 있겠는데 그 가장 좋은 예로 佛國寺 多寶塔과 華嚴寺 四獅子 三層石塔, 實相寺 百丈庵 3층석탑, 그리고 淨惠寺址 13층 석탑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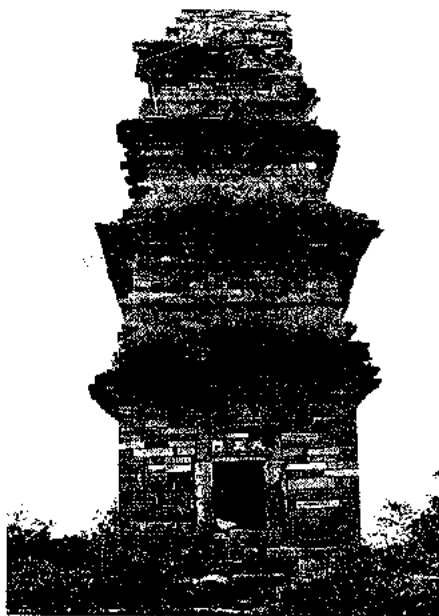
이중 다보탑은 8세기 중엽에 중국에서 세워지기 시작한 것으로 석가의 설법을 찬양한 多寶如來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특수형의 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국사를 김대성이 751년에 조성할 때 처음으로 조성된 탑인데 방형으로된 하층기단 4면에는 계단을 각기 한 개소씩 두었는데 계단 양편 소맷돌 끝에는 石柱를 세워 평면으로 보아 이 석주 外端을 서로 연결하면 방형 기단 모서리와 접하게 되고 8각을 이루게 되어 있다. 기단 위에는 중앙에 4각 心柱와 네 귀에 'L'자 단면의 돌기둥을 세워 그 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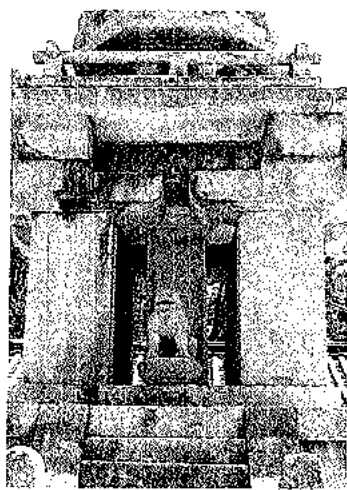
▲普山竹枝洞 5층석탑 등측입면도 (한국의 고건축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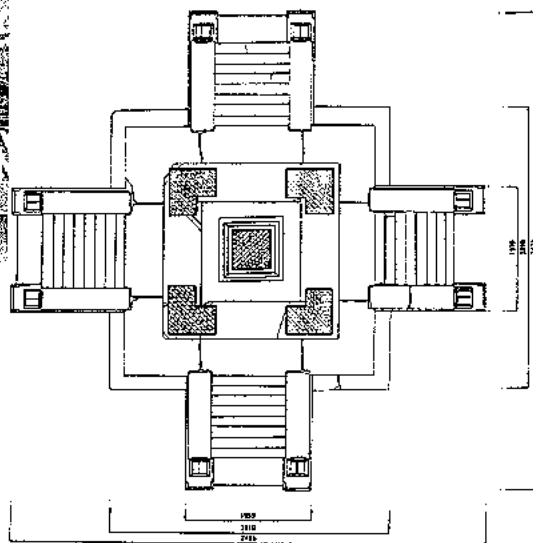
▲英陽 5層樓閣石塔 正面圖



▲英陽 5층 모전석탑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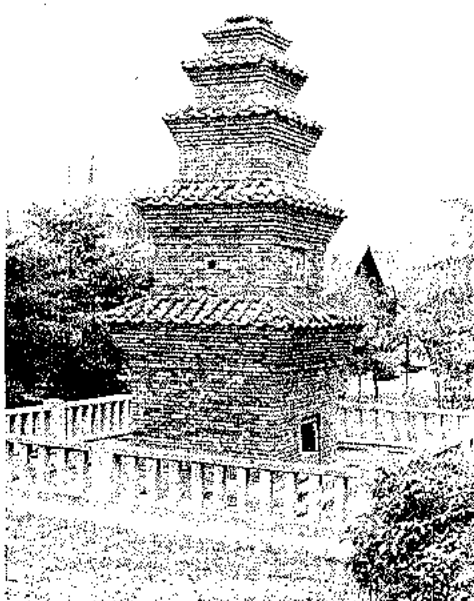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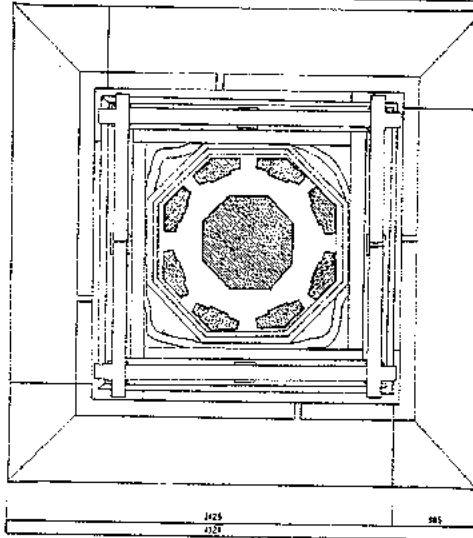


▲佛國寺 多宝塔 1층隅柱와 石獅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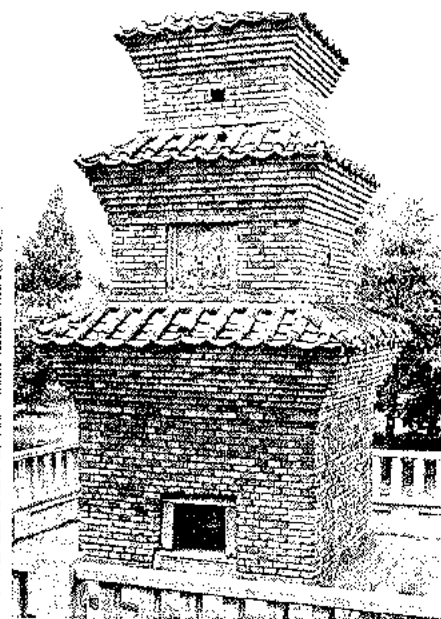


基壇 平面圖▶

▼1層屋蓋石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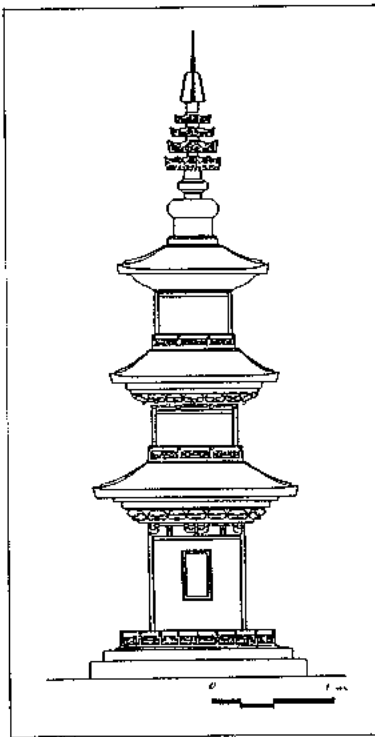
▲安東東部洞 五層樓閣石塔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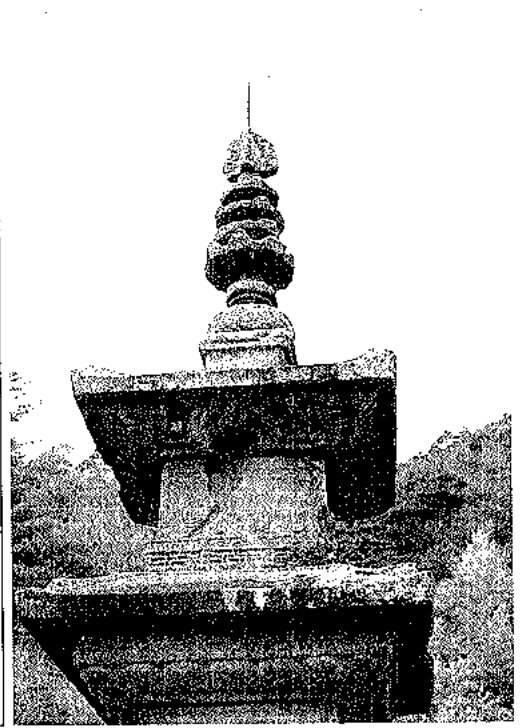
▲安東 東部洞 5층전탑상세



▲眞相寺 眞相庵 3층석탑 전경



▲정면도



▲3층옥개석과 상륜부

첨차형의 가로재를 올려놓고 그 위에 1층 옥개부를 올려놓고 여기서부터 4각평면의 난간과 8각형의 난간 및 탑신과 옥개부를 이룬 후 정상에서는 석조 상륜을 이루었다. 따라서 이 석탑의 정확한 층수는 기단위에 마련된 사방으로 터진 감실부를 한 층으로 보느냐에 따라 4층이나 아니면 3층으로 간주할 것이냐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층수가 아니고 그 형태에 있어 평면으로 보아 4각과 8각 그리고 원을 조합하여 조형하였다는 사실이다. 기단 동쪽에는 석사자 조각을 얹었는데 그 모습이 우수하다. 이 석탑의 총 높이는 약 10.5m이다. 한편 일본에 있는 이 다보탑을 목조로 세워 보통 重層으로 꾸미었는데 하층의 평면은 방형이고 상층은 원형 평면을 이룬 까다로운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가장 오래된 다보탑은 12세기 때의 것으로 大阪에 있는 金剛寺 多寶塔이다.

다음 실상사 백장암 3층석탑은 기단에서부터 전형에서 아주 벗어난 낮은 3단을 이루고 탑신에는 탱주가 없어 門扉와 인왕상과 보살상 그리고 상부에 공포 구조를 표현하고 옥개석에는 연화를 양화로 장식하고 2층 탑신 하부에는 난간이 부조된 특수형의 석탑이다. 여기에는 석재로 된 상륜부도 잘 남아있어 통일신라 건축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는 석탑이다.

慶北 慶州郡에 있는 정혜사지 13층 석탑은 2단의 탑신받침과 같이 생긴 단층기단위에 4꺽기둥을 세우고 그사이에 문틀석을 돌리며 감실을 4면에 형성한 형식을 하고 그 위에는 3단의 옥개 받침단과 거대한 옥개석을 놓아 이 위에서부터 탑신과 옥개부가 한데 붙은 층높은 층탑을 12단으로 쌓아 올렸다. 이러한 모양을 한 석탑은

유일한 것이다. 탑의 높이는 약 5.9m이다. 끝으로 華嚴寺 四獅子3層石塔은 전형탑에서 상층기단을 탱주와 면석 대신 네귀에 원형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머리를 치들고 앉아있는 사자 4마리를 괴어 상층기단 갑석을 받게 한 후 3층의 탑신과 옥개를 구성한 것인데 하층기단과 2층탑신 면석에는 층주는 전인상과 인왕상을 곁들인 門扉를 부각시켰다. 이상에 예시한 것 외에도 기단의 평면이 8각이나 다른 형태로 된 것 등 다양하나 이에 대하여는 생략한다.

결론적으로 통일신라의 석탑은 전부터 신라에서 조영했던 모전탑과 전탑형식에서 발전한 요소와 백제에서 영향받은 목조탑과의 변형형식이 혼성하면서 하나의 형식을 낳게 된 것이며 이 원형의 예가 고선사지 3층석탑과 감은사지 동·서 3층석탑이다. 이들의 특징은 탱주와 꺽기둥을 둔 상·하층의 기단을 형성하고 이 위에 우주를 부각한 탑신을 2단 괴임돌 위에 놓고 그 위에 5단의 받침을 갖는 옥개석을 올려놓아 정상에는 露盤·覆鉢·寶輪·寶蓋·水煙·寶珠

등을 구비한 상륜부를 두었다. 초기의 석탑은 여러 부재를 조합한 조적식으로 구성하고 따라서 구조적 안정감을 주도록 조형을 맞추었으나 차차 부재도 단일화되고 격식도 흐트러지면서 기단 한 층이 생략되거나 옥개 받침단이 줄고 기단이나 탑신면에 여러 가지 화려한 浮彫를 施紋하게 되었다.

다음 탑내에 봉안하는舍利장치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하면 삼국시대 목탑에서는 황룡사 목탑과 같이 心柱礎石을 파고 그 위에 봉안하여 덮개로 덮은 후 심주를 세우는 경우와 일본의 法隆寺 五重塔과 같이 心柱 밑에 봉안하는 방법²⁾이 있다고

보는데 이때 심초석이 기단 지표 밑 깊은 곳에 놓이는 경우와 기단위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석탑의 경우 백제 머록사지 석탑과 같이 露盤石 한 쪽 윗면을 깎아 구멍을 만들어 이곳에 사리 기타의 유물을 보관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석재로 쌓아 세운 心柱가 엄연히 존재하므로 이 안에 숨겨두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이 경우 노반에 있는 보관장치는 탑을 세운 撥柱記錄을 보관할 수도 있는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의 塼·石塔은 일제시대부터 많은 수가 해체보수되면서 사리장치 및 莊嚴具를 발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해체수리로 밝혀진 이 시대의 해체수리로 밝혀진 이 시대의 석탑사리 장엄장치는 약 30건이 되는데 그중에 사리함을 1층塔身에 둔 것이 8건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 3층 탑신에 둔 것이 7건, 2층 탑신과 옥개에 둔 것이 5건, 기단에 둔 것 3건, 기타 등의 순서로 되어있다. 탑신이나 옥개에 舍利孔을 마련할 때는 부재의 상면 중앙을 파고 보관하였다.

註)

- 1) 鄭永鎬, 石塔의 概說, 韓國의 古建築 제 7호, 문화재관리국, 1985.
- 2) 關野貞, 日本의 建築と 藝術(上) 岩波書店, 1940

급진적 유토피아에서 근원적 건축으로
-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끊임없는 노력 -

아돌포 나탈리니 - 슈퍼 스튜디오 (사진 1, 2)

Overseas Contemporary / Adolfo Natalini - Super Studio

成仁洙 /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Seong, In-Soo



〈사진 1〉 아돌포 나탈리니



〈사진 2〉 Super Studio

1. 대표작

1979년 나탈리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 중심지역 개축계획 설계경기에 초청되어 여러 대안을 위촉받았다. 건축과 역사적 중심지를 조화시키려는 여러 계획안의 일부였다. 나탈리니는 이탈리아의 피렌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등과 같은 역사적 도시설계를 여러 프로젝트 설계했다. 역사적 도시에서의 작업은 우리들이 현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대로의 도시를 창조하기 위하여,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서로 다른 이미지나 현실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Dome과 시청사이의 중심지역은 바로 1978년에 공개설계경기를 통해 재계획되었다.

1944년 전쟁에 의해 파괴된 역사적 도시, 프랑크푸르트의 중심지역을 재건하기 위하여 여러번 시행된 설계경기의 주체였었다. 1963년의 당선작은 얻기보다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다. 1979년 봄에 재작들과 나탈리니는 교훈적인 프로젝트를 했다. 이작품은 후에 프랑크푸르트예술협회에서 『외버베르크 재건설-비평적, 反語的, 詩的 계획안』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되었다.

다시 1979년 가을, 독일건축가들 위해 설계경기가 공고되었을때, 부어, 라이히린, 허츠버거 등의 건축가도 초청되었다. 옹모요강에는 외버베르크 주거 단지와 상업, 문화 사회시설등의 '역사적' 재건의 내용이 실려 있었다. 나탈리니는 봄에 냈던 안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승인되지 않아서, 번외로 제출하였다.

1등당선작은 베를린 출신의 젊은 건축가 방에르트-안센-솔츠-솔테에게 돌아갔고, 그들에게 특별히 다른 계획안으로 2등상도 돌아갔다. (사진3)

심사위원인 오스발트 옹거스에 의해 최고의 찬사를 - 금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건축적 시'라고 - 받았던 나탈리니의

작품은 거부되었다. 이탈리아 건축잡지 도무스는 '설계경기를 초월한 우수작'으로 평가해서, 1등보다 앞에 게재하였다. (1)

당선작은 지하역, 지하 주차장, 문화센터, 도시계획국 사무실등이 있는 지하실을 볼 수 있다. 이 계획안은 부분적으로만 시행되었다. 시 당국은 이 계획안을 그 후에 두가지 합당한 이유때문에 중단하였다.

첫째, 재정이 고갈되었고, 둘째, 이 계획안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979년 나탈리니는 그곳에서 지하역과 지하 주차장 뿐만아니라 이미 집이 들어서고, 공학기술적인 사무소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지하주차장은 지금 가설지붕이 덮여 아주 이상한, 여러층의 광장(Piazza)을 형성하고 있다. 광장은 아주 이상한 입체를 분산배치 했는데, 구조체 끝부분인 동시에, 문화센터를 위해 새로운 단서로 추측할 수 있다. (사진4)

계획당시 나탈리니는 그곳에는 이미 건축물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것이 이미 형성된 도시내에서, 수맥을 찾는 사람처럼 건축을 찾기위해 노력했으며, 이곳에 생명을 불어 넣어야 하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들은 언제나 대리석 덩어리안에 숨어 있으며, 조각한다는 것은 겉에 묻은 대리석 조각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말한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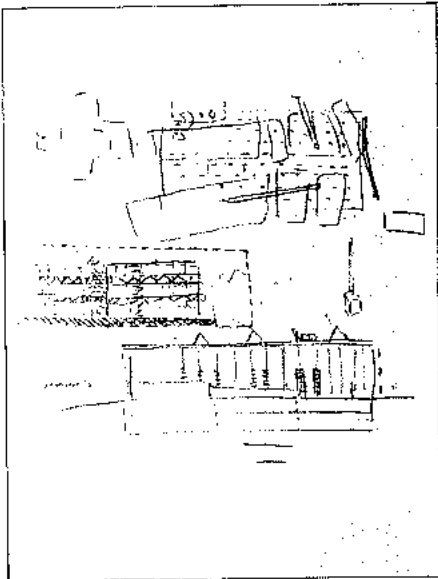
나탈리니는 도시구조를 창조하기 원하였으며, 어떤 밀집한 건축환경을, 지붕덮인 광장 또는 집회장을 만들려 하지 않았다. 나탈리니는 주로 그 장소에 존재하고 있는 도시의 다른 면들을 보여주려 했다. 즉 도시에 현존하는 로마의 폐허로부터, 샤를마뉴시대의 유적, 중세시대의 거리패턴, 지하주차장과 같은 현대의 구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면들. (사진5)

첫 아이디어는 건물로 이루어진 숲을 창조하고 싶었다. 단지 이유는 이러한 작은 입방체(집)들을, 짧은 잔디가 여름의 무성한 잔디를 알리는 서곡으로 보이는, 봄철의

물에 잠겨가는 도시를 바라보며 떠오르는 자신의 모습.
어디가 물이고 어디 물이요,
무엇이 문화며 무엇이 건축인가?

건축물과 문화는
물속으로만 잠기는가.
망각에도 잠기며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도 잠기어 간다.

버들가지를 양손에 쥐고,
지하수를 찾아 헤매듯,
오래된 도시에서
건축을 읽어, 과거의 영광을



(사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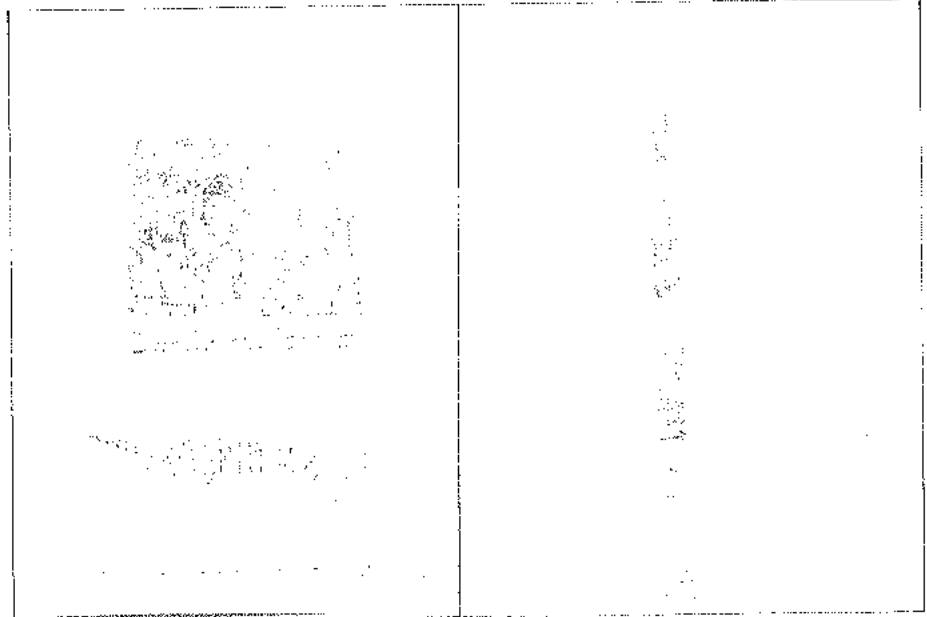
농촌들판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숲은 건축이나 심리학의 강력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숲을 연상시키는 주랑이 있는 홀을 만들기 위해 건축과 자연의 상이한 두 아이디어를 결합시키려 노력했다. 당신은 이 작은 스케치에서 프로젝트 전체내용을 다소간 볼수 있을 것이다.

이 주랑이 있는 홀은 중세거리의 패턴을, 주택과 작은 광장을 재현하는 것이다. 바닥은 두종류의 다른 질감을 지니고 있다. 규칙적으로 자른 그지방 석재가 하나의 질감을 보여주고, 다른 질감은 기존 포장도로를 모방한 것이다. 기둥은, 기존식재 형태에 기초를 둔,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원추형의 철재기둥과 같다. 거리에서 기둥은 대단히 단순하게 보인다. 오래된 집의 기둥은 유럽의 도시의 인상을 주는 돌로 덮을 것이다. 지붕은 고풍스런 거리를 재현시킬 장이 있는 단순한 3차원의 절제 트러스로 할 것이다. 창은 절단된 유리피라미드형으로 만들 것이다. 시청과 마주하고 있는 작은 광장에 면해있는 몇채의 주택은 프랑크프르트에 유행했던 전형적인 외관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이 집들은 정확히 시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공사중인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옛날집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이곳에서의 재건은 순수하게 隱喻적인 것이다. 이것은 재건이라기 보다 과거를 생각해 하는 일이었다. 건물의 파사드는 과거의 것과 1대1로 대응되어 코르텐 강으로 지어질 것이다— 즉, 실제 주택의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리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들이 드러나 보이는 무대장치 효과를 위해서, 파사드의 크기와 모양을 다시 만들려고 한다. (사진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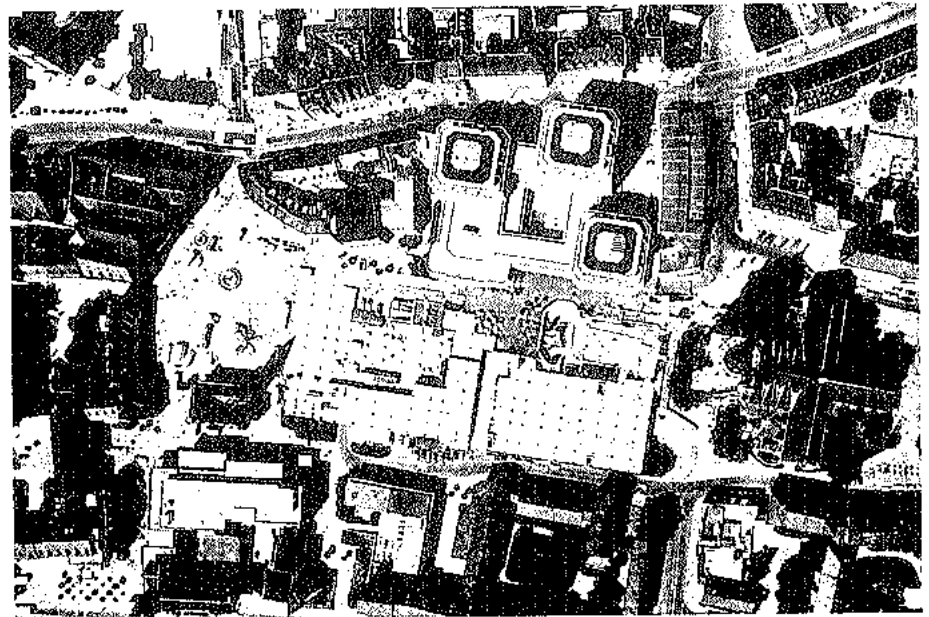
계획안중 사진6에는, 고고학적인 유물, 중세의 거리형태, 현대의 기술적 구조를 보이기 위한 여러 평면이 담긴 내용을 볼 수 있다. 사진7의 봉타주는(사진7) 계획지역 전체를 보여준다. 지붕위의 대각선은 통로로서 다양한 경관을 볼수 있는



(사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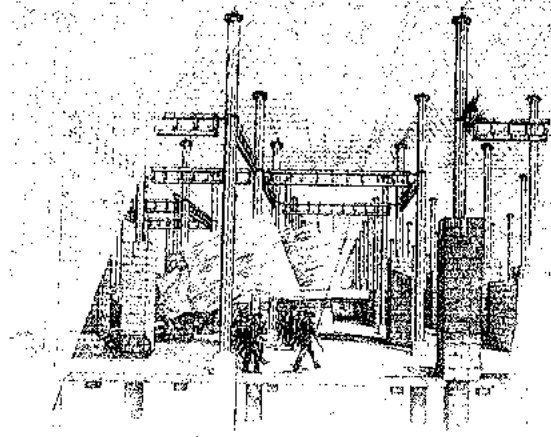
(사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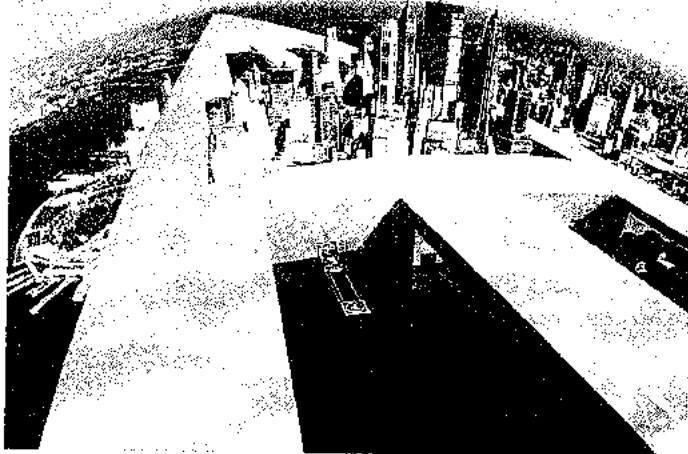
(사진 4)

(사진 7)





(사진 9)



(사진 12)

목제다리이다. 여러분이 코르텐강철로 된 파사드와 천정이 덮인 광장사이의 작고 개방된 계단을 오르면, 당신은 지붕에 오르게 되고, 전망이 있는 목제 계단을 볼 것이다. 그 계단에서 오래된 뾰족지붕들이 검은 빛으로 넓게 퍼져있는 것을 지붕전경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벽을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해 반전시킨 원래의 도시상황이다.

이계획안에서 우리는 벽, 지붕, 바닥층, 기둥등의 건축의 여러 요소를 연구했다. 이 3차원의 기둥은(사진8) 소극적이거나, 담겨 있는 서로 다른 역사와 기억의 모습을 구체화하려 한다.

이것은 건물 내부의 투시도인데, 기둥이 있는 혹은 일반, 대중의 모임이나 시장, 또는 시위나 대모집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사진9) 외부 벽은 자립구조체인데, 흰 대리석 성분이 섞인 붉은색의 사암으로 근처에서 나는 돌이며, 대성당의 벽과 같은 모습이다. (2)(사진10~11)

2. 나탈리니의 생각

타탈리니는 1966년에 “슈퍼 스튜디오”라고 부르는 그룹으로, 친구들과 피렌체에서 일을 시작했다. 슈퍼 스튜디오의 일원은 아돌포 나탈리니, 크리스티아노 토랄도 디 프란시아, 피에로 프라시넬리, 알렉산드로 마그리스, 로베르토 마그리스 등이다. (3)

“슈퍼 스튜디오”의 강력한 리더는 아돌포 나탈리니 이다. 그러데 1966년은 피렌체에 홍수가 범람한 해였다. 터스카니지역은 아르노강이 담당하는데, 이때의 폭풍과 홍수는 대단해서, 피렌체와 그로세토지역을 범람시켜, 많은 역사적 건축물들이 진흙과 실트에 묻혔었다. 이때의 홍수는 나탈리니에게 정신적 영향을 크게 남겼다. 그러나 지금도 역사적인 도시들이 물에 잠겨가고 있다.

그이후 공업디자인, 건축설계, 그리고 건축비평가라 부를만한 작업등 다양한 작업을 시작했다. “슈퍼 스튜디오”는 글이나 논문으로 하는 대신에,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건축평론이라 할만한 것을 시작했다. 사실

그들은 3차원의 평론 종류를 하려고 노력했다. 초기 프로젝트들의 대부분은, 지금 “유토피아 프로젝트”로 불리우거나, “급진적 건축”(arquitettura radicale) - 영어로는 radical architecture - 의 이탈리아 아방가르드의 한 부류로 여겨지는데, 슈퍼 스튜디오는 초기 프로젝트를 통해, 전혀 유토피아를 꿈꾸려 하지 않았다 그와 반대로, 초기 프로젝트들은 “불합리한 면을 통한 시각적 주장”(4), “논리적 보외”(5)를 사용한 것들이다. 부정적 유토피아로서의 은유적 기법을 사용한 것들이다. 즉, 슈퍼 스튜디오는 모든 아이디어를 극대화시켜, 그 아이디어들의 허위나 부도덕성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노력했다.

이러한 부정적 유토피아 프로젝트중의 하나는 “영원한 기념비”(6)라 부르는 것인데, (사진12)슈퍼 스튜디오는 이와 같은 것을 여러 작품을 제작했다. 예를 들어, “12개의 이상적 도시”(7)(사진13,14)는 전혀 이상적인 도시가 아니며, 도시계획에 관한 각각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알수 있는 악몽 자체를 최대한의 상황으로 보여주기 위해, 도시의 각 문제를 부각한 12가지의 서로 다른 악몽이었다. 슈퍼 스튜디오는 끝이없는 시리즈로 드로잉, 사진 몽타주와 글로 표현하였고, 건축과 인생의 기본적인 예술사이의 진실한 관계를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긍정적 시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작업을 했다. 1971년 부터 1973년 사이에 슈퍼 스튜디오는 “인생, 교육, 의식, 사랑과 죽음”이라는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건축과 기초 예술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탈리아나 외국의 학교나 기관에서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활용 한 것과 같이, 서로 다른 이미지를 결합한 것이었다. (사진15)

물론 이기간 동안 조차 슈퍼 스튜디오는 이론과 실제를 항상 직면하기 원했기 때문에, 건축, 산업디자인과 여러종류의 작품이나 용도변경, 복구작업에 대단히 바쁜편이었다. 그러나 슈퍼 스튜디오의 연구나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는 지원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슈퍼 스튜디오는

항상 힘들여 실생활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사진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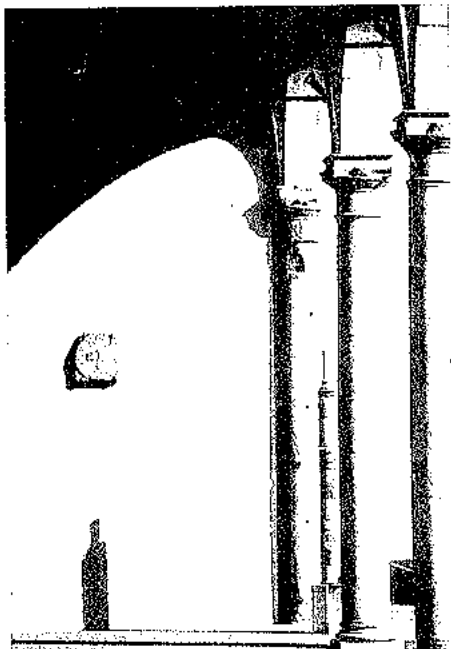
1973년 부터 1978년 까지, 나탈리니는 개인적으로 제직중인 피렌체 건축대학에서 장기간의 연구에 몰두해 왔다. 이연구를 통해 건축의 기본사항들을 - 농부가 사용하는 농기구나 토속건축등에 관한 연구하고 있었다. 나탈리니는 또한 어떻게 작업이 시작되고, 세부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어 정신적 작용의 촉매로 활용하기 위해 작은 오브제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활용하고, 사진화하였다. 나탈리니는 그동안, 활동에 새긴 자서전을 만들거나, 그의 단하나의 진정한 인생을 위한 몇안되는 오브제를 선택하거나, 이전에 설계한 많은 건물중에서 단 4개만을 기억해내곤 해왔다. 이러한 작업은 “기억상태”(The Memory State)라고 부르는데, 건축을 기억하고, 오브제를 기억하며, 생활을 기억하는 상태이다.

이기간 동안, 나탈리니는 건축의 인류학적인 재정립을 추구하였다. 이 주제는 기본적인 건축 뿐만이 아니라, 건축의 요소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1978년 부터 지금까지, 건축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서로 다른 요소를 모아서 주의깊게 연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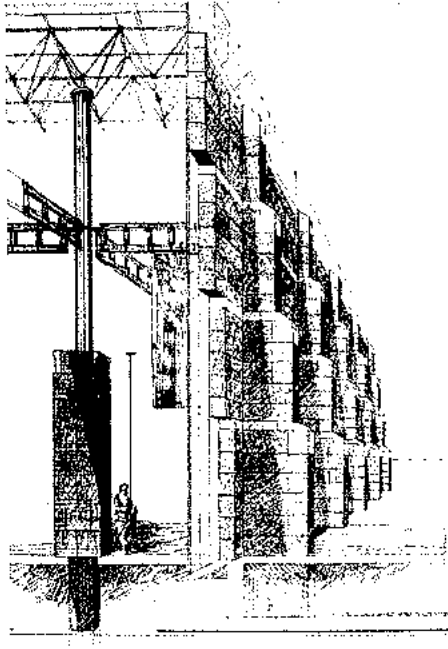
나탈리니는 과학이나 기술보다도, 문학, 철학, 정치학등, 인문과학에 더욱 흥미를 느껴서, 나탈리니는 건축가보다 화가나 시인에게서 배운것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나탈리니는 피렌체에 살면서 작업을 한다. 그이유는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 브르넬레스키의 명확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한다. 1978년 부터 오래된 역사적 도시의 건축에 대해 주로 작업을 해왔고, 또 법칙에 따르는 건축물 보다는 예외적인 것에 더욱 열중해 왔다. 모든 예외가 새로운 법칙을 만들수 있도록, 우리에게 힌트를 주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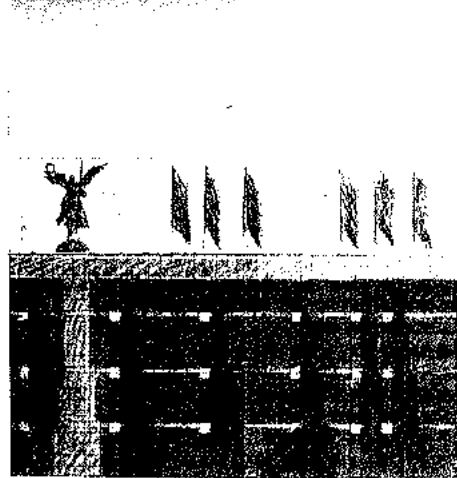
“건축이 램도만지아(Rabdomanzia)”(8)라는 말은 1978년 이후의 그가 하고 있는 작업을 표현한 말이다. 램도만지아란 버들가지 같은 얇은 나무가지를 양손에 쥐고 무궁무진한 지하수를 찾아다니는 작업을 말한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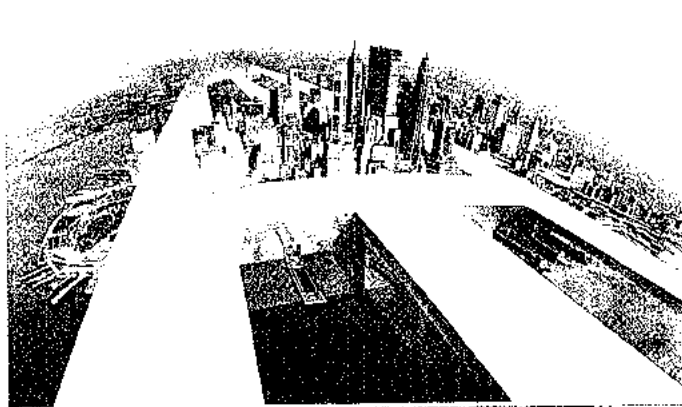
〈사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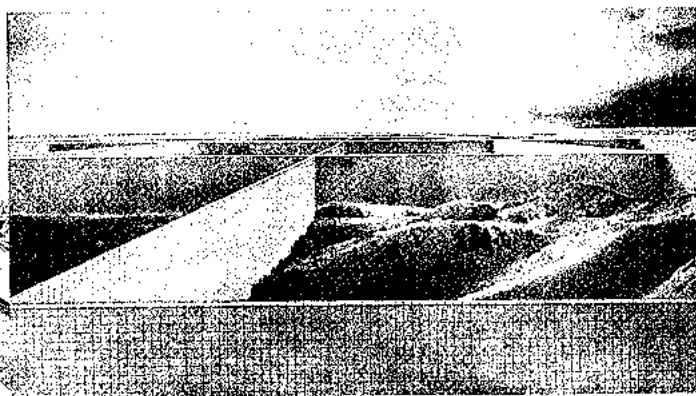
〈사진 10〉



〈사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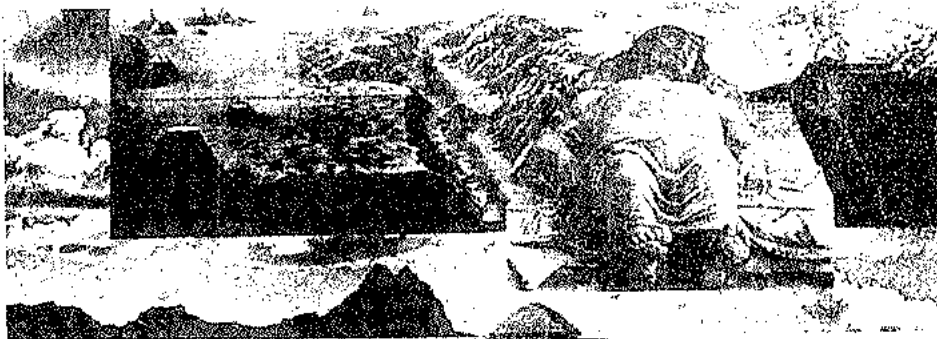
〈사진 13〉 새로운 뉴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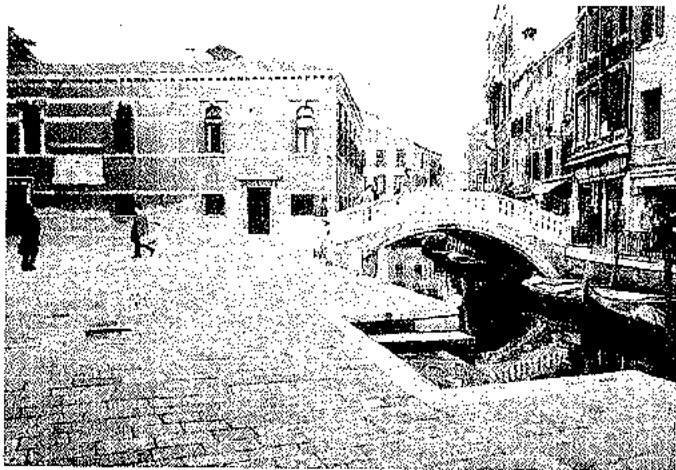
〈사진 14〉 La Prima Città



〈사진 16〉



〈사진 15〉



〈사진 17〉 프라리광장에 물이차오르는 광경



〈사진 18〉

박물관과 같은 피렌체의 거리에서 나탈리니를 구원해줄 작품을 찾아 보고 싶어한다. “장소는 건축을 변하게 하고, 반대로 건축은 장소를 변하게 한다.”는 명제대로 오래된 도시에 중첩된 모든 흔적을 바라보며, 시간과 기억속에 기초를 둔 건축을 찾아나서고 찾아나서고 있다.

나탈리니는 스스로 자신의 작업의 조건을 ‘고생, 고독, 열정’뿐이라고 했다. 힘들여 무엇인가 추구해온 뒤에 느끼는 허탈이랄까 그러한 것을 20여년이 지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조차 그의 원동력이 될것이다.

3. 상황과 배경

a. 하나뿐인 지구

이탈리아의 베니스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21세기 초반 온실효과에 의한 해수면 상승의 첫 희생도시가 될것인가?

올해 유고슬라비아에서 열린 유엔환경기구(UNEP)회의에서 발표된 보고서는 지난 수천년간 일정한 수위를 유지해 왔던 지중해가 2002년 까지 13~55cm, 21세기중 최고 2m까지 그수면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 2025년까지는 해수면이 대체적으로 완만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보이나 그이후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 농도의 황폐화등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온실효과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지구 복사열이 대기권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대기온도가 상승, 난류를 증가시키고 극지의 얼음을 녹여 해수면상승등을 초래하는 현상이다.

지중해연안 ‘에브로’ 삼각지에서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해안침식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초기의 부분적인 변화를 무시해도 좋을지 모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어나게될 전지구적 수면상승은 삼각주 자체를 없애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탈리아의 ‘포’강 입구에 있는 베니스와 부근지역은 조수조절장치를 20세기 말까지 효과적으로 설치하지 못하면

과거보다 훨씬 심각한 범람 현상이 발생, 연안의 휴양지와 농토를 빼앗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지중해의 수면상승으로 예상되는 최악의 사태는 해발 1m도 채되지 않는 인구 350만의 ‘나일’ 삼각주 최대의 도시 ‘알렉산드리아’가 침수하여 제2의 ‘아틀란티스’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⁹⁾

탄산가스가 지구표면을 온실처럼 둘러싸 지구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일고 있다. 미국항공우주국과 세계기상기구는 2020년과 2050년께 0.7~1.8도, 1.5~4.5도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의 기후변화와 원인으로는

- ① 탄산가스 오존 매탄 프레온 등의 과다발생으로 인한 온실효과
- ② 엘니뇨(해수온도가 예년보다 0.5도 높은 현상), 라니냐(해수온도가 예년보다 0.5도 낮은 현상), 등 적도 부근 동부 태평양의 해수온도변화.
- ③ 11년 주기의 태양흑점변화
- ④ 성층권의 오존감소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상기후로는 이상고온, 집중호우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분석과 예측,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온실효과 등의 재해축성체계는 아예 없다고 한다.

지금은 간빙기에서 빙하기로 넘어가는 시기이므로 기후변동이 쿨 수밖에 없다고 한다.

다음 사진들은 베니스의 시가지 일부로서 시간에 따라 물에 잠겨가는 모습을 볼수있다.⁽¹⁰⁾(사진17~20)

b. 건축에서의 기억과 아름다움

세계의 건축은 어떠한 흐름으로 가고있는가? 대표되는 흐름은 무엇이고, 어떤 흐름을 쫓아야 가장 최선의 건축을 할수 있는가? 이 물음에는 필자의 입장은 아직 부정적인 편이다.

세계의 모든 건축가는 자신이 속한 사회문제를 충실히 해결해 온것이 아닐까? 비록 그것이 最適解가 아니라 하더라도, 즉, 현대의, 현대기술의, 자본에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닐까?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름다움, 기능적인 것, 그리고 경제적인 것은 우리가 취해온 건축에서의 목표였다. 아름다움에 관한 것도 건축의 중요한 덕목중의 하나였다. 우리는 건물로부터 형태의 아름다움 뿐만아니라 기억을, 즉 건물과 그건물의 내용물, 사건을,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것이다. 많은 현대의 건축가중에는 그들의 기억(Memory), 역사적 기억, 고향의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형태를 찾고자 한다.

우리는 건물로 부터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요사이 보는 건물들이란 가진자의 집, 부동산의 열기, 투기대상, 일하는 사람들의 상실감 또는 선망의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때는 선조들을 기억시키는 집들을 보며 지냈다. 또 한때, 지금은 멀치고자하는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는 집을 보며 자라기도 했다.

하나의 건물의 의미가 정상적인 역사의 의미로 부터 벗어나 있을때, 그 건물은 물건으로서, 형태로서 남아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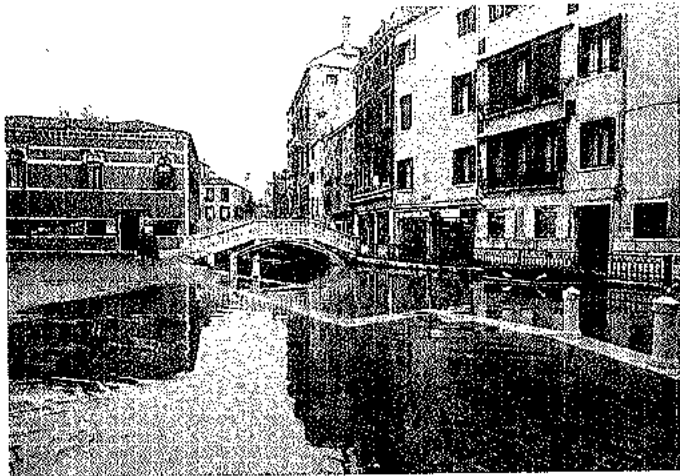
우리가 집의 어느점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해주어 특별히 기억하는가? 혹시 우리는 아름답다고 아는 것과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는 실제로 아름다웠던 것을 잊은 것이 아닌지?

한때 알고 있던 아름다움의 모든 기준을 유보한 채, 서양의 기분을 또는 산업사회의 기준이나 탈산업사회의 기준을 우리가 성급하게 받아들였다면, 진정 가슴으로 아름답다고 느끼면서도 표현이 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반문해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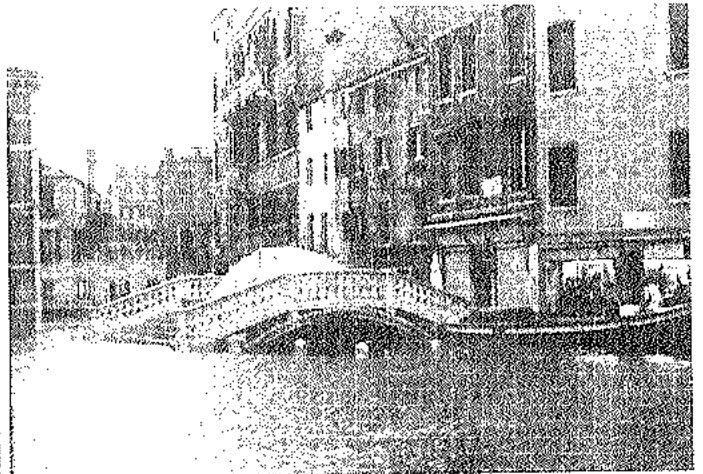
저것은 정말 아름다운가? 눈으로, 몸으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가?

美學은 1750년에 바움가르텐에 의해 학문으로서의 명칭을 부여받았는데, 그가 “미학”(Aesthetica)에서 “미학은 감성적 인식의 학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미와 「예술의 이론이 감성적 인식일반의 이론」이라는 학문적 체계를 구축했다.⁽¹¹⁾

전통적으로 철학에서는 낮게 여겨지던 미학이 진, 선, 미 등의 인식차원으로서 이해되어 왔다.



(사진 19)



(사진 20)

미를 조화나 비례등의 객관적 성질로 설명하려던 고대이래의 전통이나, 예술적 활동을 과학적 내지 논리적 인식과 연관시켜 해석하려는 합리주의적 미학의 태도와, 미 또는 예술을 그것의 주관에 미치는 영향, 특히 '쾌'와 연관해서 해석하려는 경험주의적 미학의 태도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의 두 전통을 독창적으로 통일시켰다는 독일의 대철학자 칸트의 발언을(물론 번역된 말이지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美의 성질에 관한 내용으로,⁽¹²⁾

① 미의 性質로 부터 추론되는 미의 설명. 취미란 어떤 대상 또는 어떤 표상방식을 일질의 관심을 떠나서 만족, 또는 불만족에 의하여 미를 판단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대상이 아름답다고 일컬어진다. 즉, 취미판단은 인식판단이나 논리적이 아닌

美感的(直感的)인 것이며, 따라서 그 규정근거가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판단이다.

② 미의 分量으로 부터 추론되는 미의 설명. 미란 개념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이다.

③ 취미판단의 목적으로 부터 추론되는 미의 설명. 미는, 目的性이 목적의 表象을 떠나서 어떤대상에 있어서 지각되는 한에 있어서의, 그표상의 합목적성의 형식이다.

④ 대상들에 관한 만족의 양상으로 부터 추론되는 만족의 양상.

미란 개념을 떠나서 필연적 만족의 대상으로서 인식되어지는 것이다.

“機能主義 이외에도 공간을 건축의 본질이라고 보면서 근대건축을 지원해 왔던 空間論이나, 건축의 아름다움의 근원을 비례에 두고 비례의 체계적 해명에 몰두해온 전통적 건축이론들은 스크리튼에 의하면 거의 모두 선결문제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이러한 이론들은 한결같이 건축의 미나 가치에 대한 자식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기정사실로 전제하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건축을 경험하는가를 밝혀야 하며 이것이 바로 건축미학의 출발점이라고 스크리튼은 주장하고 있다.”⁽¹³⁾

로저 스크리튼의 건축미학의 근거는 칸트의 명제를 변형시킨것 이라하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미적 태도는 하나의 대상에 대한 만족 또한 향수를 목표로 한다. 칸트는 이것을 ‘미는 즉각적으로 쾌감을 준다’고 말한다.

둘째, 미적태도는 그대상을 ‘그것 자체로서’ 주목한다. 이것은 ‘미는 모든 이해타산으로 부터 떨어져서 즐거움을 준다’는 명제이다.

세째, 미적태도는 규범적이어서 무엇이 옳은가 또는 적절한 가를 판단하는 우리의 분별력과 관련된다. 곧, ‘미에 대해 평가의 주관적 원리는 보편타당한 것으로서 표상된다.’⁽¹⁴⁾

해겐은 철학적 세계문명사에서 동양예술에 관한 설명을 짐가했던 최초의 서양예술가라한다. 서양의 동양미학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했고, 동양에서도 서양의 미학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게다가, “아직도 우리는 18세기와 19세기초에 얻을 수 있었던 서양예술의 단편적 지식같은 것으로 부터 추출된 기본개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¹⁵⁾

더우기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아름다움의 기준에 관한 태도나 기준에 대해 검토해보지도 않고, 노력도 않은 채, 서양의 기준에 따라 생각해 왔다.

“서양에 있어서 예술가의 교육은 주로 可視的, 외면적인 技巧, 재료와 도구의 사용에 국한되었다. 미적 목적과 내적 태도는 개개 예술가에게 일임될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이고, 규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배려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플라톤이 강조하는 것과 동양미학이 강조하는 것은 다르다. 기교와 재료가 무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예술과정의 심적, 정감적 요소는 못된다.”⁽¹⁶⁾

동서양의 미학상의 혼란은 ‘정신적 가치’라는 용어의 해석차이만큼 크다. 서양의 ‘自然的’이란 용어가 과학이나

철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과 미학에 관한 학자나 사가의 접근방법이 특성을 이루고 있다. 이에 비해 동양의 ‘超自然主義’라는 말에는 무한한 다양성이 있어서 이에 가까운 동의어로서 초월론, 유심론, 범신론, 전심론, 관념론, 이원론, 신비주의 같은 것이 있다고 서양미학자는 말한다.⁽¹⁷⁾

중국의 예술개념을 살펴 본다면,

“서양의 경우보다 주관적인 요소가 더욱 크게 강조되고 있음을”본다고 로렌스 바니온은 말했다.⁽¹⁸⁾

“곡화에 있어서 회화예술은, 화가가 구체적인 자연대상의 정신적인 실체를 인식해서 표현하는 능력을 현시하는 것이다. …… 화가가 강렬한 정신력과 엄격한 정신적 수련을 쌓고서야 비로써 이를 표현해 낼 수 있다”고 사까니시는 말하고 있다.

우리가 콘크리트, 유리, 철 등의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강렬한 정신력과 엄격한 정신적 수련과 고도의 테크닉을 터득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

우리가 우리의 아름다움에 관한 내용에 개념을 되찾아 현대의 건축을 바라보고, 정리해 보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한 일인가?

c. 근원적 건축

“근원적 건축”(arquitettura radicale)은 영어로는 radical architecture라고 하는데, radical은 보통 2가지 의미로 쓰인다.

① 하나는 근본적인, 기본적인, 철저한, 근원적인의 뜻과

② 급진적인, 과격한, 급진파의 뜻으로 쓰이며, 이러한 뜻일때는 대문자로 Radical 또는 Radicals 등으로 표현한다.

Radicalism은 흔히 급진주의라 한다.

현존하는 정치체제나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온건한 개량, 수정주의를 부정하는 주의나 주장을 말한다. 그러나 행동은 때때로 과격성을 수반하기 쉽다.

그 의미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르게 쓰인다.

건축의 의미로서는 어느것이 적당한지를 고려해 볼때 첫번째의 의미가 합당할 것이다.

(사진 21)

나이아가라 폭포 반사하는 건축



슈퍼 스튜디오의 태도로 보아 60년대에는, “.....체계를 근본적으로 비판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당시의 엄청난 홍수의 위력앞에, 유한한 건축문화와 장래를 생각하며, 급진적인 변화로서의 래디칼리즘을 생각했을 것이며, 또 당시의 유럽의 분위기는 2차세계대전이후의 사회적 변화의 욕구가 엄청났던 편이며, 한편으로 영국의 아키텍트와 같이 새로운 건축체계를 예상한 그룹의 활동이 또한 그들을 고무했을 것이다. 그러나 비판을 하기 위해서거나, 정확히 알기 위해서도, 자신의 건축, 역사적 전통의 무게에 대해 냉정하고 철저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것이 그가 대학에서 건축을 다시 생각한 이유였을 것이다.

지금의 환경적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베니스의 장래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도 ‘영속적인 기념비’ 작품과 통한다.

radical Architecture란 건축의 본래의 의미, 역사적인 형태에 대한 근원적인 의미 파악이 필요하고, 역사적인 형태에 대해 철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근원적 건축이라 부를 만하다.

그러면 건축에서의 근원적 태도를 취하기 위해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나탈리니에게 브르넬레스키나 알베르티가 새롭게 보였을 것이다. 적어도 같은 교향의 대건축가로서 그에게 말이없는 건축적 교훈을 주었고, 나탈리니는 이것을 “그가 마치 박물관 속에 살고 있는 느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박물관에 걸린 그림들 처럼, 그에게 거리에서나 생활속에서 건축의 실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을 두고 그가 한 말이다.

d. 알베르티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1404~1472)는 15세기의 위대한 건축가중 한사람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첫번째의, 가장 중요한 이론가이다. 알베르티는 1404년 제노바에서 태어났으며, 그는 1387년 政敵을 피해 교향을 떠난 피렌체제 큰상인집안의 한사람의 서자로 태어났다. 그는 파도바에서 라틴어, 그리스어를 배웠다. 볼로냐에서는 법학을 공부했다. 그곳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독학하였다. 유산상속을 받지 못하여 교구청제관소에서 속기사로 생계를 꾸려갔다. 더우기 1432년부터 1472년 죽을때까지, 피렌체 서쪽의 간갈란디의 작은 수도원에 의탁하여 살아갔다.

알베르티는 라틴어, 이탈리아어의 상당한 문장가였다. 그는 도덕적, 사회적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썼으며, 지도제작, 회화, 조각, 그리고 예술에 관한 모든분야의 책을 썼으며, 특히 그의 저작중에서 가장 실질적인 책, 『建築十書』를 썼다.

모든 주제에 대해 알베르티는 자주 풍부한 지식,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 지적능력을 동원하였으며, 이것은 다른 어느 건축가도 따를수 없을 것이다.

알베르티는, 독립된 마스터에 속해 건축기술을 배우는, 도제로서의 건축수업을 받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모든 예술을, 스스로 배우는 원칙에 따라, 스스로 가능한 방법으로, 흥미당해대로, 교육받은 대로, 심지어 자신이 태어난 방법과 같이 접근해 갔다.

회화는 스스로 터득한 첫번째 예술이었는데, 1436년에 『畫法論』(della Pittura)을 썼다. 이책을 통해 1420년대의 피렌체에서 개발된 새로운 예술을 시작하려는 선두그룹의 화가들과 교류를 넓혀 갔다. 이책의 이탈리아판은 필리포 브르넬레스키에게 받쳐졌다. 『화법론』에서 알베르티는 일소점투시도의 이론을 정립하였는데, 이것은 1421년 쯤에 브르넬레스키가 발명한 방법이었다. 1420년부터 1430년까지, 알베르티는 실제로 회화, 조각, 투시도제작등을 했다. 이 당시 작품중 하나가 실제로 현존하고 있다.

알베르티의 「건축십서」는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십서」를 모방하여 쓴것으로

Utilitas (Function), Firmitas (Structure), Venustas (Design)등의 기준으로 건물을 바라보고 있으며, 건물타입의 여러종류를 다루고 있는데, 공적인 건물과 사적인 건물로 나누어 묘사하고 있다.

르네상스의 이상적 교회에 대해 최초로 완전한 계획안을 원형으로 묘사하고 있다.

알베르티는 교회건축에 대해 모두 9개의 기하학적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데, 즉 원형회에 4각형 6각형, 8각형, 10각형, 12각형이 바로 그것이다. 이 6가지 형태에 3:4의 사각형 2:3의 사각형, 1:2의 사각형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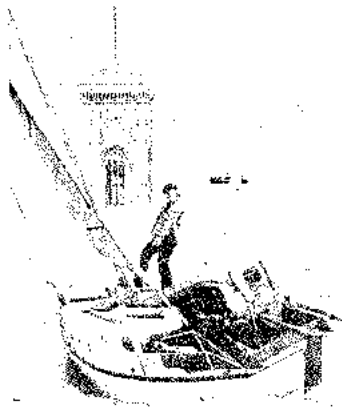
건축에서의 아름다움은 비례관계의 감각에 달려 있다고 했다. 알베르티는 아름다움이란 스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해서, “모든 아름다움은 부분들의 조화에 달려있으며, 잘못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더하거나, 빼거나, 변화시킬 것이 없는 연결관계나 비례관계를 지니며 함께 들어 맞는 상태”로 보았다. 그리하여 건물에서의 아름다움은 Numero(Number), Finito(Proportion), Collocatio(Location) 등의 세가지 요소에 달려 있고, 합쳐진 것은 Concinnitas(total ordering of all parts)이며, 모든 것은 이것의 법칙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¹⁹⁾

4. 그들에 대한 견해

그들이 사는 도시가 환경의 영향으로 물에 잠겨가기 시작하기 전부터, 그 심각한 상황을 인식한 건축가로서, 역설적으로 거대한 구조물로서 물의 피해를 막아보려는 계획안이나, 나이아가라 폭포를 유리구조체로 기둥이 보려는 계획안이나, 큰성당이 물에 잠겨 침몰과 돛만 물위에 드러낸 몽타주를 작성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슈퍼 스튜디오의 생각은, 정말로 유토피아를 그리기위해 한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았다. (사진 21, 22)

아라타 이소자키가 슈퍼 스튜디오가 강력한 힘을 보여준 “영속적인 기념비”시리즈를 설명하기 위해, ‘대홍수로 생겨난 건축’ (Diluvian Architecture)이라는 용어를 채용한 것은 1970년의 일이라 한다.

교향의 위대한 건축가나 사상가인 알베르티나 브르넬레스키로부터 건축적교훈을 배우며, 무엇인가 건축의 실체를 향해 한발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된다. 그들에게 원천적인 힘을 제공한



〈사진 22〉

피렌체 복원을 위한 연구

것은 무엇인가?

아래 글은 노구찌·마사오의 글을 중심으로 꾸민 것이다.⁽³⁰⁾

1960년초에, 아키그램을 중심으로 한 앵그로 색슨의 아방가르드파는 알프스를 넘어 옛도시 피렌체(Firenze, 영어로는 플로렌스Florence)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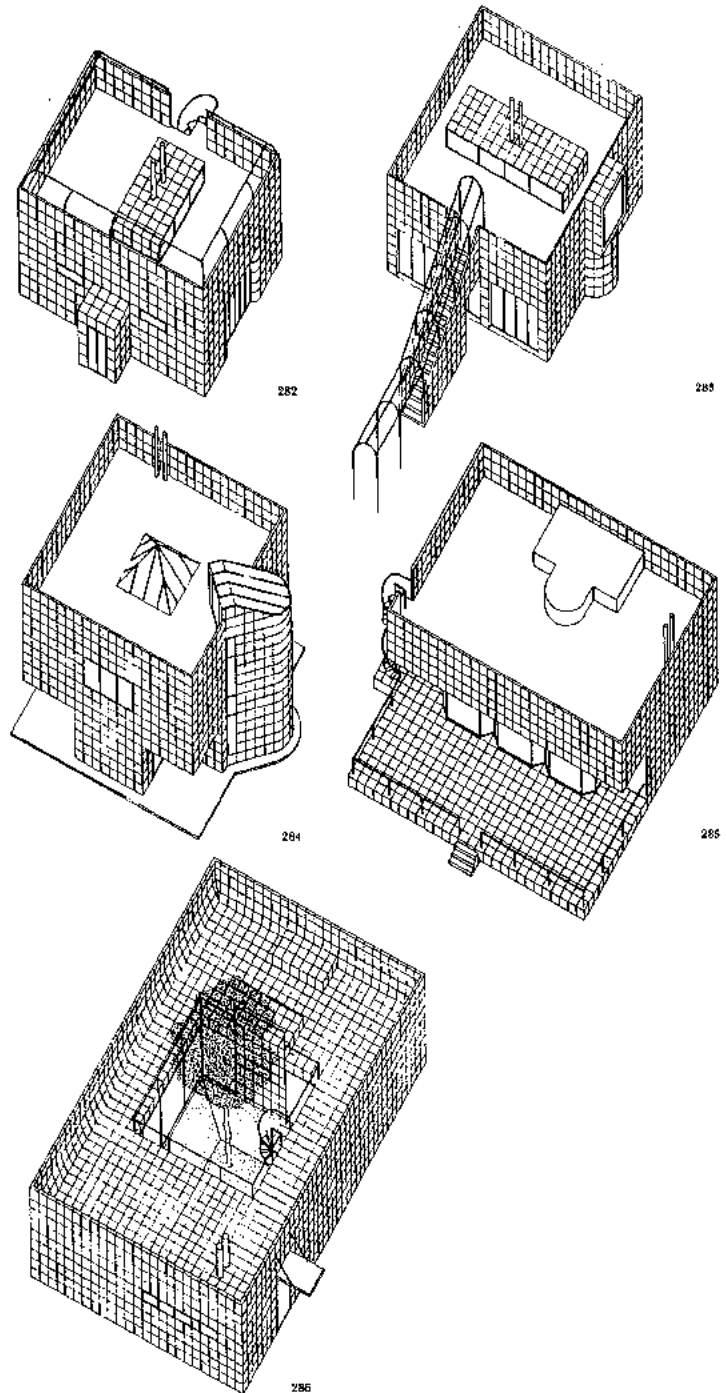
당시 피렌체 건축학부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돌포 나탈리니와 친구들은 졸업과 동시에 슈퍼 스튜디오를 1966년에 결성하였다. 아키즘(Archi-Zoom)과 같이 이탈리아의 래디칼리즘의 선구역할을 했다. 이탈리아에서 밀라노의 E. 쇼트사스 J.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서, 67년부터 잡지 '도무스'에 나타나기 시작한 이 전위그룹은 미라노, 영국의 아방가르드 파를 반격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1968년 전후에, 유럽의 래디칼리즘의 분출기에 있어서, 피렌체는 확실히 진원지였다. 당시 25세의 나탈리니는 학생운동과 범람한 아르노강의 흙탕물 속에서, 역사적인 도시가 심한 홍수를 겪고 많은 기념적 건축물과 예술작품이 모래와 실트에 잠겨가는 것을 바라보며, 전위이 이론가로서 태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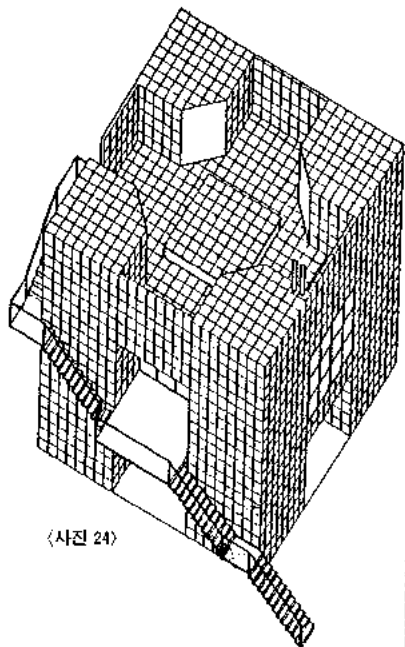
1970년대에 들어서며 이탈리아 건축대학에 큰변혁을 초래한 학생운동의 시위가 사라지고, 그 기묘한 정적속에서 제15회 밀라노 트리엔날레(1973년)가 개최되었다. 이무렵부터 슈퍼 스튜디오는 전략으로서 양면성을 지니기 시작한다. 즉 알도 로시가 주관한

'건축-도시'(Architettura-città)부문과 쇼트사스(Ettore Sottsass)가 주관한 '산업디자인' 부문에 동시에 작품을 제출하면서, 또 대외적으로 반체제의 자세를 일관하면서도 피렌체대학에 되돌아와서 연구와 교육에 힘쓴다. 대학에 적을 두고, 계속 연구하여 「도시교회에서의 물질문화」라는 문화인류학에 관계하는 연구영역을 래디칼리즘을 미래를 향하여 완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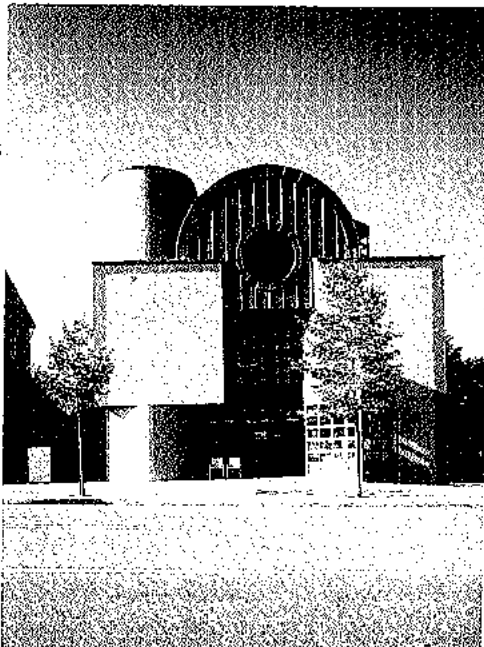
1978년 나탈리니와 친구들은 10년정도 걸쳐서 급진적 건축에 관련된 활동을

〈사진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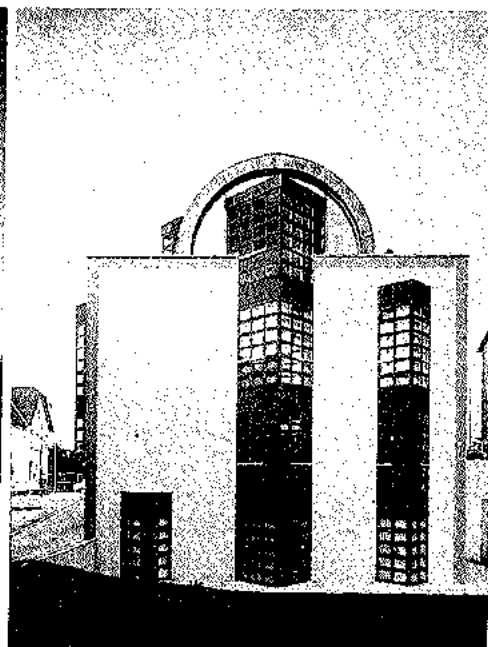




〈사진 24〉



〈사진 25〉



〈사진 26〉

중단하고, 건축가로서 새로운 출발점에 선다. 그것은 그의 시적 아포리즘 「연필과 묘비석 사이의 방향·過失」⁽²¹⁾로서 시작된다. 거기에는 70년전후에 표방하고 있던 유토피아적 우주적인 視界는, 보다 대지에 뿌리박은 역사화, 고고학적인 시간의 확장속에서 건축을 포착하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그것은 「피에르베르크 지구」(프랑크푸르트), 「통곡의 벽」 주변지구」(예루살렘), 등의 1979년 이후의 역사적 도시의 계획안에 나타난다. 동시에 진행된 「노동의장」으로서 계획안 일련의 3작품중 2개가 80년에 들어서 코모와 볼로냐 근교에 실현한다.

이들 작품군을 공동으로 지지하는 것은 '기억'이라는 개념이다. 나탈리니의 말 "L'architettura é arte della memoria"는 역사속에 시간의 경과와 함께 축적된 기억을 조작함에 따라, 그 도시의 시간축에 하나의 건축물을 조작해 넣는 것이라는 하나의 가설을 말한다. 피에르베르크의 중세도시의 幻影, 18세기의 C.F.Dotti가 묘사한 볼로냐평원의 건조오두막집, 코모지역의 코마치니(로마네스크시기)에서 테라니(근대)로의 흐름은 대지에 스며있는 기억이 서로 엮겨 그 일부가 드러난다.

프로이드의 가설을 생각해 하는 이작업을 통해, 추출된 기억의 단편은 알레고리와 메타파를 만들어 내는 건축언어로서 조직된다.

그러면 그언어의 조직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나탈리니가 말하는 '이야기 하는 건축'이라는 개념에 의하면, 건축이 언어라면 그 목적은 전달에 있으므로 설득하기 위한 레토릭이 필요하고, 그것은 형상(Figura)으로서 시작과 된다. 레토릭한 형상에서 구성된 건축은, 완만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메타파를 만들고, 알레고리의 절절렉스를 형성한다.

이개념은 특히 '잘 가계'의

주택(1980~83), 통곡의 벽 주위지역계획(1980~82)에 잘 나타나고 있다. 나탈리니가 말하는 '이야기 하는 건축'은 다양한 분야(시, 철학, 과학)에서 지식을 끌어내면서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속에서 '다세뇨'(Disegno; 영어로는 Design)나 시공되는 동안 수작업을 통해 조직된다. 이렇게 하여 모든 계획안의 정신적 배경이되는 역사, 도시, 민족등이 내포하는 기억을 언어화할 수 있다.

1982년에 피렌체에서 시작한 청사계획안에서도 같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8각형의 상 조반니 세레당, 中庭이 있는 르네상스의 팔라쥬, G. 파자리의 우하치의 폴루티코 등 중세부터 16세기에 이르는 기념비들이 참조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표면적인 시간축상에서 인용된 작품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질이 높은 이탈리아의 건축유산이 정당하게 참고되어, 작업상에서 창조되고, 쌓여온 것을 생각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효과적인 원근법이 부드럽고 강한 검은 펜의 필치는, 르네상스 건축가의 디세뇨를 충분히 연상시켰다.

결국, 78년 이후에 나타나는 작품에 담긴 그의 역사감각은 플로렌스라는 옛도시가 키워온 것이며, 1960년대에 유럽에 널리 퍼진 래디칼리즘에 따른 작품들의 선언도, 그배경은 古都를 아끼고 사랑하는데서 부터 시작되었으며, 급진적이라 할만큼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하던, 결국은 건축의 근원으로 회귀하여 선명한 작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의 건축적 탐험은 오래 걸렸다. 학자중에는 자기가 태어난 도시를 한번도 벗어난 적이 없이, 진리를 밝혀 낸 칸토라는 철학자도 있고, 평생 배를 타고 대륙을 옮겨다니며, 동식물을 연구하여 「종의 기원」을 쓴 다윈이라는 학자도 있다.

시대의 조류에 앞서, 두가지 흐름에

철저했으며, 급진적 유토피아로부터 근원적인 건축에 이르기까지, 존경하는 브르넬레스키나 알베르티에게 기가 죽어 불철주야 체도판에서 스케치를 하며 지새우는 나탈리니, 슈퍼 스튜디오

우리 보다 행복하다고 느껴진다. 어깨의 짐이야 무겁겠지만.

거리가 모두 건축적 사례이며, 지금도 살아 숨쉬는 건축을 찾아 헤메는 나탈리니는, 래디칼리즘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싶었던 강렬한 희망의 화신이었다.

5. 활동과 작품⁽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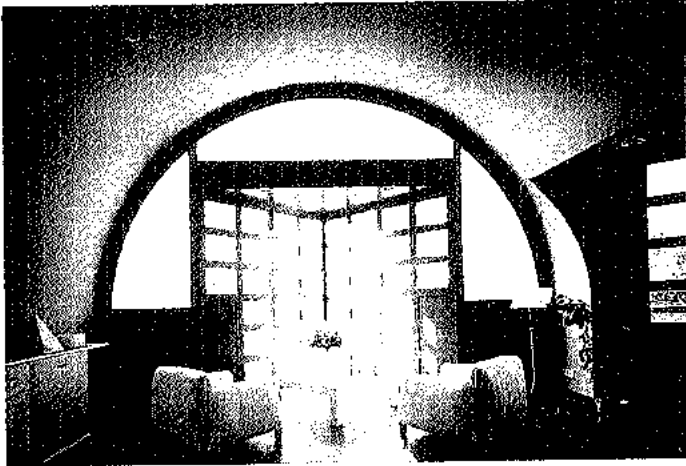
나탈리니는 1941년 터스카니(Tuscany)의 오래된 마을인 피스토이아에서 태어났다. (터스카니는 피아짜 Piazza라는 놀라운 석채생산지이며 검은색과 흰색의 피로된 세레당이 있다) 나탈리니의 가족은 바르디나예베에서 700년간 농사를 지어왔다.

중부 이탈리아의 터스카니 주의 州都인, 역사적인 도시 피렌체는 서쪽으로 흘러 파사를 통해 리구리아해로 빠지는 아노로(Arno)강의 발원지이며, 그 서북부에 피스토이아가 있다. 1860년에 사르디니아 지방과 함께 이탈리아왕국에 편입된, 터스카니지방은 리구리아, 에밀리아, 마르케즈, 움브리아, 로마등의 둘러싸여 있으며, 세계적인 석재 카라라 Carrara의 생산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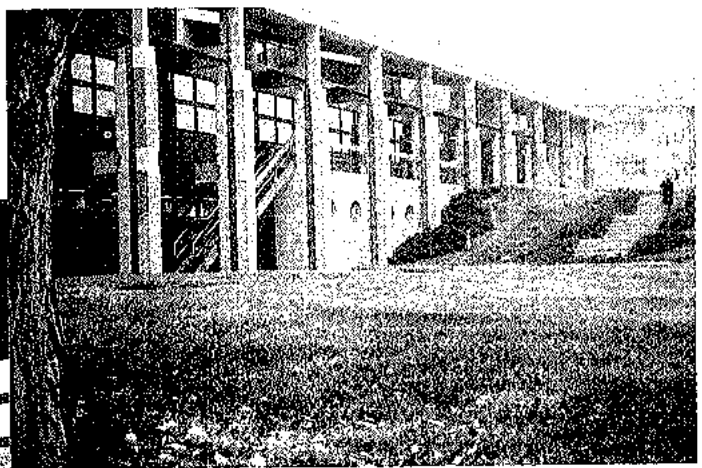
1966년 피렌체에 대홍수가 날무렵, 나탈리니는 슈퍼 스튜디오라는 그룹을 결성했다. 이 그룹에서 「급진적 건축」이라고 알려진 운동을 시작했다.

(1) 1966~78년까지의 급진적, 건축 환경 비판기

이기간 동안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이 그룹은 건축의 인류학적 재정립을 시도하는



〈사진 27〉



〈사진 28〉

작업을 했다.

1967년 ○ 『영원한 기념비』(Continuous Monument) 작품발표

1968~70년 ○ 『도시형 빌라』(La Serie Misura) 연작 발표. ⁽²³⁾ 〈사진 23, 24〉

1969년 ○ Istogrammi d' Architettura ○ 『새로운 뉴욕』

1970년 ○ 『레지스탕스의 파르티잔(빨치산) 기념공원과 기념비』

○ 스페시아 아파트, (피에로 프라지넬리 작)

1971년 ○ 『12개의 이상적 도시』(Le Dodici Città Ideali)

1971~73년 ○ 『인생, 교육, 의식, 사랑과 죽음』 시리즈 제작.

1973년 ○ 『개인 박물관으로부터의 단편들』(Fragments From Personal Museum)이라는 전시회를 개최.

1973~78년까지 재직중이던 피렌체 대학에서 장기간의 연구를 시작함.

1975년 ○ 우르비노 주택, (프라지넬리 작)

1976~78년 ○ 주택설계, 〈사진 25~27〉

이당시까지 나탈리니는 많은 작품중에서 단지 4개의 작품만이 그의 이론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즉, 이 주택과, 컴퓨터 센터, 피에르베르케 계획, 그리고 피에르베르케 지역내 4지구 '잘가체' 계획안등이었다.

2년간 설계한 이 주택은 독일의 북쪽의 오르나부르크 근처 작은 마을에 지어졌다. 이 주택계획안은 주택의 기본적 요소-벽, 지붕, 창, 계단등의 간단한 요소를-연구하였다. 또한 대지-라틴어로 Genus Loci라 할 수 있는- 그리고 개인의 역사에 관한 약간의 연구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 주택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고, 각면은 물론 서로 다르게 보인다. 또한 외부와 내부가 서로 명확하게

다르다.

이 주택은 아돌프 로스로부터 목골조의 주택에 이르기까지, 바우하우스의 단순한 기하학으로 부터 바바리안 도자기에 이르는 다양한 기억들을 지니고 있다. 〈사진 3~5〉⁽²⁴⁾ 아키 줌과 함께 밀라노에서 잡지 IN을 출판했다.

(2) 1979년부터 근원적 건축의 시기.

계획안을 통해 선언하던 시대를 청산하고, 실체세계에 뛰어 들었다. 주로 리미니, 볼로냐, 코모 등지의 대지에 "건축의 장소"(A Place of Work)라는 주제 아래 건축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계기는 피에르베르케의 재계획이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적 유산을 무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전통자체를 변형시키고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전통이다."라는 이탈리아 합리주의의 선구자인 "그룹 7"의 주제페 테라니의 신념이런 선언을 나탈리니는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1979년 ○ 서독, 프랑크푸르트, 피에르베르케, 재계획.

1979~81년 ○ 볼로냐, 줄라 페르도자, 컴퓨터 센터.

이 계획은 건축 요소에 대한 일종의 실험이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볼로냐 교외, 줄라 페르도자에 위치한 컴퓨터 센터이다. 〈사진 28~30〉 대규모 수입화사의 정보처리기능이 요구되어, 기계실, 회의실, 그리고 대형과 소형 사무실들이 3층의 건물내에 들어 있다. 이 건물은 주위에 있는 기존건물과 잘 어울리고 있다. 광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존건물에 사각으로 마주서서 길게 뻗어있다. 이 건물은 두개의 서로 다른 부분으로 되어있다. 외부는 매우 단순한 시골풍으로 되어 있는데, 벽돌과, 테라코타 타일등의 전통적인 재료로

만들어진 헛간종류로 되어있다. 건물은 두종류의 서로 다른 양식을 사용하여 건설되었다.

하나는 말하자면, 18세기에 프란체스코 마리아 도티(F.M.Dotti)에 의해 디자인된 건초용 헛간에 기초를 둔 전통건축물이다.

다른 점은 복잡하고 현대적인 건축물이라는 점이다. 건축은 주택이 기계로 될 수 있는 것이지, 기계가 주택이 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주요 가설을 세웠다.

이 건물은 네모기둥(Pillar), 벽등 매우 단순한 요소로 되어 있다. 이요소 들은 대단히 주의 깊게 설계되었는데 예를 들어 여러개의 기둥들이 있는데, 그 어느것도 다르게 되어 있다. 각 요소들은 서로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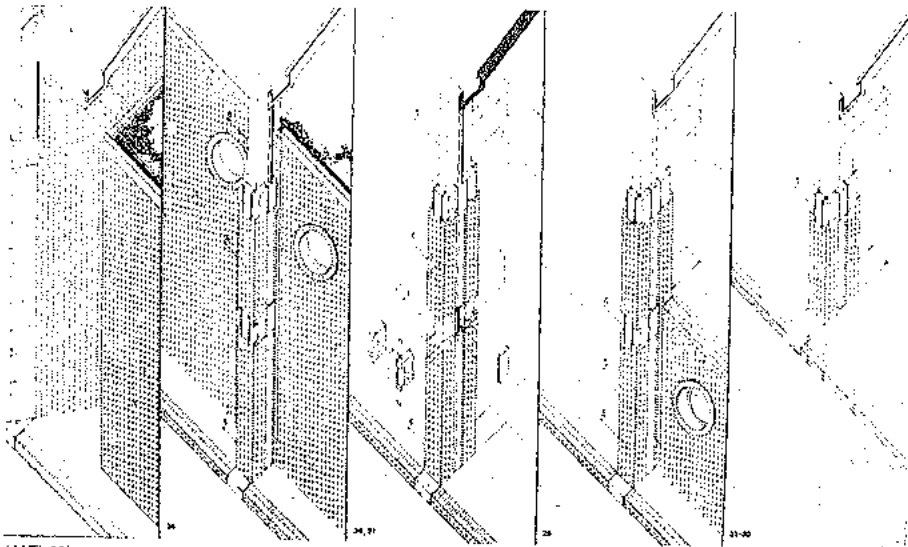
사용된 재료들은 지방의 전통을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연결부분을 신중하게 처리하여, 코너처리, 주두나 기둥의 장식등이 이탈리아에서 전통적으로 두루 사용되던 건축습관에 따라 건축되었다. ⁽²⁵⁾

1979~83년. ○ 알자테 브리안자의 은행 본점. 『돌의 은행』 코모와 베르가모를 연결하는 도로상에 위치. ⁽²⁶⁾ 〈사진 31,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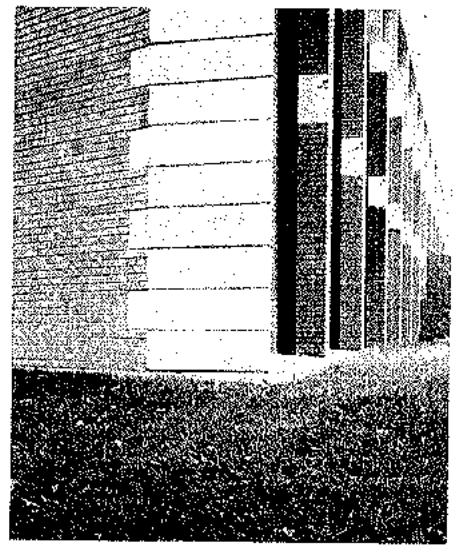
1980~82년. ○ 예루살렘 통곡의벽 주변지구계획, 〈사진 33~36〉

통곡의 벽(Wailing Wall; B.C.516~A.D.70년)은 예루살렘신전(B.C.1004~A.D.70년)이 폐허가 된후, (현재는 이슬람 모스크가 있다.) 신전의 유적으로 남은 37m의 돌담으로 세계각지로 흩어진 유대인의 비운을 통곡하며 기도한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입장할 때 남자는 반드시 모자를 써야한다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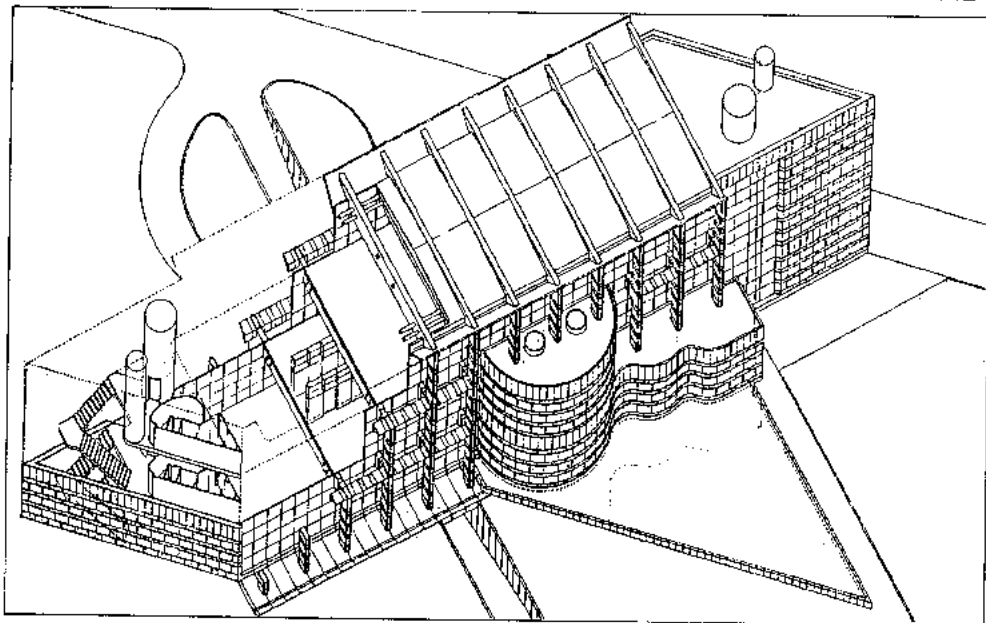
예루살렘의 이스라엘미술관의 초빙으로 (1980.1~1982.3)계획에 참여하여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지역을 재구성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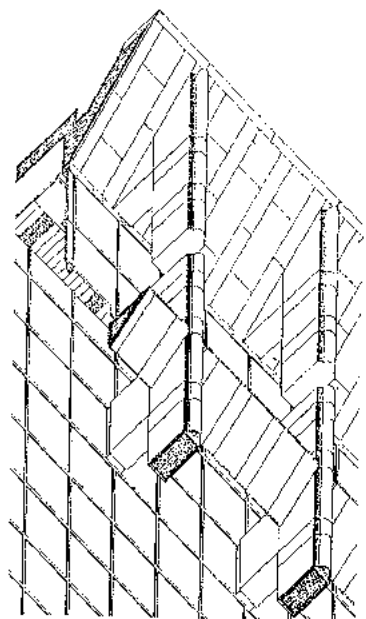
〈사진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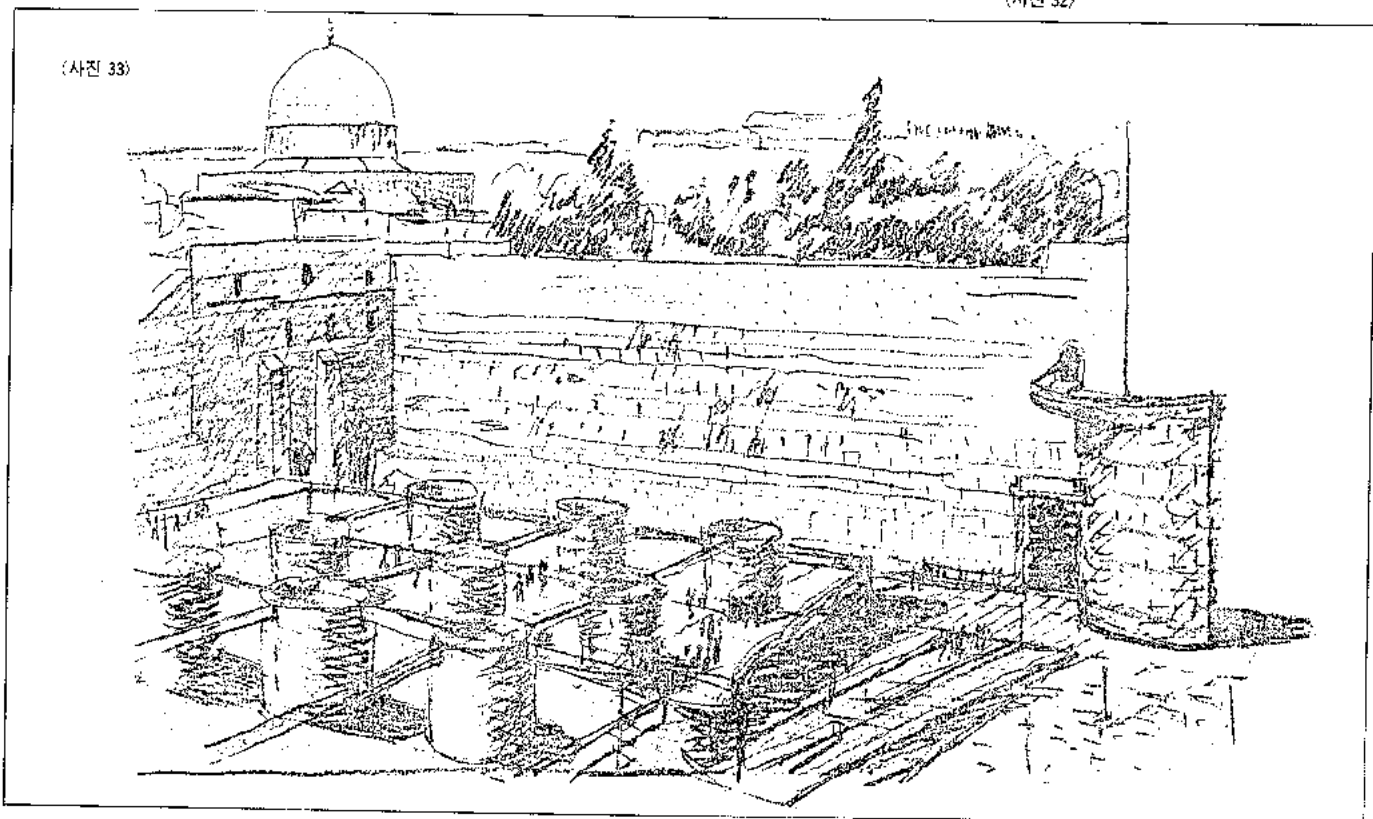
〈사진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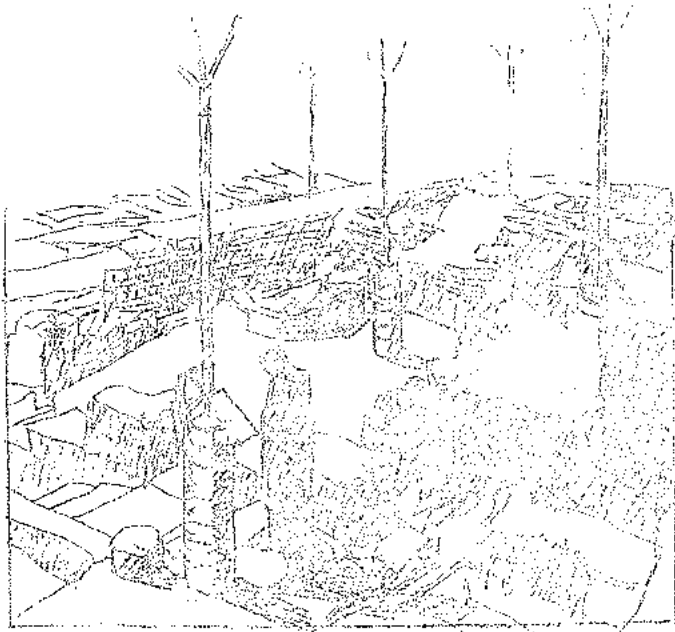
〈사진 31〉



〈사진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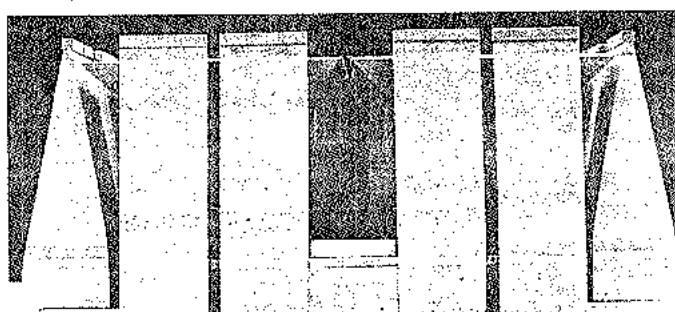
〈사진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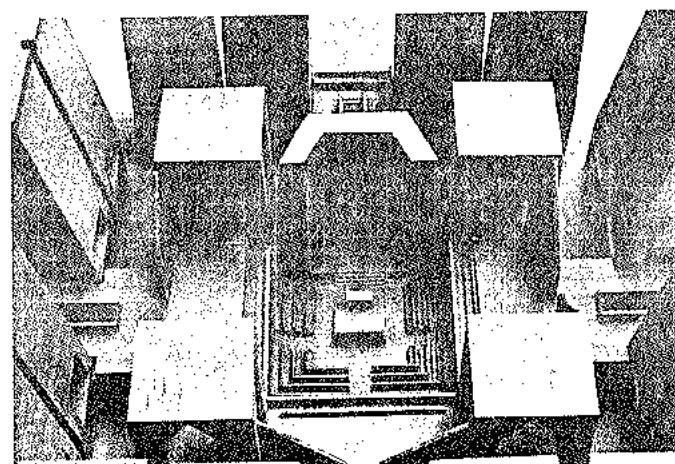
〈사진 34〉



〈사진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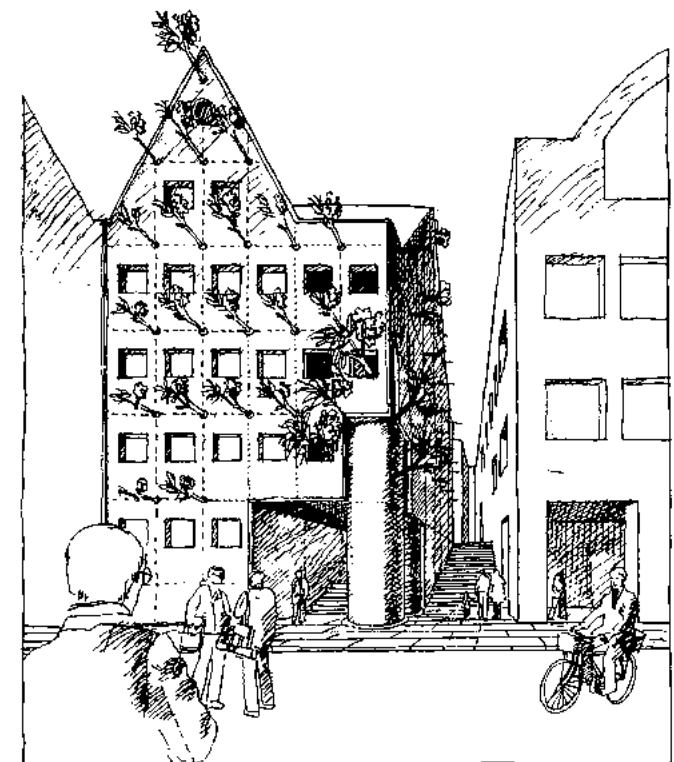
〈사진 37〉 루이스칸이 계획한 추모의 교회 (1967~68년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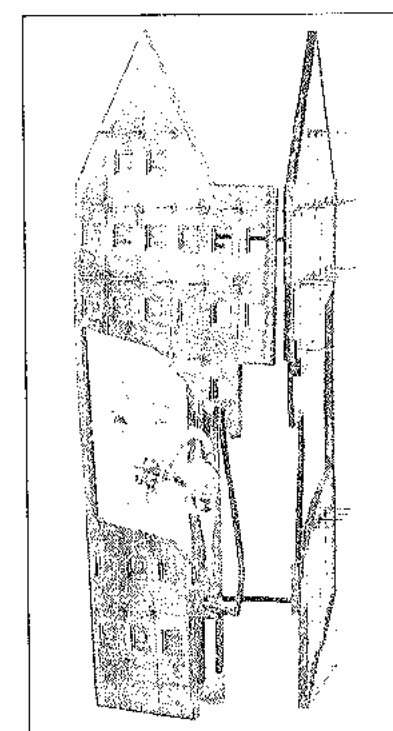
〈사진 38〉 추모교회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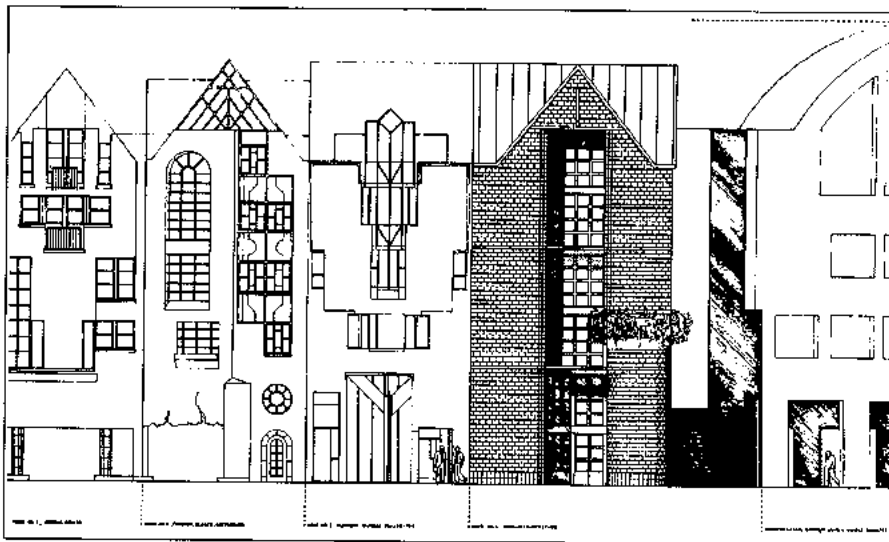
〈사진 36〉 초기안(左)와 최종안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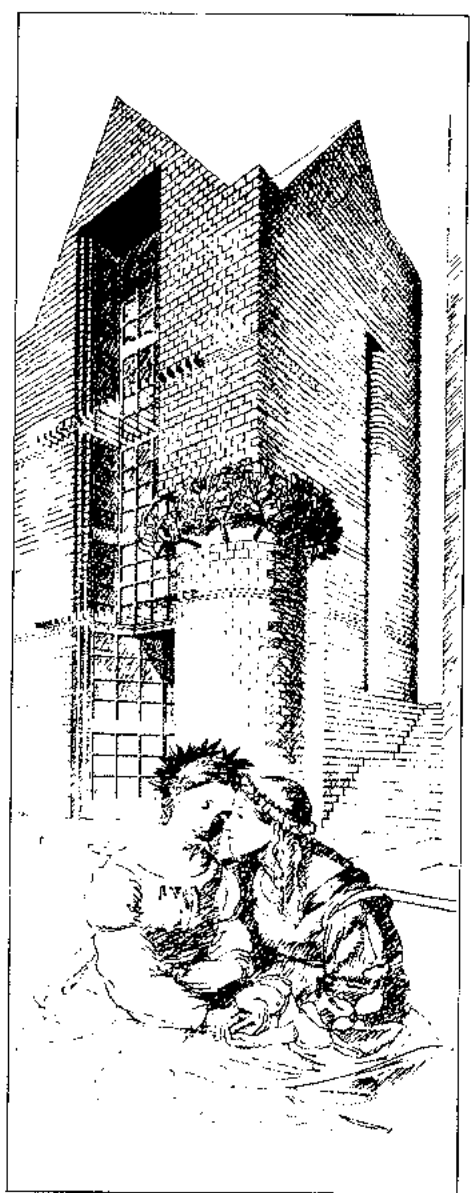
〈사진 40〉 초기안 루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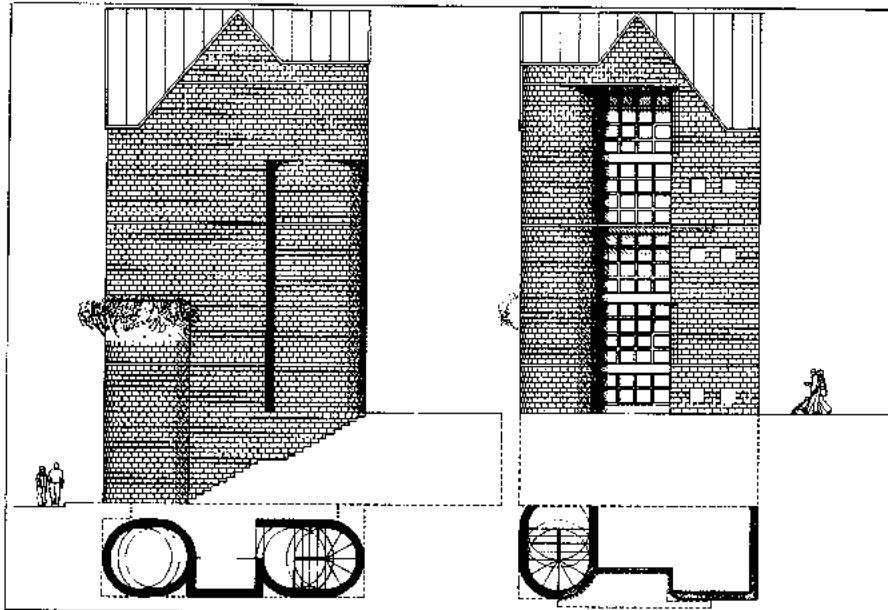
〈사진 39〉 초기안 브론즈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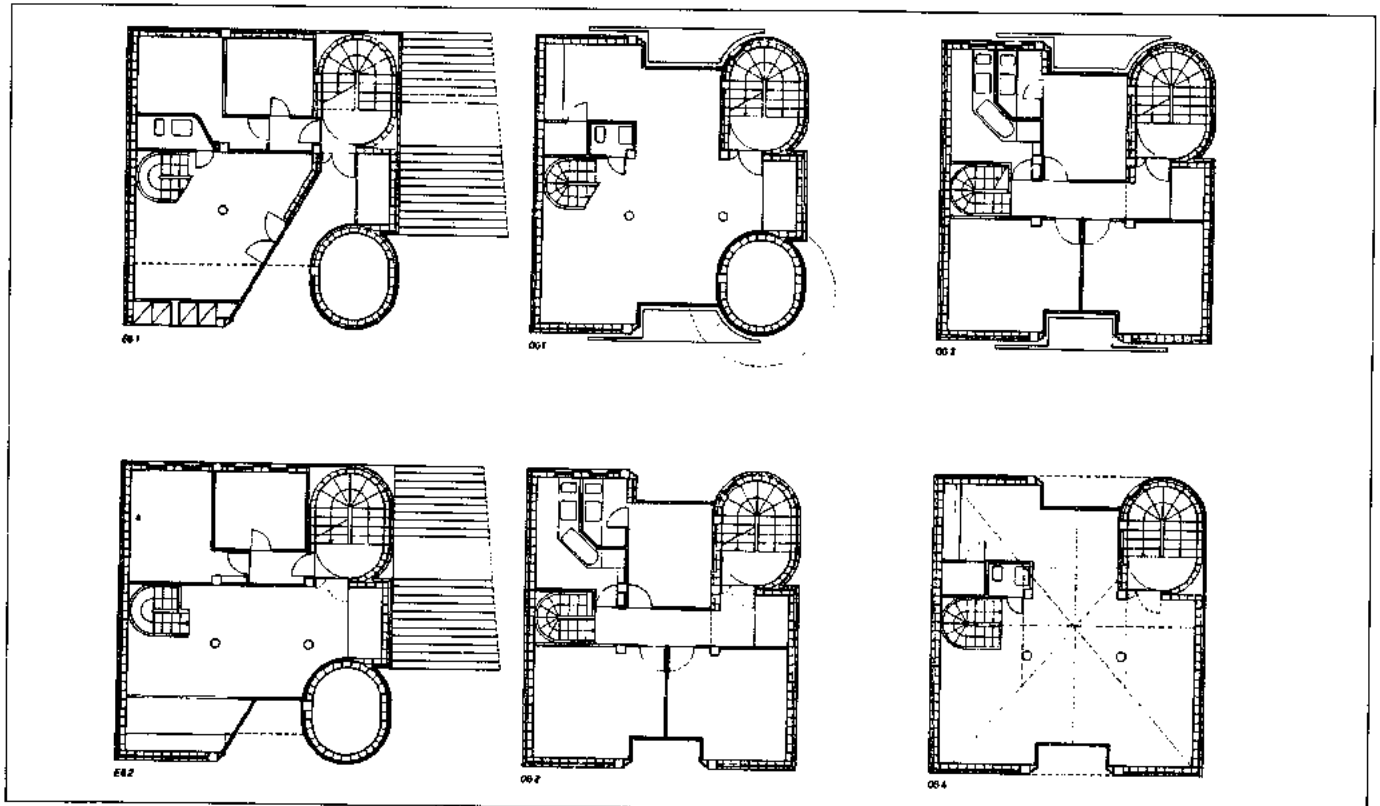
(사진 41) 사알가세의 파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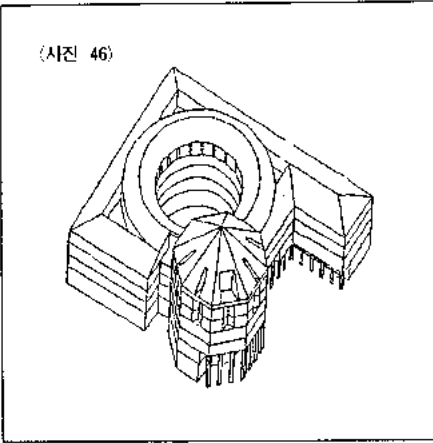
(사진 44) 투시도



(사진 42) 동, 북측입면



(사진 43) 6층평면도



계획을 담당했다. 예루살렘신전의 서측벽(Temple Hill: 여러 이름이 있는데, 통곡의 벽 또는 유대인들은 Hakotel Hamaravi로 부른다.)은 사람들, 남자들, 역사, 기억, 드라마와 희망이 교차하는 장소이다.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이 복잡하였으나, 후에 편리해 졌다. 1967년 예루살렘이 재통일 된후, 몇세기 동안 헌신과 기도의 장소로 쓰이던 3.6×20m의 좁은 광장자리에, 20000m²의 큰광장이 통곡의 벽 앞에 만들어 졌다. 동시에 이 고고학적 대지는 신전에 이르도록 진입로가 놓여, 넓어져 확장되었다. 이스라엘 宗教性에서 마련된 설계지침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계획안이 마련되었다.

루이스 칸(1967년)⁽²⁷⁾ (사진 37~38), 아사무 노구치 모세 사프디 (1974년; 부분적으로 시행됨),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마스트로 (Maestro)와 피셔 (Fisher)에 의해서였다. 이러한 계획안에도 불구하고, 신전의 모든지역은 아직 비어있고, 역사적 상처가 있는 고대도시로서 주목받고 있다.⁽²⁸⁾

1980년 ○ 『先史, 古代 박물관』

1980~83년 ○ 서독, 프랑크푸르트, 잘 가쉴 4번지의 주택. (사진 39~44)

1982년 ○ 『슈퍼 스튜디오』

1966~1982/『Storia, Figure, Architettura』책 발간.

○ 프라토 은행, (프란시아 이름으로 발표)

1982~83년 ○ 피렌체, 청사계획안. (사진 4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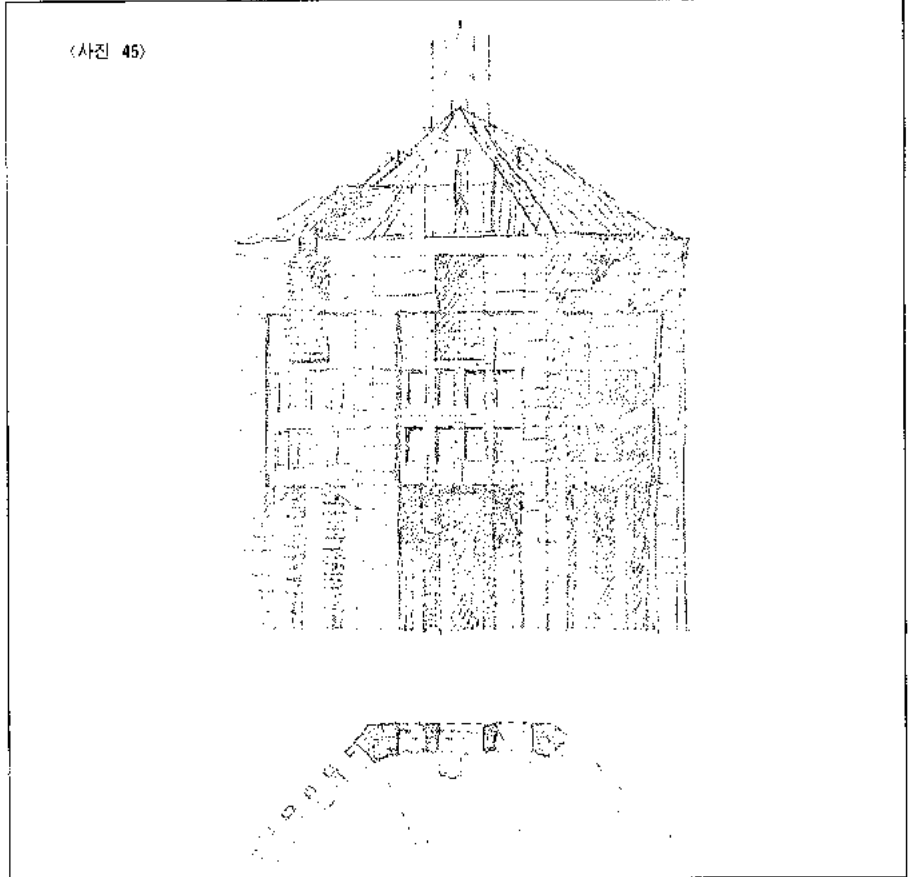
1983년 ○ 나탈리니 공저, 『Cultvra materiale extrarvrbana』책 발간.

1984년 ○ 『아돌포 나탈리니/Figure di Pietra』발간.

1985년 ○ 코르도바 광장 계획안, 역사적 도시의 새로운 계획안은 2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기존의 도시 맥락을 해석하는 것과, 현대의 公的공간을 정의하는 것이다. 건축과 도시 부속변의 요구를 정당화 한 시도였다.

○ 피렌체 광장 계획안.

나탈리니는 대학에서 교수로서, 건축가로서 일을 하고 있으나, 예술가가 천직이었다고 믿고 있다.



□ 註 □

- 1) Domus 613, pp. 18~20.
- 2) C.I.C.A. Award Winner, 『Post-Modern Visions』 Space Design, 1985.05.
- 3) Cristiano Toraldo di Francia, Piero Frassinelli, Alessandro Magris, Roberto Magris.
- 4) demonstratio per absurdum.
- 5) logical extrapolation.
- 6) Continous Monument.
- 7) Le Dodici Citta Ideali.
- 8) Space Design, 1985.05.
- 9) 동아일보, 1988, 12, 27일자.
- 10) Giorgio Bellavitis, 『The case of Venice』중에서,
- 11) 조지 디키 서, 『미학입문』, p.11.
- 12) 임마누엘 칸트저, 이석운역, 『판단력 비판』, 서울, 박영사, 1980년, pp. 66~103
- 13) 김경수, 『스크러튼의 고전주의 건축미학의 배경과 토대』, 스크러튼 저, 김경수 역, 『건축미학』, pp. 343~344.
- 14) 로저 스크러튼저 김경수역, 『건축미학』, 서울, 서광사, 1985. p. 344.
- 15) 토머스 먼로 저, 『동양미학』, p.23.
- 16) 토머스 먼로, 앞책, p.83.
- 17) 토머스 먼로, 앞책, p.129.
- 18) 토머스 먼로, 앞책, p.81.
- 19) Macmillan Encyclopedia Of Architects, pp. 48~59. ALBERTI, LEON BATTISTA. Ten Books on Architecture The Ten Books on Architecture 건축과 환경, 1988년 1, 2월호 「건축사학의 건축이론」중, 김억웅, 『비트루비우스의 계몽과 주범』 및 김기환, 『형대이론이 이상주의 알베르티』를 참조할 것. Rudolf Wittkower저, 이대암역, 『르네상스 건축의 원리』 p.21.

Emil Kaufmann, 『Architecture in the Age of Reason』, Dover Publications, pp. 92~93.

- 20) 野口昌夫, 『記憶の再構築へー80年代のアドルフオナタリーニ』, SD, 1985년 5월호. 노구치·마사오는 피렌체대학 건축학부에 유학하고 있는, 일본 동경공업대학 대학원출신임.
- 21) Un lapsus tra lapis e lapide, 이말은 초기에 급진적 일때, 진흙에 묻혀 없어지더라도, 땅에 묻혀서라도 그를 증명할 방법으로 석판화나 황동에 표현하던 때를 나타내 주는 것이 노비석(돌)이며, 후에 건축을 탐사하기 위하여 다시 연필로서 르네상스기의 건축대가들을 따라 연필로 도면을 그리고 색연필로 스케치 하던 때를 나타내 주는 것이 연필이며, 그사이에서의 방황을, 실패에 대한 절망감의 표현으로 생각한다.
- 22) 자료가 미비한 채로, 글을 쓰므로 내용이 충분치 못함.
- 23) C.I.C.A. pp.192~195
- 24) 슬라아드 헤실집
- 25) 앞책.
- 26) A Review, 1985. 7월호
- 27) R. Giurgola 외, 『루이스 칸』, pp.54~56. 합동도시.
- 28) Domus 634호, 1982년 12월호. pp.2~27. Space Design, 1985.05.

참고문헌

- 1) Kenneth Frampton, 『Modern Architecture and the Critical Present』, AD Profile.
- 2) Vittorio Magnago Lampugnani, 『Architecture and City Planning in the Twentieth Century』.
- 3) Hegel's Interduction to Aesthetics.
- 4) 김분환 편저, 『현대미학의 향방』, 서울, 열화당, 1985.
- 5) Werk, Baven + Wohnen, 1984 : 12, 1985 : 10.

자연채광의 설계개념

Design Concept to Daylighting

金正泰 / 경희대학교 부교수 · 공학박사

by Kim, Jeong-Tai

□ 연재를 시작하며 □

자연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외장적으로 멋있는 센스를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며 시각적·열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자연광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건축설계시 자연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건물들도 실제로는 종종 잘못 응용되어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비시키거나 혹은 재실자에게 열적, 시각적인 불쾌감을 조성시키고 있다. 미국의 McCluney(1985)는 그 이유를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자연채광을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가들은 자연채광의 경제적 성능을 계산하는 방법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건축설계시 자연채광의 이용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채광 설계를 생각하고 있는 건축가들은 자연채광 설계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 셋째, 자연채광을 설계하고자 하는 건축가들은 자연채광에 대한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 기법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아직도 에너지와 경제적인 성능을 계량화하기 위한 과정이 단순화 되지 못하였는데, 그들은 이것이 바로 자연채광을 이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건축가들은 건물의

특정위치에 창을 설치한후 에너지절약이나 생산성 향상을 계량화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대신에 과다한 글래어나 기타 다른 불쾌감을 조성하지 않으면서 좋은 조도성능과 전망을 가질수 있는 창을 설치하는 데에만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자연채광에 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에너지성능 뿐만 아니라 작업성능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채광 설계에 관한 기초적인 설계지침에 대해서는 아직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자연채광 설계기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물론 모든 건물에 적용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현단계에서는 간단하고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연채광 설계에 관한 여러가지 수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연재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순서 및 내용은 필자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또는 보완, 수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자연채광의 설계개념. • 자연채광 광원으로서의 천공상태의 예측. • 각종 채광방식(측창, 정측창, 천창, 아트리움 등)의 특성. • 설비형 자연채광방식. • 자연채광과 구조설비의 일체화. • 자연채광 조절장치.
- 자연채광의 계산방법. •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의 조합.

1. 건축과 자연채광

건축공간에 빛을 공급하는 것은 建築照明(Architectural Lighting)이라 한다. 광원이 자연광일 경우 晝光照明 또는 자연채광이라 하며 주로 채광창의 계획과 관계되며 건축분야에서 다루고 있다. 광원이 인공광일 경우 인공조명이라 하고, 램프를 주광원으로 하여 전기를 관계하는 사람들이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주간에도 인공조명이 많이 필요하므로, 주광조명과 인공조명을 병용하여 종합적으로 설계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빛환경을 창조하는 것이 건축조명의 중요한 과제이다.

자연채광의 기본문제는 室이라는 시스템에서 제기된다. 이 시스템에 주광이 채광창을 통하여 자극을 준다. 이에 따라 시스템에 조도, 휘도 등 물리량의 반응이 생긴다. 이 반응을 예측하기 위하여 물리량의 예측 계산을 해야한다. 한편으로는 물리적, 생리적, 심리적인 기본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연채광의 실제목표가 설정된다. 자연채광의 설계목표(Lam, 1986)는 1)실내의 거주자에게 쾌적과 기쁨의 제공, 2)건물 사용자의 구조, 동선등 기능적 요구의 만족, 3)건물 에너지 비용의 최소화, 4)공공적인 건물이미지의 창출, 5)건설비의 최소화으로서 이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설계요소를 피드백시켜 수정, 보완하고, 이를 다시 설계목표와 조합시킴으로서 자연채광의 설계목표가 충족되도록 해야한다.

2. 자연채광 광원으로서의 태양

태양은 건축디자인의 저해요소인가, 아니면 보다 나은 디자인을 하기 위한 좋은 기회인가?

세계역사를 통해 볼 때 태양은 인류에 의하여 숭배되어 왔다. 인간들은 태양으로 인한 생활의 유익함뿐만 아니라 태양의 존재에 대한 잠재성까지도 인식, 찬양, 기원하였다. 옛날에는 인간의 계절별 혹은 일별작업, 놀이, 휴식 스케줄과 의복의 형태와 재료, 온신처 및 건물에 기후변화, 특히 태양의 일별, 계절별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역기후에 따라

◆ 金正泰

- 53년 강원도 강릉생
- 연세대 건축공학과, 동대학원 박사학위 취득('85)
- 영국 켄브리지대학교 건축학과 방문교수 ('86~'87)
- 현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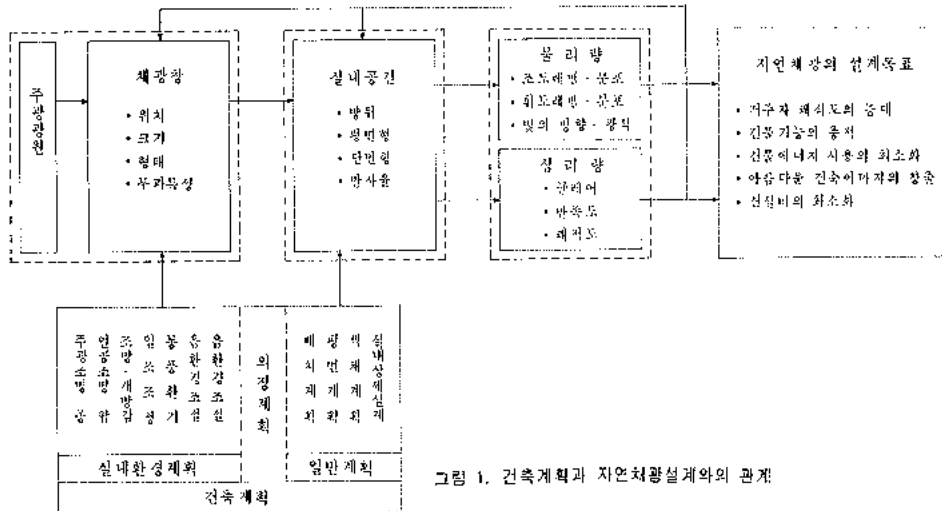


그림 1. 건축계획과 자연채광설계의 관계

특별히 태양의 움직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해시계, 의식적인 기념물 및 일상구조물속에서 사람들은 태양의 일정한 움직임을 인식하여 왔다.

자연채광은 직사일광 및 천공광을 조명 및 열적 쾌적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형태를 의식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때 자연채광은 그 당시에 이용할 수 있는 건축재료와 건축기술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여기에는 직사일광 뿐만 아니라 천공, 구름, 자연 인공적 조경요소 및 건물사체에 의해 확산되거나 반사되는 빛도 이용하여 왔다. 이에따라,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응용하여 설계된 건축은 직사일광을 쉽게 입사시키거나 재방사시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토속건축들은 자연채광의 가장 근본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 건물들을 분석해 보면 각 건물에는 형태, 방위, 빛의 사입, 차양 및 색채 등에 독특한 논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상호 간등되는 계획요소들과 디자인 결정들을 잘 조정하여 이상적으로 디자인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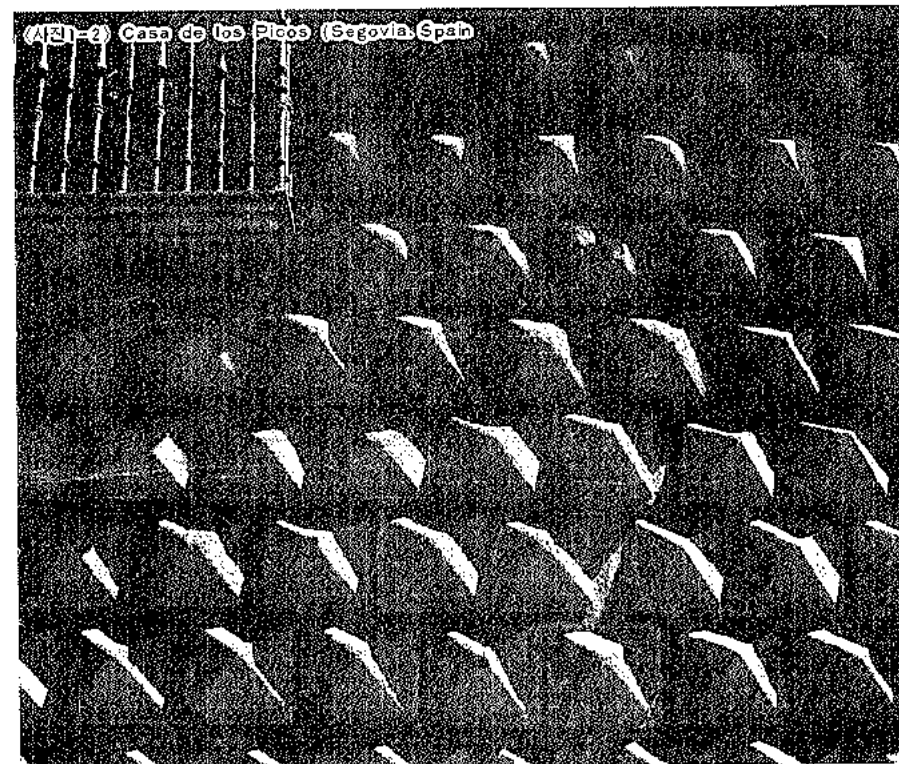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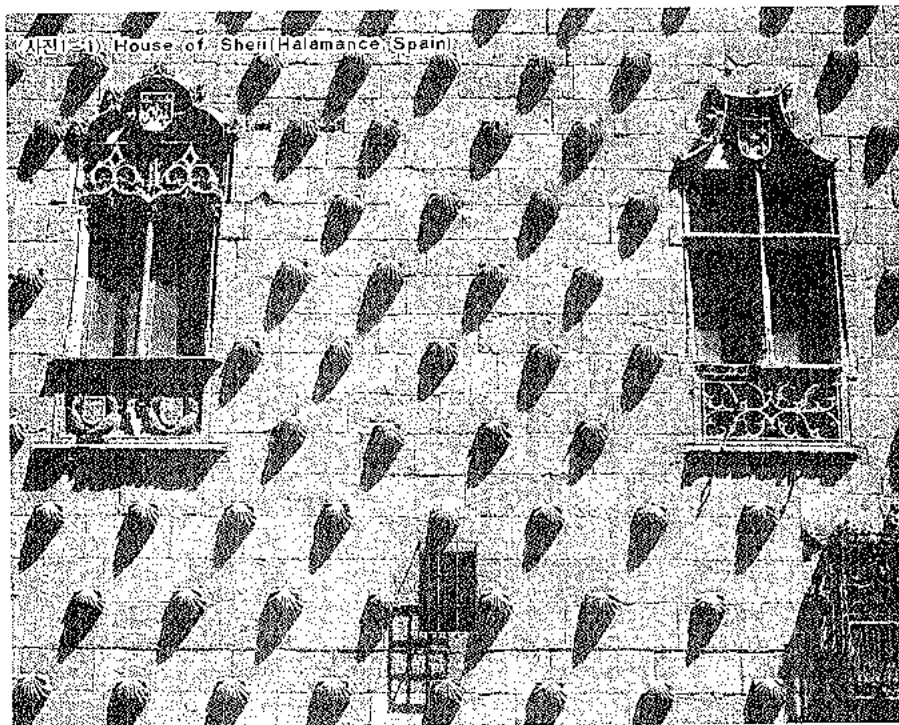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어떤이론을 기록화하거나 표준화 할 가치가 없을 때 디자인은 보통 비 논리적인 것들을 제거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기록되고 계속되어 사용된 자연채광에 대한 개념들은 일반적으로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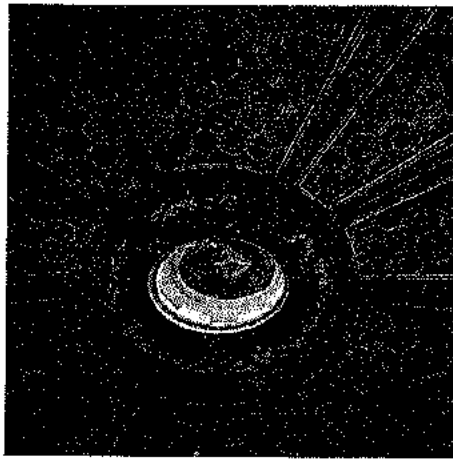
“자연적인”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바와 같이 다습한 열대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공공공간을 넓은 차양지붕으로 커비하고 또한 넓고 개방된 벽으로부터 반사된 빛을 이용하여 왔다. 이란과 같이 야간에 매우 춥고 고온건조한 사막지역은 매스로 된 벽이나 지붕으로서 자연채광을 조성하였으며, 북경과 같은 온대지역에서 대부분의 주요한 공간은 남향으로 위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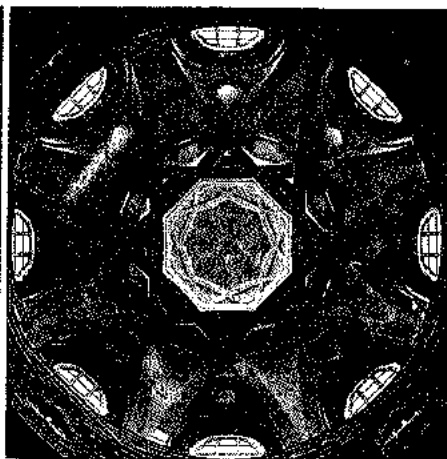
기술의 진보에 따라 자연광은 보다 지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상업용이나 공공용 건물들을 보면 이와 반대이다. 지난 세기동안 건물형태에 일광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예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1920년대 말 Zeilenbau(연립주택)계획이 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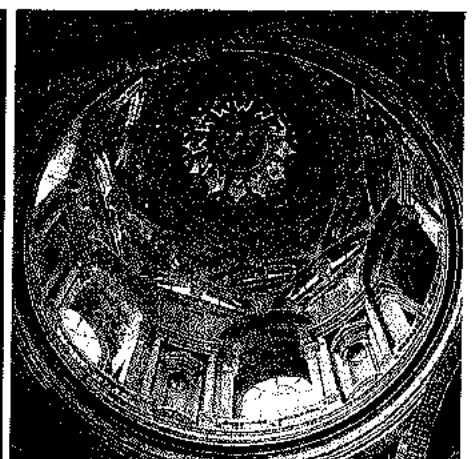




[사진 2-1] S. Andrea al Quirinale교회
(Rome, Italy)



[사진 2-2] S. Lorenzo교회(Turin, Ita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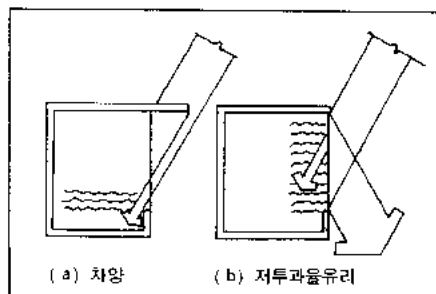


[사진 2-3] Chapel of the Holy Shroud
(Turin, Italy)

독일에서 유행되었다. 이것은 건물을 깊고 수평적으로 하고, 남북열로 좁게하여, 동향과 서향으로 개구부를 향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 자연광이 각 세대의 실내부에 균등하게 분산될 것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건물들이 여러 동 건립후에, 겨울에는 실내로 일광이 전혀 사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너무 과열되어 불쾌감을 조성하였다. 1930년대 초기에 이르러 이러한 건물은 다시 남향을 선호하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그 다음의 혼란한 시대에도 환경보다는 미적인 요소들이 건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건물의 향에 관한 교훈은 거의 잊혀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2차 대전후 미국에서 자연채광에 대한 관심은 짧은 시간내에 르네상스를 겪게 된다. 1950년대의 베이비 붐과 함께 수많은 건설되는 학교건축에서 주광의 이용은 디자인에 주요한 관심사로 재인식된 것이다. 1950년대 말 형광램프와 HVAC시스템이 소개되기 전까지는 인공천공, 방향성 유리블럭 및 기타요소들이 視知覺과 可視度에 미치는 영향들이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그때까지 건축에 있어서 일광은 일반적으로 무시되거나 혹은 건축디자인의 기회보다는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로서 취급되었으며, 또한 일광은 건축에 이익을 주는 요소라기 보다는 원하지 않는 요소로서 취급되어 거절되었다. 아틀란타의 건축가 Raymond Steinback이 50년대 초 다시 MIT로 오면서, 그는 "Weathermaster House Design Competition"에서 건축전문가에게 주요한 디자인 관심사로서 향과 차양을 기본요소로 인식하자고 제안하였다. 웨스팅하우스에서 후원한 이 국립현상설계는 똑같은 집을 어느 장소, 어느 방위로든지 자유롭게 설계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부터 자연채광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파급되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진보된 기술이 다양함에 따라 에너지자원을 최소로 이용하면서도 쾌적한 시각적, 청각적 환경을 창조하고, 태양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적 디자인 해결안들이 무한하게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리의 급속한 확산, 고성능

유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복잡한 현장 콘크리트 형틀 및 기타 고급시공재료와 같은 현대적인 기법과 옵션들, 또 컴퓨터 계산, 시뮬레이션, 그래픽 같은 진보적인 분석도구들은 그 자체내에서 문제가 제기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실상 건축디자인에서 무한한 선택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즉, 무한한 해결안을 채택할 때에는 확인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목표에 적합한 반응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무한한 선택은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그동안 크게 잘못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올바르게 정의하여야만 한다. 많은 선택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마스터 빌더의 시대는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이슈에 서로 다르게 관련된 반응들을 하나의 통합된 것으로 조정해야만 한다. 또한 제 문제들은 과거의 해결안들을 정확하게 평가한 후에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면 무엇이 과거와 다른 환경이고, 틀린가정인가? 왜 그렇게 하였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동안 자연광을 이용하는데 많은 인자들이 잘못 사용되었고, 특히 북미에서 1950년대 이후에 건립된 건물에 그러한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 대신에, 창이없는 건물로서 일광들을 차단시킨 것도 많다. 또한, 기술의 진보는 에너지 사용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시각적, 열적 환경을 현저히 불량하게 조성시켜 버렸다. 그동안 기술은 현명한 전략을 창조하는데 사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창조한

"비자연적"인 건축개념의 핸디캡마저도 극복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잘못 사용된 요소들은 크게 두가지 측면—값싼 에너지와 고조도의 요구—에서 볼 수 있다. 파워플랜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파워산업계와 조명업계는 조도레벨을 증가시키고 관련규정을 만드는데 공동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기준 조도레벨이 너무 높아, 외부기후나 자연광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인공조명이 하루종일 사용되어야만 할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조명으로 인하여 실내가 너무 과열되어 1년내내 공기조화가 필요하기도 하였다. 조명전문가들의 무의식적인 공모에 의하여 기준 조도레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백분율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기계및 전기엔지니어들은 건축에산중 자신들의 할당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기뻐하였다. 물론 이 경우 그들은 조명기구나 램프, 공조유니트를 보다 자세히 도면에 작성할 필요가 없었으며, 절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양적인 요구를 디자인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쉬운 일이었다. 인간의 지각이나 공간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충분히 교육받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디자인에만 책임 있는 전기엔지니어들은 기본적인 디자인 기준으로서 간단한 수치기준만 갖게되는 것을 선호하였다. 많은 건축가들이 실내환경의 많은 부분을 엔지니어에게 그 책임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엔지니어들은 실내환경의 기능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자신의 공상에 따라 어떤 유리 박스든지 설계할 자유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구조로부터 외피는 분리되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화합시킬 수 없는 신화를 유지시켜 갔다. 잘알려진 환경적인 불쾌감(글래어, 햇빛이 비치는 부분의 과열, 그림자진 부분의 과냉)같은 것을 참고하지 않고 커튼월 건물과 같은 Mies의 외관형태가 격찬되었고 이러한 건물은 더욱 더 건설되었다. 또한, 건축적인 검토는 외관만을 선호하고, 내부는 보통 로비와 공공 스페이스만을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그동안의 논문들을 잘 살펴보면, 아마도 제대로 지어진 공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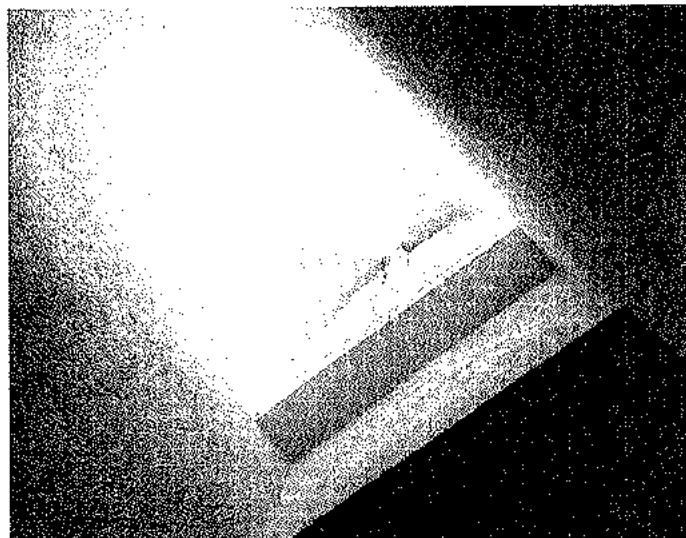
[그림 2] 차양과 저투과율유리의 자연광 유입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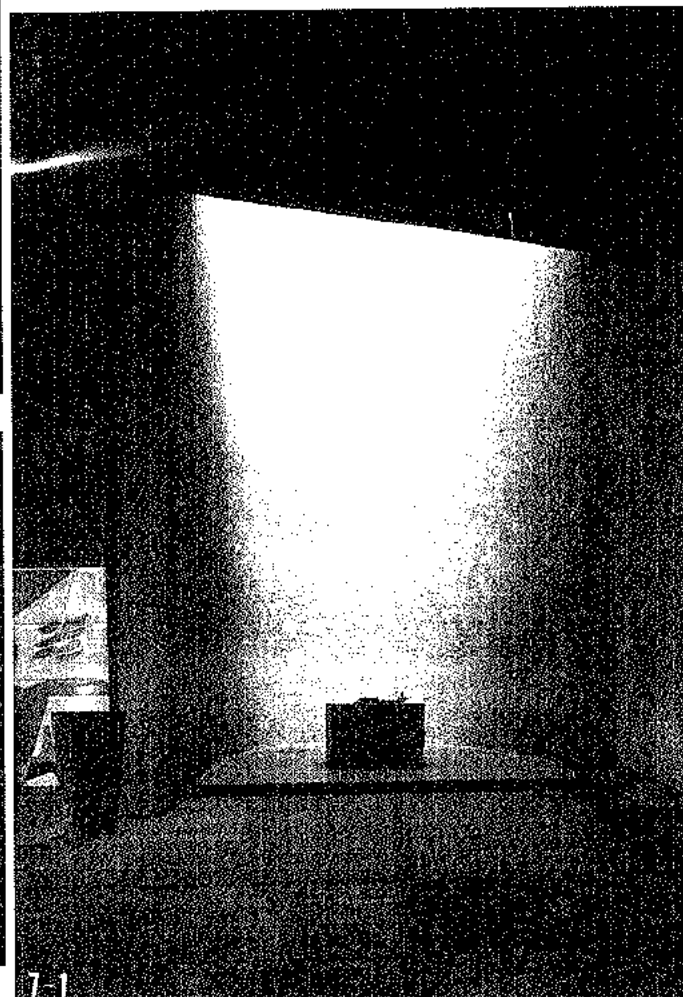
〔사진 3-1〕 등측외관



〔사진 3-2〕 예배실 남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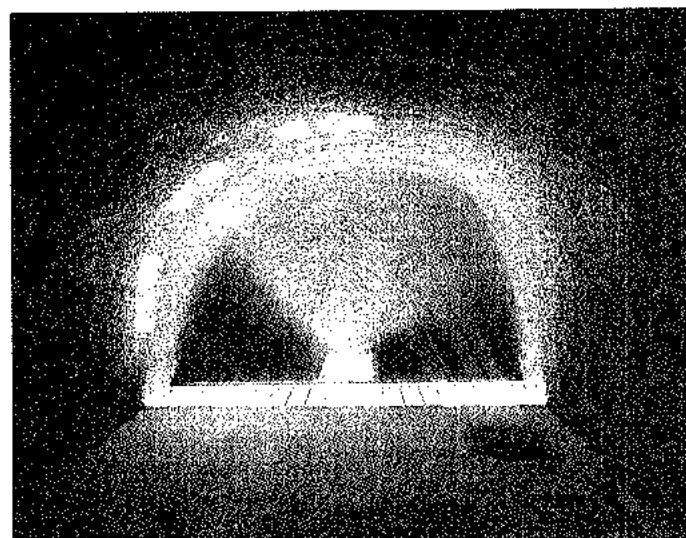


〔사진 3-4〕 예배실 남측 상부의 光井에서 유입되는 자연광



7-1

〔사진 3-3〕 소예배실



〔사진 3-5〕 예배실 북동측의 光井에서 유입되는 빛



〔사진 3-6〕 身廊

〔사진 3〕 자연광으로 실내분위기를 연출한 Notre Dame Du Haut교회
(Ronchamp, France : Le Corbusier 설계)

그림 3. 선형적 사고와 측면적 사고 (E. Debo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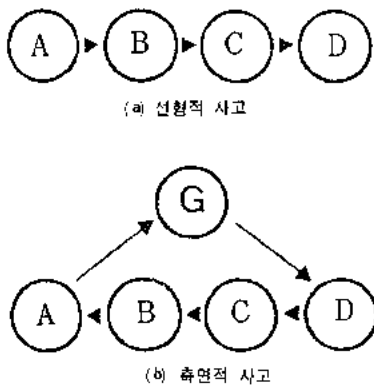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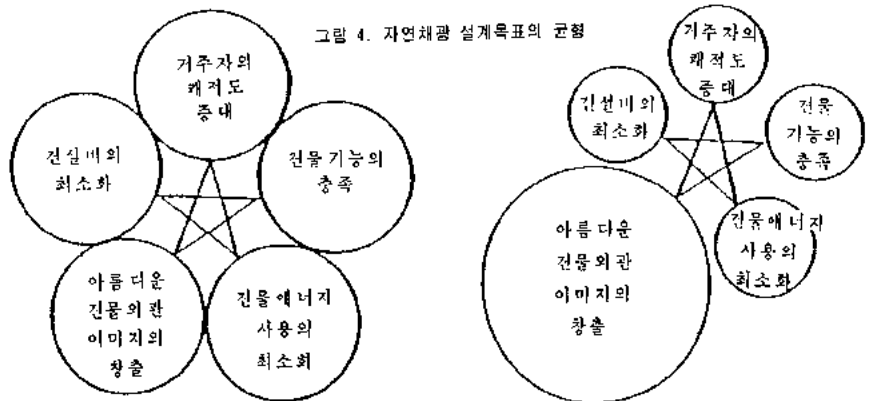


그림 4. 자연채광 설계목표의 균형



(a) 5개 설계목표가 균형을 이루어 아름다운 건물을 설계할 수 있다.

(b) 만일 한 설계목표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채광설계는 어려움을 겪게된다.

일하는 실내사진은 거의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실내사진들이 게재된 것을 보면, 천장전체가 형광등에 의하여 눈부심이 발생하는 사진들은 없고, 대신에 가구들만 나타나 있다. 향과 차양을 무시함으로써 나타나는 과도한 글레어나 과열(동시에 과냉포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가들은 전체적인 개념을 수정하기 보다는 미러글라스와 같은 하이테크 재료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미러글라스 벽 뒤에는 글레어를 조절하기 위하여 베네치안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눈부신 형광등이 하루종일 창에서 실내로 비친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John Hancock빌딩은 건물의 독특한 외관이미지 때문에 많은 디자인 상을 수상하였지만, HVAC때문에 친정고의 일부가 낮아진 실내공간은 어둡침침하고, 맑은 날조차 지투파울 유리에는 실내 입주자의 이미지가 반사된다. 이 건물은 지투파울 유리를 사용하였지만 만일, 열흡수 유리를 사용했다면, 객실자들은 유리창으로부터 흡수되는 방사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이다. 많은 건축가들은 사무소빌딩을 커튼월구조로 설계하기를 좋아한다. 그 이유에 대하여 Lam은 커튼월 구조가 설계프로세스가 간단하고 경제적인 이익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커튼월 시스템은 선택, 천장시스템, 매입형 조명기구 등 건물형태를 결정하거나 재료를 선택하는데 다른 구조보다 적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커튼월구조는 메인 로비의 디자인에만 큰 신경을 쓰면된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만일 개발자들이 이러한 건물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런 건물들은 그렇게 많이 지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초기 투자비용의 최소화과 자본비용의 최대화만을 생각하는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실내작업환경의 질이나 운전전비 보다는 드라마틱한 외관의 이미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주들이 고가의 운전전비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 전까지 이러한 건물들은 계속지어질 것이다. 오피스빌딩은 환경을 무시하고 디자인될 수 있는 건물형태가 아니다. 그동안 많은

건축가들은 논리적인 것 보다는 추상적 형태를 박물관(예를 들면 Kelvin Roche의 Lehman Wing of the Metropolitan Museum), 대학도서관 (예 James Stirling의 Cambridge University History Faculty Building) 및 기타 다른 건물형태에 적극적으로 응용하여 왔다. 디자인 수상작품 역시 성능보다는 형태를 의식하는 경향이 많다. 이슬람 건축을 위한 Kahn의 수상만이 큰 예외라 할 수 있다. 심사위원들은 먼저 그래픽 표현 기법을 평가하고 그밖의 요소들은 무시하곤 한다. 특히 잘알려진 문제점들조차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Kahn의 수상작품은 환경의 질을 평가하고 사용자와 소유자의 요구와 반응을 기초로한 것이다 (Lam, 1986). 현재 값싼 에너지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무제한 계속된다는 아이디어는 하나의 신화로서 재인식되고 있으며, 건축기술의 진보에만 의존한 전체적인 인공환경의 질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기후와 인간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도속적인 전통성을 재인식할 때이다. 현재의 자연채광 설계는 공간의 실용적요구, 사용자의 기대, 최신 건축재료 및 프로세스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자연채광 설계에 관한 이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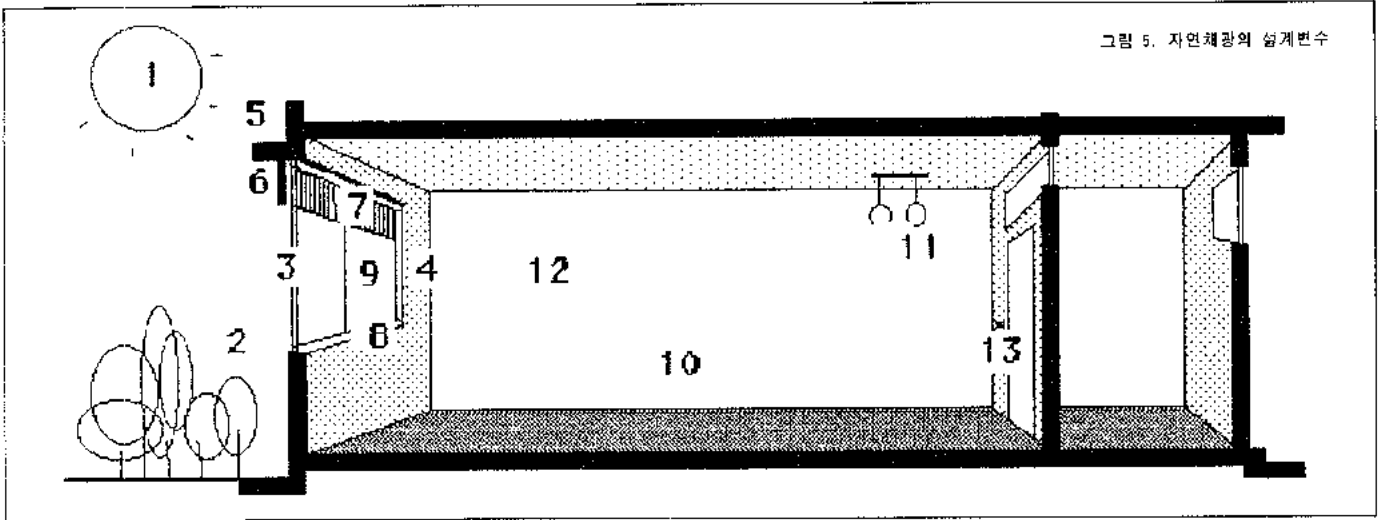
미국에 있어서 자연채광의 문제점은 건축설계시 자연채광을 이용하면 몇있는 센스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건축가들은 자연채광을 충분히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건축설계시 자연채광이 사용된 건물들도 실제로는 종종 잘못 응용되어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비시키거나 혹은 재실자에게 열적,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조성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미국의 디자이너들이 행하고 있는 작업은 크게 다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혁신적인 어프로치를 피하고 작은 이익이라도 감수하고 「설계대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축가들이다. 이 방식은 틀에 박히고 이미 검증되어진 재료들을 사용하도록 강요되고 있다.

2. 다음과 같은 디자인 행위에 약간의 초과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건축주를 상대하는 건축가들이다.

- 에너지 절약을 위한 벽 시스템과 우아한 지붕형태
-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
- 특별한 에너지 절약형 조명 시스템
- HVAC, 조명, 가동식 차양장치등의 건물관리를 완전히 컴퓨터 시스템화

건축가들의 작업형태를 이와 같이 두개의 카테고리 나눌수 있는 첫번째 원인은 완성된 건물을 건축주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은 첫번째 범주에 해당된다. 그들은 완성된 건물을 가능한 한 최고의 가격으로 초기투자의 회수기간을 매매나 임대를 통하여 최소화하는데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운전비용은 무시되고 초기투자가 최소일때 이익은 최대가 된다. 불행히도 아적인 에너지 가격이 너무 저렴하여, 건물의 매입자나 임대자들은 아직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이익 분석」(약간 초기투자가 증가하더라도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을 짓는 것이 개발자들에게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인식 하기엔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반면 은행이나 큰 회사 등의 건축주들은 건물을 오랜동안 자신들이 운영하고자 하며, 이들은 대개 두번째 카테고리에 해당된다. 이들은 건물의 초기투자비용 뿐만이 아니라 건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초기투자비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이 회수되는 기간을 계산하고자 할 뿐만이 아니라 설계시 경제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새로운 공사의 대부분은 첫번째 카테고리의 작업에 해당되며, 따라서 대부분의 건축가나 건축주들은 타이트한 스케줄 속에서 적은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건축가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짧은 기간동안 자연채광의 설계기법을 충분히 배웠다고 믿고있다. 그러나 그들은 보다 효과적인 자연채광 설계기법을 배우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관심들을 갖지 못하였다. 따라서 적절한



자연채광 디자인은 디자인 프로세스에서부터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부적절하게 응용되어 왔다.

두번째 카테고리에서 해당하는 건축가들도 이러한 태도가 자주 나타난다. 즉, 건축가 자신은 최대한의 의도를 가지고 설계하지만 실제로 개구부 디자인에는 심각한 실수들이 나타난다. 크고 작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실수들은 간단한 가이드라인이나 원칙들을 따르지 않는 부주의 때문에 생긴다. 자연채광의 설계기법은 간단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복잡하지도, 또 어렵지도 않다. 그러나 자연채광 디자인은 복잡하고,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생기게 된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McCluney, 1985).

1. 자연채광의 광선자들은 거의 최근에서야 기본적인 자연채광 설계 기법들을 편찬하여 보급하였다. Benjamin Evans의 "Daylighting in Architecture(1981)"는 여기에 대하여 좋은 시작에 해당된다. 또한 Claud Robbins의 "Daylighting, Design and Analysis"(1986)와 William M.C.Lam의 "Sunlighting as Formgivers for Architecture"(1986)은 이것을 보다 체계화시킨 것들이다.
2. 건축가들은 기본적인 자연채광 설계기법들을 적용시키거나 또는 자연채광을 보다 자주 사용하는 것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선입관과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다.
3. 잘 설계된 창은 에너지절약뿐만이 아니라 생산성도 향상시킬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한다.

자연채광에 관한 이러한 잘못된 인식들 때문에 자연채광은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문제의 핵심은 정확한 에너지 성능계산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많은 건축주들과 정부기관들은 건축디자인과 기능이 통합된 부분으로서 개구부와 자연채광을 이용할 때는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McCluney는 그 이유를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 자연채광을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가들은 자연채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자연채광의 경제적 성능을 계산하는 방법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건축설계시 자연채광의 이용을 포기하고 있다.
2.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채광 디자인을 생각하고 있는 건축가들은 자연채광 디자인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
3. 자연채광을 설계하고자 하는 건축가들은 자연채광에 대한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 기법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에너지와 경제적인 성능을 계량화하기 위한 과정을 단순화시키지 못하였는데, 그들은 이것이 바로 자연채광을 이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문제의 중요성은 인간과 건축물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때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상업용 건물에 있어서 조명에너지 비용은 전체 운영비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자의 쾌적감과 만족감을 적절히 증가시키면서 무수적으로 작업성능을 향상시키며, 또한 에너지 비용도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수가 있다. 적당한 조광과 과도한 글레어를 발생시키지 않는 창을 설치하면 실내거주자의 쾌적감과 만족감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창과 자연채광에 있어서 에너지측면은 상대적으로 그 의미가 감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자연채광과 생산성과 상관관계를 계량적으로 연구한 결과들이 충분하지 못하다. 여기서 다시 자연채광 지지자들은 간단한 자연채광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도바저 방해받고 있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미국의 경우 많은 건축가들은 자연채광의 유용한 장점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행동들을 방해하고, 또한 간단한 설계지침을 제안하는것조차도 방해하여 왔다. 그 결과, 오늘날 지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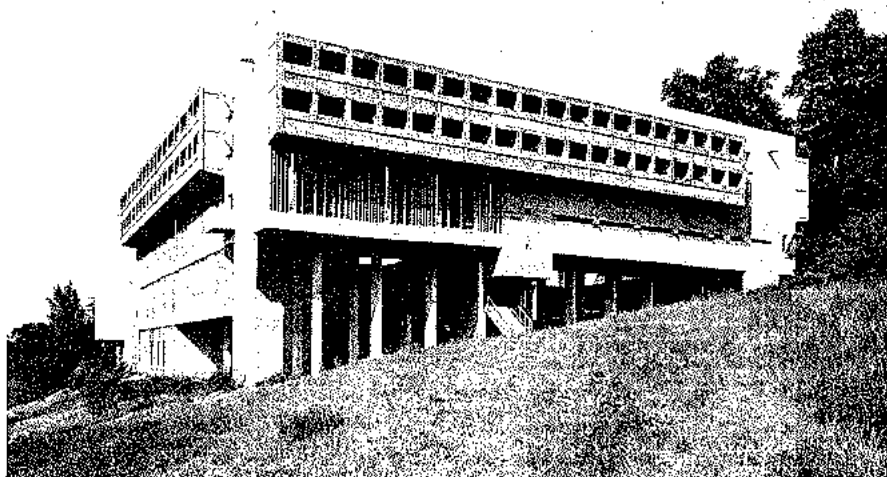
갖고 있는데, 이중 많은 창들은 에너지절약과 인간의 쾌적성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적정 수준에서 미달되고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건축가들은 건물의 북경위치에 창을 설치한후 에너지절약이나 생산성 향상을 계량화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신에 과도한 글레어나 기타 다른 불쾌감을 조정하지 않으면서 좋은 조도 성능과 전망을 가질수 있는 창을 설치하는 데에만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자연 채광에 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에너지성능 뿐만이 아니라 작업성능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채광 설계에 관한 기초적인 설계지침에 대해서는 아직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적절한 자연채광 설계 기법이 제시된 것들이 있다. 이것은 물론 모든 건물에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현단계에서는 간단하고 유용한 것이라 생각하여 이 연재의 뒷부분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4. 자연채광의 설계목표

건물자체의 목적과 사용자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자연채광을 설계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만약 설계목표가 간단하다면 설계프로세스도 간단할 것이다. 만약 우리들의 설계목표가 최대의 조도를 확보하고 최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단순한 것이라면 설계결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계개념도 프로세스와 계산과정을 선형적으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선적 목표의 성과결과는 간단한 도구(조도계, 전력계, 또한 연간 전력사용비용)로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없이 인공조명만으로 설계된 건물의 에너지 비용을 평가하는 것보다 자연채광 설계안의 최소비용을 판단하는 것이 더 어렵지만 그래도 설계안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기존의 상업용 건물과 공공 건물의 인공조명 계획은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였다. 즉, 이러한 건물에는 실내에 불쾌감, 매력감소 및



때때로 참을수 없을 정도의 시한경이 조성되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설계목표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서, 그것은 설계목표가 지나치게 단순히 양적으로만 규정된 점과 명확하지 못한 설계프로세스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기술적인 목표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변수도 자연채광에서는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각 분야의 다학문적인 어프로치가 자연채광 설계프로세스에 적합하다.

그러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채광설계 과정은 인공조명 보다 복잡해 진다. 자연 채광은 가로와 건물의 배치계획과 건물의 기하학적 형태등으로부터 설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에 덧붙여 항상 변화하는 자연광원은 디자인의 장애요인 일뿐만아니라 보다 나은 디자인을 하기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들은 채광설계에 복잡성을 띄게한다.

그러나 인간의 생활에서 가치있는 것들은 모두 복잡적이다. 즉,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떤 의자를 살것인가? 또는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의 간단한 결정도 정확하게 대답하기는 불가능할 정도다. 과연 우리들은 쉽게 정의된 기준에만 적합하게 설계안을 맞춤으로써 우리의 다양한 선택을 제한하여야만 될것인가?

Edward Debono는 사고과정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선행적 사고와 측면적 사고를 구별하였다(그림3). 그는 요인들 순차적으로 고려(전형적인 서구의 과학적 방법)하는 것을 선행적 사고, 다양한 요인들 동시적이고 비 구조적으로 고려(동양 문화적 성격)하는 것을 측면적 사고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측면적 사고는 복잡한 문제, 특히 가치와 목표의 집합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측면적 어프로치 방법은 설계목표가 거의 독립적이거나 정량적이지 않고, 오히려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것이 중복되고 혼란스러운 설계에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여기에 사용되는 과정은 측면적이고 순환적이며, 재반복적이 된다. 특히 측면적 사고없이 자연채광 설계시에 나타나는 다양한 동시 발생적 문제와 상호연관적인

해결을 적절하게 고려하기가 꽤 힘들어질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Lam의 "Sunlighting" 제10장에 자연채광에 관련된 개념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자연채광의 각 개념들은 완전히 탐구되어야 하며, 다양한 기준이 의미하는 함축적 의미는 반드시 가중치를 주어야한다. 또한 이에 나타나는 결과들은 반드시 전체와 재통합시켜야만 한다. DeBono가 지적하였듯이 측면적 사고에 의해 건축적 콘텍스트로 사전에 정의되고 기술적인 목표들과 기준들을 명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에서 선행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자연채광 설계에 관한 이슈들과 기본적인 문제들을 고찰하였다. 이제 "태양의 빛"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자연채광을 보면, 자연채광이 나타내는 경제적인 이득은 크게 다음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실내의 거주자에게 쾌적하고 생산적인 실내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둘째는 건물의 에너지 코스트를 감소시켜 준다.

실내의 거주자에게 옥외의 기상정보와 활동정보를 알려줌으로서 인간에게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연채광은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적인 사항들이 종종 현대건축에서 무시되기도 하였다. 이제 자연채광은 설계목표로서 건물의 경제성과 인간에게 기쁨을 제공하는 요인으로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어떤 건물의 건설목적, 프로그램, 건축기술, 디자인 프로세스 및 시공 프로세스 등을 위해서는 공동작업을 해야만 한다. 특히 자연채광은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적인 사항들이 종종 현대건축에서 무시되기도 하였다. 이제 자연채광은 설계목표로서 건물의 경제성과 인간에게 기쁨을 제공하는 요인으로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어떤 건물의 건설목적, 프로그램, 건축기술, 디자인 프로세스 및 시공 프로세스 등을 위해서는 공동작업을 해야만 한다. 특히 자연채광의 복합적이고 상호연관적인 설계목표를 균형있게 하고 또한 다양한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공동작업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다음 다섯가지 카테고리는 자연채광의 설계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 실내의 거주자에게 쾌적과 기쁨을 제공. 자연채광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사용자에게 쾌적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간의 시각적 청각적 쾌적 뿐만 아니라 그밖의 생물학적 및 실용적 요구도 포함된다.
2. 사용자의 기능적 요구를 충족 구조적 요구, 동선 및 건물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3. 건물에너지 비용을 최소화 에너지의 비용을 결정할 때는 대지와 프로그램의 영향을 만족시켜야 한다.
4. 공공적인 건축이미지의 창출 건물의 품위에 있어서 우아함은 건축가들이 가장 자주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다.
5. 건설비의 최소화 만약 계획이 수행될만한 자금이 없다면 그 건물은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자연채광의 설계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크게 6개의 스케일에 따라 설계를 진행시킬 수 있다. 큰 스케일에서 적절한 설정을 하면 상세한 설정은 단순화시킬 수 있다. 만일 이와 반대가 되면 자연채광 설계는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된다. 최소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최대의 쾌적함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가장 큰 스케일에서 부터 작은 스케일로 설계를 진행시켜야 한다.

1. 도시설계/종합계획 : 이것은 대지 또는 개발 전체를 통하여 자연채광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2. 대지계획/건물배치계획 :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자연채광을 건물에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건물형태의 형상과 위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 선택된 건물형태는 대지와 건물 프로그램과 깊은 관계가 있게되므로 이점을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3. 건축적 스케일 : 건물의 외부형태와 표면은 거주자의 요구와 행위가 고려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건물 내, 외부로 연결시키는 개구부의 크기, 형상 및 위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차양장치와 재배사 장치는 이 스케일에서 취급하여 개구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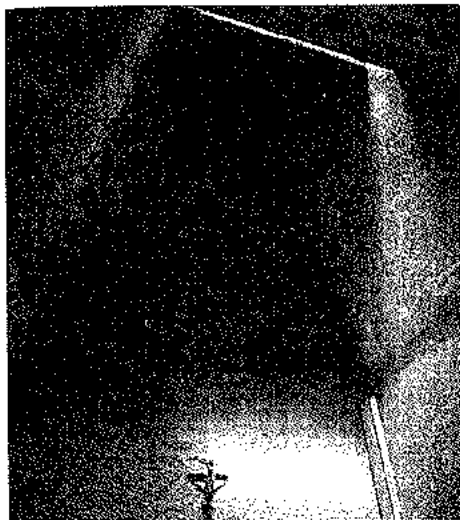


사진 4-2 소에베실의 아침햇살

도달하는 일광의 질, 방향 및 반사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4. 하드웨어 : 창 재료와 소규모의 보조차양장치, 재반사장치 및 차폐장치들은 실내 공간으로 유입되는 다양한 방사에너지(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의 양과 방향을 완전히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실내형태와 표면 : 실내로 유입되는 빛을 시각적이고 열적으로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의 종횡과 기하학적 형상에 많은 고려를 하여야 한다. 실내표면과 표면의 반사율은 원하는 빛을 분포시키거나 존속시키는데 적합하도록 한다.
6. 공간사용과 가구의 배치 : 이것은 건물의 조건에 알맞도록 공간을 사용하도록 계획하는 공간계획이다. 이때 시각적으로 쾌적하도록 가구를 배치하고 투과성과 반사성을 고려하여 재료를 선택하며, 건물운동(예 : 점멸스위치 작동)같은 사용자 교육포함시킨다.

6. 자연채광의 설계변수

이상에서 고찰한 내용을 종합하면 자연채광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들은 아래와 같다. 이 변수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분석되어 계획·설계되어야만 할 것이다.

1. 천공상태 / 직사광선, 천공광, 청천공, 담천공, 주광의 발광효율, 대지특성
2. 대지특성 / 태양방위, 수목, 지표면
3. 채광방식 / 측창채광, 천창채광, 정측창채광, 아트리움
4. 창외 형태 · 크기 · 위치
5. 건축물의 돌출부(고정일조조정장치)
6. 옥외 부속물 / 선 스크린, 롤 블라인드, 셔터, 어닝
7. 실내 악세서리 / 베네시안 블라인드, 드래페리, 필름 셰이드, 커튼, 불투명 롤 셰이드
8. 창틀
9. 유리 / 다층유리, 유리블록, 열흡수 유리, 열반사 유리, 응용 필름



사진 4-3 성구 보관실 상부의 광튜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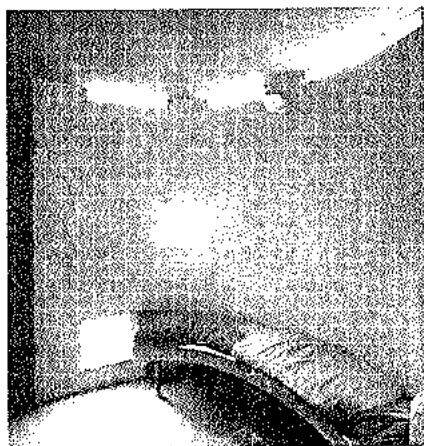


사진 4-4 방문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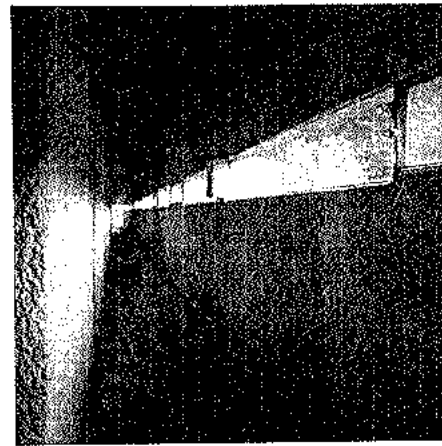


사진 4-5 풍속회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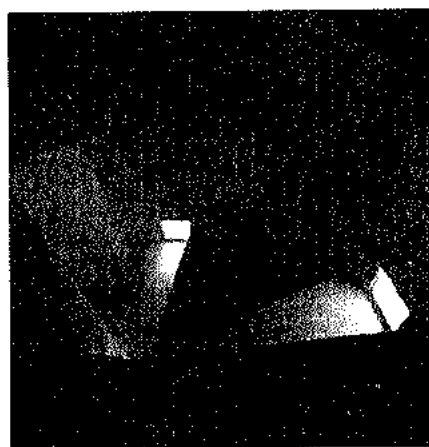


사진 4-6 중정에면한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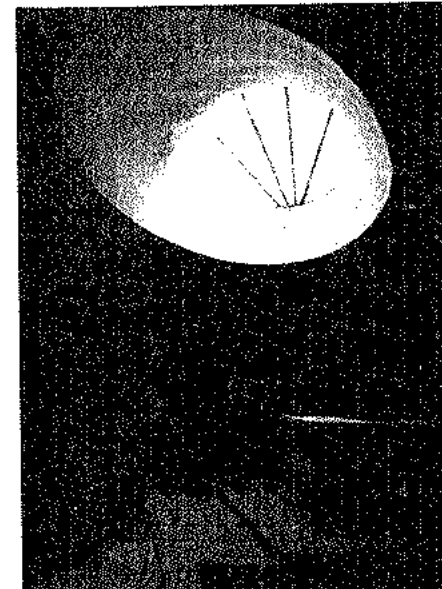


사진 4-7 계단측면의 채광창

10. 실내 / 작업조명, 엠비언트 조명, 색채(반사율)
11. PASLI(실내항시인공보조조명) / 소등 깊이
12. 자동점멸 장치
13. 글레이

(사진 4) 자연광으로 실내분위기를 잘 연출한 La Tuilerie도원 (Eveux-sur-l'Arbresle, France; Le Corbusier 설계)

韓國開化期の 外人館(3)

A Study on the Foreigners' Residence in Korea.

金泰永 / 서울대 건축학과 박사과정 수료

by Kim, Tai-Young

P. 釜山港

조선시대 경상도 동래부에 속하였던 釜山浦일대에는 對倭 회유정책의 일환으로 李朝初부터 倭館이 설치되어 있었다. 현재의 부산시 중구일대가 草梁倭館이었던 곳으로, 용두산을 끼고 東館(광복동, 동광동1가)과 西館(산창동)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東館에는 館守家(일본영사관 위치, 동광동 2가 11/18번지)와 그 아래쪽에 몇개의 가옥들이 병렬하여 있었다. 그 외에 朝鮮家屋으로 開市大廳과 裁判家(明信廳)가 있어 倭人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西館에는 東·中·西 三人廳과 六行廳의 비교적 커다란 장방형의 단층가옥 외에 관사·상점·창고건물도 있었다.¹⁾

1877년 1월 30일 일본과 체결한 釜山港租界條約에서 일본은 기존의 초량왜관 一區를 그들의 거류지로 확인함과 동시에 土地永租方式 및 地租納付規定, 朝鮮家屋(館守家, 開市大廳, 裁判家)의 처분방법, 조선정부에 소속될 토지 및 가옥의 한경, 그리고 거류지 설정후의 시설 책임소재 등을 밝히면서 강한 침략성을 내포한 Concession을 설정하였다.

조약체결이후 개항전에는 82명에 불과하였던 일본인 거주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용두산과 용미산 사이의 東館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거류지를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시가의 구획정리는 기존 東·西館의 地區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두산 어귀와 일본영사관 주변으로 관청 및 근대적 문명시설이 세워졌으며, 용두산을 낀 동·남쪽(동광·광복동)으로 부터 무역집화상점인 일식 2층 목조가옥이 즐비하게 늘어지게 되었다.

일본전관거류지를 중심으로 거류지의 置廢過程을 살펴보면

- 1880년 4월, 地所賃渡規則
- 1880년 7월 19일, 家屋建築假規則
- 1882년 8월 30일, 100里(日本里數로는 10里)의 間行里程 확보.

- 1888년 1월 31일, 절영도 地所 借入
- 1894년 6월~1895년 1월, 상수도 신설
- 1902년 7월 19일~, 北濱埋築工事
- 1904년 11월 10일, 경부선 개통
- 1906년 1월~, 해관공사.
- 1906년 거류지 접속지구(대신·보수·부민동 일대) 시가 도로구획.
- 1908~9년, 거류지내와 절영도 시가 구획
- 1909년 5월~, 營繕山 鑿平工事
- 1913년 11월, 청국전관거류지 철폐
- 1914년 4월, 일본전관거류지 철폐

청국거류지는 인천제물포항과 비교하여 극히 미약한 세력을 띠고 있었다.

이들 거류지의 설정은

정식으로 조인되지 않고,

1884년 5.6월경 地界標石의 건립으로 사실상의 청국인들의 거주는 시작되었다. 현재의 초량1동과 영주동 일부 일대가 청국인이 거주하였던 곳이다.

각국거류지는 1883년의 朝·英 통상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전관거류지를 각국 조제로 대치시키려는 것과 절영도 各國租界確定擬約도 있었으나, 영·미·불·독 각국인 중에는 부산거주 희망자가 거의 없었고, 일본인들이 민간인의 토지를 買占하므로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개항당시 일본의 전관거류지이었던 부산시 중구일대와 청국 전관거류지이었던 동구 초량동 부근의 일부 건물군중에서 개항기 부산항의 사진에 나타난 가옥의 모습과 저의 똑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전면에 假壁이 설치되어 있는 일식 2층 목조가옥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1930년대 신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이전에 신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항의 외국인거류지에 현존하고 있는 해방이전의 외인관들은 다른 개항장에 비해서는 비교적 소수이고,²⁾ 新昌洞과 중앙로 3·4가에는 1동도 현존하고 있지 않다.³⁾

◆ 金泰永

56년 충북 청주태생으로 80년 홍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건축학과 석사(82년) 및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89년) 하고 현재 서울대 무애연구실에서 연구활동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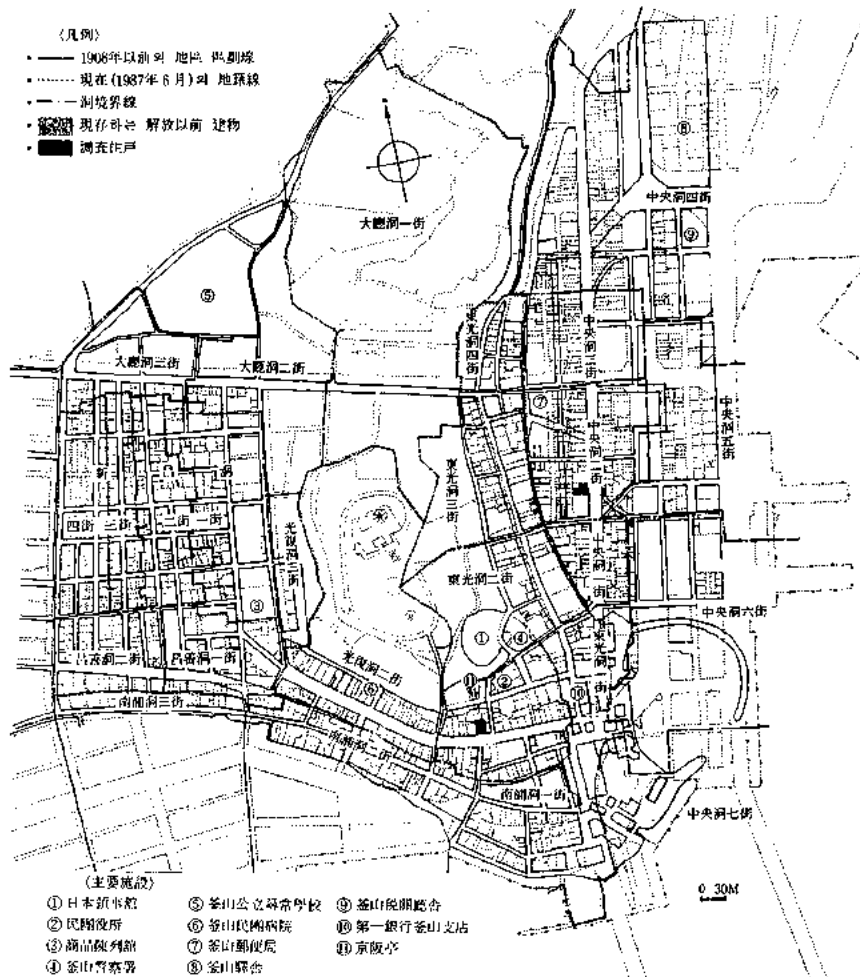
(개항기 부산항거류지내 주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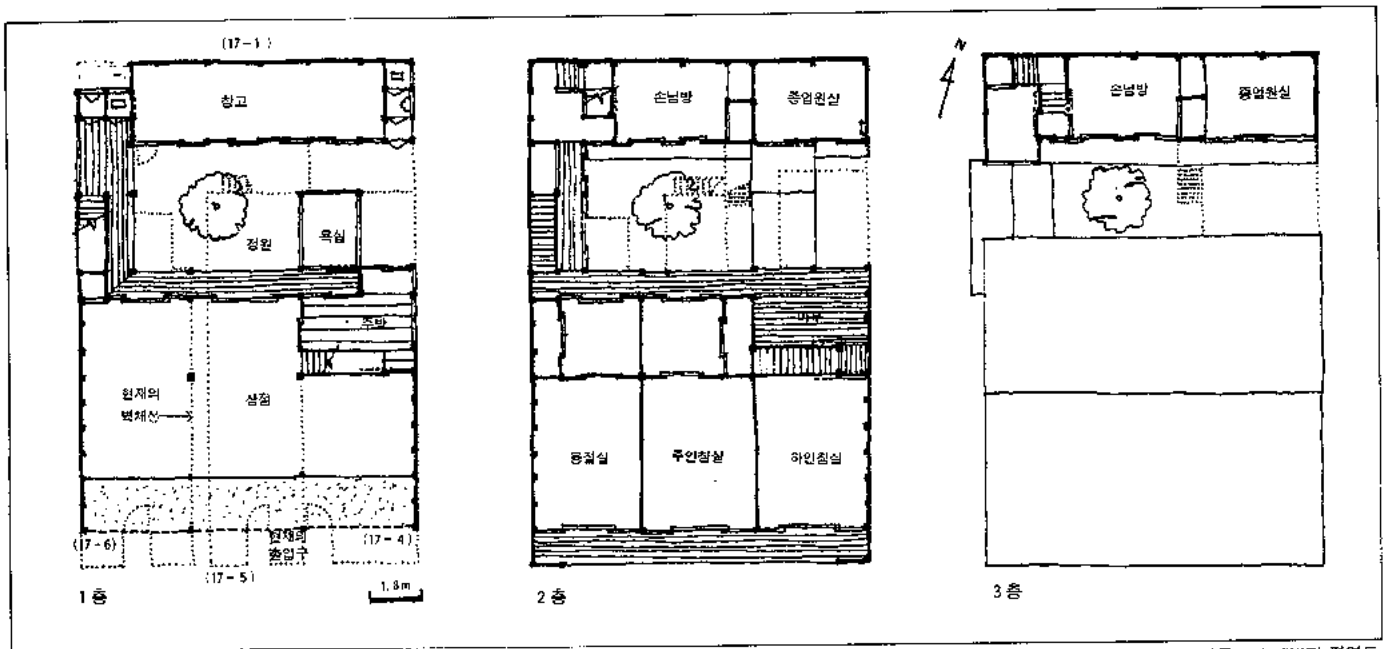
건물명칭	현위치 (가/번지/호)	준공연대	구조·평수 (팔호안)	현존유무	비고
일본영사관	동광동 2-11, 18	1894	목조 2층 (321.95)	무	관리관청 (1879. 10. 20 신축, 일본영사관 (목조 3층, 1909. 신축)
청국영사관	초량 1동 548-2	1894		무	현, 부산화교 중교교 위치 1901. 4. 재신축
민단역소	광복 1동-5	1901. 1. 11.	목조 2층	무	1890년 총대역소 신축
상품진열관	신창동 1-8-3	1904. 12	벽돌 3층 (165)	무	부산상업회의소 (1879. 8. 창설, 1881. 7 신축 동광동 2가 9번지)
부산경찰서	동광동 2-10	1905. 11	목조 2층 (100)	무	1890. 9. 30 신축
부산제일공립심상 소학교	대청동 4-95	1906. 1	목조 2층	무	현 남일국교위치, 부산공립소학교 (1889. 신창동 1-8-2)에서 부산공립소학교 (1902. 7 현위치) 제생병원 (1880 신축)
부산민단병원	광복동 2-2	1908. 9	목조 2층 (297)	무	
부산우편국	중앙동 3	1910. 5	벽돌 3층 (1283)	무	1884. 2. 신창동 2가 1953. 12. 역전화재 때 소실
부산역사	중앙동 4	1910. 10. 31.	벽돌 2층 (370.6)	무	1895. 부산진역사, 1906 초량역, 1953. 12 소실
부산세관청사	중앙동 4	1910. 11	벽돌 2층 (308.4)	무	1973. 12 철거
제일은행 부산지점	동광동 1	1912. 10	벽돌 2층 (103)	무	1878년 개설

개항기

부산항일본 전관
거류지와 현재의
자적비교도

필자그림,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88. 6)





▲광복동 1가 17번지 평면도

P-OI K 동 주택

위치 / 광복동 1가 17번지 1호
연대 / (건축물 관리대장 1925년)
건축규모 / 구조 : 목조 3층
일층면적 : 12.42평
이층면적 : 12.22평
삼층면적 : 10.42평
연면적 : 35.06평
보존상태 / 현존

광복동 1가는 개항이전 초랑왜관시대부터 館守家 아래쪽에서 관리와 상민이 기거하였던 장소로, 개항과 동시에 이 곳의 토지구획을 근간으로 하여 시가구획정리가 행하여 졌다. 점차 일본인들이 증가하면서 커다란 불목이 地區分割되면서 2층 목조¹⁾ 연립주택(長屋)이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도 광복로를 중심으로 개항기의 가옥유형에 준한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들 대부분은 前面假壁이면에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1950년대에 신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으나, 이는 6.25전쟁이후 수선및 용도변경한 후 서류처리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광복동1가 17번지 일대의 건물군은 개항당시의 사진에 나타난 건물과 거의 같은 유형의 건물로 볼 수 있는 데, 전면 부분의 일식 2층 목조가옥(17번지, 4:5:6호, 연면적 85평 정도)과 대지 후면의 일식 3층 목조가옥(17번지 1호, 연면적 35.06평)이 그것이다. 이 중 3층 목조가옥을 건축물관리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로는 가장 오래된 주택(1925년)이다.

해방이전부터 이 곳에 살고 있었던 古考의 이야기에 의하면, 해방이전까지 이 건물은 요시가와(吉川)소유의 文具商店이었다고 하며,²⁾ 6.25이후에는 미군들이 사무실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대지의 크기는 6×10間(약 12×20M)으로, 당시의 제생의원건축공사 別紙圖와 西町의

宅地賃渡制限解除別紙圖에 나타난 전면폭 10間상한선³⁾의 半分 정도의 크기이다.

도로에 면한 전면부의 2층 가옥은 앞뒤로 발코니(露台)가 있으며 1층 잡화상, 2층 주택용도의 건물이었던 것으로 4.5×6間(약 9×12M) 크기의 상점은 내부 전면공간에 土間을 두고 있었다. 2층부분은 3실로 나뉘어져 주인침 하인침실로 이루어졌으며, 각 방의 크기는 다다미 12장으로 되어 있다. 현재는 1층에 3개의 점포와 폭60cm크기의 후면으로의 통로가 있으며, 2층은 이들

점포의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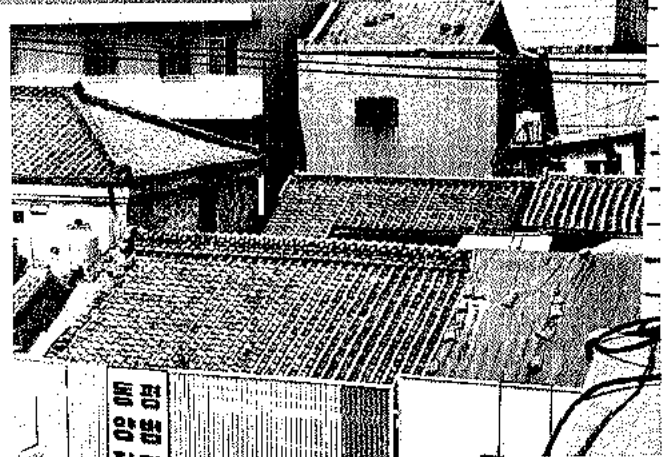
초창기에는 後庭이었을 후면대지에 세워진 일식 3층 목조주택은 자주 왕래하는 손님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었던 것이라 한다. 1층에는 창고, 2,3층에는 종업원과 손님용 침실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다분히 商館으로서의 성격을 띤 건물이었을 것이다.

당시 후정에는 비교적 커다란 사철나무와 작은 연못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이 위치에 벽돌로 만든 창고가 위치하고 있다.



▲정면

지붕부분▶



광복동 1가17번지



▲정면

중앙동 2가 23번지 6호



측면▲

전면의 2층 가옥과는 발코니로 연결되어 있으며, 크기는 2.7×12M이다.

방 하나의 크기는 다다미 6장이며, 주요구조체와 격자창, 그리고 반침 등은 원형 그대로이다. 천정은 3층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주요 기둥크기는 4치각이다.

□註

- 1) 相澤二助, 釜山港勢一斑, 日韓昌文社, 1905년, pp.254~256, 이들 가옥은 家屋建築假規則에 따라 위치·구조 및 위생시설의 제한을 갖고 있었고, 규모에 있어서도 당시의 가옥 신·증축 허가서류에 규정되었던 목조 2층 기와로 일관 되고 있었다.
- 2) 香月源太郎, 한국안내, 1902년 광고난에 광복동(鑾天町) 1·2·3가에 위치한 각 건물에 대한 용도가 자세하게 나타나있는데, 대부분 무역 및 잡화상들이다.
- 3) 부산부사원고 제6호, p.131, p.174



부산항의 일본전관거류지,현 광복동일대 (1909년 순종황제의 행렬)

P-02 J동 倭館

위치 / 중앙동 2가 23번지 6호

연대 / (건축물 관리대장 1933년)

건축규모 / 구조 : 목조 2층

연면적 : 98평 (11.9평은 타인소유)

보존상태 / 현존

1차 北濱埋築工事が 완공된 1905년 12월 이후 중앙로 일대가 형성되면서 부산항의 모습은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개항이후 동광동과 중앙동 방면의 사진을 보면, 비교적 대규모의 2층 목조가옥이 도로에 연하여 치마를 줄지어서 즐비하게 세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쪽방면의

가옥들은 부산역사, 우편국, 세관청사 등의 공공건물과 해관청사가 있는 관개로, 무역잡화상가에 여관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었다.

중앙동 1,2가에는 당시의 사진에 나타난 가옥유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건물들이 몇개의 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중 도로에 연하여 있는 1가 23번지 9,10,11호와 2가 23번지 6호 등이 있는데, 전자는 1987년 말에 소실되었다.

중앙동 2가 23번지 6호의 2층 목조가옥은 10×10間 정도의 대지위에 세워진 건물로, 1층의 정중앙에 통로를 두어 후면 도로쪽으로도 통하게 되어있다.

본 건물의 규모는 16.5×9.6M이고 부속동이 좌측 한편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곳에 살았던 古考에 따르면, 이 부속동은 해방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일식 2층목조가옥은 1층 주택 및 잡화상, 2층 여관 용도의 건물로서 동로 좌측 중앙에 비교적 커다란 계단이 위치하고 있다. 2층의 여관은 전형적인 중북도 형식이고, 객실이 총 9개이며, 화장실은 후면의 부속동에 설치되어 있다. 건물 전체의 모둘은 90cm에 가까우며, 기둥은 4치각이다.

현재 이 건물의 1층 부분에는 4개의 점포와 후면에 3개의 음식점이 있으며, 2층은 일부가 사무실과 상점으로 이용되고 있다. 예전의 마담이문이나 여단이문으로 변경된 것 이외에 칸막이의 변경은 거의 대부분 없다고 하며, 전면부와 발코니는 다른 장소와 마찬가지로 실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P-03 C동 淸館

초량1동의 청국전관거류지는 당시 그들의 잦은 이동으로 말미암아 인천제물포항의 商熱에 비해서는 극히 비약한 편이었다.

개항당시는 청국전관거류지의 情勢에 대해서는 「韓國二大港實勢」(1905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¹⁾

「청국거류지는 일본거류지의 북쪽, 즉 초량에 있으며 부산에 개항된 후 長崎 및 本國에서 渡韓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으며, 1883년에는 理事府(영사관)가 개설되었다. 상가 역시 점점 증가하여 백 수십호에 이르렀으나, 1894~95년의 전쟁때 官民 모두 귀국하여 오랫동안 미어 있었다.

전후에 되돌아 오는 사람이 많아 졌으며, 1901년 이사부가 복구되고 상점이 개점되면서 호수 20호 인구 100인에 이르렀다. 주요 영업은 잡화상이며, 음식점이 30개 있었다. 수입품은 견직물 잡화로서 나가사끼 혹은 인천에서 수입하고, 수출품은 해삼·紙類·牛皮 등이 주요 품목이다. 수출입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단히 소액인 것 같다. 청국거류지내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많으며, 대개 잡화, 판매에 종사하고 있다.…」

(1903년 청국거류지의 情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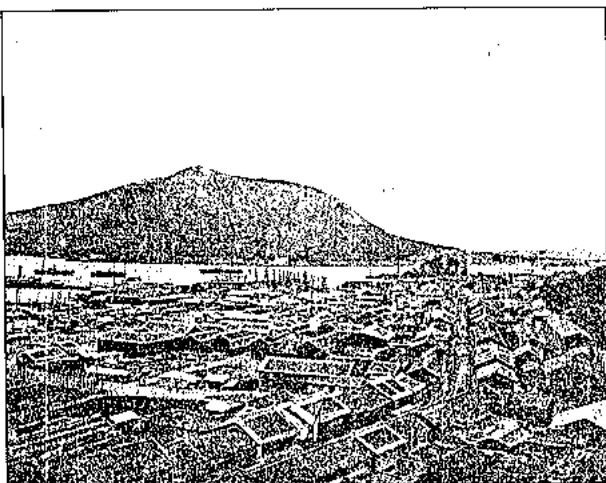
1910년 일본의 통감부에서 고시한 인천·부산 및 원산 청국거류지 규정에 첨부된 부산청국거류지 실측평면도(축적, 1/1,200)의 건물외곽선과 현재(1988년 1월)의 지적현황을 비교하여 본 결과, 초량1동의 569번지 1호 2棟 건물(건축물관리대장 1938년 신축, 목조주택 59.35평 점포 23.50평) 586번지 2호(1936년 신축, 목조주택 19.99평), 607번지 1호(1931년 신축, 목조주택 11.01평), 612번지(1936년 신축, 목조주택 47.94평) 등이 당시의 건물 외곽선 범위내에 있는 건물들이다.²⁾

지역상의 제약요인으로 더이상 자세한 조사를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이들 건물 모두가 당시 청국인들이 거거하였음직한 벽돌조 건물이 아닌 목조 건물인 관계로 일본인들이 거주하였던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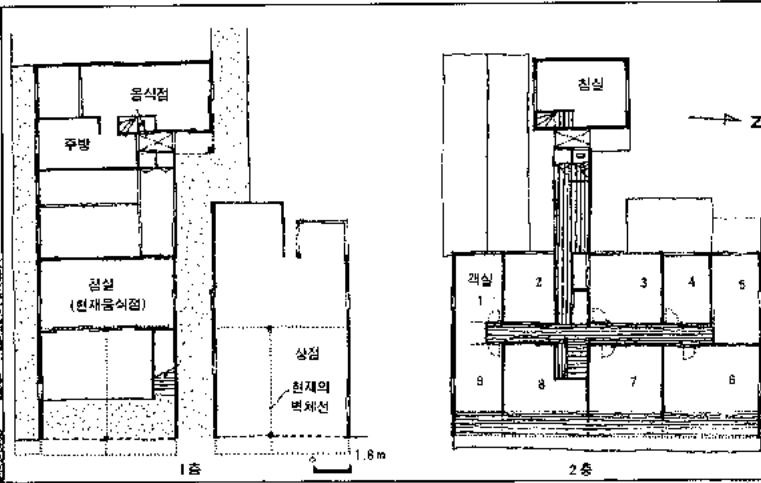
그 외에 초량 1,2동에는 해방이전에 세워진 건물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건물은 1925년 3월 도청이전을 계기로 하여 신축한 公設住宅들이 시초인 것 같다.³⁾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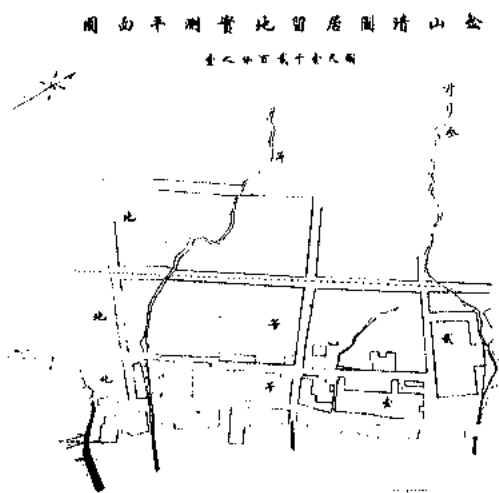
- 1) 부산부사원고 제6호, pp.254~255에서 재인용
- 2) 실측평면도에 나타난 건물이 위치한 곳은 초량1동 548-2 : 560~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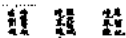
부산항의 일본전관거류지 (현 동광·중앙동 일대, 1910년 이전)



▲중앙동 2가 23번지 6호 평면도



초량동의 정국거류지, 1988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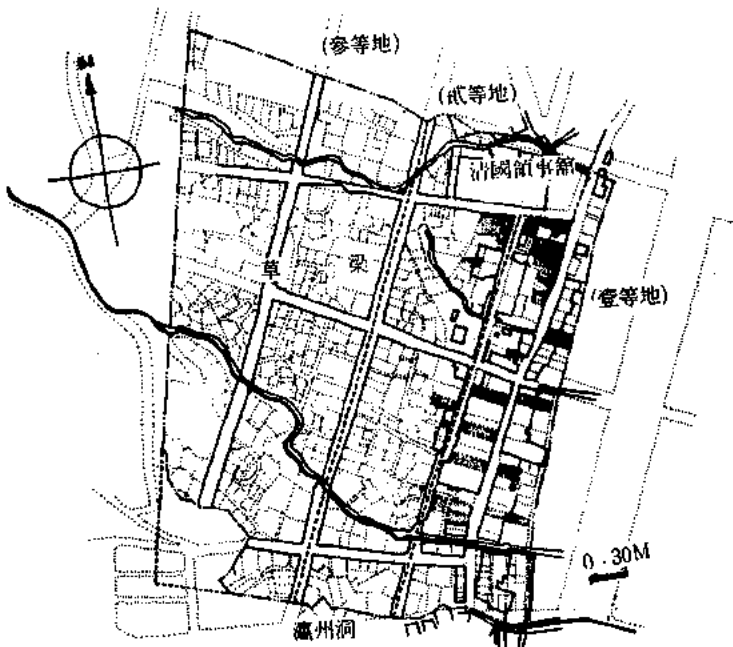


개항기 부산항의 정국전관거류지와 현재의 지적비고도. (필자그림,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88년 6월)

부산정국거류지실측평면도, 19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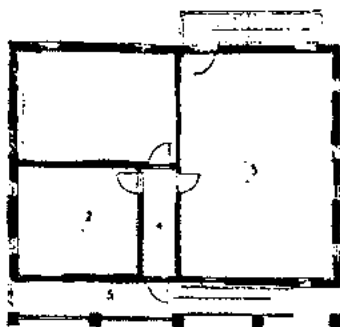
초량동의 정국거류지



- 居留地境界線
- 豫定區域境界線
- 地區等級區劃線
- 1910년 當時의 建物
- 現存하는 解放以前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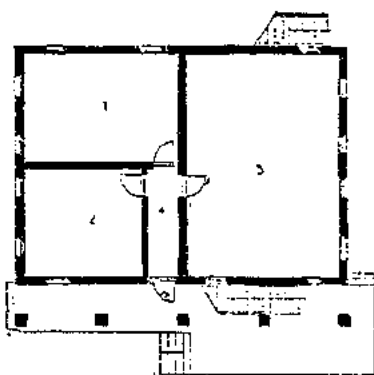


▲장로회 부산신학교 (구일신여학교) 전경 (미지정문화재건물, p.4)
◀평면도 (都映州·一柱, p.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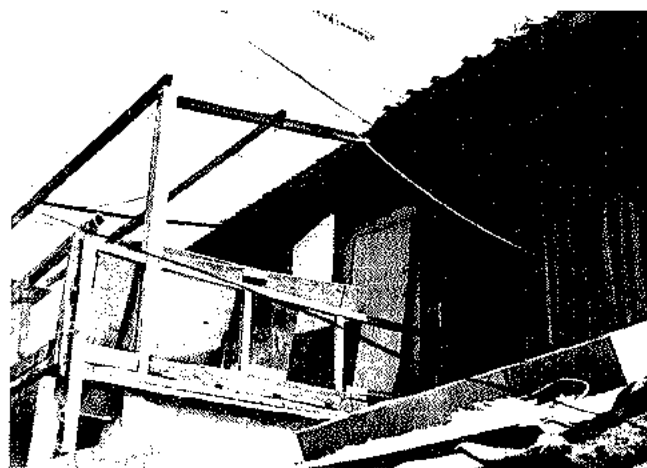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층 평면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현존하는 京板亭의 形骸 (광복동 1가 6번지)

603~622번지와 영주동 일부이며, 이중 초량1동의 36동 건물이 해방이전의 건물로 기재되어 있다.

3) 釜山府熱要賢

釜山府編, 1934년, p.125.

이들 외인관외에 당시 외국인거류지에 위치하였던 초창기의 관아건물, 화사건물, 商館, 병원, 학교 등과 같은 소규모 공공건물들도 주거기능을 포함한 주택형식의 건물이었다.

1895년 10월 15일 佐川洞의 한 민가를 빌려 설립한 장로회 부산신학교(구일신여학교)는¹⁾ 호주 선교사에 의해 1905년 4월 역시 같은 장소인

부산시 동구 좌천동 768번지에 2층 벽돌 교사 (1층40.35평, 2층 38.25평, 합계 78.6평) 신축되었다. 부산에서 최초로 한국 여성의 신식교육이 시작된 이 소규모의 여학교는 현존하는 부산의 서구식 건물로는 제일 오래된 건물로, 주택과 같은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정방형에 가까운 평면에 전년의 사각벽돌기둥은 2층 처마까지 연속하여 있고, 2층에는 목조 발코니를 내고 외부에서 바로 올라오는 계단이 이 곳에 나 있다.

또한 당시 일본영사관 앞 광복동1가 6번지에는 개항이후 술한 사건을 불러 일으킨 일식요리점인 京板亭의 形骸²⁾ 일부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 註

- 1) 都映州·尹一柱, 「1910년 以前의 釜山の 洋風建築」, 향도 부산 제3호,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63년 pp.302~304, 未指定文化財 建築物一實測調査 報告書工, 대한건축학회, 1987년 4월 25일, pp.3~4
- 2) 부산일보사, 개항 100년—부산사의 재조명, 1976년, p.71 경상남도안내, 경상남도청편, 朝鮮時報社, 1914년, p.122.

돌아오지 않는 다리

金光林

과수병
잠간 돌아서 주세요
봄 바람 꽃 향기가 지니게
한 때는 꽃 지게가 쉬어갔던 欄干
지금은 총대 잠은 당신들
江물이 잇달아 흐르듯이
우리는 어차피 소통할 마음인데
어찌 자고
눈을 부라리고 싶지요
과수병
잠간 돌아서 주세요
개나리 봄침을 이고 떠나간 채
돌아오지 못하는
順아의 사연이 들려오게



PAM-SIA-CAA

국제건축사대회 참가 안내

말레이시아건축사협회(PAM), 싱가포르건축사협회(SIA), 영연방국가건축사연맹(CAA)의 주최로 금년 9. 28-10. 1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건축과 관광"이라는 주제를 갖고 개최되는 국제건축사대회에 본 협회 회원의 보다 많은 참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여행 계획을 추진코자 합니다.

본 대회는 '89. 10 개회 예정인 국가 정상회담과 동시에 개최되며 엘리자베드 여왕이 직접 개회사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RICK HULBERT씨와 영국의 PERTER COOK씨를 비롯하여 세계각국의 유명 건축사 및 주요인사들이 참석하게 될 본 대회는 건축사들을 위한 가장 뜻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 주 관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 여행기간 : '89. 9. 27-10. 6(9박 10일)
- 방문국가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일정포 별첨)
- 참가자격 : 전 회원(가족 동반 가능)
- 참가인원 : 30명
- 여행경비 : 955,000원(여권, 인지대 및 소양교육비 별도)
- 등 록 비 : 미화 180 달러 (7월 15일 이전)
미화 200 달러 (7월 15일 이후)
- 신청마감 : '89. 7. 30까지(본 협회 기획과, 581-5711~4)

PAM-SIA-CAA 국제건축사대회 참가 안내

| 구 분 | 일 자 | 행 선 지 | 장 소 | 숙박호텔 |
|-------|--------------|---|--------------|-------------------------------|
| 제 1 일 | 9. 27
(수) | 서울 출발—쿠알라룸푸르 도착
호텔 CHECK IN | 말 레 이
지 아 | 팬퍼시픽
호 텔 |
| 제 2 일 | 9. 28
(목) | PAM-SIA-CAA국제건축사대회 참석
개회식 및 환영연회 | | |
| 제 3 일 | 9. 29
(금) | PAM-SIA-CAA국제건축사대회 참석
토론회 및 특별 공연 | | |
| 제 4 일 | 9. 30
(토) | PAM-SIA-CAA국제건축사대회 참석
토론회 및 건축인의 밤 | | |
| 제 5 일 | 10. 1
(일) | 건축 관광(말라카시) | | |
| 제 6 일 | 10. 2
(월) | 쿠알라룸푸르 출발—싱가폴 도착
시내 관광(악어 농장)
센토사섬(세계최대의 음악분수관광)
전일 관광 | 싱 가 폴 | 팬퍼시픽
호 텔 |
| 제 7 일 | 10. 3
(화) | 쥬롱새 파크, 식물원, 머라이어언 파
크, 웨이버산 | | |
| 제 8 일 | 10. 4
(수) | 싱가폴 출발—홍콩 도착
시내 관광 | 홍 콩 | 그 랜 드
프 라 자
또 는
동급호텔 |
| 제 9 일 | 10. 5
(목) | 전일 관광(해양공원 관광), 홍콩섬
구룡반도, 빅토리아파크, 백만불야경 | | |
| 제10일 | 10. 6
(금) | 자유 시간
홍콩 출발—서울 도착 | | |



柳景日
1956. 1. 12
경희대(건축), 한양대학원
(주)동양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8-1
549-1622



宋珍洙
1946. 9. 8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반도건축사사무소
충남 태안군 읍 남문리 300-58



金秀德
1956. 3. 27
울산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우건축사사무소
경남 울산시 신정동 700-3
46-1892



黃義烈
1946. 9. 22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건축과
영화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3-3
856-1608



辛容大
1947. 2. 20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정문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8
416-9797



劉仁鎬
1955. 11. 3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봉인건축사사무소
경남 창원시 소담동 15
55-3853



朴鍾憲
1954. 8. 1
경기공업전문학교 건축과
서원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6-21
542-7565



鄭俊永
1956. 5. 7
철도고등학교 건축과
덕유, 백인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39-3
412-6317



權英守
1933. 2. 14
경남고등학교
종합건축사사무소 보성
경남 창원시 중앙동 76-1
87-6997



韓龍大
1934. 12. 25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오송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6-1
719-8368



金奉龍
1937. 7. 5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우진
경기도 시흥시 신원동 295-2
691-4731



崔鍾珍
1935. 11. 26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청우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16
888-2894



金恩培
1950. 11. 10
인하대(건축), 서울대 대학원
(주)법진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573-2
544-4723



朴鉦杰
1958. 11. 28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영진종합건축사사무소
충북 청주시 우암동 381-3
52-3383



金壽章
1958. 1. 24
경기공업전문학교 건축과
일우건축사사무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51-42
583-9161



權貞禹
1952. 11. 2
경북산업대학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예전
경북 포항시 죽도2동 51-1
78-1161



表永採
1957. 2. 28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영진종합건축사사무소
충북 청주시 우암동 381-3
52-3383



趙大熙
1954. 12. 27
서울대, 동대학원 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증원건축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25-18
585-7500



鄭相煥
1958. 9. 23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화인아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51-16
557-0210



黃清正
1941. 2. 14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나그룹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52-16
536-7401



朴昌吉
1947. 1. 8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세원
부산직할시 북구 구포동 1187-2
331-7171



李重杓
1938. 3. 16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서한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00-6
869-2646



全亨根
1955. 3. 21
중앙대학교 건축미술과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
서울시 강남구 신사 608-10
548-5175



李赫熙
1952. 8. 7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시지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1601-1
581-0061

1989년 5월분 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5월분 7백44만 1천 1백59m² 보다 34.73%증가(2백58만 4천 4백41m²)한 1천2만5천6백m²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1 ~ 5월분 합계한 전년도누계 3천2만6천1백65m² 보다 33.35%증가(1천1만2천9백79m²)한 4천3만9천1백44m²의 실적을 보임.

다. 전 월 비

지난 4월분 8백83만4천7백76m² 보다 13.48% 증가(1백1만8백24m²)한 1천2만5천6백m²의 실적을 보임.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増減狀況)

(연면적 기준) (전년동월비)

(단위: m²)

| 구 | 분 | 1988년도 | 1989년도 | 증·감 | 비율(%) |
|------|------|-----------|------------|-----------|---------|
| 증가지역 | 서울지부 | 1,478,016 | 1,807,568 | 329,552 | 22.30% |
| | 인천지부 | 580,739 | 1,083,908 | 503,169 | 86.64% |
| | 광주지부 | 171,911 | 230,571 | 58,660 | 34.12% |
| | 경기지부 | 1,244,067 | 1,419,405 | 175,338 | 14.09% |
| | 강원지부 | 265,605 | 298,699 | 33,094 | 12.46% |
| | 충북지부 | 242,094 | 452,252 | 210,158 | 86.81% |
| | 전북지부 | 263,967 | 340,686 | 76,719 | 29.06% |
| | 전남지부 | 311,633 | 577,014 | 265,381 | 85.16% |
| | 경북지부 | 393,797 | 999,914 | 606,117 | 153.92% |
| | 경남지부 | 868,762 | 1,204,756 | 335,994 | 38.68% |
| | 제주지부 | 87,065 | 161,312 | 74,247 | 85.28% |
| | 대전지부 | 0 | 409,826 | 409,826 | ERR |
| 감소지역 | 부산지부 | 639,669 | 414,316 | (10,659) | -35.23% |
| | 대구지부 | 341,542 | 330,883 | (10,659) | -3.12% |
| | 충남지부 | 552,292 | 294,490 | (257,802) | -46.68% |
| 합 | 계 | 7,441,159 | 10,025,600 | 2,584,441 | 34.74% |

全國圖書申告 概況(種別前月 對比狀況)

(연면적 기준)

(단위: m²)

| 종 별 | '89년 4월분 | '89년 5월분 | 증·감 | 비율(%) |
|--------|-----------|------------|-----------|---------|
| 단독주택 | 1,525,098 | 1,453,254 | (71,844) | -4.71% |
| 다세대주택 | 383,275 | 508,161 | 124,886 | 32.58% |
| 연립주택 | 143,144 | 297,895 | 154,751 | 108.11% |
| 아파트 | 2,405,604 | 2,965,754 | 560,150 | 23.29% |
| 근린생활시설 | 1,759,931 | 1,931,480 | 171,549 | 9.75% |
| 종교시설 | 58,249 | 96,197 | 37,948 | 65.15% |
| 의료시설 | 33,677 | 14,502 | 19,175 | 56.94% |
| 교육연구시설 | 163,339 | 195,622 | 32,283 | 19.76% |
| 업무시설 | 539,202 | 830,499 | 291,297 | 54.02% |
| 숙박시설 | 234,917 | 248,200 | 13,283 | 5.65% |
| 공장 | 994,249 | 945,593 | (48,656) | -4.89% |
| 기타 | 594,091 | 538,443 | (55,648) | -9.37% |
| 계 | 8,834,776 | 10,025,600 | 1,190,824 | 13.48% |

*충남지부와 대전지부의 증·감소 현상은 2월 지부가 분리가 됨으로 생김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現況(5月分)

| 구분 | 신축·개축·재축 | | | 증 축 | | | 대수선 및 용도변경 | | | 합 계 | | |
|------|----------|--------|-----------|-------|-------|-----------|------------|-----|---------|--------|--------|------------|
|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 지부별 | | | | | | | | | | | | |
| 서울지부 | 3,749 | 3,784 | 1,749,495 | 186 | 189 | 58,073 | 0 | 0 | 0 | 3,935 | 3,973 | 1,807,568 |
| 부산지부 | 1,328 | 1,338 | 365,912 | 338 | 343 | 38,569 | 40 | 40 | 9,835 | 1,706 | 1,721 | 414,316 |
| 대구지부 | 900 | 934 | 261,096 | 597 | 613 | 56,496 | 36 | 36 | 13,291 | 1,533 | 1,583 | 330,883 |
| 인천지부 | 868 | 960 | 1,053,009 | 90 | 101 | 27,352 | 16 | 16 | 3,547 | 974 | 1,077 | 1,083,908 |
| 광주지부 | 508 | 545 | 208,897 | 149 | 149 | 16,982 | 12 | 12 | 4,692 | 669 | 706 | 230,571 |
| 대전지부 | 515 | 515 | 352,475 | 63 | 63 | 42,774 | 129 | 129 | 14,577 | 707 | 707 | 409,826 |
| 경기지부 | 2,964 | 3,106 | 1,188,206 | 323 | 341 | 204,803 | 60 | 60 | 26,396 | 3,347 | 3,507 | 1,419,405 |
| 강원지부 | 574 | 624 | 254,753 | 153 | 164 | 39,430 | 14 | 14 | 4,516 | 741 | 802 | 298,699 |
| 충북지부 | 799 | 943 | 407,153 | 151 | 174 | 37,525 | 30 | 41 | 7,574 | 980 | 1,158 | 452,252 |
| 충남지부 | 479 | 512 | 197,442 | 127 | 129 | 93,749 | 27 | 27 | 3,299 | 633 | 668 | 294,490 |
| 전북지부 | 418 | 466 | 290,572 | 115 | 126 | 46,331 | 19 | 19 | 3,783 | 552 | 611 | 340,686 |
| 전남지부 | 544 | 623 | 348,319 | 169 | 185 | 225,469 | 9 | 9 | 3,228 | 722 | 817 | 577,014 |
| 경북지부 | 908 | 1,118 | 853,624 | 260 | 283 | 123,636 | 32 | 32 | 22,654 | 1,200 | 1,433 | 999,914 |
| 경남지부 | 1,414 | 1,752 | 1,104,857 | 598 | 719 | 92,103 | 28 | 29 | 7,796 | 2,040 | 2,500 | 1,204,756 |
| 제주지부 | 272 | 309 | 154,662 | 43 | 43 | 6,650 | 0 | 0 | 0 | 315 | 352 | 161,312 |
| 합 계 | 16,240 | 17,529 | 8,790,472 | 3,362 | 3,622 | 1,109,940 | 452 | 464 | 125,188 | 20,054 | 21,615 | 10,025,600 |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現況(1月~5月)

| 구분
지부별 | 신축·개축·재축 | | | 증축 | | | 대수선 및 용도변경 | | | 합 계 | | |
|-----------|----------|--------|------------|--------|--------|-----------|------------|-------|---------|--------|--------|------------|
|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 서울지부 | 16,358 | 16,636 | 7,718,871 | 732 | 747 | 239,393 | 0 | 0 | 0 | 17,090 | 17,383 | 7,958,264 |
| 부산지부 | 6,001 | 6,014 | 3,450,830 | 1,280 | 1,285 | 324,841 | 318 | 318 | 82,694 | 7,599 | 7,617 | 3,858,365 |
| 대구지부 | 3,402 | 3,567 | 1,357,118 | 1,798 | 1,867 | 251,902 | 184 | 184 | 84,858 | 5,384 | 5,618 | 1,693,878 |
| 인천지부 | 3,203 | 3,606 | 2,548,767 | 278 | 293 | 151,345 | 75 | 75 | 53,842 | 3,556 | 3,974 | 2,753,954 |
| 광주지부 | 1,944 | 2,121 | 1,068,529 | 457 | 475 | 70,130 | 70 | 70 | 30,571 | 2,471 | 2,666 | 1,169,230 |
| 대전지부 | 2,102 | 2,102 | 892,625 | 248 | 248 | 115,029 | 349 | 349 | 144,113 | 2,699 | 2,699 | 1,151,767 |
| 경기지부 | 12,617 | 13,424 | 5,536,992 | 1,271 | 1,421 | 907,137 | 283 | 283 | 167,134 | 14,171 | 15,128 | 6,611,263 |
| 강원지부 | 2,155 | 2,474 | 1,067,833 | 525 | 587 | 213,338 | 55 | 56 | 13,883 | 2,735 | 3,117 | 1,295,054 |
| 충북지부 | 2,956 | 3,450 | 1,380,525 | 601 | 782 | 215,618 | 137 | 204 | 32,980 | 3,694 | 4,436 | 1,629,123 |
| 충남지부 | 2,337 | 2,458 | 1,084,019 | 436 | 444 | 181,617 | 111 | 111 | 42,265 | 2,884 | 3,013 | 1,307,901 |
| 전북지부 | 1,817 | 2,067 | 1,221,990 | 452 | 493 | 145,132 | 104 | 105 | 26,560 | 2,373 | 2,665 | 1,393,682 |
| 전남지부 | 2,189 | 2,494 | 1,188,327 | 573 | 635 | 307,463 | 34 | 34 | 9,628 | 2,796 | 3,163 | 1,505,418 |
| 경북지부 | 3,518 | 4,147 | 2,313,068 | 1,001 | 1,107 | 627,920 | 129 | 129 | 64,777 | 4,648 | 5,383 | 3,005,765 |
| 경남지부 | 6,056 | 7,008 | 3,709,144 | 2,193 | 2,509 | 527,597 | 144 | 151 | 72,730 | 8,398 | 9,668 | 4,309,471 |
| 제주지부 | 914 | 1,020 | 367,385 | 160 | 160 | 28,624 | 0 | 0 | 0 | 1,074 | 1,180 | 396,009 |
| 합 계 | 67,569 | 72,588 | 34,906,023 | 12,005 | 13,053 | 4,307,086 | 1,993 | 2,069 | 826,035 | 81,567 | 87,710 | 40,039,144 |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現況(5月分)

| 구분
용도별 | 신축·개축·재축 | | | 증축 | | | 대수선 및 용도변경 | | | 합 계 | | |
|-----------|----------|--------|-----------|-------|-------|-----------|------------|-----|---------|--------|--------|------------|
|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 단독주택 | 8,132 | 8,316 | 1,355,536 | 1,476 | 1,529 | 93,572 | 101 | 101 | 4,146 | 9,709 | 9,946 | 1,453,254 |
| 다세대주택 | 2,159 | 2,211 | 490,541 | 358 | 363 | 16,874 | 13 | 13 | 746 | 2,530 | 2,587 | 508,161 |
| 연립주택 | 111 | 151 | 294,375 | 2 | 3 | 3,520 | 0 | 0 | 0 | 113 | 154 | 297,895 |
| 아파트 | 237 | 725 | 2,927,071 | 8 | 15 | 38,143 | 3 | 3 | 540 | 248 | 743 | 2,965,754 |
| 근린생활시설 | 3,935 | 3,989 | 1,738,666 | 668 | 677 | 137,483 | 209 | 210 | 55,331 | 4,812 | 4,876 | 1,931,480 |
| 종교시설 | 91 | 107 | 71,275 | 65 | 66 | 24,145 | 3 | 3 | 777 | 159 | 176 | 96,197 |
| 의료시설 | 5 | 5 | 5,327 | 9 | 9 | 9,175 | 0 | 3 | 0 | 14 | 14 | 14,502 |
| 교육연구시설 | 34 | 37 | 76,271 | 41 | 43 | 114,377 | 15 | 15 | 4,974 | 90 | 95 | 195,622 |
| 업무시설 | 175 | 190 | 788,558 | 74 | 80 | 35,475 | 10 | 11 | 6,466 | 259 | 281 | 830,499 |
| 숙박시설 | 148 | 158 | 218,482 | 37 | 38 | 14,168 | 10 | 10 | 15,550 | 195 | 206 | 248,200 |
| 공장 | 448 | 706 | 450,524 | 250 | 377 | 474,952 | 39 | 39 | 20,117 | 737 | 1,122 | 945,593 |
| 기타 | 765 | 934 | 373,846 | 374 | 422 | 148,056 | 49 | 59 | 16,541 | 1,188 | 1,415 | 538,443 |
| 합계 | 16,240 | 17,529 | 8,790,472 | 3,362 | 3,622 | 1,109,940 | 452 | 464 | 125,188 | 20,054 | 21,615 | 10,025,600 |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現況(1月~5月)

| 구분
용도별 | 신축·개축·재축 | | | 증축 | | | 대수선 및 용도변경 | | | 합 계 | | |
|-----------|----------|--------|------------|--------|--------|-----------|------------|-------|---------|--------|--------|------------|
|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 단독주택 | 34,491 | 35,121 | 5,908,021 | 5,142 | 5,270 | 371,758 | 362 | 364 | 17,699 | 39,995 | 40,755 | 6,297,478 |
| 다세대주택 | 7,572 | 7,756 | 1,745,550 | 1,033 | 1060 | 57,362 | 74 | 74 | 97,912 | 8,699 | 8,890 | 1,900,824 |
| 연립주택 | 360 | 520 | 666,599 | 16 | 23 | 23,906 | 7 | 7 | 1,704 | 383 | 550 | 692,209 |
| 아파트 | 863 | 2,627 | 9,484,613 | 52 | 74 | 107,296 | 18 | 51 | 31,575 | 933 | 2,752 | 9,623,484 |
| 근린생활시설 | 17,199 | 17,354 | 8,077,234 | 2,491 | 2,546 | 560,221 | 874 | 879 | 282,200 | 20,564 | 20,779 | 8,919,655 |
| 종교시설 | 374 | 409 | 271,255 | 224 | 239 | 99,024 | 27 | 30 | 3,988 | 625 | 678 | 374,267 |
| 의료시설 | 44 | 51 | 66,020 | 42 | 45 | 33,982 | 6 | 6 | 5,098 | 92 | 102 | 105,100 |
| 교육연구시설 | 174 | 224 | 572,055 | 196 | 217 | 346,514 | 96 | 96 | 42,795 | 466 | 537 | 961,364 |
| 업무시설 | 682 | 705 | 2,783,123 | 247 | 267 | 180,391 | 38 | 41 | 24,994 | 967 | 1,013 | 2,988,508 |
| 숙박시설 | 747 | 839 | 1,048,071 | 161 | 168 | 84,802 | 47 | 52 | 49,861 | 995 | 1,059 | 1,182,734 |
| 공장 | 1,840 | 2,933 | 2,618,469 | 991 | 1,538 | 1,771,929 | 177 | 190 | 137,545 | 3,008 | 4,661 | 4,527,943 |
| 기타 | 3,223 | 4,049 | 1,665,013 | 1,390 | 1,606 | 669,901 | 267 | 279 | 130,664 | 4,880 | 5,934 | 2,465,578 |
| 합계 | 67,569 | 72,588 | 34,906,023 | 12,005 | 13,053 | 4,307,086 | 1,993 | 2,069 | 826,035 | 81,567 | 87,710 | 40,039,144 |

건축사법시행령중개정령

■建築士法施行令 改正理由

建築士法の改正(1989. 4. 1 法律 第4116號)에 따라 그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現行 規定의 일부 未備點을 補充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가. 建築士法の改正으로 公務員에 대한 特別銓衡制度가 廢止됨에 따라 關聯 條項을 削除하고 7年 이상 建築職 公務員으로 勤務한 者에 대하여 建築士資格試驗科目의 일부를 免除하며, 2級建築士에 대한 特別銓衡試驗科目의 一部를 削除함.(令 第8條 및 第9條)
나. 建築士資格試驗의 효율적인 관리와

地方의 관계 專門家の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建築士委員會의 委員數를 17人 이내에서 30人 이내로 확대·조정함(令 第14條 第1項).

다. 現在 綜合工事監理를 받도록 되어 있는 共同住宅중 多世帶住宅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하여 事業計劃承認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綜合工事監理를 받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는 一般工事監理를 받도록 함(令別表1).

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중 “취득한 자”를 취득한 자 및 건축직공무원으로 7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이 있는 자”로 하고, 동항 제2호중 “건축시공과목”을 “제1차시험과목중 건축시공과목”으로 하며, 동항 제3호중 “건축구조과목”을 “제1차시험과목중 건축구조과목”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직공무원으로 7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중 건축시공 및 건축법규 과목을 면제한다.

제14조 제1항중 “위원 17인 이내”를 “위원 30인 이내”로 한다.

제21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설계도서의 신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 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도지사”로

한다. [별표1]의 1. 종합공사감리의 대상란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경우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것에 한한다)”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9878호 건축사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사가 왜 건축허가시 흠막이 설계도서를 신청도서에 포함해야 하나?

문제점 : 현재 관공서에서 건축허가도서중 지하 5m 이상 굴토사에 흠막이공사 도면과 구조계산 및 설계자 직인 날인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관공서에서 주장, 현재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바 건축사 업무도 아닌 흠막이 공사용 도면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백만원씩 소비하면서(우리보수에서 지불할 수 없는 업무임) 실제로 도서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적 절차라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건축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실로 막대하기에 시정해야 한다.

해결점 : 흠막이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는 공사시공을 위한 소위 시공도면인 것이다. 지하 굴토/흠막이 방법은 시공회사의 Know-How로서 시공회사가 굴토/흠막이 방법을 설계해서 수행해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러므로 흠막이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 제출은 건축사의 책임 사항이 아니고 착공계를 관공서에 제출할 때 시공회사에서 제출해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차후 제도적 모순 때문에 이런일로 건축사가 이용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984년 서울시 편람(p. 72 - 73)

(1) 분명히 착공시 제출토록 명기됨

(2) 행정편람 72p에 의하면 토목공사 착공시 제출하도록 됨.

• 방법 : 토공사 설계도서 작성 제출의 의무화

• 절차

- 건축허가시 : 도서제출의 조건 여부

착공신고시 : 굴토계획도, 지반개량, 지하수 처리계획도 등 설계도서 및 시방서 작성 제출

- 준공신고시 : 토공사 설계도의 작성자의 확인서 첨부 확인 (별첨 양식 1참조)

• 확인

- 시공자 : 매월 2회이상 현장점검후 일지에 기록 보존 (별첨 양식 2)

- 공무원 : 주 1회이상 점검후 안전관리카드에 기록 보존 (별첨 양식 3)

(3) 중구청 건축관계 회의시 분명히 착공전까지 관공서에 제출하면 착공허가 조건에 합당하다고 회의때 논의된 바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기술자의 관리) ①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고용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기술자현황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자 인적사항 및 기술자격현황 (기술자격증사본 첨부)
 2. 건설기술자 현장경력현황
 3. 건설기술자 보수교육이수현황
 4. 기타 건설부장관이 건설기술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②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제1항각호의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현황을 제출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자의 신규고용
2. 건설기술자의 퇴직 또는 해임
3. 건설기술자의 현장이동
4. 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이수

제3조(경력사항 확인등) ① 건설부장관은 영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기술능력등(이하 “경력사항”이라 한다)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관리 대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기술자관리 대행기관의 장은 경력사항의 확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력사항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기술자관리 대행기관의 장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 대상자) 영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또는 해외건설협회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

험대행자가 고용한 건설기술자

3. 기타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제5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①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는 매 5년마다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2주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건설기술자가 보수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교육비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해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의 장은 매 연도말까지 다음 연도의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정, 교과목 및 교육기간
2. 교재사용계획(실습교재 포함)
3. 교사현황
4. 교육대상인원 및 교육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교육훈련 대행기관의 장은 소정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이수현황을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기술자관리 및 교육훈련의 대행법인) 영 제8조의 규정에서 “건설기술자단체 기타 건설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관리를 대행하는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을 대행하는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을 말한다.

제7조(심의평가단의 구성등) ① 영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이하 “심의평가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중앙위원회의 관련 부위원장이 되고, 단원은 중앙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관계공무원중에서 각 기술분야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기술분야별 인원은 5명 내지 10명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평가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술분야별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심의평가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시공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2. 새로운 공법의 적용 및 그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의 확인
3. 기타 건설공사 시공수준의 평가 및 시공에 대한 자문

③ 영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사후평가(이하 “심의평가”라 한다)의 평가기준은 건설부장관이 정한 평가요령서에 의한다.

④ 심의평가는 당해 공사의 시공기간중에 실시한다. 다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준공된 후에 당해 공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⑤ 건설부장관은 심의평가의 결과를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관계기관의 장은 영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통보한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수립) 영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서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당해 연구에 대한 주요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목표 및 연구내용
2. 연구추진계획
3. 연구수행부서 및 관련기관
4. 연구성과 활용방안
5. 기타 정부의 연구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건설기술개발투자의 권고) 영 제30조 제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실적이 있는 자”라 함은 일반건설업면허 또는 특수건설업면허를 가진 자로서 당해 공사분야의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100억원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10조(신기술의 지정신청등) ① 영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고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로의 고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신청인이 보완서류작성제출에 소요되는 일수와 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제출에 소요되는 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

여할 수 있는 신기술개발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을 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용역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하 "용역발주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영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경영실태, 실적, 보유기술자의 능력·작업계획 및 방법(이하 "기술제안"이라 한다)을 별표1의 기술제안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상위득점순으로 2개사 또는 3개사를 선정한다. 다만, 용역발주관서의 장은 평가항목 및 매점기준과 세부평가방법을 용역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의 제외공사) 영 제39조 제2항의 제5호의 규정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교도소, 구치소등 교정시설의 건설공사
2. 기온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건설공사
3. 구조물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공종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가. 포장도로의 덧씌우기공사

나. 준설공사

다. 사방공사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용도로공사

라. 단순굴토공사 또는 정지공사등

제13조(단순공종 반복공사) 영 제50조 제2항 제5호에서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제12조 제3호의 공사를 말한다.

제14조(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지정기준등) ① 영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공사발주관서가 공사감독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단위별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으로 예정된 공사전부를 지정한다.
2. 공사발주관서가 공사감독기술인력을 보유한 경우는 소속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당해 공사의 기술적 요구수준, 보유기술인력의 전문적 지식, 기술수준 및 경험과 공사관리 및 품질관리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 시·도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계약단위별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으로 예정된 공사중 1건이상을 지정한다.

② 공사발주관서의 장은 총공사에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의 공사전부에 대하여 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전년도 2월말일까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를 지정하고 건설부장관 및 공사발주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전면책임감리시 담당직원의 업무) 영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지정한 소속직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공사와 관련된 민원업무
2. 공사발주관서의 장과 시공감리자와의 연락업무
3. 기타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현장상주감리자의 경력확인등) ① 감리전문회사는 공사발주관서의 장에게 현장에 상주하게 되는 책임시공감리자, 및 보조 감리자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사항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발주관서의 장은 경력사항확인서를 검토하여 당해 책임시공감리자 및 보조감리자가 당해 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리전문회사와 협의하여 이들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공사현상에 상주하게 되는 보조감리자의 수는 시공감리의 경우에는 2명이상으로, 전면책임감리의 경우에는 4명이상으로 하되, 당해 공사의 규모, 공종, 공사의 내용 및 성격 등을 감안한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감리전문회사 등록기간공고) 건설부장관은 매 2년마다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로 등록신청기간을 정하여 이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간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임원 및 보유기술자의 이력서·신원증명서
2. 대표자·보유기술자의 기술자격현황 및 자격증사본(기술자격증이 없는 고급기술자와 기술자는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당해 법인이 감리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
4. 자본금 및 준비금을 증빙하는 자료
5. 사무실보유를 증빙하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과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등)
6.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 공고

일 이후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19조(감리전문회사 등록증의 교부 및 사후관리) ① 건설부장관은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매 3년마다 1회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무관리상태가 부실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등의 신고) ① 감리전문회사가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부에 기재하고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 감리전문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한 때에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증을 건설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등록증 재교부신청등) ①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전문회사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재교부신청하여 등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건설부장관에게 구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등록증의 게시와 장부의 비치) 감리전문회사는 사무실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은 기재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대표자·임직원 및 보유기술자 이력카드
3. 기술자격자현황 및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4. 자본금 및 준비금에 대한 증빙자료와 회계장부
5. 사무실보유를 증빙하는 서류
6. 보유장비 명세서 및 증빙서류
7. 연간사업계획서
8. 감리계약체결현황 및 관계서류(상주배치 기술자현황등)

제23조(현지확인) 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이 있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사무실 확보 및 사용실태
 2. 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자력에 관한 사항
 3. 장비보유현황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비치현황
 5. 자본금현황 및 자산운용실태
 6. 기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4조(공사감독관의 업무)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월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정
 2.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위반에 대한 사항
 3.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 ② 공사감독관은 천재지변등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공사감독관은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등에 외거 공사를 감독하여, 용지보상업무를 지원한다.
- ④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표를 작성·정리 또는 비치하여 준공후 공사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류
 - 가. 공사명령부
 - 나. 공사감독일지
 - 다. 발생품질리부
 - 라. 관급자재수불상환 및 잉여자재보고
 - 마. 세부공정계획
 - 바. 품질관리시험성과대장
 2. 도표
 - 가. 공정표
 - 나. 천후표등 일기관계표
 - 다. 선정 및 관리시험표
 3. 기타
 - 가. 매물부분 검사조서 및 사진
 - 나.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
 - 다. 시공상세도
 - 라. 야장 및 사진첩등
- ⑤ 공사감독관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경미한 사항 이외에는 공사발주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 ⑥ 공사감독은 시공자가 공사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문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착수보고
 2. 공사시공측량보고
 3. 공사기성부등 검사원
 4. 관급자재 대체사용신청
 5. 설계변경 요청원
 6. 준공기한연기원
 7. 준공검사원
 8.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요청
 9.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등 서류
- ⑦ 공사감독관은 현장에 배치되는 시공자의 현장대리인 및 그의 기술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사항확인서를 검토하여 당해 현장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공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현장대리인의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발주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5조(시공감리시 공사감독관의 업무) ① 시공감리시 공사감독관은 제24조에서 규정한 업무이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감리가 계약대로 되고 있는 자의 확인
 2. 시공감리자와 시공자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정
 3. 공사감리일지의 수시확인
 4.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시공감리자에게 요구한 사항의 이행여부의 확인
- ② 시공감리시 공사감독관은 시공감리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적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감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2. 공법의 변경
 3. 기술적 문제의 해결
 4. 기성고 사정
 5. 제24조 제6항각호의 사항

③ 시공감리시 공사감독관이 영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가 설계도서·시방서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5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시공감리자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시공감리시 공사감독은 공사진행중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책을 시공감리자와 협의하여 강구하는 등 시공감리자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6조(공사안내표지판등) ① 공사발주관서의 장은 공사의 착수시에 공사의 내용을 알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안내표지판을 공사구역의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발주관서의 장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대상규모이상인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구역의 보기 쉬운 위치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등 여건상 곤란한 경우에는 준공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표지에는 공사명, 공사기간, 시공회사(현장대리인), 감리대상공사인 경우 감리전문회사(책임시공감리자), 공사발주관서(공사감독관) 및 설계자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제27조(시공평가) 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사발주관서의 장은 시공평가단을 구성하여 당해 연도에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 시공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공평가단은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임

명하는 3인(단장포함)이상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시공평가는 공사(계속비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된 공사는 전체공사를 말한다)가 준공되었을 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시공중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준공시 실시하는 시공평가결과에 40%의 비율범위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④ 시공평가의 기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하며, 시공중 평가의 기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한다.

⑤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영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평가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총괄표와 공사건별 시공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하자발생보고) 공사발주관서의 장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평가를 실시한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하자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이상 하자를 발생시킨 공사는 즉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시공능력평가) 영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건설업자별로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평균한 점수(“평균점수”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가감하여 산정한 결과(이하 “평가점점”이라 한다)로써 평가한다.

1. 최근 3년간 준공한 공사의 평균하자발생비율에 따라 평균점수에서 다음 점수를 감산한다.

| 하 자 발 생 율 | 감점점수 |
|-------------------------------------|------|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하일때 | 0.5 |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100분의 5증가 때 | 0.5 |

2.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때 회마다 평균점수에서 0.5점씩을 감산한다.

3. 건설기술개발투자비를 영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금액 이상을 당해 연도에 투자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에서 0.5점을 가산한다.

4. 최근 3년 이내의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평가결과 가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에서 0.5점을 가산 또는 감산한다.

제30조(우수건설업자지정) ① 영 제59조 제1항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는 전체대상건설업자의 5%이내의 범위내에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간의 평가평점의 평

(별표 1)

기술제안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사항 | 배점범위 | 평가방법 |
|----------------------|-----------------------------|------|--|
| 1. 회사의
경실실태 | - 자기자본이익율 | (10) | ○ 상대평가
- 자기자본이익율과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해당분야 수주실적은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자 기준
- 부채율은 가장 낮은 자 기준 |
| | - 부채율 | (2) | |
| | - 신기술개발 및 기술개발
투자실적 | (2) | |
| | - 해당분야 수주실적 | (4) | |
| 2. 참여
기술자 | - 자격증 | (10) | ○ 상대평가
구분 배점
합계 |
| | - 해당분야 경력 | (20) | |
| | - 해당분야 참여참여 실적 | (20) | |
| | | | |
| 3. 작업계
계획 및
수법 | - 과업수행계획 및 수행기
법 | (20) | ○ 상대평가
구분 배점
합계 |
| | - 과업수행체계 및 인력구
성 | (10) | |
| | - 보유장비 및 프로그램등
기타 필요한 자료 | (10) | |
| | | | |
| 4. 기타 | -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 10 | ○ 절대평가
- 전차용역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
자)가 없으면 : 50%
- 전차용역시행후 : 3년 이내 100%, 3
년경과 5년 이내 70%, 5년 이상 10년
30%
- 국토 및 지역계획, 하천정비기본계
획 등 종합계획과 연관된 용역 : 50%
- 전차용역시 공동도급인 경우는 도급
비율 적용 |
| | - 전차용역과 연계된 용역
인 경우 | 10 | |
| | | | |
| | | | |

*1) 상대평가시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매정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한다.

균이 90점이상인 자를 선정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건설업자가 될 수 없다.

1. 최근 5년간 시행한 공사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하자가 발생한 자
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후 5년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건설업법에 의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최근 2년이내에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최근 3년간 시행한 공사중에서 시공평가결과가 80점이하로 평가된 자
6. 최근 3년간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킨 자로서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설계심사위원회 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형공사공고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3조(중앙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제3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로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건설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별표3마목중 “우수시공업자”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한다.

감리전문회사 보유장비기준

(별표2)

| 구분 | 장비명 | 기준 |
|----------|-------|---|
| 시공관리전문회사 | 전자계산기 | 주변가가를 갖춘 퍼스널 컴퓨터 16비트(XT)급이상(보조 기억장치로 하드디스크 20MB 이상 내장) |
| | 측량기 | 광파측정기, 트랜시트, 레벨 각 1대이상 |
| | 시험장비 | 골재시험장비, 토질시험장비(무수시험기, 압밀시험기, 전단 시험기, 일축압축시험기, 삼축압축시험기를 제외한다), 콘크리트 시험장비, 아스팔트 시험장비, 콘크리트 Test Hammer, 밀도·함수량측정기, 철근 탐지기 |
| | 전자계산기 | 주변가가를 갖춘 퍼스널 컴퓨터 16비트(XT)급이상(보조 기억장치로 하드디스크 20MB 이상 내장) |
| 건설관리전문회사 | 측량기 | 트랜시트, 레벨 각 1대이상 |
| | 시험장비 | 골재시험장비, 콘크리트 시험장비, 광파측정기, 액체비중계, 도막두께측정기, 목재함수율측정기, 콘크리트 Test Hammer, 철근탐지기, 타일인발시험기 |
| | 전자계산기 | 주변가가를 갖춘 퍼스널 컴퓨터 16비트(AT)급 이상(보조 기억장치로 하드디스크 20MB 이상 내장) |
| | 측량기 | 트랜시트, 레벨 각 1대이상 |
| 건설관리전문회사 | 시험장비 | 만능시험기(용량1톤), 코어채취기, 골재시험장비, 콘크리트 시험장비, 광파측정기, 액체비중계, 도막두께측정기, 목재 함수율측정기, 콘크리트 Test Hammer, 철근탐지기, 타일 인발시험기 |
| | 전자계산기 | 주변가가를 갖춘 퍼스널 컴퓨터 16비트(AT)급 이상(보조 기억장치로 하드디스크 20MB 이상 내장) |
| | 측량기 | 트랜시트, 레벨 각 1대이상 |
| | 시험장비 | 만능시험기(용량1톤), 코어채취기, 골재시험장비, 콘크리트 시험장비, 광파측정기, 액체비중계, 도막두께측정기, 목재 함수율측정기, 콘크리트 Test Hammer, 철근탐지기, 타일 인발시험기 |

*주1: 시험장비의 종류는 영 별표2의 구분에 의한다.

□ 바로잡습니다.

본지 8903호 p.38~p.52에 게재한 울산대 成仁洙교수의 연재물 “외국의 현대건축사 소개” 3회분 『컴퓨터피아와 컴퓨터도비아』의 내용 중 p.39 두째칸 21째줄 “Apple 호환기종...” 부터 p.40 두째칸 5째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있다”까지의 내용은 p.40 세째칸 26째줄 “활발하지 못하고 있다. 삼보 컴퓨터”가 다음에 삽입되어야 한 내용이었으나 조판상의 실수로 내용순서가 바뀌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 편집자 주 —



▲ 제8회 이사회



▲ 조사·검사업무에 관한 대책회의

제8회 理事會 개최

본 협회 이사회가 宋基德회장 주재로 부회장, 이사, 감사, 서울지부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6월 1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순에 따라 전회 회의록승인,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으며, 부의안건 협의가 있었다. 주요안건의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附議事項〉

案件: 윤리위원회 결정사항 승인의건
處理: 다음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함.
案件: 건축법령연구소 직원채용 승인의 건
處理: 연구원 2인 채용승인
案件: 강원지부 사무국장 승진임원 승인의 건
處理: 權泰益을 사무국장으로 승진 임용기로 승인함
案件: 제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處理: 인사, 보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개정(안) 승인
案件: 건축위원회 연구보고서 발간에 관한 건
處理: 다음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함.

調査, 檢査業務에 관한 대책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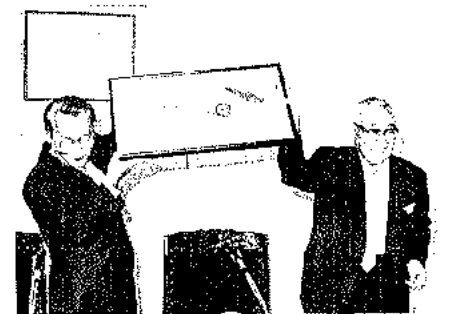
본 협회 宋基德회장은 현재 건축사에게 위임되어 시행되고 있는 건축행정에 필요한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 업무에 있어 야기되는 문제점의 개선과 국민편의위주 건축행정의 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난 6월 1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조사, 검사업무에 관한 대책회의를 갖고 그에 대한 시행방법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법제위원회 위원 및 서울지부 분회장 등 관계인 다수가 참석하여 열린 이날 회의에서 宋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축관계법 개정으로 건축사 처벌규정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건축사 모두가 힘을 모아 화합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으며 법제위원장은 법개정 시기등 조사 및 검사업무에 대한 설명에서 「위법보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건축수보다 감리자 처벌이 강화되어 있는 현 실정」을 설명하였다.

이어 참석자의 폭 넓은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법제위원회에서는 토론된 내용을 수렴하여 건축관계법령 개정시 회원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반영할 것을 약속하며 회의를 마쳤다.

日本建築士會連合會 群馬支部 本協會 訪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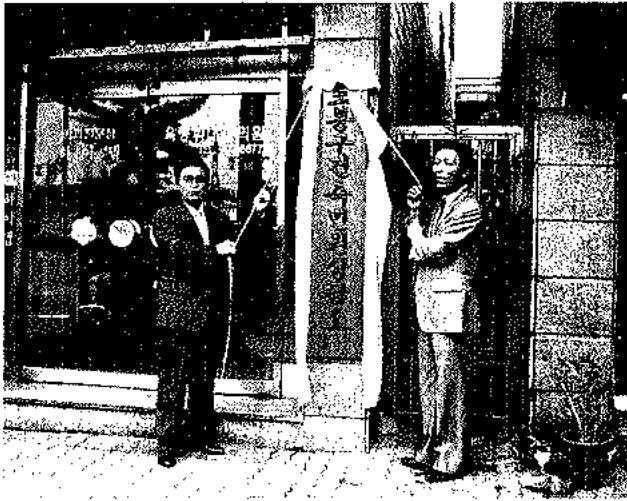
일본 건축사회연합회 群馬支部 小野里光明 會長(연합회 부회장)은 회원 20명과 함께 지난 6월30일 본 협회를 방문하고 양국 건축사 상호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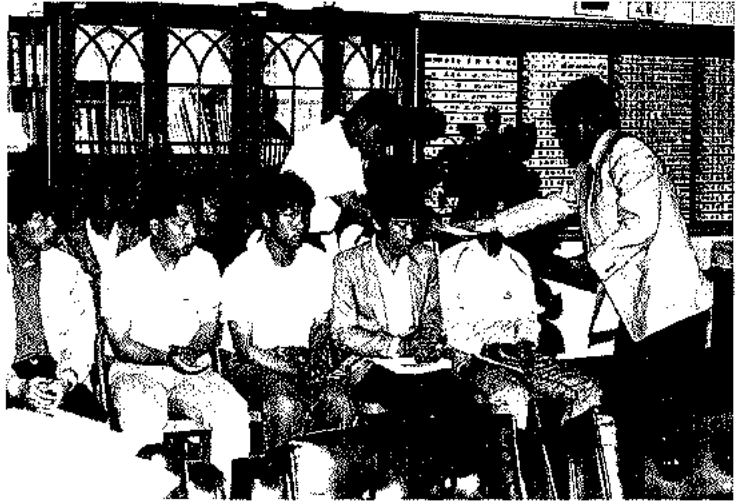
▲ 기념품을 교환하는 韓日 양국 대표들



▲ 本協會 방문 기념촬영 중인 日本 群馬支部 建築士 일행



▲ 서울지부 도봉구 건축민원상담실 현판식



▲ 인천지부는 지역내 건축전공학생들에게 총 3백8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서울特別市支部(會長 李永熙)

『건축민원상담소』설치 운영

서울特別市支部는 지난 6월 9일 지부에 소속된 도봉분소에 건축민원상담소를 운영코자 지부회장및 관계인사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갖고 건축민원에 관한 상담업무에 들어갔다.

서울시의 건축민원 업무개선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준공처리 1건에 1인 담당제를 확립키위함은 물론 건축허가시 서류를 검토함에 있어 5층 이하로서 연면적 3,300㎡이하의 건축물은 협회검토로서 갈음하도록 시행안이 개선됨에 따라 지부에서는 지난 5월 1일 부터 도서검토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검토위원으로 회원이 윤번제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건축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각분소별로 건축민원상담소를 설치하였으며, 상담자는 건축사 1인과 관계공무원 1인이 상담에 응하고 있다.

仁川直轄市支部(會長 鄭昌奎)

獎學金 전달

仁川直轄市支部는 지난 5월 25일 지부 회의실에서 '89년도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주환군등 12명에게 총 장학금 3백 80만원을 전달하였다. 총장의 추천으로 대학생 4명에게 각 50만원, 전문대학장 추천으로 전문대생 2명에게 각 30만원, 학교장 추천으로 고등학생 6명에게 각 20만원씩이 전달된 이날 장학금 수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주환(인하대학교 건축과4년)
- 오용우(인하대학교 건축과4년)
- 주영균(인천대학교 건축과3년)
- 허귀정(인천대학교 건축과2년)
- 조성복(인하공업전문대학 건축과2년)
- 명안일(인천전문대학 건축과2년)
- 이인국(대원공고 건축과3년)
- 이동준(대원공고 건축과3년)
- 이상석(운봉공고 건축과2년)
- 김태호(운봉공고 건축과2년)
- 김선호(인천기계공고 건축과3년)
- 최정락(인천기계공고 건축과2년)

大田直轄市支部(會長 康祐植)

日 結緣支部 會員 來訪

大田直轄市支部는 지난 6월 15일 지부와 의 결연 관계가 있는 일본 静岡縣建築士會 浜松支部 金子桂治支部長 과 회원 13명의 내방을 받고 상호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내방 당일에는 康祐植 지부회장덕과 전임지부장대를 차례로 방문하여 우리의 주거환경과 생활풍습을 두루 살펴보고 친목을 다진 한편 16일에는 관광 및 친선 골프대회를 갖었으며,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지부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 넓은 논의가 있었다.

京畿道支部 (會長 李一潤)

『경로소연회』

京畿道支部는 웃어른을 공경하는 기풍을 조성하며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책으로 지난 6월16일 지부에 소속한 원로회원(추대회원)을 초청하여 수원삼풍농원에서 경로소연회를 베풀었다.

31명의 원로회원이 참석한 이날 경로소연회는 푸짐한 음식을 대접하는 등 경로효친을 위한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 대전지부를 방문한 일본 히마키지부 건축사들과의 친선골프대회



▲ 경기지부의 경로소연회

'89. 신입회원의 오리엔테이션



▲ 경북지부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慶尙南道支部 (會長 金東準)

新入會員『오리엔테이션』

慶尙南道支部는 지난 6월 23일 신입회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친목을 돈독히하였다.

지부임원과 각 분소회장이 참석한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회원상정립과 건축사 품위보전등에 대한 내용으로 건축사간의 인화단결을 다짐하였다.

다같이 건전소비생활 운동을 전개합시다

국민소득의 증대와 개방화 시대에 따른 자율화 과정에 편승하여 요즈음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사치와 낭비성 과소비는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이끄는 침경으로서 사회의 위화감과 위기를 조성하는 큰 장애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범국민적 운동으로서 건전한 국민 소비생활의 정착으로 국민 계층간의 화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건전소비 생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추진방침

- 고위공직자, 사회지도층, 부유층부터 솔선수범하여 사치 낭비풍조를 근절하고 사회 각층에 파급시켜 전국민의 근검절약 기풍조성
- 자율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되며 각 시·도지부에서 적극지원
- 반복·지속적 계도및 홍보로 건축계 실천분위기조성
- 과소비조장 원천적 유인 요인을 제거토록 제도적인 개선과 행정조치 강구

제5회 아카시아토론회 참가안내

(ARCASIA FORUM)

본 협회는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 ARCASIA)와 태국 건축사 협회(THE ASSOCIATION OF SIAMESE ARCHITECTS, ASA)가 10. 21-22까지 태국이 방콕에서 "21세기의 건축 양식"이라는 주제를 갖고 주최하는 아카시아 토론회(ARCASIA FORUM)에 많은 회원이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카시아 토론회는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的重要한 행사 가운데 하나로서 세계의 유명건축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지역의 건축관련정보 및 문제점들을 토론하게 될 것이다. 제1회 토론회는 1982년 "건축 혁신"이라는 주제로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되었으며, 제2회 토론회는 "아시아의 주체성"이라는 주제로 1984년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제3회 토론회는 "아시아 건축의 설계방향"이라는 주제로 1986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4회 토론회는 198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나의 건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벌인 바 있습니다.

본 아카시아 토론회는 대회 주제에 따른 다양한 발표형식을 통해 모든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본 대회를 전후로하여 인근 국가의 유명 건축을 견학할 수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 주 관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 여행기간 : '89.10.20-10.30(10박 11일)
- 방문국가 : 태국, 호주, 뉴질랜드(일정표 별첨)
- 참가자격 : 전 회원(가족 동반 가능)
- 참가인원 : 30명
- 여행경비 : 1,998,000원(여권, 비자 인지대 및 소양교육비 별도)
- 등 록 비 : 미화 180불 (토론회 참가자에 한함)
- 신청마감 : '89.7.30까지(본 협회 기획과, 581-5711~4)

제5회 아카시아 토론회 참가 일정표

| 구 분 | 일 자 | 행 선 지 | 장 소 | 숙박호텔 |
|-------|---------------|--|------|-------------------|
| 제 1 일 | 10. 20
(금) | 서울 출발-방콕도착
호텔 CHECK IN | 태 국 | 센츄럴
프라자
호텔 |
| 제 2 일 | 10. 21
— | 아카시아 토론회 참석
주제: 21세기의 건축 양식 | | |
| 제 3 일 | 10. 22 | 장소: 방콕 센츄럴 프라자 호텔 | | |
| 제 4 일 | 10. 24
(월) | 방콕 출발-시드니 도착
호텔 CHECK IN | 호 주 | 하얏트
또는
동급호텔 |
| 제 5 일 | 10. 24
(화) | 캔버라 향발
국회의사당, 그리핀 호수,
전쟁기념박물관 등 관광 | | |
| 제 6 일 | 10. 25
(수) | 시드니 향발
오페라하우스, 허버브리지,
유람선 관광 | | |
| 제 7 일 | 10. 26
(목) | 호주 출발-뉴질랜드 도착
와이토모 동굴 경유 로토루아 도착 | 뉴질랜드 | 하얏트
또는
동급호텔 |
| 제 8 일 | 10. 27
(금) | 와카레와레와마리오 민속촌, 송어
양식장 양털깎기 등 관광 | | |
| 제 9 일 | 10. 28
(토) | 오클랜드 향발
에덴 동산, 허버브리지 등 관광 | | |
| 제10일 | 10. 29
(일) | 오클랜드출발(시드니경유)-동경 행
(기내 일박) | | |
| 제11일 | 10. 30
(월) | 동경 경유-서울 도착 | | |